



Title	近世期日朝対訳資料の研究 — 「隣語大方」を中心に —
Author(s)	金, 文姫
Citation	大阪大学, 2019, 博士論文
Version Type	VoR
URL	https://doi.org/10.18910/72341
rights	
Note	

The University of Osaka Institutional Knowledge Archive : OUKA

<https://ir.library.osaka-u.ac.jp/>

The University of Osaka

博 士 論 文(2018年度)

近世期日朝対訳資料の研究
－「隣語大方」を中心に－

大阪大学大学院言語文化研究科

言語社会専攻

金 文姫

博 士 論 文

題目 近世期日朝対訳資料の研究
－「隣語大方」を中心に－

提出年月 2018年12月

言語文化研究科言語社会専攻

氏名 金 文 姫

博士論文要旨

本論文は、近世期の日本語と朝鮮語の対訳資料、とくに江戸から明治にかけて日朝両国において最も広く用いられた資料のひとつである「隣語大方」について、文献学的考証と言語学的分析をおこなったものである。

従来検討が不十分であった「隣語大方」の所拠資料のひとつ「韓牘集要」をとりあげ、歴史記録類との照合を通じて、所収書簡の成立年や発信者・受信者等の考証、「隣語大方」の各文例との関係等について考察した。

つぎに、「隣語大方」の言語学的分析として、人称代名詞、とくに一・二人称代名詞をとりあげ、文末語尾の丁寧度との対応の観点から分析を試みた。

また、以上の「隣語大方」に対する研究の補編として、従来学界に知られていなかった新資料「韓語覚書」をとりあげ、文献学的考証と言語学的分析をおこなった。この新資料は、対馬歴史民俗資料館に所蔵される『信使并譯官聘問之次第（仮題）』に附として収録されたもので、元禄9年(1696年)ころに成立したと見られ、そのカナ書き朝鮮語からは当時の朝鮮語の音韻・音声的状况が知られるものと期待される。

第2章では、近世期におこなわれた日本語および朝鮮語の対訳資料、とくに日本において成立した朝鮮語学書について概観した。近世期の日本においては、主として対馬および薩摩苗代川において朝鮮語の学習がおこなわれたが、対馬および薩摩苗代川において成立・伝来した朝鮮語学書の「全一道人」、「朝鮮語訳」、「交隣須知」、「隣語大方」、「講話」、「物名」、「韓語覚書」、「韓語訓蒙」、「漂民対話」、「惜陰談」、「和韓問答」、「韓牘集要」、「対談秘密手鑑」などをとりあげ、その書誌的事項と先行研究について確認した。

第3章では、近世期の日朝対訳資料のうちから「隣語大方」をとりあげ、その所拠資料たる「韓牘集要」との照合を通じて、文献学的考証をおこなった。まず、「韓牘集要」について、歴史記録類との照合を通じて、所収書簡の成立年や発信者等の考証を実施した。すなわち、「韓牘集要」の文例にあらわれる「対馬島失火」「天銀事」等の事件や「敏甫」「子淳」等の人物名を手掛かりに、その文例の成立年、発信者等を明らかにした。つぎに、「隣語大方」と「韓牘集要」の文例を逐一照合し、すべての対応例を明示し、「隣語大方」巻4(朝鮮刊本)の文例の多くが「韓牘集要」に由来するものであることを指摘した。この検討・考察により、従来未解決であった「韓

牘集要」の文例の成立過程が解明され、「隣語大方」の文例の歴史的淵源の一部が具体的に明らかになったと信じられる。

第4章では、「隣語大方」の言語学的検討として、日本語および朝鮮語の人称代名詞の使われ方を、文末語尾の丁寧度との対応の観点から分析した。

従来、近世期の日朝対訳資料に基づいた人称代名詞の研究は、もっぱら朝鮮の倭学訳官と日本人との対話を内容とする「捷解新語」を対象としておこなわれてきたが、その他の諸資料についても順次検討を加えていく必要がある。本章ではその一環として「隣語大方」を取り上げ、資料の性格の違いによって、従来とは異なった方法で分析した。すなわち、「捷解新語」はストーリーを持つ連続した対話から成っているために、対話の場面や話し手・聞き手を容易に推測できる。よって、従来の研究は、該書のストーリーから特定される話し手・聞き手との関連から人称代名詞の分析をおこなってきた。しかしながら、「隣語大方」は断片的な文例を無秩序に羅列したものでストーリーがないため、それぞれの文例が、だれがだれにどのような場面で言った言葉なのか、特定できないことが多い。よって、本章では、話し手・聞き手との関連から人称代名詞を考察することを断念し、テキストの他の部分、すなわち、文末語尾の丁寧度との関連に着目して分析を試みた。日本語・朝鮮語ともに、人称代名詞と文末語尾の丁寧度との間に相関関係が観察されるが、日本語に比して朝鮮語の人称代名詞の各語はカバーする文末語尾の丁寧度が広いことを報告した。

以下、「隣語大方」に現れる人称代名詞を文末語尾の丁寧度との関連から分析した結果である。

(1)朝鮮語の一人称代名詞の複数である「우리」は、①ㅎ(ㅎ)ㅂㅅ체、②ㅎㅂㅅㅅ類、ㅎㅂㅅ類、④ㅎ여라体にわたり現れ、「우리들」は、①ㅎ(ㅎ)ㅂㅅ체、②ㅎㅂㅅㅅ類、ㅎㅂㅅ類で現れる。それにより、複数の「우리」は、丁寧からぞんざいな文末語尾にわたり現れ、使用範囲が広いことが分かるが、「우리들」は、丁寧な文末語尾としてのみ現れ、「우리」より丁寧さが高いとも考えられるが、ぞんざいな文末語尾がほとんど現れない「隣語大方」の資料上の制約による可能性もあるため、さらなる調査・考察が必要である。

(2)「明治刊本」には「其元、其元様」が「アナタ」に交替されたため、「アナタ」の使用が増えたが、これから具体的に「アナタ」の役割がどのように変わったかを考察する必要がある。

(3)日本語に比して、朝鮮語の一・二人称代名詞の各語はカバーする文末語尾の丁寧度が広い。日本語の一・二人称代名詞は、朝鮮語の一・二人称代名詞より、その種類が多様であることが特徴である。

第5章では、対馬歴史民俗資料館に所蔵される『信使并譯官聘問之次第（仮題）』の附「韓語覚書」の母音と子音の朝鮮語カナ表記について調査・考察をおこなった。

一体カナで表記された朝鮮語の資料は、ハングルで表記された本国資料からは窺い知れない音韻・音声的情報を伝えることがあり、従来から「全一道人」、「朝鮮語訳」などの朝鮮語カナ表記資料が朝鮮語および日本語の音韻史資料として利用されてきた。ここに取り上げる「韓語覚書」もそれらの既存資料に匹敵する資料的価値を有するものと予想されるが、本章では、母音と子音部分の転写システムについて、カナ表記とハングル表記復元形とを対照しつつ検討した。なお、必要に応じて適宜、既存の朝鮮語カナ表記資料とも比較した。そして、本書が、既存の朝鮮語カナ表記資料とおおむねは類似した傾向を示す一方で、子音の部分では「ㄷ(d)」口蓋音化を過剰訂正した特異な例も散見され、朝鮮語東南方言の特徴を顕著に示す独自性も有することなどを主張した。

まず、「韓語覚書」の朝鮮語カナ表記の母音について考察した。考察が不十分であるが、特徴をまとめると以下のようなものである。まず、単母音については、以下の点が指摘できる。

(1)第一音節の「・」の非音韻化の過程： 「韓語覚書」の第一音節「・」は、「高麗詞之事」、「全一道人」、「朝鮮語訳」とおおむね、同じ傾向を示し、非音韻化が進行しつつある途上の段階を反映している。一方、これら資料よりも後代に成立したと見られる「物名」に比すれば、「韓語覚書」はより古い状態を反映していると言える。

(2)「ㅏ(a)」と「ㅜ(u)」を表すカナの後ろに「ㄱ」を付けた表記は、中期語の声調の上声あるいは長音を表すものと見られる。しかし、上声に由来しない単語も長音化している例もある。この長音表記は、「全一道人」にも同じ形態が見られるが、「朝鮮語訳」には見られない。

(3)「ㅑ(ə)」が、第2音節以下で陽母音（低舌母音）に傾いた傾向が見られる（例：「ㅑ」がア段のカナに対応するもの）。「全一道人」、「朝鮮語訳」も同じ傾向が見られる。

つぎに、上向二重母音については、以下のごとく、単母音化が進みつつある兆候が観察される。

(4) 「ㄹ(yə)」と「ㄹ(yəi)」は、語頭・非語頭音節で、おおむね、エ段のカナが当てられた。これは「ㄹ」が前舌化し、[ə]が[e]に変化したことを示すものと見られ、二重母音の単母音化がある程度進んだと考えられる。「全一道人」、「朝鮮語訳」も同じく、「ㄹ」と「ㄹ」の単母音化が進んでいる。

一方、下向二重母音については、まだ、単母音化が起こっていない状態が観察されるが、後続子音との関係において、次の特徴的現象が指摘できる。

(5) 「韓語覚書」、「全一道人」、「朝鮮語訳」で、二重母音「·ㅣ」(ei)の後ろに終声の「ㄱ(g)」や「ㅇ(ŋ)」がくると、「ㅣ」(i)が脱落する現象が同じく観察される。

つぎに、「韓語覚書」の子音につき、「全一道人」、「朝鮮語訳」と比較しながら考察を試みた。その中でも「韓語覚書」に目につく特徴は以下のようなものである。

(1)日本語濁音の鼻音性の喪失過程：朝鮮語の「ㄱ」をカナ表記する場合、「ガ行音」が当てられるのは、鼻音が前接する場合に限られるが、朝鮮語の「ㄷ」をカナ表記する場合は、鼻音が前接しない場合においても「ダ行音」が当てられた例がある。これは日本語の濁音の歴史的変遷過程と関連があるものと見られる。

安田章(1973:299-302)は、「捷解新語」における「ガ行音」と「ダ行音」に対するハングル音注の違いに基づき、日本語濁音の鼻音的要素の喪失は「ガ行音」よりも「ダ行音」において先に起こったとの推論を提示している。「韓語覚書」にみられる「ㄱ」と「ㄷ」に対するカナ表記の如上の違いは、「捷解新語」に見られる現象と軌を一にするものであり、当時の日本語濁音において、「ガ行音」が未だ鼻音性をほぼ保持していたのに対し、「ダ行音」は徐々に喪失していく過程にあったことを示すものと考えられる。

(2)口蓋音化の過剰訂正：「韓語覚書」に現れる「뽀이라」は、「ㄷ(d)」口蓋音化が起こった形態の「뽀지라」(トチラ)のみではなく、「トギラ」と「トキラ」にも現れている。これは、「뽀이라」が「ㄷ」口蓋音化の現象が起こった「뽀지라」を元の音に回帰させようとしたが、「ㅌ(j)」の元の音である「ㄷ」に回帰させずに、「ㅌ」を

「ㄱ(g)」口蓋音化(ㄱ→ㅈ)が起こった結果と誤解し、「ㄱ」の方に誤って回帰させる“過剰訂正”が起こったのである。これは韓国の東南方言に現れる音韻・音声の特徴である。

(3)語頭初声の「ㄴ」・「ㄹ」のoffglide現象：語頭初声の「ㄴ」に「ダ行音」が当てられた例と語頭初声の「ㄹ」に「バ行音」が当てられる例が現れる。これは、朝鮮語の鼻音の「ㄴ」と「ㄹ」が異音として出わたりoffglideの破裂音^[n]dと^[m]bをとまなう場合があることと関連しているものと見られる。

以上を要するに、本資料の朝鮮語カナ表記の母音と子音は、「全一道人」、「朝鮮語訳」とほぼ同時期の朝鮮語の音韻・音声を反映した資料として、位置づけられると言える。「韓語覚書」の母音と子音の朝鮮語カナ表記は、ハングルによる本国資料からはうかがい知れないその当時(元禄9年(1696年)ころ)の朝鮮語の音韻・音声についての情報を提供するものと期待される。

如上の本論文の考察により、「隣語大方」の言語資料的価値を一層明らかにするとともに、新資料「韓語覚書」を学界に紹介することにより、近世期日朝対訳資料の研究にわずかながらも一歩を進めることができたと考える。

논문요약

본 논문은 근세기 일본어와 한국어 대역자료 중, 특히 에도시대부터 메이지시대에 걸쳐 일조 양국에서 널리 사용된 자료인 「隣語大方」에 관해, 문헌학적 고증과 언어학적 분석을 한 것이다.

종래 검토가 불충분했던 「隣語大方」의 소거자료 중 하나인 「韓牘集要」를 역사 기록류와 조합하여 수록 서간의 성립년대와 발신자·수신자 등을 고증하고, 「隣語大方」의 각 문례와의 관계 등에 관해 고찰했다.

다음으로, 「隣語大方」의 언어학적 분석으로써 인칭 대명사, 특히 일·이인칭 대명사를 문말어미의 정중도와 대응시키는 관점으로 분석했다. 또한, 「隣語大方」에 대한 연구의 보조편으로 종래 학계에 알려지지 않았던 신자료인 「韓語覺書」의 문헌학적 고증과 언어학적 분석을 했다.

이 신자료는 대마도 역사 민족 사료관에 소장되어 있는 『信使并譯官聘問之次第(仮題)』의 뒤에 붙어 있는 자료로, 겐로쿠 9년(1696년)경에 성립됐다고 보여지며, 가타카나로 쓰여진 한국어에서 당시의 한국어 음운·음성학적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된다.

제 2 장에서는 근세기에 만들어진 일본어 및 한국어의 대역자료, 특히 일본에서 성립된 한국어 학서에 관해 개관했다. 근세기 일본에서는 주로 대마도 및 사쓰마 나에시로가와에서 한국어 학습이 행해졌는데, 이곳에서 성립·전래된 한국어 학서인 「全一道人」 「朝鮮語訳」 「交隣須知」 「隣語大方」 「講話」 「物名」 「韓語覺書」 「韓語訓蒙」 「漂民対話」 「惜陰談」 「和韓問答」 「韓讀集要」 「対談秘密手鑑」 등의 서지적 사항과 선행 연구에 대해 확인했다.

제 3 장에서는 근세기 일조 대역 자료 중 하나인 「隣語大方」와 그 소거자료인 「韓牘集要」의 조합을 통해, 문헌학적 고증을 했다.

우선, 「韓牘集要」를 역사 기록류와의 조합을 통해, 수록 서간의 성립년대와 발신자 등의 고증을 실시했다. 즉, 「韓牘集要」의 문례에 나타나는 「対馬島失火」 「天銀事」 등의 사건과 「敏甫」 「子淳」 등의 인물명을 단서로, 문례의 성립년대, 발신자 등을 밝혔다. 다음으로, 「隣語大方」과 「韓牘集要」의 문례를 하나하나 조합하여 그 대응예를 명시하고, 「隣語大方」 권 4 (朝鮮刊本) 문례의 대부분이 「韓牘集要」에서 유래한 예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검토·고찰로 종래 미해결

이었던 「韓續集要」 문례 성립 과정이 해명되어 「隣語大方」 문례의 역사적 연원의 일부가 구체적으로 밝혀졌다고 믿는다.

제 4 장에서는, 「隣語大方」의 언어학적 검토로써, 일본어 및 한국어의 인칭 대명사의 사용법을 문말어미의 정중도와 대응 관점에서 분석했다.

종래, 근세기 일조 대역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인칭 대명사 연구는, 주로 조선의 왜학역관과 일본인과의 대화를 내용으로 하는 「捷解新語」를 대상으로 해서 행해져 왔지만, 이 외의 다른 자료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장에서는 그 일환으로 「隣語大方」의 자료적 성격의 차이로 의해, 종래와는 다른 방법으로 분석했다. 즉, 「捷解新語」는 스토리를 가지고 연속되는 대화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대화의 장면과 화자·청자를 쉽게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종래의 「捷解新語」 연구는 스토리에서 특징되는 화자·청자와의 관련성으로 인칭 대명사의 분석을 했다.

그러나, 「隣語大方」은 단편적인 문례를 무질서로 나열한 것으로 스토리가 없어서, 각각의 문례가 누가 누구에게 어떠한 장면에서 말한 말인지, 특정할 수 없는 것이 많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화자·청자와의 관련성으로 인칭 대명사를 고찰하는 것을 단념하고, 텍스트의 다른 부분, 즉, 문말 어미의 정중도의 관련성에 주목해서 분석했다. 일본어·한국어 모두 인칭 대명사와 문말 어미의 정중도와 사이에 상관 관계가 관찰되는데, 일본어에 비해 한국어의 인칭 대명사는 대응하는 문말 어미의 정중도가 넓은 것을 보고했다.

아래는 「隣語大方」에 나타나는 인칭 대명사를 문말 어미의 정중도와 관련시켜 분석한 결과이다.

(1)한국어의 일인칭 대명사 복수형인 「우리」는 ①ㅎ(읍)쇼셔체、②ㅎ읍소류、ㅎ읍류、④ㅎ여라체에 걸쳐서 나타나고, 「우리들」은 ①ㅎ(읍)쇼셔체、②ㅎ읍소류、ㅎ읍류로 나타난다. 이로 인해, 복수형 「우리」는 상대경어법의 높은 단계의 문말 어미에서 낮은 단계의 문말 어미에 걸쳐 나타나고, 사용 범위가 넓은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들」은 상대경어법의 높은 단계의 문말 어미에서만 나타나고, 「우리」보다 정중함이 높다고도 생각되지만, 낮은 단계의 문말 어미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隣語大方」의 자료상 제약에 의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사·고찰이 더 필요하다.

(2)「明治刊本」에는 「其元、其元様」가 「アナタ」로 교체되었기 때문에 「アナ

夕」의 사용이 늘었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アナ夕」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3)일본어에 비해 한국어의 일·이인칭 대명사가 대응하는 문말 어미는 상대경어법이 높은 단계에서 낮은 단계에 걸쳐 있다. 일본어 일·이인칭 대명사는 한국어 일·이인칭 대명사보다 종류가 다양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제 5 장에서는 쓰시마 역사 민족 자료관 소장 『信使并譯官聘問之次第(仮題)』의 뒤에 붙어 있는 「韓語覺書」의 한국어 가나 표기를 모음과 자음으로 나누어 조사·고찰을 했다.

가나로 표기된 한국어 자료는 한글로 표기된 본국 자료에서는 엿볼 수 없는 음운·음성적 정보를 전달한다. 「全一道人」 「朝鮮語訳」 등의 한국어 가나 표기 자료가 한국어 및 일본어 음운사 자료로서 이용되어 왔다.

본 장에서 다룬 「韓語覺書」도 기존 자료에 필적하는 자료적 가치를 가진다. 여기에서는 모음과 자음 부분의 전사 시스템에 대해, 가나 표기와 한글 표기 복원형을 대조하면서 검토했다. 필요에 따라 적당하게 기존의 한국어 가나 표기 자료와도 비교했다. 「韓語覺書」가 기존의 한국어 가나 표기 자료와 대부분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는 한편, 자음 부분에서는 「ㄷ(d)」 구개음화를 과잉 교정한 특이한 예가 산견되어, 한국어 동남방언의 특징을 현저하게 나타내는 독자성도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했다.

우선, 「韓語覺書」의 한국어 가나 표기의 모음에 대해 고찰했다. 미흡한 고찰이지만, 특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우선, 단모음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1)제 1 음절 「·」의 비음운화 과정: 「韓語覺書」의 제 1 음절 「·」는 「高麗詞之事」 「全一道人」 「朝鮮語訳」과 거의 같은 경향을 보이고, 비음운화가 진행되고 있는 도중 단계를 반영하고 있다. 한편, 이 자료들보다도 후대에 성립했다고 보여지는 「物名」과 비교하면, 「韓語覺書」는 「物名」보다 오래된 상태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ㄹ(ə)」와 「ㄴ(u)」를 나타내는 가나의 뒤에 「ㄱ」를 붙이는 표기는, 중기어의 성조인 상성 또는 장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인다. 그러나, 상성에 유래하지 않는 단어가 장음화한 예도 있다. 이 장음 표기는 「全一道人」에도 같은 형태

가 보이지만, 「朝鮮語訳」에는 보이지 않는다.

(3) 「ㄱ(ə)」가 제 2음절 이하에서 양모음(저설모음)으로 기울어진 경향이 보인다(例: 「ㄱ」가 「ア단」가나에 대응하는 것). 「全一道人」 「朝鮮語訳」에도 같은 경향이 보인다.

다음으로 상향 이중모음은 아래와 같이, 단모음화가 진행되어 가는 징후가 관찰된다.

(4) 「ㄷ(yə)」와 「ㄷ(yəi)」는, 어두·비어두 음절에서 거의 「ㄷ단」가나로 나타난다. 이것은 「ㄱ(ə)」가 전설화하여 [e]로 변화한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며, 이중모음의 단모음화가 어느 정도 진행했다고 보여진다. 「全一道人」 「朝鮮語訳」도 똑같이 「ㄷ」와 「ㄷ」의 단모음화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하향 이중모음은 아직 단모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가 관찰되는데, 후속 자음과의 관계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적 현상을 지적할 수 있다.

(5) 「韓語覺書」 「全一道人」 「朝鮮語訳」에서, 이중모음 「·ㅣ(ei)」의 뒤에 종성 「ㄱ(g)」이나 「ㅇ(ŋ)」이 오면, 「ㅣ(i)」가 탈락하는 현상이 똑같이 관찰된다.

다음으로 「韓語覺書」의 자음에 대해, 「全一道人」 「朝鮮語訳」와 비교하면서 고찰해 봤다. 이 중에서도 「韓語覺書」에서 눈에 띄는 특징은 아래와 같다.

(1)일본어 탁음의 비음성 상실 과정 : 한국어 「ㄱ」을 가나 표기할 경우, 「ガ行音」으로 나타내는 것은 앞에 비음이 있는 경우에만 나타나는데, 한국어 「ㄷ」의 가나 표기는 앞에 비음이 없는 경우에도 「ダ行音」으로도 나타난다. 이것은 일본어 탁음의 역사적 변천 과정과 관련이 있다고 보여진다.

安田章(1973:299-302)는 「捷解新語」에 나타나는 「ガ行音」과 「ダ行音」에 대한 한글 음주의 차이에 의거하여, 일본어 탁음의 비음적 요소의 상실은 「ガ行音」보다도 「ダ行音」에서 먼저 일어났다는 추론을 제시하고 있다. 「韓語覺書」에 보이는 「ㄱ」과 「ㄷ」에 대한 가나 표기의 차이는 「捷解新語」에 보이는 현상과 축을 같이 하는 것이며, 당시의 일본어 탁음에서 「ガ行音」가 아직 비음성을 유지하고 있던 것에 비해, 「ダ行音」은 서서히 상실되어 가는 과정에 있던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2) 구개음화의 과잉 교정 : 「韓語覺書」에 나타나는 「뽀이라」는 「ㄷ(d)」 구개음화가 일어난 형태인 「쁘지라(トチラ)」만이 아니라, 「トギラ」와 「トキラ」로도 나타난다. 이것은 「뽀이라」가 「ㄷ」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난 「쁘지라」를 원래 음으로 돌리려고 했으나, 「ㅈ(j)」의 원래 음인 「ㄷ」으로 돌리지 않고 「ㅈ」을 「ㄱ(g)」 구개음화(ㄱ→ㅈ)가 일어난 결과라고 오해하여 잘못해서 「ㄱ」으로 돌린 “과잉 교정”이 일어난 것이다. 이것은 한국의 동남방언에 나타나는 음운·음성적 특징이다.

(3) 어두 초성 「ㄴ」·「ㄹ」의 offglide 현상 : 어두 초성 「ㄴ」에 「ㄷ」행음을 붙인 예와 어두 초성 「ㄹ」에 「ㅂ」행음을 붙인 예가 나타난다. 이것은 한국어의 비음인 「ㄴ」과 「ㄹ」이 이음으로써 offglide의 과열음 [ʰd]과 [ʰb]을 수반하는 경우가 있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기의 사항을 요약하면 본 자료의 모음과 자음의 한국어 가나 표기는 「全一道人」 「朝鮮語訳」과 거의 동시대의 한국어 음운·음성을 반영한 자료라고 할 수 있겠다. 「韓語覺書」는 한글에 의한 본국 자료에서 엿볼 수 없는 당시(겐로쿠9년(1696년)경)의 한국어 음운·음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자료로 기대된다.

위와 같은 본 논문의 고찰로 인해, 「隣語大方」의 언어 자료적 가치가 한 층 더 명확해짐과 동시에 신자료인 「韓語覺書」를 학계에 소개함으로써, 근세기 일조 대역자료 연구에 작지만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目次】

第1章 序論	1
第2章 近世期日朝対訳資料の概観	3
1. 「全一道人」	4
2. 「朝鮮語訳」	5
3. 「交隣須知」	5
4. 「隣語大方」	7
5. 「講話」	11
6. 「物名」	12
7. 「韓語覚書」	12
8. 「韓語訓蒙」	13
9. 「漂民対話」	13
10. 「惜陰談」	14
11. 「和韓問答」	15
12. 「韓牘集要」	15
13. 「対談秘密手鑑」	15
14. 「崔忠傳」、「淑香傳」など小説類	17

15.	「倭語類解」	18
第3章	「韓續集要」と「隣語大方」	21
第1節	先行研究	21
第2節	「韓續集要」の成立過程について	21
2.1	対馬島失火	22
2.2	天銀事	26
2.3	「図書参判使差備官」	33
2.4	人物	36
2.4.1	「豚兒子淳」	36
2.4.2	「姪子敏甫」	37
第3節	「韓續集要」と「隣語大方」の照合	37
第4節	まとめ	47
第4章	「隣語大方」に現れた一・二人称代名詞	48
第1節	先行研究	48
第2節	朝鮮語の一・二人称代名詞と文末語尾の丁寧度の対応関係	49
2.1	一人称代名詞	50
2.2	二人称代名詞	55

第3節 日本語の一・二人称代名詞と文末語尾の丁寧度の対応関係	60
3.1 一人称代名詞	60
3.2 二人称代名詞	67
第4節 一・二人称代名詞と文末語尾の丁寧度の対応関係の日朝対照	74
4.1 一人称代名詞	74
4.2 二人称代名詞	78
第5節 まとめ	81
第5章 「韓語覚書」の朝鮮語カナ表記	83
第1節 母音の朝鮮語カナ表記について	84
1.1 単母音	85
1.1.1 「ㅏ」(a)	85
1.1.2 「ㅑ」(ə)	86
1.1.3 「ㅓ」(o)	88
1.1.4 「ㅕ」(u)	89
1.1.5 「ㅡ」(w)	90
1.1.6 「ㅣ」(i)	92
1.1.7 「ㅜ」(e)	93
1.2 上向二重母音	96

1.2.1	「ㅑ」 (ya)	97
1.2.2	「ㅓ」 (yə)	98
1.2.3	「ㅕ」 (yo)	99
1.2.4	「ㅠ」 (yu)	100
1.2.5	「ㅗ」 (wa)	101
1.3	下向二重母音	102
1.3.1	「ㅘ」 (ai)	103
1.3.2	「ㅙ」 (əi)	104
1.3.3	「ㅛ」 (oi)	106
1.3.4	「ㅜ」 (ui)	107
1.3.5	「ㅡ」 (wi)	108
1.3.6	「ㅣ」 (ei)	110
1.4	三重母音	113
1.4.1	「ㅟ」 (yəi)	113
1.4.2	「ㅠ」 (wəi)	115
1.5	まとめ	115
第2節	子音の朝鮮語カナ表記について	117
2.1	破裂音	117
2.1.1	ㄱ (g)	117

2.1.2	ㄷ (d)	123
2.1.3	ㅂ (b)	126
2.1.4	ㅋ (k)	129
2.1.5	ㅌ (t)	129
2.1.6	ㅍ (p)	130
2.2	破擦音	132
2.2.1	ㅈ (j)	132
2.2.2	ㅊ (c)	136
2.3	摩擦音	140
2.3.1	ㅅ (s)	140
2.3.2	ㅎ (h)	141
2.4	鼻音	143
2.4.1	ㄴ (n)	143
2.4.2	ㅁ (m)	145
2.4.3	ㅇ (ŋ)	147
2.5	流音 ㄹ (r)	148
2.6	その他	149
2.6.1	「ㄷ (z)」	149
2.6.2	語頭複子音ㅃ一系、ㅅ一系	150

2.7 まとめ	153
第6章 結論	155
参考文献	160
【資料編】	167
【資料編①】 「韓牘集要」	168
【資料編②】 「韓語覚書」	245

第1章 序論

本論文は、近世期の日本語と朝鮮語の対訳資料、とくに江戸から明治にかけて日朝両国において最も広く用いられた資料のひとつである「隣語大方」について、文献学的考証と言語学的分析をおこなったものである。該書は、朝鮮においては日本語学書として、また、日本においては朝鮮語学書として用いられた。

「隣語大方」の文献学的研究は、従来より学界の関心を引き、金沢庄三郎(1933)、小倉進平(1964)、安田章(1963、1966)、福島邦道(1969)、岸田文隆(2006b)など多くの先行研究があり、「隣語大方」の文例の検討や所拠資料「朝鮮語訳」との照合により、その成立経緯が徐々に明らかになりつつある。

本論文は、かかる成果を土台としつつ、従来検討が不十分であった所拠資料のひとつ「韓牘集要」をとりあげ、歴史記録類との照合を通じて、所収書簡の成立年や発信者・受信者等の考証、「隣語大方」の各文例との関係等について考察した。すなわち、「韓牘集要」の文例にあらわれる「対馬島失火」、「天銀事」等の事件や、「敏甫」「子淳」等の人物名を手掛かりにその文例の成立年等を明らかにするとともに、「韓牘集要」の文例を「隣語大方」のそれと照合することにより「隣語大方」巻4(朝鮮刊本)の文例の多くが「韓牘集要」に由来するものであることを解明した。この検討・考察により、従来未解決であった「韓牘集要」の文例の成立過程が解明され、「隣語大方」の文例の歴史的淵源の一部が具体的に明らかになったと信じられる。

つぎに、「隣語大方」の言語学的分析として、人称代名詞、とくに一・二人称代名詞をとりあげ、文末語尾の丁寧度との対応の観点から分析を試みた。その結果、日本語・朝鮮語ともに、人称代名詞と文末語尾の丁寧度との間に相関関係が観察されるが、日本語に比して朝鮮語の人称代名詞の各語はカバーする文末語尾の丁寧度が広いことが明らかとなった。

また、以上の「隣語大方」に対する研究の補編として、近世期に日本で成立した朝鮮語学書のひとつ「韓語覚書」をとりあげ、文献学的考証と言語学的分析をおこなった。該資料は、従来研究者の視野の外にあった新資料で、対馬歴史民俗資料館に所蔵される『信使并譯官聘問之次第(仮題)』に収録されているが、朝鮮語の単語や文を日本のカナで表記した部分がある。検討・考察の結果、該資料が元禄9年頃に書かれたと推測されること、そのカナ表記朝鮮語が、ハングルで書かれた本国資料からはうかがいしれない種々の音声・音韻情報を伝えており、ほぼ同時期に成立した「全一道

人」、「朝鮮語訳」のカナ表記朝鮮語と類似した特徴を示す一方で、ㄷ(d)口蓋音化の過剰訂正の例があらわれる等、朝鮮語東南方言の特徴も示し、特異性を有していることが明らかとなった。

如上の本論文の考察により、「隣語大方」の言語資料的価値を一層明らかにするとともに、新資料「韓語覚書」を学界に紹介することにより、近世期日朝対訳資料の研究にわずかながらも一歩を進めることができたと考える。

なお、論文末尾に、資料編として、「韓牘集要」の翻刻・和訳、「韓語覚書」の翻刻を付した。あわせ、該分野の研究者の閲覧に供したい。

第2章 近世期日朝対訳資料の概観

「隣語大方」の研究に先立ち、本章では、近世期におこなわれた日本語および朝鮮語の対訳資料、とくに日本において成立した朝鮮語学書について概観しておくこととする。

日本と朝鮮は、昔から両国間の貿易等を通じて交流をしてきた。両国では、互いに円滑な交流のため、日本語と朝鮮語の学習をおこない、そのため日本語・朝鮮語学習書がつくられた。

朝鮮は高麗・朝鮮時代に外国語の翻訳と通訳を担当する部署の司訳院を設置したが、司訳院では、「伊路波、消息、書格、童子教、雑語、本草、議論、通信、鳩養物語、庭訓往来、應永記、雑筆、富士、(倭語)老乞大、捷解新語、隣語大方(朝鮮刊本)」等が編纂・使用された¹⁾。

このような、諸学習書は「朝鮮資料」と呼ばれるが、「朝鮮資料」について、濱田敦(1970)と李康民(1996)は、以下のように説明している。

「朝鮮資料」とは、日本語の、特に歴史的研究に役立つべき資料の中、「朝鮮」にかかわるものを取り出して指すものであるが、それらは、単に、その外部的形式においてのみならず、内部的本質においても、共通した性格をもって、一つの類をなしていると認められるものである。ここで、わざわざ広く「朝鮮にかかわる」と云ったのは、それらが、必ずしも、朝鮮の地において朝鮮の人の手によってつくられた日本語学習書のみでなく、日本で、日本人の手によってつくられた、つまり、朝鮮語学習書などをも含めようとの意図に外ならない。

(濱田敦1970 : 37)

본래 朝鮮資料란 日本語 研究에 利用될 수 있는 朝鮮朝의 文獻(대부분의 경우 司譯院의 倭學書)을 총괄하여 이르는 말인데, 넓은 의미로는 江戸時代(17~19C)의 日本에서 만들어진 韓國語 學習書を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다 (引用者訳)

本来朝鮮資料とは、日本語研究に利用できる朝鮮時代の文献(多くの場合、司訳院の倭学書)を総括している言葉であるが、広い意味では江戸時代(17~19C)

1) これらの日本語学習書の詳細については、鄭丞惠(2003)を参照。

に日本で作られた韓国語学習書をここに含めることができる。

(李康民1996 : 89)

上記のように「朝鮮資料」は、朝鮮でつくられた日本語学習書のみでなく、日本でつくられた朝鮮語学習書も指している。本章では、とくにこの日本でつくられた「朝鮮資料」である朝鮮語学習書の概観をおこなうこととする。

日本の対馬と薩摩の苗代川では江戸期から明治初期にかけて、朝鮮語の学習がおこなわれ、それに答えるように朝鮮語学習書も数多くつくられた。

対馬藩は釜山の倭館で朝鮮と交易をおこなったが、そのために朝鮮語通詞を育成する必要があり、幾多の朝鮮語学習書が編纂された。また、薩摩藩においても、朝鮮から漂流民たちが流れてくるのが頻繁であって、その漂流民を取り調べるために朝鮮語通詞が必要であった。それで、慶長の役の時に陶工として日本に連れて来られた苗代川²⁾の朝鮮人の後裔らに通訳を担当せしめたが、苗代川では江戸時代末期に至るまで、通詞の養成がおこなわれ、多くの朝鮮語学習書が編纂された。

これらの朝鮮語学習書については、小倉進平(1964)、安田章(1966)、鄭光(1990)、李康民(1994、1996)、岸田文隆(2006a)など、数多くの先行研究がある。以下、それらに基づきつつ、対馬および苗代川において成立・使用された朝鮮語学習書のそれぞれにつき、具体的に書誌的事項等について述べることとする。

1. 「全一道人」

享保十四年(1729)雨森芳洲³⁾著。1冊、写本。滋賀県伊香郡高月町雨森区芳洲書院所蔵。登録番号は[第9番]。中国明代の汪廷訥の著した教訓書「(全一道人)勸懲故事」を朝鮮語に訳し、これに日本語訳文を配したもの。毎半葉11行で、朝鮮語本文をカタカナで表記し、一段下げて漢字ひらがな交りの日本語文を付す。そのカタカナ表記の朝鮮語文は当時の朝鮮語の発音を反映していると考えられ、18世紀初めの朝鮮語の音声・音韻資料としてとくに重要である。

2) 薩摩藩の苗代川は、現在鹿児島県日置郡東市来町美山と呼ばれているが、本来は薩摩藩伊集院村大字苗代川であった(鄭光1990:9)。

3) 安田章(1964:17-18)によると、「彼は寛文八年(1668年)五月近江国伊香郡雨森村に生まれた。少年の頃、伊勢の名医高森氏に医を学び、十八歳の時木下順庵の門に入り、元禄二年(1689年)四月江戸において対馬侯に聘せられた。彼二十二歳の時である。元禄六年(1693年)初めて対馬の土を踏み、爾来かの地において専ら文教を掌り、宝暦五年(1755年)八十八歳にして対馬は日吉の別荘で病歿した。彼が単に儒者としてでなく、特に朝鮮語や支那語に堪能であったことは周知の事実である」と述べている(括弧の中の西暦は筆者記す)。

「全一道人」についての研究には、安田章(1964)、宋敏(1986)、陳南澤(2003)、민병찬(2003)、허인영(2014、2015a、2015b)など多くがあるが、そのカタカナ表記の朝鮮語を利用した、音韻史研究が主流を占めている。

2. 「朝鮮語訳」

江戸中期の儒学者服部南郭⁴⁾が寛延三年(1750)に筆写したものが早稲田大学服部文庫に所蔵されている。図書番号は[イ17-2082-1~3]。写本、1帙3冊、序文なし。各冊の外題は、1冊と2冊が「対話篇」、3冊が「小説篇」である。3冊の末尾に、本文部分と同じ筆跡の識語あり。その識語の末尾に、「庚午之秋 元喬識」とある。

この学習書は全3冊であるが、第1冊は、カタカナ漢字交りの朝鮮語を発音通りに書き、その左横に一段下げひらがな漢字交りの日本語対訳を付す。第2冊は、ハングル漢字交りの朝鮮語本文を書き、その左横に一段下げひらがな漢字交りの日本語対訳を付す。第3冊小説篇は、「崔孤雲傳」を内容とするが、1・2冊と異なり、ほとんどがハングル表記でまれに漢字表記がみられる。

本書第1冊の朝鮮語カタカナ表記は、朝鮮語の実際の発音を反映していると考えられ、上記の「全一道人」と同様、18世紀初中葉の朝鮮語音韻史資料として重要である。ここを以って、本書についての先行研究も、朝鮮語音韻史の立場からこの資料を分析した研究⁵⁾が主流を占めている。また、「隣語大方」との比較対照、【倭館館守日記】などの歴史記録類との照合等の文献学的研究⁶⁾や、第3冊「小説篇」についての研究⁷⁾もなされている。

3. 「交隣須知」

「交隣須知」は、江戸期から明治初期にかけて日本で最も広く使われた朝鮮語学習書である。それゆえ、多くの異本が存在する⁸⁾。

(1)刊本

4) 岸田文隆(2006b:32)は服部南郭について、「名は元喬、号は南郭。京都生。天和3年(1683)9月24日生。宝暦9年(1759)6月21日没。元禄9年(1696)江戸に下り、はじめ柳沢吉保に仕えたが享保3年(1718)致仕。荻生徂徠に古文辞学を学び、多くの門弟に漢詩文・経学を教授し、殊に詩文に秀でた」と述べた。

5) 岸田文隆(2008、2010a)、박진완(2010)。

6) 岸田文隆(2006b、2009b、2009c)。

7) 箕輪吉次(2011a、2011b)。

8) 異本の一覧作成のため、斎藤明美(2002)、片茂鎮(2005)、片茂鎮・岸田文隆(2005)を参照した。

増補本系

- ①明治14年(1881)本：4巻。浦瀬裕校正増補。「交隣須知」
- ②明治16年(1883)本：4巻。浦瀬裕校正増補。「再刊交隣須知」
- ③宝迫本：4巻。明治16年(1883年)宝迫繁勝刪正。「交隣須知」
- ④明治37年(1904)本：1巻。前間恭作・藤波義貫共訂。「校訂交隣須知」

(2)写本

非増補本系

- ⑤京都大本：4巻4冊。各巻1冊の線装本。書写期不明であるが、文化・文政(1804年～)から天保・弘化(～1847年)頃か、京都大学文学部所蔵。
- ⑥沈寿官本：4巻の中に、巻1(部分、書写期不明)・巻3(2本、文政10年(1813年)写(文政本)・天保13年(1842年)写(天保本))・巻4(部分、嘉永5年(1852年)写)、沈寿官家所蔵。
- ⑦アストン文庫本：巻1(部分、書写期不明)。図書番号は[C-16]。ロシア東方学研究所サントペテルブルグ支所所蔵。

増補本系

- ⑧ソウル大本：3巻(巻2、3、4)。図書番号は[貴3870-11]。中村庄次郎書写(慶応4年(1868年)～明治6年(1873年)写)、前間恭作が模写した。ソウル大学校中央図書館所蔵。
- ⑨济州本：2巻(巻2、3)。書写期不明(明治13年(1880年)頃か)。東京大学小倉文庫所蔵。
- ⑩中村本：1巻(巻3)。書写期不明。中村幸彦氏所蔵。
- ⑪小田本：1巻(巻4)。寛政7年(1795年)小田幾五郎修正。東京大学所蔵(旧南葵文庫所蔵)。
- ⑫対馬本：1巻(巻1)。対馬歴史民俗資料館所蔵。
- ⑬アストン文庫本：巻1(弘化3年(1846年)以前写)・巻4(天保13年(1842年)写)。図書番号は[B-4]。Manual of Korean、vol. 1・2に収録される。ロシア東方学研究所サントペテルブルグ支所所蔵。
- ⑭アストン文庫本：巻1(部分、1885年写)・巻2(部分、アストン自筆、1885年写)。図書番号は[C-5]。『朝鮮語会話書(仮題)』に収録される。ロシア東方学研究所サントペテルブルグ支所所蔵。
- ⑮武藤文庫本：巻1。長崎大学附属図書館経済学部分館武藤文庫所蔵。

⑯武藤文庫本：巻3・4。長崎大学附属図書館経済学部分館武藤文庫所蔵。

⑰鍵屋歴史館所蔵本：4巻。小田幾五郎修正本の完本(まだ公開されていない)。

「交隣須知」は多くの学者により研究されたが、書誌事項の紹介⁹⁾を始め、系統を
探る研究¹⁰⁾、言語学的な研究¹¹⁾がなされている。

「交隣須知」で問題になっていることは、「原 交隣須知」はどのようなものであ
ったか、「非増補本系」と「増補本系」はどのように生まれたかを探ることである。し
かし、未だに明らかになっていない。

4. 「隣語大方」

「隣語大方」は、日朝両国において用いられた語学書で、朝鮮においては日本語学
書として、また、日本においては朝鮮語学書として用いられた。「隣語大方」は、長
短文の訓話、商談、日朝の貿易に関する文章などを集めたもので、比較的高级レベル
の学習者を対象とした朝鮮語学習書である。

「隣語大方」の異本は、8つがあり¹²⁾、その書誌事項は以下のようなものである。

(1)刊本

甲類

①朝鮮刊本：10巻5冊。刊年不明(正祖14年(1790年)刊か)。朝鮮司訳院刊
行。「隣語大方」。

②明治刊本：9巻3冊。明治15年(1882年)刊。浦瀬裕校正増補。宝迫繁勝印
刷。外務省蔵版。「訂正隣語大方」。

(2)写本

甲類

③筑波大本：9巻1冊。書写期不明。金夢霖の漢文序があり、その末尾に「時
重光協洽之臨月也」とある。「重光・協洽」は「辛・未」であるが、

9)小倉進平(1966)、濱田敦(1966)、이강민(1996、2005)、岸田文隆(1998a、2000、2006a)。

10)斎藤明美(2001、2002)、片茂鎮(1986、2005)、岸田文隆(2005)。

11)濱田敦(1966)、최창완(2004)。

12)岸田文隆(2006b)p.20を参照。ただし、東京都立図書館本については、明治刊本を写したものであるの
で、一覧から省いた。この他、鍵屋歴史館にも1本が所蔵されていることが知られているが、まだ公
開されておらず、現物を確認できないので、一覧から省いた。

序文の作者の金夢霖がだいたい18世紀中葉の人物と見られることから¹³⁾、宝暦元年(1751)にあたるものと推定される。筑波大学附属図書館所蔵。「隣語大方」。

④浜田文庫本：6巻2冊。書写期不明。京都大学文学部所蔵。「隣語」。

⑤アストン文庫本：6巻2冊。天保12年(1841年)浦瀬岩次郎(知好)¹⁴⁾が書写した。Manual of Korean、vol. 3・4に収録される。ロシア東方学研究所サンクトペテルブルグ支所所蔵。「隣語」。

⑥苗代川本：4巻2冊。安政6年(1859年)朴平覚が書写した。京都大学文学部所蔵。「隣語大方」。

⑦沈寿官本¹⁵⁾：巻1(2種)・巻2・巻3。書写期不明。沈寿官家所蔵。

乙類

⑧小倉文庫本：1冊(5丁)。書写期不明(明治初年頃(1870年頃)写か)。中村庄次郎書写。外題「隣語」、内題「隣語大方」。東京大学文学部所蔵。

8つの異本の中で「朝鮮刊本」は、朝鮮で日本語学習書として用いられたもので、日本語文が本文で朝鮮語文を訳文とする。「朝鮮刊本」以外の異本は日本で朝鮮語学習書として用いられたもので、逆に朝鮮語文を本文とし、甲類の②～⑦の写本には日本語訳文が付されている。乙類の⑧小倉文庫本は、朝鮮語本文のみで、日本語訳文は

13) 韓国釜山の東萊区金剛路124番キル23-17(温泉洞)にある石碑「温井改建碑」は、英祖42年丙戌(1766)に建立されたものであるが、その裏面1行目に「一善金夢霖撰」とあり、この「温井改建碑」の碑文の作成者が金夢霖という人物であったことが知られるが、筑波大本「隣語大方」の序文の作成者の金夢霖と同一人物であろうと推測される。

14) 明治初期、朝鮮開港期の日朝交渉を担当した浦瀬裕(最助)のこと。国会図書館所蔵「分類事考」[WA1-6-31]「通詞 并 詞稽古」には、
「一 稽古通詞浦瀬岩次郎 勤番交代の上 来聘御用に付 当時滞館被仰付候事 同年(嘉永5年、1852年)四月廿五日
一 右同人 依願 最助と改名被仰付候事 同日」
とあり、1852年に岩次郎から最助に改名したことが確認される。

15) 筆者は、「沈寿官本」はみていないため、本章では言及しない。しかし、「沈寿官本」について安田章(1966:225)は、「沈家では、巻四は散佚して存せず、巻一は二種、巻二・三それぞれ一種蔵する。ただし全て筆蹟を異にするようである。全て虫損甚しいが、本文、巻一、甲は十八枚、乙は十六枚、巻二は二十三枚、巻三は十八枚。この内、巻一(甲)の六枚目まで、及び巻二は、日本文・朝鮮文が分離し、日本文が後置せられている(後略)。その他は京大本と同じい。文例については、巻二に省略せられたもの三あるが、他は一致する。形式を同じくする巻について、京大本と比較すると、当然のことながら、日本語朝鮮語とも殆んど一致する」と説明していて、ある程度その形が察することができる。

ない。「朝鮮刊本」には、各巻に題目が書いてあるが、それは各巻の内容をあらわすものでなく、各巻の冒頭に書いてある単語をそのまま題目として用いたものにすぎない。

甲類の各異本の内容はほぼ同様であるが、乙類の「小倉文庫本」は、甲類の他異本と内容が異り、別の系統ではないかと考えられる。今後「小倉文庫本」に載っている例文の典拠や成立の経緯についての研究が必要である。

甲類の各異本については、巻の配置が異本によって異なるが、各々の巻の対応関係を示せば、[表1]のごとくである。

[表1] 「隣語大方」の各異本における各巻の対応表

朝鮮刊本	第5巻	第1巻	第10巻	第3巻	第6巻	第7,8巻	第4巻	第9巻	第2巻
明治刊本	第1巻	第2巻	第3巻	第7巻	第8巻	第9巻	第4巻	第5巻	第6巻
筑波大本	第1巻	第2巻	第3巻	第4巻	第5巻	第6巻	第7巻	第8巻	第9巻
浜田文庫本	第1巻	第2巻	第3巻	第4巻	第5巻	第6巻			
アストン文庫本				第4巻	第5巻	第6巻	第1巻	第2巻	第3巻
苗代川本				第2巻	第3巻	第4巻	第1巻		
沈寿官本				第2巻	第3巻		第1(2種)巻		

「隣語大方」についての研究は、文献学的な研究¹⁶⁾から言語学的な研究¹⁷⁾までさまざまな研究がなされている。「隣語大方」の成立に関する代表的な研究としては、金沢庄三郎(1911)、安田章(1963)、小倉進平(1964)¹⁸⁾がある。

金沢庄三郎(1911:37)は、「隣語大方」について以下のように説明し、

雨森芳州の交隣須知と共に久しく本邦に於ける朝鮮語学習の教本たりしものにして、明治六年対馬の浦瀬裕氏の翻刻したるものあり。著者年代ともに不明なれども、その内容に徴すれば朝鮮文を日本語に訳したるらしき形跡あり。恐らく対島人の著作なるべし。別段の順序等もなく、折りにふれたることどもを日本文にて記し、次に漢字諺文混りの朝鮮文にこれを譯せるものなり。

「隣語大方」がもともと日本の対馬において成立したものであろうとの推測をおこなった。

また、安田章(1963:4)も、「隣語大方」の「朝鮮刊本」につき、「『捷解新語』」などのように、倭学書として朝鮮人の立場から元来編纂されたものであったかは問題で

16) 安田章(1963)、鄭丞惠(2009)。

17) 安田章(1963)、홍사만(2010)、신충균(2000、2005、2006、2010、2012、2016)。

18) 小倉進平(1964)は、金沢庄三郎(1911)を引用しているため、ここでは省略する。

ある」と述べ、「隣語大方」が成立したのは朝鮮ではなかったであろうとの推測をおこなった。

「隣語大方」の編纂者については、「隣語大方」の「筑波大本」の漢文序に「日本国對馬州傳五郎以傳語誠信地」とあり、また、「明治刊本」の序に「其編集人ノ姓名及其紀年等ニ至リテハ其書傳ナケレバ之ヲ審ニスルヲ得ズト雖モ口碑ニ據レバ該藩象官福山某氏ノ編輯ナリト云」とあることから、いくつかの推測がなされている。福島邦道(1969:51)は、前者の記事に基づき、「傳五郎」は「加瀬傳五郎」と思われると述べている。また、田代和生(2007:187)は、後者の記事に基づき、「福山某」とは、芳洲をして「秀逸之才」といわしめた倭館の特別留学生で、宝暦八年(一七五八)に仮大通詞になる福山伝五郎であろうと述べている。さらに、岸田文隆(2009c:266)は、両者の記事を勘案し、「福島(1969)の加瀬伝五郎説は、明治刊本の「福山某氏」という記載と姓の部分が合わない。一方、田代(2007)の福山伝五郎説は、筑波大本序文の「日本国對馬州伝五郎」という記載とも矛盾しない。よって、福山伝五郎説に従うべきかと思われる」と述べている。

なお、朝鮮司訳院から刊行された「朝鮮刊本」の編纂者については、鄭丞惠(2009:256-258)が、「西庫書目」¹⁹⁾の中に「隣語大方五卷 玄啓根 撰」と記されている事実に基づいて、「朝鮮刊本」の編纂者が「玄啓根」²⁰⁾であることを明らかにし、その編纂の経緯について、以下のごとく論述した。

부산의 왜학훈도로서 활동하였던 1774년(49세) 이후 1776년(51세)경, 즉, 부산의 왜학훈도로 활동했던 시기에 『인어대방』이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中略) 기록으로 전하는 『인어대방』 조선간본의 개판(開板)이 1790년 최기령(崔麒齡, 1733-?)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면, 현계근이 쓴 초고

19)・存續經緯：이 書目은 《奎章閣書目》(圭11670) 3책 중의 하나로 제 1책은 摛文院書目, 제 2책은 西庫書目, 제 3책은 閣古觀書目으로 제 2책에 해당하며 현재는 奎章閣에 소장되어 있다.

(筆者訳:この書目は《奎章閣書目》(圭11670) 3冊の中の一つで、第1冊は摛文院書目、第2冊は西庫書目、第3冊は閣古觀書目で、第2冊に該当し、現在は奎章閣に所蔵されている)

・物理的形態：1冊(95張)、28. 8×18. 5 cm.

四周雙邊, 半匡：19. 3×13. 3 cm.

有界, 10行, 小字雙行, 版心：上内向四邊花紋魚尾(單線, 單絲)

(南權熙1983:160)

20) 玄啓根：龍系の22代。生没年は、一七二六(英祖二、丙午)～一七九九(正祖二三、己未)。字は、晦伯。訳科合格年は、乾隆丁卯式年(一七四七、英祖二三、乾隆一二)。合格順位は、七/一一(三・五・一一)。最終職官(品階)は、知枢(知中枢府事)倭学教誨資憲(正一品)。血族関係は、父、深(一七〇四～一七四四、字・寡悔。訳判官、従五品)。渡日使節(年次)は、①第一一次通信使(一七六四、英祖四〇、明和元(宝暦一四)、甲申)、②問慰訳官使(一七八〇、正祖四、安永九、庚子)(信原修2008:323)。

(草稿)는 인행(印行)되지 못하고 사본(寫本)의 형태로 존재하였을 것이다. 현계근은 당시에 사력(私力)으로 이를 인행(印行)할만한 재력(財力)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인어대방』을 개판한 1790년은 65세의 노인으로서 현업에서 은퇴하였기 때문이다. 최기령이 구입하여 개판한 『인어대방』은 바로 현계근이 작성한 초고이었을 가능성이 많다. (中略) ‘조선간본’의 초고는 현계근에 의하여 1774년-1776년경에 작성되었을 것으로 본다.

(引用者訳)

釜山の倭学訓導として活動した1774年(49歳)以降、1776年(51歳)頃、つまり、釜山の倭学訓導で活動していた時期に『隣語大方』が作成された可能性が高い。(中略)記録で伝わる『隣語大方』の朝鮮刊本の開板が1790年に崔麒齡によって、成されたことからみると、玄啓根が書いた草稿は印行されず、写本の形として存在したのであろう。玄啓根は当時に私力でこれを印行できる財力がなかったとみられ、『隣語大方』を開板した1790年は65歳の老人で、現業から引退したためである。崔麒齡が購入して開板した『隣語大方』は、正しく玄啓根が作成した草稿である可能性が高い。(中略)‘朝鮮刊本’の草稿は、玄啓根によって1774年-1776年頃に作成されたと考えられる。

5. 「講話」

「講話」は、朝鮮語文が本文で、その右横に日本語の対訳文が書いてある形式になっている。

「講話」の内容は、巻1は、恒常的な年例送使に関する内容の文章が全12条おさめられており、巻2は外交の交渉案件に関する内容の文章が全15条おさめられている。

特に、巻2は実際にあった日朝間の外交交渉案件に基づいたものと見られるが、許秀美(2016)は、それらの文例と対馬宗家文書などの歴史資料との対照をおこない、一特使使下行廊改建一件や単叅改品一件など18世紀中頃から末頃の事件に関連する内容であることを指摘し、本書の成立は18世紀末頃であるとの推測をおこなった。

「講話」の異本は4つ現存しており、書誌事項は以下のようなものである。

(1)写本

①京都大本：2巻2冊。各冊とも「講話」と書かれた題箋が付されている。図書番号：[Philology/ 2D/40. b]。本文は上巻20丁(半葉5行)、下巻25丁(半葉6行)、上巻末に「主 朴伊円 道存」との朱筆の書付がある。京都大学文学部所蔵。

②沈寿官本：2巻1冊。上巻にのみ「講話」と書かれた題箋が付されている。

上巻16丁(半葉6行)、下巻22丁(半葉6行)で、上下巻ともに虫損甚だしいが、上巻の最終頁に「朴林達」の名が確認できる。沈寿官家所蔵。

③アストン本：革洋装本1冊。「Dialogues in Korean」という題目が付されてある。図書番号は[No.C6]。原本の和本(上下巻とも半葉7行)をばらし、各丁ごとに洋紙各1枚をはさみ、洋装しなおしたものである。ロシア東方学研究所サントペテルブルグ支所所蔵。

④鍵屋歴史館所蔵本：1冊。天明四年(筆者注:1784年)甲辰五月、小田幾五郎編。鍵屋歴史館所蔵。

このうち、④鍵屋歴史館所蔵本は、従来その内容が学界に知られていなかったものであるが、2017年に鍵屋コーポレーションより影印刊行され、研究者の利用に供されることとなった。本書がもともと、天明四年(1784)に小田幾五郎によって編纂されたものであることを伝える善本であるが、今後この資料によって、「講話」の研究も格段に進展することが期待される。

6. 「物名」

「物名」は、江戸時代に日本人の編纂した朝鮮語辞書である。対馬宗家文庫に所蔵されており、図書番号は[日本刊本/D/9-1]である。写本で1冊、序文はない。書名は、本文と同筆とみられる文字で「物名」と、表紙の左上に直接墨書されている。本文は、31丁。毎半葉4行、毎行2・3の朝鮮語語彙を片仮名で記し、その右にそれに対応する日本語をカタカナ漢字交りで書いてある。語項目数は、488個である。

「全一道人」、「朝鮮語訳」、「韓語覚書」と同じく、朝鮮語をカナで表記した資料として注目される。「物名」についての研究には、資料の成立過程とその音韻資料としての価値を論じた李康民(1993)がある。

7. 「韓語覚書」

「韓語覚書」は、対馬伝来の朝鮮語単語集である。現在、対馬歴史民俗資料館に所蔵されている。詳細な書誌事項は、5章で述べることとする。

「韓語覚書」は、従来研究者の視野の外にあった資料であるが、本論文の筆者が学界に紹介し、その朝鮮語のカナ表記の母音と子音²¹⁾について分析を加えた。

21) 金文姫(2017a、2017b)。

8. 「韓語訓蒙」

「韓語訓蒙」は、日本でつくられた初級者向けの韓国語学習書で、朝鮮語短文を本文とし、その右横に日本語対訳が付いている。異本は3つが現存していて、苗代川にいる朝鮮陶工の後裔の沈寿官家の「沈寿官本」、京都大学文学部所蔵の「京都大本」、ロシア東方学研究所サンクトペテルブルグ支所所蔵の「アストン本」がある。

「アストン本」は、岸田文隆(1998b)で初めて紹介された。

「沈寿官本」、「京都大本」、「アストン本」の書誌事項は、以下のようである。

(1)写本

- ①沈寿官本：1巻1冊。巻末に「天保五年(筆者注:1834年)午春寫是」と書いてある。丁数は28丁であるが、実際は26丁のみが残っている(9～10丁目の本文は脱落)。沈寿官家所蔵。
- ②京都大本：1巻1冊。本文は35丁で、巻末に「于時文久四年(筆者注:1864年)子二月寫之也」と書いてある。文例数は、「沈寿官本」より50例が多い660余例があるが、これは「沈寿官本」に脱落している文例が「京都大本」にそのまま残っているためである。京都大学文学部所蔵。
- ③アストン本：1巻1冊。29丁。1丁目の表に「英国 阿須頓蔵書」という朱色の蔵書印が押されている。12丁目の裏に「明治五年(筆者注:1872年)申二月十二日」と書いてある。本文のところどころに朱筆にて訂正・注記が加えられている。ロシア東方学研究所サンクトペテルブルグ支所所蔵。

「韓語訓蒙」の研究は、ほとんど書誌事項を紹介する²²⁾程度でとどまっているが、李康民(1999)、岸田文隆(2000)は、書誌事項とともに「韓語訓蒙」の3つの異本を簡単に比較し、また「韓語訓蒙」が「交隣須知」と類似している例文をあげて、両資料の関連性について述べ、藤井茂利(1989)は、「韓語訓蒙」の表記法について考察している。

9. 「漂民対話」

「漂民対話」は、薩摩領内に漂着した朝鮮人と苗代川の朝鮮語通詞との対話を題材とした朝鮮語学習書で、薩摩苗代川において成立したものと考えられる。朝鮮語文が

22) 李康民(1996)、이강민(2005)、岸田文隆(2006a)。

本文で、その右横に日本語対訳が書いてある。

従来の「漂民対話」は、「京都大本」(上下巻)と「沈寿官本」(上下巻、欠落本)が知られていたが、岸田文隆(1997)によって、ロシア東方学研究所サントペテルブルグ支所に所蔵されている「漂民対話」(アストン本)が初めて紹介された。

岸田文隆(1997:34)は「アストン本」について、「本書は、京大本には全くなく、沈家本にも不完全な破本の形でしか伝わらない、いわゆる中巻(中略)の部分を完全な形で保有しているなど、『漂民対話』の成立を考えるうえで是非とも参照不可欠の重要資料であると思われる(後略)」と述べ、「アストン本」の発見によって、従来明らかでなかった中巻が分かるようになった。

「漂民対話」の各異本の書誌事項は以下のようなものである。

(1)写本

- ①京都大本：2巻2冊。図書番号は[No. Philology/ 2D/37a]。弘化2年(1845年)朴元良(泰元)が書写した。京都大学文学部所蔵。
- ②沈寿官本：各2巻+破本。嘉永7年(1854年)に朴寿悦が書写した。鹿児島県の沈寿官家所蔵本(鹿児島県立図書館)にXeroxの複写本がある。鹿児島県立図書館所蔵。
- ③アストン本：2巻2冊。巻1、2の巻頭に「英国 阿須頓蔵書」という朱色の蔵書印がある。巻2の本文6丁表と7丁裏は天地さかさまに綴じられている。ロシア東方学研究所サントペテルブルグ支所所蔵。

「漂民対話」は書誌的事項を紹介する論文²³⁾が多く、「漂民対話」の成立に関する研究²⁴⁾、近世民衆史や船舶に関する研究²⁵⁾から言語学的な研究²⁶⁾までなされている。

10. 「惜陰談」

「惜陰談」は、朝鮮人(乙)と日本人(甲)が両国の風俗と国の制度などについて交す対話を問答式に書いた朝鮮語学習書である。朝鮮語本文のみが書いてあり、日本語対訳文はもたない。写本として「京都大本」があり、巻2のみが伝わる。京都大学文学部所蔵で、図書番号は[Philology/ 2D/40. e]、編纂者は未詳である。

23) 진태하(1973)、李康民(1996、2005)、岸田文隆(2000、2006a)。

24) 岸田文隆(2002、2004)。

25) 鶴園裕(1995)、박근웅(2011)、문경호(2015)。

26) 安田章(1966)、김영신(1981)、黄文煥(2012)、岸田文隆(2004)。

現在、「惜陰談」の研究は、「惜陰談」の成立過程について考察した岸田文隆(2011)と朴眞完(2011)があるのみである。

1 1. 「和韓問答」

「和韓問答」は、「惜陰談」と同様に、日本人(甲)と朝鮮人(乙)が釜山の絶影島の位置、朝鮮の風俗、地理等について問答するものである。

くずし字で書かれた漢字交りの候文体の日本語文を本文とし、その右横に漢字交りの朝鮮語対訳文が書いてある。しかし、虫損が甚だしいため、判読できないところが多い。

書誌事項は、写本として「沈寿官本」がある。1冊24丁で、紙辺として伝存する葉も少なくない。原表紙の右上に「安政七年(筆者注:1860年)申三月廿九日」、左下に「此主 朴寿悦」と書いてある。

「和韓問答」についての研究は、ほとんど書誌事項を説明するのみで、「和韓問答」の成立過程について考察した岸田文隆(2011)がある程度でとどまっている。

1 2. 「韓牘集要」

「韓牘集要」は、苗代川伝来の朝鮮語学習書である。現在、京都大学文学部に所蔵されている。詳細な書誌事項は、3章で述べることとする。

「韓牘集要」の研究には、安田章(1963)と岸田文隆(2009b)がある。安田章(1963:21-22)は、「韓牘集要」の書誌を論ずるとともに、「隣語大方」と同じ文例があらわれることを指摘した。岸田文隆(2009b)は、「韓牘集要」の成立年についての初步的考証をおこなうとともに、「隣語大方」に対応する文例の追加をおこなった。

1 3. 「対談秘密手鑑」

「対談秘密手鑑」は、形式は「交隣須知」とよく似ており、見出し語の下に短文を配する形式である。漢字あるいはカタカナで表記された見出し語を挙げ、その下に見出し語の入っている朝鮮語文を本文として配し、その右横にカタカナの日本語訳を付している。ただし、「交隣須知」の例文は、見出し語の用例というべきものであるが、本書の例文は、見出し語についての説明とでもいうべきものであり、その編纂の意図は判然としない。構成は「語辞・語傍・雑言・武言・言語」の五部に分類せられている。

「対談秘密手鑑」は、写本として「大武本」と「京都大本」がある。以下がその書誌事項である。

- ①「大武本」：2冊。2冊とも虫損甚だしく、判読不明なところが多い。1丁あたり6行で書かれている。表紙、奥書もない。筆署名、書写年代不明。鹿児島大学所蔵。
- ②「京都大本」：1冊。図書番号は[Philology 2D-40c]、最後の丁に「嘉永二年己酉七月写之朴氏為良」と書いてあることから、1849年朴為良によって書写されたことが分かる。京都大学文学研究科図書館所蔵。

「対談秘密手鑑」の成立について大武進(1996:29)は、「朝鮮語教本(題名不明)は、これまでの管見の交隣須知とは一致しないが、形式、内容から見て、「交隣須知」以前の段階の、しかし、交隣須知と関係を持つ、交隣須知として編纂される前段階のものではないかと判断される。雑然と整理もされていない教本の段階なので、まだ題名も与えられていない可能性が高く、交隣須知の原態を推定させる」と述べ、「対談秘密手鑑」が「交隣須知」より先にできたと述べた。

しかし、岸田文隆(1998a:26-27)は、上記の大武進(1996)の論が間違っていることを以下のように指摘している。

安田(1966)p. 235、李康民(1996)p. 101-103において述べられているごとく、『対談秘密手鑑』には、

最早^{モハヤ} 業已^{モハヤハ} 交隣須知^ニ 之中^{シモガ} 의^{モハヤト} 서리가^{ダシテアル} 불셔라^{コトバジヤ} 내엇던 말이라[p. 8]

など「交隣須知」を引用した例文が見えるので、その成立は当然のことながら「交隣須知」よりも後である。したがって、大武氏所蔵の如上の朝鮮語写本を「交隣須知として編纂される前段階」・「交隣須知の原態」と見るのは、少し無理ではないかと思う。

以上のことから、「対談秘密手鑑」は「交隣須知」より先にできたものではなく、後にできたものということが分かる。

「対談秘密手鑑」についての研究は、本書を紹介するもの²⁷⁾と本書の簡単な紹介と「交隣須知」、「講話」、「崔忠傳」の影響をうけた文例がみられるとした研究²⁸⁾がおこなわれた。また、「京都大本」の交隣須知「対談秘密手鑑」を対象にし、薩摩藩の朝鮮語通詞の言語学習について研究したもの²⁹⁾がある。

27) 大武進(1996)。

28) 安田章(1966)、李康民(1996)、朴真完(2015)。

29) 朴真完(2015)。

以上が、日本でつくられた朝鮮語学習書の大略であるが、朝鮮でつくられた小説類や日本語学書が日本に将来されて朝鮮語学習書として用いられたものもある。

1.4. 「崔忠傳」、「淑香傳」などの小説類

「崔忠傳」、「淑香傳」は、朝鮮語小説であるが、日本で朝鮮語学習書として活用された。「崔忠傳」の内容は、新羅時代の文人である崔致遠の一生を虚構化したものである。「淑香傳」の内容は、高貴な身分で生まれた淑香がさまざまな苦難を乗り越え、ついに幸福な生活を暮らすようになる話である。

「崔忠傳」と「淑香傳」の書誌事項は以下のものである。

「崔忠傳」

(1)写本

- ①京都大本：1冊、書写期不明。毎半葉6行の朝鮮語文を本文として、対訳の日本語はない。この本は朝鮮時代のハングル本の古典小説である『崔忠傳』を伝写したものである。京都大学文学部所蔵。
- ②沈寿官本：1冊(缺本)。毎半葉7行の朝鮮語文を本文とし、その右側にカタカナ漢字交りの日本語対訳が位置する。本文の内容は「京都大本」と同様である。沈寿官家所蔵。

「淑香傳」

(1)写本

- ①京都大本：2巻2冊。各巻の伝写者は異り、上巻の末には「生年十九歳于時 弘化三年(筆者注:1846年)午十二月寫之朴泰元寫終」と書いてある。上巻は、毎半葉9行の朝鮮語文を本文とし、その右側にカタカナ漢字交りの日本語対訳文が位置する。下巻も、毎半葉9行の朝鮮語文を本文とするが、日本語対訳文はない。この本は、朝鮮時代に広く流布されていた古典小説『淑香傳』(著者・成立年未詳)を伝写したものである。特に、この本が享保5年(1720年)の時点において、すでに対馬の韓国語学習書として用いられた事実を「韓學生員任用帳」³⁰⁾

30) 田代和生(2007:159)には「韓學生員任用帳」について、「国の重大時にかかわる要職ともいふべき通詞の養成に、藩当局がまったく関与せず、商人たちに依存している現状にあった。通詞の根本的な改革の必要性を感じとった芳洲は、やがて享保五年(一七二〇)七月、かねてから藩当局に具申してきた通詞養成に関する計画書を冊子にまとめあげた。『韓學生員任用帳』がこの時のもので、(後略)『韓學生員任用帳』の内容は、藩当局が軽視する通詞とは、「身分輕御座候而も、役目ハ大切成事ニ奉存

で確認できる。京都大学文学部所蔵。

②沈寿官本：安政3年(1856年)書写の全1巻(甲)と書写期不明の上下2巻(乙)が伝存するが、いずれも落張し虫損甚だしく、完本が期待し難い状態である。甲は、毎半葉9行の朝鮮語本文のみを、乙は、毎半葉9行の朝鮮語本文と日本語対訳文をもつ。朝鮮語本文は「京都大本」とほぼ同様である。沈寿官家所蔵。

「崔忠傳」と「淑香傳」の研究は、朝鮮語学習書としての性質と成立年についての研究³¹⁾と言語学的研究³²⁾がある程度であり、あまり多くの研究はなされていない。朝鮮語学習のために用いられた小説はその他「玉嬌梨」、「林慶業伝」などもある。

15. 「倭語類解」

「倭語類解」は、朝鮮で倭学訳官の洪舜明³³⁾が編纂した日本語辞書である。上記の4の「隣語大方」と同様に、「倭語類解」も日本と朝鮮で同じ名をもつ資料が存在している。韓国には刊本の「中央図書館本」、日本には写本の「苗代川本」と刊本の「永平寺蔵本」が存在する。

成立年代は未だに明らかになっていないが、金沢庄三郎(1911:35-37)は、韓国にある「倭語類解」の構成と成立年代について、以下のように言及している。

朝鮮人の著したる日本語の辞書なり。天文・時候・干支・地理・方位・人倫等の項目を追うて語を集むること約三千五百、漢字の下にその朝鮮音訓と我字音とを二行に記し、下段に日本譯を諺文にて添へたり。著者及び刊行の年代いづれも不明なれど、本書の終に信行使所經地の名を擧げたる中に、日光山權現堂の見えたるより考ふれば、或はその一行中のもの〃作ならんか。朝鮮人が日光の廟を拜したるは、寛永十三年(筆者注:1636年)同二十年と明曆元年(筆者注:1655年)となり。(後略)

小倉進平(1940:405)は、「倭語類解」の成立年について、以下のように言及してい

候」として注意を喚起するとともに、有能な通詞を積極的に留学させて養成しようとしたものである」と説明した。

31) 정병설(2005)、曹喜雄・松原孝俊(1997)。

32) 편무진・유춘희(2001)、유춘희(2002)、田阪正則(2009)。

33) 『譯科榜目』の慶熙乙酉(1705年)式年の条に、洪舜明の名が見え、「字水鏡 萬載子 丁巳年 本南陽倭學聰敏奉事」と書いている。

る。

洪舜明は慶熙辛巳(同四十年、西紀一七〇一、元禄十四年)朝命により對馬に渡航したことがあり、同乙酉(同四十四年、西紀一七〇五、寶永二年)に譯科に登第し、また同己丑(同四十八年、西紀一七〇九、寶永六年)草梁に城を築いた等の記事も見えて居るから、本書は恐らくは慶熙年間即ち我が寶永・正徳の頃(筆者注:1704年~1716年)に出来上つたものと思はれる。

濱田敦(1958:2)は、「倭語類解」の成立年について、以下のように言及している。

本書の成ったのは、洪舜明の活動時期として明らかに通文館志³⁴⁾にその干支のしるされた慶熙辛巳(四十年、一七〇一)から同巳(ママ)丑(四十八年、一七〇九)の前後をそれほど距ることのない時期、即ち西紀ならば十七世紀末から十八世紀初にかけて、我が、元禄年間前後の頃にあると考えてよいであろう。

安田章(1966:217)は、朝鮮の「倭語類解」の成立年について説明しながら、日本の「倭語類解」と朝鮮の「倭語類解」の関係について、以下のように言及している。

『倭語類解』の成立と刊行の時期については、いまだに明確にせられていない問題である。十八世紀の初頭十数年間が成立期になるとして、刊行期を、大友信一博士は一八〇六年前後に、中村栄孝博士は十八世紀の末年、正祖王の頃と考えておられる。私には、それ以上の限定は不可能であるが、『訳科榜目』に照して、少くとも一七八三年以降であることは事実であろう。

京大本(0)が「和語類解という書名を有する点、刊本(筆者注:朝鮮刊本)とは、まず大きな相違であると言わねばならない。本写本は、刊本に基いて作成せられたと考えられたのであるが、両書を比較すると、予想以上の差が認められるようである。

上記のように、「倭語類解」の年代は17世紀から18世紀末にかけて幅広く推定されている。

「倭語類解」の書誌事項は、以下のようである。

34) 『通文館志』：朝鮮の肅宗時代、金指南が作った古来朝聘応対について書いた本である。

(1)刊本

刊本は、韓国中央図書館所蔵本、駒澤大学図書館所蔵本がある。

2巻2冊。毎半葉8行、2段になっている。漢字の見出し語を示し、その下の左右にそれに対応する漢字の意味と音をハングルで書き、またその下に○を付けハングル表記で日本語の意味が書いてある。下巻末に片仮名で「口訣」が載っている。

2つの刊本は同版である。しかし、駒澤大学図書館所蔵本の下巻末には、韓国中央図書館所蔵本には見られない「伊呂波間音」が添付されている。

(2)写本

①京都大本：2巻2冊。毎半葉8行、3段になっている。漢字の見出し語を示し、その下の左にそれに対応する漢字音をハングルで表記してあるがハングル表記がほどこされていない漢字の見出し語もみられる。またその下にハングル表記で、右には韓国語の意味を、左には日本語の意味が書いてある。「永平寺蔵本」と同様に下巻末に片仮名「口訣」2丁がある。また、下巻の末尾には「右加嶋先生持越之書寫調ナリ」、「天保八年(筆者注:1837年)西十月吉日寫之也 朴伊圓 道存」と書いてあるが、朴伊圓は「京都大本」の「講話」を筆写した者でもある。京都大学文学部所蔵。

「倭語類解」は日本と朝鮮に同じ名で伝わるが、日本の「倭語類解」が朝鮮の「倭語類解」をそのまま写したものではないため、大きく相違していることは興味深い。

「倭語類解」の研究は、朝鮮と日本の「倭語類解」の語彙を簡単に比較対照した安田章(1966)と両資料の体裁を比較して日本の「倭語類解」の原本復元を試みた成嗜慶(1991)がある。

第3章 「韓牘集要」と「隣語大方」

本章は、近世期に日朝両国において最も広く用いられた語学書のひとつである「隣語大方」について、その所拠資料たる「韓牘集要」との照合を通じて、文献学的考証をおこなったものである。該書は、日本においては朝鮮語学書として、朝鮮においては日本語学書として用いられた。

「隣語大方」の文例中に「韓牘集要」由来の文例が見られることは、つとに安田章(1963)に指摘がなされているが、いまだ網羅的な照合・分析はなされていない。本論文では、両書の文例を逐一照合することによって両書の間係を明らかにし、「隣語大方」巻4(朝鮮刊本)の文例の多くが「韓牘集要」に由来するものであることを指摘したいと思う。

第1節 先行研究

先行研究として、安田章(1963)と岸田文隆(2009b、2010b)を挙げるができる。安田章(1963)は、「韓牘集要」中に「隣語大方」に対応する文例が見られることを指摘し³⁵⁾、「韓牘集要」が「隣語大方」の所拠資料のひとつであることを明らかにした。岸田文隆(2009b、2010b)は、「韓牘集要」と「隣語大方」の対応例をさらに追加するとともに³⁶⁾、「韓牘集要」の成立年について考証をおこない、文例にあらわれる倭学訳官の人名(韓起仲、鄭一哉、朴敏甫)がだいたい18世紀中葉に活躍した人物であること、また、「韓牘集要」第52通[56b]にあらわれる会計年度を話題とした文例が辛亥(1731)年の翌年あたりに書かれたと推測されることを根拠として、だいたい1732年頃に成立したものと推定した。

第2節 「韓牘集要」の成立過程について

「隣語大方」との照合に先立ち、まず、「韓牘集要」の書誌的事項について確認しておきたい。

京都大学文学部所蔵[図書番号: philology、2D-85a]、1冊、全71丁。外題は「韓牘集要 全」。漢字ハングル交りの朝鮮語を本文とし、所々にハングルで漢字の

35) 具体的には、「韓牘集要」第22通[20b: 4]の文例が「隣語大方」朝鮮刊本の[4: 15a: 7]の文例に対応するものであることを指摘し、その他の対応例については逐一明示はしないものの、「このような例を他にいくつか挙げるができる。」(安田章1963: 22)と述べた。

36) 脚注35に述べた安田章が指摘した文例に加え、「韓牘集要」第39通[43a: 2]および第42通[48a: 9]も「隣語大方」朝鮮刊本の[4: 20a: 2]の文例に対応するものであることを指摘した。

読み方、カタカナで日本語訳が付される。

本書はその題名からわかるように、ハングル書簡を集めたもので、全部で69通が収録されている。各書簡の発信者名・受信者名は明記されていないが、すべて朝鮮の倭学訳官が日本の朝鮮語通詞に送ったものと見られる。内容は、主に鉄物、銀、白糸、黒角等の日朝貿易に関するものである。

本書の成立年については、先に述べたとおり、すでに岸田文隆(2009b、2010b)において初歩的な考察がなされ、だいたい1732年頃であることが明らかになっている。ここでは、本書文例にあらわれる事件に着目し、対馬宗家文書等の歴史記録と照合しつつ、追加的考察をおこないたい。

2.1 対馬島失火

「韓牘集要」【第21通】には、「対馬島失火」に関する文例があらわれる。東萊府使から朝鮮朝廷に送る状啓³⁷⁾中に「対馬島失火」により倭館側から朝鮮にわたすべき鉄物が遅滞していること、また失火に見舞われた対馬に対して恤典³⁸⁾をおこなうべきであることを書き加えたことを伝える内容である。以下、その実例を示す。

[韓牘集要]【第21通】/19 : b/ (前略) 鐵物 遲滯^{ᄃᆞᆫ} 緣故^{ᄃᆞᆫ} 을 겨유^{ᄃᆞᆫ} 〃 잘 알외고 今番 對馬島 失^{실}火^로 遲滯^{ᄃᆞᆫ} 를 ᄃᆞᆫ 緣故^{ᄃᆞᆫ} 와 此月 來月^로 ᄃᆞᆫ 應當 大小 /20 : a/ 間始爲出來^{ᄃᆞᆫ} ᄃᆞᆫ ᄃᆞᆫ 이다 ᄃᆞᆫ 狀啓^를 ᄃᆞᆫ 京^을 잠깐 늦초고 또 失火^로 恤^{ᄃᆞᆫ}典^을 不可不^{ᄃᆞᆫ} ᄃᆞᆫ ᄃᆞᆫ 此事緣^도 添^{ᄃᆞᆫ}入^{ᄃᆞᆫ} ᄃᆞᆫ ᄃᆞᆫ (後略)

【和訳】

(前略) 鉄物の遅滞する理由を(東萊府使に)ようやくようやく確かに申上げ、この度の対馬の失火により遅滞をしましたがけれども、今月か来月には、当然多少なりとも出来し始めるだろうと申しておりますとて、状啓をいたしましてソウルを暫時なだめまして、また失火により恤典をおこなわないわけにはいかない旨を、この内容も添えましたので(後略)

この「対馬島失火」とは、享保17年(1732)3月26日夜に発生した対馬府中の大火災を指すものとみられるが、その顛末を確認するため、以下に【毎日記(国元)】と【倭館館守日記】の記事を引用する。

37) 役人が王命を奉じて地方に赴き、民情を調査した結果を文書にしたため上奏した報告。

38) 政府から罹災民に施す特典。

[史料1]【毎日記(国元)】

享保17年(1732)3月27日:

・夜前丑の刻時分宮谷橋際樋口竹寿外極に罷有候茂右衛門と申者の所より出火に付 年寄中諸役御家中の面〃并組以下町火消の者共追〃罷出 相防き候へ共風立候故 難被消 段〃及大火 絵図の通消失

[史料2]【倭館館守日記】

享保17年(1732)4月4日:

・右飛船にて被仰下候は 御国府中先月廿六日の夜宮谷橋辺より出火 折節大風にて遠見道やら崎迄焼通り 府内三つに式つ余は致焼失候段 御年寄中御連名を以被仰越る

・右出火烧失に付 両訳え御用の儀有之候間 明朝早〃致入館候様にとの儀通詞中え申達 坂の下え通達仕候処 両訳共に東萊え昨日より御用に付登り居候段申来候付 押返し又〃通詞中え申渡候は 御国元大凶事出来候付 急御用有之候間 明朝早〃罷下り 直に入館仕候様に東萊へ小通事差越候様にと申渡す

[史料3]【倭館館守日記】

享保17年(1732)4月5日:

・通詞中え申渡候 夜前東萊え申越 両訳早〃罷下り直に入館仕候様に申達置候間 通詞福山伊左衛門 仁位文吉義坂の下へ早朝より罷越 両訳相見へ候は〃 直に致同道 此方へ罷出候様にと申付 兩人坂の下え六つ半前に差越す

・巳の中刻時分両訳坂の下迄罷下り候故 直に伊左衛門 文吉同道致入館候に付 大通詞小田四郎兵衛義も相附罷出候故 書役小田与七左衛門を以 両訳え申達候は 各儀昨日東萊へ被罷登候処 此方急御用有之 申越候得は 今朝早〃被罷下 即刻入館 苦勞に存候 先つ〃休息可被致候 追付罷出面談可仕と申達し 暫く仕罷出致対面す

・各急に相招き候段 昨夕飛船出来仕候処 先月廿六日の夜御国元大火有之候付 御年寄中より被仰越候は 各を以東萊え御知らせ申入義に付 急に相招申候 扱火事の次第は宮谷丁と申所より先月廿六日の晩出火の処 段〃大風に罷成 府内三分式焼失仕候付 国中の人家凡三千四百軒程焼失と相聞え候廿六日より同廿八日の朝迄焼け申候由 御国相初りケ様成大火只今迄無之珍敷凶事と相聞へ候 依之御家中其外町人焼失に人〃御救の米穀御渡不被成

候ては難叶に相極り候付 当地より差渡し前の去年条陰米 当年の御買米の義 先つは当年来月初めに掛急速に五六千俵代官方え相受取差渡し候様にとの御事にて 御座候 依之先つ〃右の趣被仰越候との飛船に候 扱又対州へ当地より年明け差渡し候米纒の義に候故 此節の凶事に御救被成候儀難成大切至極成国中の勢に候 依之段〃大船被差渡へく候間 各へ申達 東萊より各館へ被相触 当年条前勿論去年陰米の分入送有之候様に申談置 大船渡海次第随分差急き早〃積渡し候様にとの御事に候 誠に絶言語たる凶事出来国中の難儀各にも可被相察候 只今東萊より被罷下候各儀に候得共 此節の事に候故 爰元より即刻東 萊へ被罷登 右の次第被申達 何角は扱置米入送の儀被添御心被下候様にとの義 東萊へ可申達候と申聞候処 両訳返答驚入たる御左右御出来にて 我らに至可申上様無御座候 東萊え即刻罷登被仰聞候次第一〃可申達候 最早御饗応被下候に不及候 一刻も早〃可罷登と申候付 拙者申達候は 勿論左様にも可被仕候得共 遠方又〃被罷越義に候故 各并従者共に食事等被仕 直に被罷登候様にと申達 追付饗応仕る其上にて申達候は 各儀此程も申達候通り 拙者におゐても古き知る人にて殊更御用向功者たけにて御働き方宜段 国元へも申越候義 各儀称[贊?]申来り居候処 此節の大凶事出来の義に候故 取[待?]不相働候て難叶儀に候間 左様可被相心得候と申達候処 委細承届候 我〃儀東萊におゐて心の及申達し 先つ〃御米入送有之候様に可仕候 乍然只今当地の勢に御座候得は急速に御米入送の儀千万無心元奉存候 夫共にケ様 成御国の御難儀の節は朝鮮国より重興御誠信の不被相立候て不叶義と存候 先つ〃御[段?]申入候と申聞 即刻罷帰申候

[史料4] 【倭館館守日記】

享保17年(1732)4月7日:

- ・ 訓別入館仕候付 大通詞小田四郎兵衛 仮通詞仁位文吉同道罷出候付 遂対面候処 四郎兵衛を以両訳申聞候は 一昨日被仰聞候御国御凶事の次第 委細に東萊に申達候処 驚入被申候 依之御手前様方へ東萊御返答被申候は御国表不慮の大火出来御家中其外過分の焼失人有之 御国中の御難儀相察申候 就夫焼失の面〃急に御救不被成候て 難被相叶義に付 当地よりの御買米其外入送り候筈の米一刻も早〃代官方え相渡し候様にとの義 承届候 誠此節は何角差置被仰聞候共 米の儀は責て三四千にても即刻入送不被仕候て難叶義に御座候得共 御聞及の通去年以来よりの朝鮮国飢饉にて各館よりの

寄米寡く 先頃以来より寄米の義段〃申渡し候得共 果放敷入来り不申候
然共此節は急場の御差支の儀に御座候故 大丘巡察使方への委曲申談何の筋
より成共米取立 段〃入送仕候様に自分にも相肝煎可申候 猶又都表え委細
啓聞仕 此節は御誠信の筋重興相立て候様に可仕候間 左様御心得可被成と
委細に申達候様にと 東萊被申候と 両訳申聞候付 拙者返答仕候は 一昨
日申達候趣 即刻府使え被申達 御返答の趣逐一承之候 先以対州米支の次
第委曲被申述候に付 府使 御請方も宜 巡察使えも被仰談 猶又都表えも
委く御啓聞可有之との御事 拙者に至大悦仕候 各此節の義は 先つは宜様
に被申述候と相聞候間 御国えも各働きの次第委細可申上候 扱又明日にも
又〃東萊え被罷登 昨日も米積渡し候様にとの義にて大船一艘急に被差渡着
船仕候 当月中に此元え罷在候大船共に米積渡し候様にとの義申来り候付 当
月中に四五千俵来月初迄には八九千俵も差渡不申候ては 焼失の人別被相救
候義 難成候間 此節は当役の各義は勿論其外下り合の判事中共に随分被申
合 東萊えも巡察使方えも被申込 入米急速に有之候様に可被相働候 各義
は兼〃御国よりの御見合相請居候面〃に候付 此節御国大凶事にて人〃難儀
仕候段 各此節被相働 差渡し候米高も相増し候時は 別て各働きの罷成
義に候故 無油断相肝煎可被申候と申達候処 委細承届候 随分相働き成る
たけ各館よりの寄り米催促可仕候間 左様被思召被下 候様にと両訳返答仕
候 又〃両訳申聞候は 此度焼失の家数 死人 怪我人等の書付御出来候
は〃 御見せ可被下候 府使にも此節の御大變別て気毒に被存 委細に御尋
申候て申聞候様にと被申候 昨日我〃罷在候内に国老卞同知義 入館被申付
候義 御凶事の儀委細に聞合せの為に被差越候 殊外府使にも心遣に被存
委細啓聞被仕候了簡と相見へ候と申聞候

これらの記事から、この火災は、享保17年(1732)3月26日夜に対馬府中の宮谷橋辺
から出火、大風によって燃え広がり、対馬府中の三分の二余り、人家およそ三千四五
百軒が焼失、3月28日の朝まで燃え続けた大惨事であったことがわかる。[史料2][史
料3]にあるように、この一報は飛船により倭館へ享保17年(1732)4月4日に伝えら
れ、その翌日の4月6日には倭館から朝鮮の両訳に伝達された。[史料4]にあるよう
に、翌4月7日には、倭館から朝鮮の訓導・別差に対し、この凶事に関連して米の調
達要請がなされている。

これらの歴史記事との照合により、上掲の「韓牘集要」【第21通】が書かれた日付
は、「対馬島失火」が朝鮮側に伝達され、救済措置の要請がなされた享保17年(1732)

4月7日以降であると推測することができる。

2.2 天銀³⁹⁾事

「韓牘集要」には、以下のとおり、「天銀事」に関する一連の文例があらわれる。以下、その実例を示す。

[韓牘集要]【第8通】

/6 : a/ (前略) 天銀事는, 十分 宣力{선력/セルリエク}호오되, 至今 結末{결말/ムスヒノ心}이 업스오니, 悶慮{민려/-リョウ}中 지내니라, 天銀事와, 鐵物事로, 侄子 아모의게로, 弔별호는 일 잇스오니, 종용히, 불러 보오이(시)고, 翁는 말씀 잇스을 거시니, 諸公{제공}과, 相議호오시고, 一代官公씨, 十分 宣力호오서, 周旋호오시면, 萬分 多幸호올가, (後略)

【和訳】

/6 : a/ (前略) 天銀の事は、精いっぱい尽力いたしますが、今に至るまで結果が出ておりませんので、もどかしい気持ちで過ごしております。天銀のことと鉄物のことで、甥の某に、消息を伝えてございますので、ごゆるりとお呼び出しになって、(甥が)申上げる言葉がでございますので、皆様方とご相談になり、一代官様に、大いにご尽力、ご周旋くだされば、どんなに幸いですでしょうか、(後略)

[韓牘集要]【第10通】

/6 : b/ (前略) 그 天銀 일이 종시 막으시는 /7 : a/ 關文이 내려 오매 諸人の 所見이 마이 업시 네기옵고 僕의 所見과는 大不同호오매 마지 못호여 또 使道 前의 無數히 알의옵고 시방 다시 狀啓을 호시게 極力호노라 호오며 오늘 狀啓을 發送호와야 行次의 밋출 듯 시브오매⁴⁰⁾ (後略)

【和訳】

/6 : b/ (前略) かの天銀のことが結局だめだという /7 : a/ 関文が下りてきましたので、諸人の所見というものがとんでもないものだと思いますし、私の所見とは大いに異なりますので、已むに已まれず、また使道(東萊府使)の御前に何度も申上げ、只今もう一度(東萊府使から朝廷へ) 状啓をなさるようにな力を尽すということですし、今日状啓を送らないと(冬至使の)使行に間に合わないようですので、(後略)

39) 品質のもっともよい銀。十成銀。

40) この表現から、この書簡の作成日は、1731年の冬至使がソウルを出立する前と推測される。

[韓牘集要]【第12通】

/11 : a/ (前略) 또 그 上⁴¹⁾ 銀을 去番의 아니 ㅎ엿더니잇가 一千兩만 一哉와 相議 ㅎ셔 十分 비밀히 出送ㅎ쇼셔 혹 아[느니] 잇스오면 大敗ㅎ을 거시니 極力 비밀히 ㅎ쇼셔 지리ㅎ여 긋치읍

【和訳】

/11 : a/ (前略) また、かの上々銀（純度が最上級の銀）をこの前にしなかったの しょうか。1千両ばかり一哉と相談なさって、くれぐれも秘密裏にご出送ください。もしも察する者がおりましたら（露見いたしましたら）、全く失敗いたしましうから、極力秘密裏におこなってください。長々と申し上げましたので、これまで。

[韓牘集要]【第21通】

/19 : b/ (前略) 그 天銀을 至今 入送을 아니 ㅎ고 밧고아 내여온다 말슴이 업슬 畚 아나라 兩國間 買賣가 不明타 ㅎ고 서울서 뒤라셔 朝家에 大端히 엿즌은 일이 이셔 더욱 震怒ㅎ읍신다 ㅎ오니 以此以彼에 念慮 마이 업스오며 (後略)

【和訳】

/19 : b/ (前略) 「かの天銀を今に至るまで入送をせず、取り替えて出給するというお言葉がないのみならず、両国の間の売買が不明だ」と言って、ソウルで誰かが朝廷に大変に告げ口をしたことがあって、さらに大いにお怒りになられたと申しますので、かれこれを以て、心配は限りございません。(後略)

[韓牘集要]【第22通】

/21 : b/ (前略) 僉中의도 긋별 ㅎ엿습거니와 上年条 白絲價銀을 天銀으로 畢計ㅎ여 一哉鄭判事게 出給ㅎ시고 生銅이 未出来ㅎ여셔도 尺銅이나 生銅이나 二十稱만 내여 주시되 卜物載去ㅎ 許多人馬가 空還ㅎ기 불샹ㅎ오니 부디 수이 出給ㅎ /22 : a/ 여 人馬上來便에 밧게 ㅎ여 주심 千萬 브라운늑 心中의 ㅅㅅㅎ여 薄物을 브내오니 笑 領ㅎ읍쇼셔

【和訳】

/21 : b/ (前略) 皆様方にもお便りいたしましたけれども、去年条の白糸価の銀を天銀で計算して、一哉鄭判事に出給して下さり、生銅が未だ出来していなくとも、尺銅なり生銅なりで二十称ばかり出給して下さるのですが、荷物を載せて行った多くの人馬が、そのまま空しく帰って参りますのが宜しゅうございませぬので、何卒早くに出給し /22 : a/ て、人馬が（東萊へ）上って来る（帰りの）便に間に合うようにして下さいますようお願いいたします。心中寂しゅうございませぬので、粗末な贈り物を

41) 純度が最上級の銀。天銀と同意とみられる。

お送りいたしますので、ご笑納くださいませ。

〔韓牘集要〕【第48通】

/53 : b/ (前略) 秋蔘에 專力을 ㅎ와야 僉公너게 ㅎ광이 되[올] ㄷ 아니오라 ㅎ番 銀들이 너 ㄷ ㅎ여야 多少間 動得이 되올디 銀消肖은 至今 漠然ㅎ읍고 ㄷ는 秋蔘 買 得ㅎ기에 ㄷ지 가오매 두로 ㄷ ㄷ 病中 深慮가 되여 걱정의 일이 되여 가오매 來日 一戔를 下送ㅎ을 거시니 그 天銀事나 묻져 議論ㅎ여 보시되 必 ㄷ 有煩히 말게 ㅎ쇼 셔 (後略)

【和訳】

/53 : b/ (前略) 秋の人蔘に力を入れてこそ、皆様方に見目になるのみならず、今回の銀が十分であってこそ、多少なりとも身動きができるようになるのですが、銀の消息は今に至るまで漠然としており、時は秋の人蔘を仕入れるのに遅れてまいりますので、いろいろ病の中深くおもんばかりまして、心配事になってまいりますので、明日(鄭)一戔を下し送りますから、かの天銀の事でもまずご議論になることと存じますが、なにとぞ煩わしくないようにしてください。(後略)

これら一連の文例にあらわれる「天銀事」とは、享保16年(1731)から享保17年(1732)にかけて発生したいわゆる「天銀一件」を指すものとみられるが、その顛末を確認するため、以下に【倭館館守日記】と【備辺司謄録】の記事を引用する。

〔史料5〕【倭館館守日記】

享保16年(1731)11月11日：

(前略)

・右相済て 四郎兵衛を以申聞候は 昨日東萊へ被招呼 伝令を以被申付候は 此度の冬至銀千貫目余の払前に候を 五百貫目程別代官より内渡仕候段 難心得事候 素り商買の一事におゐても畢竟隣好の誠信に相関り 況[[試銅]の商人等難儀に及候[者]を可致聞捨様無之 風順の憂有之候儀は相知たる事に候故 其期に至間違無之様に 兼 ㄷ 銀貨の備を相立 両送使銀割も無滞可被致 皆済事に候を ㄷ様に不埒有之候段 不相当事候故 公作米入送共に速に可致皆済様無之由被申 庫出の手本仕り候をも承引不被仕 難儀千万奉存候 先此段申上候由申聞候に付 拙子及返答候は 委細被申聞候趣 承届候 冬至銀遣方相遅れ候は 順便 無之故候段 其方達見聞の通りにて人力の不屈所に候得は 兎角を申達不及候 買米の儀は御約条第一の儀にて 看品の諸品無滞相渡し候上は 只今迄皆済可及延引様無之 春夏には全く壹万六千俵の高入 送不被仕候て不叶筈に候を 貴国の不誠信にて段 ㄷ 入送相後れ候と 毎度其方達え

申達事候 冬至銀割の訳を以 買米の入送御滞せ可候哉との儀 府使の御処置より出可申様無之 極て内裨將収税官等え商人共相願 其方達共に申含候て如此被申聞候儀と相聞候 不届千万の至候 其上当年冬至銀遣方相滞の儀は元来対州の不覚悟にても決て無之人蔘代 其外の仕込前年より相渡置候事故春中に入送可被仕筈の人蔘も夏秋に至漸入来り 例年五月初旬に被致下送候物貨も秋比迄相滞せ被申候段 是皆貴国の不埒に候 勿論端糸の類朝鮮国の産物にても無之 北京の品たりといへとも 陸路の遅送にて 往来の定目相極り候事だに様々の故障を被申置 其時を被失候 増て海上数百里を隔たる事候得は其年の風順に應し 銀貨の達方遅速有之候段 人事にて無之 天変候得は 対州におゐても難被任御心事候 殊更別商の儀は貴国の商人と此方別代官中請引いたし候[] 府使の御職分にて御引取被成 何角と被仰聞に不及儀に候得共 当府使には左様の儀迄御心を被用 廉直に御申飭被成候との儀 御尤成る事候故 乍序申達候間 府使え可被申入候は 以前元方役の節 商 訳 等え売掛又は仕込置候銀貨凡四千貫目余の損失に罷成居 当別代官に至ても仕込相滞り居候銀高過分の儀に候得共 仔細有之時勢を見合 厳舗不及催促候 商売の一事におゐても誠信に相関り候事と当府使の思召候と相聞え候条 数十年損失に成り居候銀高取立の儀をも申達候幸の時節到来と一段の事候 只今迄対州より差渡候品は相滞候儀無之候得共 貴国よりは時々不埒の次第数々有之 是又外人の仕形にても無之 都て訳官中に相拘りたる事候故 右伝令の写等差出被申候得 対州え急度遂注進 拙子存寄有之との趣 [令厳責]候得は 別差にも不[委]の儀を申出返答に令当惑候様に相見え 又々申聞候は 具に被仰聞候趣承知仕 御尤千万奉存候 東菜にも一通りに被承 何心なく銀貨の相滞候儀を気毒に被存候所より 伝令を以御米入送を差留之申たるにて可有之候共 聊以御米皆済の差碍に可罷成とは不存候間 乍此上私共引請相済候様に可仕候 尤右の通 府使の申候も別御代官中少も油断不被仕 都銀の渡り方等被申越候様にと被存候ての事に御座候故 先御聞捨に被成被下候様にと達て断申聞 伝令不差出候付 相応に申達饗応等いたし相済て罷帰る

・右の一件令了簡見候処 当年は八道の内にてても別て慶尚道凶年にて 御買米の内米掛の役々借り込等仕居 買納等致候に殊外不手廻しに有之候上 東菜厳密に被遂吟味候故 皆共難儀仕との外向き風聞も有之 皆済砌に相成り候故冬至銀 相揃不申所を申立にいたし 両訳共対策にて右の段申聞候事と相考候付 猶又無油断御米催促被仕候様にと 御代官中へ申渡す

【史料6】【倭館館守日記】

享保17年(1732)1月6日：

- ・御状飛船壹艘船頭鰐浦村五郎(中略)今申の上刻館着(中略)
- ・同便に十一月十一日の日付を以冬至銀渡り方相後れ候付 御買米入送の義

東萊より被差留候段 別差罷出申聞候付 令返答候次第 采女殿 右左衛門殿
え委細申上候処 同廿五日御頭書の御返書を以被仰下候は 拙子返答無残所事
と 最早都銀も渡り揃無出入時節に候得共 尚又両訳召寄可申渡候 商訳中大
分の買掛を仕居 御損失を掛候事は被差置 海上不順に付此度其年銀渡り方致
延引候義を被仰立 筋違の公作米入送御難渋可被成との義 如何様の御所存よ
り東萊被仰聞事 候哉 於国元も甚以難落着候間 其方達呼寄相尋候様にと申
来候と 嚴敷致叱責 返答の趣申上候様に 且亦御通交の間役 〴〵相預り候筋
古来より相立居 一代官は公貿易を取扱 別代官は私貿易を取扱候義 分明に
候を 両訳共其筋を致渋難申聞候段 気毒に候故 已来其筋相分れ候様に心懸
取計候様にと被仰下 委細御状控に有之

[史料7] 【倭館館守日記】

享保17年(1732) 1月7日 :

・ 両訳召寄 大通詞小田四郎兵衛を以申渡候は (中略)
・ 右相済て 冬至御銀渡り方相後れ候付 公作米入送の義東萊より被差留候と
の趣申聞候付 拙子及返答候次第 御国え申上候処 昨日飛船便に御頭書の御
返書を以 委細被仰下候付 則御紙上の旨を以申渡候処 返答に申聞候は 被
仰聞候通 公私貿易の義は其筋違候段 我 〴〵 共にも委く存罷在候へ共 一応伝
令を以被申聞候義 入館仕不申上候ては難相済筋も有之 不得止一通御内意申
上候 偏其砌御 銀渡り方相遅れ候義を東萊にも不審に被存候訳を以 不図被
申渡たる事に御座候処 御自分様より具に被仰聞候趣 早速府使にも申達候へ
は 御尤被存 其後御米の義も無滞被入送 最早事済たる義に御座候付 乍此
上御国えは何分にも宜被仰上被下候様にと達て断申聞候付 相応に申達 已後
ケ様の不埒成義を不申出候様にと致嚴責 相済て罷帰る 尤御頭書の御返答の
趣昨日の日帳に[記]し有之候故 爰略之

[史料8] 【備辺司臈録】

英祖8年(1732) 2月12日 :

今二月初十日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右議政趙所啓、此是東萊府使鄭彦燮
狀啓、初頭即倭船去來事也、末端、即蓼絲價天銀事也、此雖非直請捧出、而其
狀辭、以爲倭人、以渠輩之狼狽商賈之大敗、爲悶云、狡倭情狀、本來難測、今
此變換、若或有意、則前頭之慮、不啻商賈一時之狼狽矣、臣意則以爲接倭之
道、不若守劃一之法也、禮曹判書宋寅明曰、臣意則銀子之換與不換、姑舍勿
論、兩國之通貨無弊者、以其有信矣、皇曆節行時出送者、自是規例、而因換銀
一事、如是愆期、此事較重於銀事矣、刑曹判書李廷濟曰、我國事每如此、誠爲
慨然、島倭衣食、皆係於我國、而我國事大之際、畏約無窮、交隣之節、亦多曲
從、故狡倭知此、輒有難從之請、其在邊臣之道、所當嚴防、而如是狀請、極爲

非矣，朝家當以換銀愆期，俱涉不可之意，據理斥退，且論責邊臣，論罪訓別，而嚴加責諭於倭人，爲宜，不然則邊事必日益縱弛矣，趙曰，今若撓改此事，則後必有難從之請矣，寅明曰，以事理言之，則固當嚴防，而但憑藉換銀，遷延日字，利在於渠，弊歸於我，今若故爲持難於換銀，而往來之際，多費日月，則恐反墮其術中也，臣意則捧其銀子訓別等，拿問重勘，東萊府使警責，似好矣，上曰，倭情本來狡詐，故曾有不可已甚之教矣，禮判所達，不爲無見，而誠如刑判之言，我國北事南交，以其事大畏約之故，至於交隣之道，亦果有曲從之事，彼輩之每每如此者，職由於不能見重之致也，以備局回啓觀之，則渠輩雖不無惶怖之色云，而其手標一節，既甚奸詐，在我之道，固不當示輕，且如大臣之言，不可創出無前之事，東萊府使，從重推考，訓別等，令攸司，拿問銀子事，依前防塞，可也。

(引用者訳)

このたび2月10日に大臣と備局の堂上を引見入侍した時、右議政趙が申し上げるには、「これは東萊府使鄭彦燮の状啓です。初めの部分は倭船去来の事で、終わりの部分はまさに蔘糸価の天銀の事です。これはたとえ直接受け取ることを請うものではないとはいえ、その状啓の内容は倭人のせいで彼らが困り果てて商人たちが破産するのが心配だというものです。狡猾な倭人の考えていることはそもそも測りがたく、このたび天銀に替えることというのがもしも意図があるとするれば、将来の憂慮たるものは商人が一時困り果てることにとどま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臣の考えでは、倭人に接する方法は一貫性を維持するにしくはございません。」 礼曹判書の宋寅明が言うには、「臣の考えでは、天銀に替えるか替えないかということはとりあえずおいておくとして、両国の通貨になんら支障がないのは信義があるためです。皇曆節行の時に(銀を)送ることはもとより規則であるのに、天銀に替えるという一事のせいで時期を失うということになれば、このことは銀の品位を替えることよりも重大なことです。」 刑曹判書の李廷濟が言うには、「我が国の事柄が毎回この如くであるのはまことに慨嘆すべきことです。対馬の倭人の衣食がみな我が国に係わるのですが、我が国が事大の際には恐れること限りなく、交隣之節にはまた曲げて従うことが多いゆえに、狡猾な倭人はこれを知っていつも従いがたい要請をします。それを辺防の臣下は道理として厳しく防ぐべきであるのに、このように状啓で請願するのは極めて間違ったことです。朝廷より天銀に替えることも時期を失うことも両方ともだめだという旨を以って論理的根拠にしたがって退けるべきであり、また、辺防の臣下を論難し責めて、倭学訓導と別差の論罪し、倭人に厳しく責諭を加えるのがよろしいです。さもなければ、辺防の事がきっと日増しに弛むことになるでしょう。」 趙が言うには、「今もしあわててこの事を改変したならば、後に必ず従いがたい要請をするでしょう。」 寅明が言うには、「事理を以って言うならば、もとより厳しく防ぐべきではあるが、

天銀に替えることにかこつけて時日を延ばすことは彼らにとっては利があるけれども、その被害は我らにふりかかります。今もしわざと天銀に替えることに難色を示して往来をするのに多くの日月を費やしたならば、かえって彼らの術中にはまるのではないかと恐れます。臣の考えでは、天銀で以って受け取った訓導・別差等を捕えて取り調べて嚴重に処罰し、東萊府使を警責するのがよいように思います。」 王が言うには、「倭人は本来狡猾でよこしまである。ゆえに、つとにあまりにひどくしてはならないという下教を下したのである。礼曹判書の陳達するところに見るべきものがないわけではないが、まことに刑曹判書の言うとおりである。我が国は北に事大し南に交隣するが、事大する時に恐れ萎縮するがゆえに、交隣においても果たして曲げて従う事になるのである。かの輩が毎回この如くふるまうのは、ひとえに嚴重さが見られないからである。備局の回啓を以てこれをみれば、彼らが恐れる様子がないとあるが、手形の一節に関することからみてもすでに甚だよこしまである。我が国としてはもとより軽々しさを見せてはならず、また、大臣の言うとおりで、前例のない事を突如おこなってもいけない。東萊府使を嚴重に推考し、訓導・別差等は所轄の官衙に命じて捕えさせ、取り調べ、銀に関する事は前例に依って防塞すべし。」と。

【史料9】【倭館館守日記】

享保17年(1732)2月21日：

・今日大通詞小田四郎兵衛罷出申聞候は 昨日訓導百朋金僉正 別差季深玄判事致入館 私え申聞候は 今日都表より私状相達し候処に 我〃儀当役被差替罪科に被申付候との儀 申来候 公命の使明日にても参着候は〃 早速召連登り可申候 案外千萬の儀致出来 難儀仕候由 申聞候付 如何様の次第にて科に逢被申候哉と相尋候得は 両訳申聞候は 旧冬御国より冬至銀被差渡候節天銀御[受]え被差渡候 此銀品も違候付 出し方の儀 都表え東萊より啓聞被致候処に 都表より申来り候は 銀の品も違候故 請取不被申様にと 一度申来候 左様御座候ては 御銀割も相済不申 商訳及難儀候付 何とそ取出し候様に 又〃御啓聞被成被下候様に 東萊え商訳中より達て相願候付 無拋我〃中よりも手本仕候付 東萊より又〃及啓聞候処 一応此段公儀より被差留候銀貨に候得は 代官方えも致素論取替可申処に 請取出し候段 不届の由にて今度科に被申付候段 申聞け候 右兩人申分計にては虚実も無覚東候に付 疾と承合 御案内可申上と 昨日は差扣え申候 然処に今日は弥都表より召捕に参り候者坂下え参着仕候由 皆共申入候 此段御案内申上候と申聞候付 拙者四郎兵衛に返答両訳へ可申達候は 四郎兵衛方迄罷出申聞候趣 承届候 然は各儀都表より被招呼近〃被罷登候段 笑止千萬存候 就夫各には最早両国間御用向被承さる筈に候故 此方より御用向に付召寄候義も可難成候 然は片時も

訓別相備不申候ては御用向差支候 此段東萊御油断は有之間敷候得共 早々各替り被仰渡候様に可被申達候 左様無之候ては拙者請込罷渡候御用向の差支にも罷成候 本役急に相済不申候は 仮役にても早々被 相済 此方えも御尋有之候様に可被申達との儀 委細百朋金僉正 季深玄判事へ可被申達候様に申渡す 依之同廿三日右の趣御支配え御案内申上る 委細状扣有之

これらの記事から、この天銀事の顛末は次のとおりであったことがわかる。冬至使に随行して北京に赴く朝鮮の商人に対し、例年、倭館側より、物貨調達資金として冬至銀千貫目余をわたす慣例であった。しかし、享保16年(1731)の冬至銀は、日本からの船便が滞っていたため、11月11日時点でまだ五百貫目ほどしかわたすことができていなかった。そこで、日本側がやむを得ず品位の異なる天銀で支給することとしたが、その支給の仕方の是非につき、東萊府使より啓聞を上げ、朝鮮朝廷の裁可を仰いだところ、銀の品位も異なるので受け取ってはならないとの回下が下った。しかし、それでは朝鮮の商人たちが難渋するので、東萊府使に商人らが懇願し、訓導・別差からの陳情もあり、東萊府使より再び啓聞を上げた。享保17年(1732)2月10日に朝鮮朝廷でこの二度目の啓聞に関する審議がおこなわれたが、その結果は、やはり前回同様、天銀での受け取りを不可とするものであり、東萊府使を嚴重に推考し、訓導・別差を捕え処罰するようというものであった。この朝廷の決定は、享保17年(1732)2月20日に東萊府に伝えられた⁴²⁾。

これらの歴史記事との照合により、上掲の「韓牘集要」【第8通】は、一度目の啓聞を上げてまだその回下が下っていない時期、【第10通】は、一度目の回下が下り、二度目の啓聞を上げる前の時期に書かれたものとみられる。【第12通】【第21通】【第22通】【第48通】については、書かれた時期が判然としないが、もう少し後の時期に書かれたものとみられる⁴³⁾。

2.3 「図書参判使差備官」

「韓牘集要」【第66通】には、「図書参判使差備官」に関する文例があらわれる。以下、その実例を示す。

[韓牘集要]【第66通】

/66 : a/ 歩行便에 편지하여 一哉개로 傳히게 보내엿습더니 보온지 구후 消息을 모로오니 初寒의 僉客裡 平安 /66 : b/ 하신 일 아옵고져 하오며 드르니 一代官겨셔는

42) これについては、山本進(2013)のpp. 37-38に詳しい。

43) このうち、【第21通】については、先に述べたとおり、「対馬島失火」が朝鮮側に伝達され、救済措置の要請がなされた享保17年(1732)4月7日以降に書かれたものであることが明白である。

든니라 드려 가시다 ㅎ읍더니 卽국은 든너 나오시운지 듯즈오매 접 〃 ㅎ오나 요스이 나오신다 ㅎ매 ×가[○각]별 든 〃 ㅎ와 지내ㄴ이다 僕은 그 일로 지금 결단을 못 ㅎ고 지내더니 本府와 巡營 査覈{사획}이 즈셔ㅎ야 수이 無事히 決斷이 되게 ㅎ여시니 넘너 마르쇼셔 ㄴ려 가기ㄴ ㄴ히며 卽時 썩나려 ㅎ거니와 圖書差使慰差備{도서척스위츠비}로 ㄴ려 가려 ㅎ거니와 或 맞분 일이 이실 듯 시브오니 文書 보와 下去코져 ㅎㄴ이다 (後略)

【和訳】

/66 : a/ 飛脚便でお便りいたしまして、鄭守鍼(一哉)より伝えるように送りましたけれども、ご覧になりましたでしょうか、その後便りが分かりませんので、初寒に客地にて皆様方ご平安の段、 /66 : b/ お伺い申し上げます。承りましたところ、一代官様におかれては(対馬へ)一時ご帰国のため入帰なさったということでしたが、只今は行って戻ってられましたでしょうか、承りまして心残りに存じておりましたけれども、この頃(倭館へ)出来なさったと申しますにより、格別心強く存じ奉ります。私ほかのことで今も決断がなりませぬとござっておりますけれども、本府と巡營の事情の調べを確かにしてこそ、すんなりと無事に決断がなりましようから、心配なさらなくてください。(倭館へ)下って行くのはㄴ히며(大變で?) 直ちに出発しようとは思いますが、図書参判使の慰差備として下って行くつもりなのですが、あるいは急な用事があるようですので、文書を見てから、下って行こうと存じます。(後略)

この【第66通】は、その文面から推して、ソウルから倭館へ送られたものとみられるが、発信者はこれから図書参判使の慰差備として倭館に下って行くつもりであると述べている。この図書参判使とは、享保16年(1731)に派遣された図書参判使樋口孫左衛門を指すものとみられるが、以下に、【倭館館守日記】より関連する記事を引用する。

[史料10] 【倭館館守日記】

享保16年(1731)10月5日 :

- ・ 図書参判使樋口孫左衛門殿御乗り 船御米漕木幡丸船頭次川甚左衛門今丙刻御着船 (後略)

[史料11] 【倭館館守日記】

享保16年(1731)11月2日 :

- ・ 図書参判使接慰官并差備官相濟候由にて 両訳より姓名書付罷出候付 左に記之

覚

図書使接慰官 弘文館校理鄭享復

堂上差備 時中 韓僉知

堂下差備 肅甫 辺判事

辛亥十一月初二日

訓導 金僉正

別差 玄判事

館守尊公

[史料12] 【倭館館守日記】

享保16年(1731)11月27日：

- ・ 図書参判使接慰官去る十六日都表被致出足候由 今朝都表より内證左右令出来候段 両訳より相届る

[史料13] 【倭館館守日記】

享保16年(1731)11月28日：

- ・ 右の便に図書参判使接慰官去る十六日都表出足被致候由 今朝内證左右有之 駅路障無之候得は来る晦日比下着の積りに御座候段 采女殿え申上る 委細 昨廿七日の状控に有之

[史料14] 【倭館館守日記】

享保16年(1731)12月 1 日：

- ・ 図書参判使接慰官今日着の筈に候段 両訳より通詞中を以相届る
- ・ 参判使接慰官弥今日被致下府候段 両訳より通詞中迄相届候 尤今日は東萊え罷有候間 明日致入館 委細可申上旨 申越候段 通詞福山伊左衛門仁位 文吉罷出相届候付 則拙子致[?]参判使え罷出 右の趣申上候様にと申渡

[史料15] 【倭館館守日記】

享保16年(1731)12月 2 日：

- ・ 図書参判使差備官時中韓僉知 肅甫辺判事より 我々儀昨日接慰官同前下府仕候 今日致入館参判使え参上仕候付 乍序御届申上候との義 通詞を以相届る

これらの記事から、享保16年(1731)10月 5 日に図書参判使樋口孫左衛門一行が倭館

に到着、同年11月2日にその接待に当たる接慰官と差備官の姓名書付が倭館館守あてに提出され、同11月27日に接慰官が去る16日にソウルを出立したとの報告が訓導・別差よりなされ、同12月1日に接慰官と差備官が東萊府に到着、同12月2日に差備官時中韓僉知と肅甫辺判事が倭館に入館した、との顛末を確認することができる。

これらの歴史記事との照合により、上掲の「韓牘集要」【第66通】は、図書参判使接慰官・差備官がソウルを出立した享保16年(1731)11月16日より前に書かれたものとみられる。また、その発信者は、図書参判使差備官を担当した時中韓僉知あるいは肅甫辺判事⁴⁴⁾のいずれかと考えられる。

2.4 人物

つぎに、本書「韓牘集要」に収録された書簡の発信者について、いささか検討を加えてみよう。先に述べたとおり、本書所収の各書簡の発信者・受信者は明記されていない。しかし、書簡本文にあらわれる人物名を子細に検討すれば、発信者を確定することができる場合もある。

2.4.1 「豚兒子淳」

「韓牘集要」【第37通】に、以下のとおり、「豚兒子淳」という語句があらわれる。

[韓牘集要]【第37通】

/38 : a/ (前略) 豚兒子淳 {돈오즈순}이 오와닐 듯즈오니 (後略)

【和訳】

/38 : a/ (前略) 我が子の子淳が参りましたので、聞きましたところ、(後略)

「子淳」とは、朴尙淳(子淳)のことで、「訳科榜目」の康熙辛丑(1721)増広試の条に、その名が見え、この時三等で倭学に及第している。

「康熙辛丑(1721)増広

朴尙淳 字子淳 庚辰(1700)生 本密陽 倭学教誨崇祿 泰信子」

この「韓牘集要」【第37通】の発信者は、その文中に「豚兒子淳(我が子の子

44) 朝鮮司訳院の訳科の科試合格者の人名録である『訳科榜目』の慶熙癸巳(1713)増広の条に、彼の名が見え、この時二等で倭学に及第している。

「慶熙癸巳(1713)増広

辺栄 字肅甫 丁卯(1687)生 本原州 倭学教誨通政 父相諧」

淳)」とあることから、朴尚淳(子淳)の父親の朴泰信(信哉)⁴⁵⁾であることがわかる。

2.4.2 「姪子敏甫」

「韓牘集要」【第32通】に、以下のとおり、「姪子敏甫」という語句があらわれる。

[韓牘集要]【第32通】

/31 : b/ (前略) 무궁호오나 맞춤 姪子 敏甫 出使로 ㄴ려 가오매 大槩만 덕스오며 未盡事緣은 敏甫의 口伸의 잇스을 거시니 ㄴ시 듯즈와쇼셔 총〃 잠상

【和訳】

/31 : b/ (前略) 限りがありませんが、ちょうど甥の敏甫が出使として下って行きますので、大略のみを書きます。尽していない内容は敏甫が口上で述べますので、詳しくお聞き下さい。勿々まずは。

「敏甫」とは「朴尚訥(敏甫)」のことで、「訳科榜目」の康熙癸卯(1723)式年試の条に、その名が見え、この時三等で倭学に及第している。

「康熙癸卯(1723)式年

朴尚訥 字敏甫 戊寅(1698)生 本密陽 倭学 尚忠弟」

朴尚訥(敏甫)の父は典医監奉事を務めた朴泰佐、祖父は漢学上通事を務めた朴光後であり⁴⁶⁾、先述の朴泰信(信哉)とは、甥と叔父の関係に当たる。これらのことから、「韓牘集要」【第32通】の発信者は、朴尚訥(敏甫)の叔父に当たる朴泰信(信哉)ではないかと考えられる。

第3節 「韓牘集要」と「隣語大方」の照合

本節では、「韓牘集要」と「隣語大方」の照合を実施する。先述のとおり、「韓牘集要」が「隣語大方」の所拠資料であることはつとに安田章(1963)等において指摘がなされているが、網羅的な照合はいまだ実施されていない。ここでは、両書の文例を逐一照合することによってその対応関係の全貌を明らかにし、「隣語大方」巻4(朝

45) 朴泰信(信哉)については、『訳科榜目』の康熙己卯(1699)式年の条に、彼の名が見え、この時三等で倭学に及第している。

「康熙己卯(1699)式年

朴泰信 字信哉 己未(1679)生 本密陽 倭学教誨嘉善同樞 光後子」

46) 高麗大学校中央図書館影印第13号『姓源録』pp. 446-447を参照。

鮮刊本)の文例の多くが「韓牘集要」に由来するものであることを示したいと思う。

本論文の筆者が両書を逐一照合した結果、先行研究において指摘されたもの(①、②)以外に、9つの対応例(③~⑩)が発見された。また、その分布は、以下に示すとおり、ほぼ「隣語大方」巻4(朝鮮刊本)に集中していることが判明した。

①「韓牘集要」【第22通】

(朝) /20 : b/(前略)凡百物價가 兩國事 相違{상의}호오니 홀 일 업습거니와 天下 凡事가 利호기도 玆양 되는 일 아니오 不利호기도 玆양 되는 일 아니라 互相 循環{순환}호읍거든 엇지 一時不利호다 호고 買賣全體을 玆려 念慮치 아니 호 시니 此時을 當호여 我國衆人의 倚恃{의지}호읍기를 公一人 뿐이오니 아모려 나 凡事를 便宜{편의}로 호셔 人心을 /21 : a/ 鎮定{진정}호고 買賣를 扶支{부지}호게 호[시]를 千萬 玆라옵너(後略)

【和訳】/20 : b/(前略)全ての物価が両国の事が相違いたしまして、致し様がございませぬけれども、天下の全ての事が利になるのも、常になるものでもなく、不利になるのも常になるものでもなく、互いに循環致すものでございしますれば、どうして一時不利だからと申して、売買の全体を捨てて、お顧みにならないのでしょうか。この時に当たって我国の衆人が頼みといたしますのはご貴殿お一人だけでございしますので、何卒全ての事を便宜に取り計らわれまして、人心を /21 : a/ 鎮め、売買を保ち続けるようになさることを何卒願ひ奉ります。(後略)

「隣語大方」[朝鮮刊本4 : 15a-15b]【第204条】

(日) 惣ての物貨の價が以前と比ますれば 相違致まして 氣の毒な事では御座れども 天下の事が都て利する事が不斷有もので御座りませぬ 互に相循環致すもので御座れば 何しに一時に不利なとて 買賣の全体を捨て御心をよせられませぬか 我〃中頼まするは 其元斗で御座るにより 何卒萬事を便誼になされまして 人の心の定まする様になされて 買賣の取續まする様になさる儀を御頼申しまする。

(朝) 凡百 物貨 皆시 曾前과 비겨 보오면 相違호오니 마이 업습거니와 天下 凡事가 利도 玆양 되는 일 아니라 互相循環호여 가읍거든 엇지 一時不利타 호고 買賣全體를 玆려 念慮치 아니호시리인가 우리 大都 | 依恃호기는 公뿐이오니 아모려나 凡事를 便宜로 호셔 人心을 鎮定케 호고 買賣를 부지호게 호심을 玆라옵너

② 「韓牘集要」 【第39通】

(朝) /43 : a/ (前略) 追後 下送 白絲 四十餘稱도 斤兩도 마이 업습고 中으로 잡으신 거시 만스오니 어이 그리 헝시니잇가 或 中으로 잡으려 헝시면 不好흔 多子나 곁희여 若干 잡으실 법 잇습거니와 十四稱이 中으로 갓스오니 그 白絲는 中으로 잡으실 품이 아니오니 觸處{촉체}의 이런 원통{冤痛}흔 일이 어이 이시리잇가 各人의 中으로 잡으신 白絲와 比見헝시면 俺의 冤抑{원억}之端을 아니 아르시리잇가 (後略)

【和訳】 /43 : a/ (前略) 追って、下送した白糸四十余称につきましても斤兩も途方もございませんし、中にお定めになったものが多くございますが、どうして斯様になさるのでしょうか。あるいは、中にお定めになさろうとなさるならば、宜しくないかせ(束)なりとも選んで、若干お定めになることはありえませんが、十四称が中になりましたので、その白糸は中にお定めになるべき品位ではございませんので、至る所に斯様な悔しいことがどうしてあるのでしょうか。各人が中にお定めになった白糸と比べてごらんになれば、私の悔しく思っておりますことをお分かりになれないはずがございません。(後略)

「韓牘集要」 【第42通】

(朝) /48 : a/ (前略) 弘記■■等 /48 : b/ 絲는 中으로 잡으신 白絲[品]과 다[르]외다 上으로 잡으[실] [白絲]올너니 부디 中으로 잡으려 헝오시면 或 多子로나 곁희여 若干 잡으실 법 잇습거×시[○니]와 十四稱이 中으로 갓스오니 各人의 中으로 잡으신 白絲品과 ×此[○比]見헝면 冤痛헝여 흘 줄이야 아니 짐작 헝시리잇가 斤兩을 니르와도 ×九十九[○九十]斤 或 八十九斤의 덜 들린 일이 前後의 업습더니 今番은 八十七斤 或 八十六斤의 들린 거시 잇스오니 그스이 稱子가 或 傷헝여 그리헝온지 路中의셔 或 闔失헝온 거시 이셔 그리헝온지 觸處의 마이업스온 일이 하 만스오니 괴별헝을 말슴이 업습거니와 白絲 一款{관}을 必 大變通을 /49 : a/ 헝셔야 買賣도 陸續헝습고 僕도 保存헝게 헝엿스오니 泛然히 싱각지 마르시고 謹히 留念헝쇼셔(後略)

【和訳】 /48 : a/ (前略) 弘記■■等の/48 : b/ 白糸は中にお定めになる白糸とは異りまして、上にお定めになる白糸でございますので、ぜひとも中にお定めになさろうとなさるならば、あるいはかせ(束)ごとにでも選んで、若干お定めになることはありえませんが、十四称が中になりましたので、各人が中にお定めになった白糸の品位と比べてみれば、悔しく思っておりますことは、御推察になれないはずがございましょうか。斤兩を申しましても、九十斤、あるいは八十九斤を下回ったことは前後にございませんでしたが、今回は八十七斤、あるいは八十六斤に計測されたものがございまして、その間に、計りがあるいは

壊れたからなのか、路中であるいは欠損したものがあつたからなのか、至る所に途方もないことがまことに多くございますので、お伝え申し上げる言葉がございませんけれども、白糸一款を必ず大いにやりくりを/49 : a/なさってこそ、売買も続けられますし、私も身を保つことができましようから、おろそかに思召されず、深くお気遣いくださいませ。(後略)

「隣語大方」〔朝鮮刊本4 : 20a-21b〕【第209条】

(日) 弘記懋の白糸は 中に御立なさる〃品とは違まして ことごとく上品にお立なさる〃筈の白糸で御座りまする ぜひ中にお立なさりようと御思召まするならば かせで御撰なされて 少斗御取被成〃儀は御座るまひ事で御座れとも 拾餘稱がことごとく中に立まして 皆中より 中におとりなされたのとおくらへなされて 御覧なされましたらば 私の難儀に存知まする分を御推察なされませふ 掛目を申ても九拾斤或は 八拾九斤より内に入りました事は前後に御座りましなんだに 今度は八拾六七斤に成ましたも御座りまするにより 近比斤量が損じて左様に御座るか 道中で失まして左様に御座るか 當處毎に難儀な事が多御座るにより 〃様な分を御咄申ませふとそんじて下て參ました。

(朝) 弘記懋白糸는 中으로 잡으실 品과는 다르와 盡[殿]上品으로 잡으실 白糸 | 울너니 부터 中品으로 잡으려 하시면 혹 {端으로, 다즈로}나 곁히여 약간 잡으실 법은 일습거니와 十餘稱이 다 中으로 갈스오니 各人의 中으로 잡으신 걸과 比肩히여 보시면 나의 冤痛히여 ㅎ는 줄이야 아니 짐작하시리인가 斤兩으로 닐너도 九十斤 혹 八十九斤의 덜 들닌 일은 前後의 업습더니 이번은 八十六七斤 들닌 거시 일스오니 요스이 稱子가 상히거나 히여 그러히지 路中の 서 闕失히여 그러히지 觸處의 ㄱ업슨 스경이 만스와 이 설은 스연이나 ㅎ고 저 히여 느려 완습너

③ 「韓牘集要」 【第3通】

(朝) /2 : a/(前略)[僕]은, 그 齒痛{치통}이 낫지, 못 ㅎ은디, 傷寒을 重히 ㅎ여, 卽今 差{즈}道에 드러시되, 아직, 出入을 못 ㅎ기로, 더[적] [代] /2 : b/ 官썩, 수이 느려와(後略)

【和訳】/2 : a/(前略)私はかの歯痛が治らないところ、傷寒を重く患って、今は治りかけていますが、まだ、出入ができないので、この前、代 /2 : b/ 官様にすぐ下ってきて(後略)

「隣語大方」 [朝鮮刊本 4 : 23a] 【第213条】

(日) 何某は彼齒の病が得と無所に 傷寒をわづらひまして 此間は少快方では御座れども 又出入を致得ませぬから 私に代に行て分を聞て來て呉と申まするからケ様に下て參ました。

(朝) 아모는 그 齒痛이 채 날지 못하온디 傷寒을 重히 하여 요스이는 적이 차도의는 드러시되 아직 出入을 못하기의 날을 代行하여 曲折을 아라 달나 호오매 이리 노력왓습넌

④ 「韓牘集要」 【第12通】

(朝) /10 : b/(前略)시방 이리 大事로이 구옵는 거슨 아모조로나 買賣가 連續호다가 痘흔 時節을 만나 興起호고져 브라는 일이옵지 天日이 照臨{조림}호시고 鬼神{귀신}이 明鑑호시니 落本 아니호는 거슬 落本호다 호고 百餘年 兩國 誠信買賣를 一朝에 破고져 호옵는 용심은 양해 밋좁고 天罰이 잇스올 거시니 (後略)

【和訳】 /10 : b/(前略)ただいまこのように仰々しく申し上げますのは、何とかして買売が連続して良い時節に出会い興起したく願うことをごさいまして、お天道様が照臨なさり、鬼神が明鑑なさいますのに、損でないものを損だと言って、百年余りの両国誠信の買売を一朝に破らんとするような邪心には災いが及び天罰がございましょうから、(後略)

「隣語大方」 [朝鮮刊本 8 : 14b-15a] 【第363条】

(日) 我々只今ヶ様に事々敷申まするは 何卒御商賣が 連続致好時節に逢まして 營まする様にと頼まする事で社 御座りますれ 天日も照臨まし 鬼神も明鑑が御座りませう 損失の無ものを 損失が御座ると申て 百餘年來の買賣を一朝に絶ますると存知まする了簡で御座らば 誠以 天罰が御座りませふ。

(朝) 우리들이 時方 이리 대스로이 구옵는 거슨 아모조로나 買賣가 連續호옵고 痘흔 時節을 만나 興起호고져 브라는 일이옵지 天日도 照臨호시고 鬼神도 明鑑호시니 落本 아니호는 거슬 落本호다 호고 百餘年來買賣를 一朝의 斷絶코져 호는 거시오니 그런 용심이 인스오면 실노 天罰이 인스오리이다

⑤ 「韓牘集要」 【第22通】

(朝) /21 : b/(前略)卜物載去호 許多人馬가 空還호기 블상호오니 부디 수이 出給호 /22 : a/ 여 人馬上來便에 밋게 하여 주심 千萬 브라운넌(後略)

【和訳】 /21 : b/(前略)荷物を載せて行った多くの人馬が、そのまま空しく帰って参

りますのが宜しゅうございませんので、何卒早くに出給して、人馬が（東萊へ）上って来る（帰りの）便に間に合うようにしていただきますようお願いいたします。（後略）

「隣語大方」 [朝鮮刊本 4 : 16b] 【第205条】

(日) 荷物をお〴せて参ました人馬が空に歸まするは 最殘多存知まするから 鉄物なり共 多少間御出下されましたらば 返がけにお々せて遣ませふ。

(朝) 짐을 시러온 人馬가 空還히기 섭섭히오니 鐵物이나 多少間 出給히시면 回還의 載去히오리

⑥ 「韓牘集要」 【第30通】

(朝) /29 : b/ (前略) 官家로서 鐵物 百餘稱을 質納히라 히고 數을 定히여 맞지시니 나라 일을 엇지 피히올고 {サケマシヨウカ} 擔當흔 후로 官家 督納이 급히오니 아마 견디지 못히게 히엇습넌 그스이 鐵物이 왓습넌가 日夜 기드리오며 至於鐵物分給之事히여도 他人에서 數小히 나면 或 私計로 업시흔가 疑心히 /30 : a/ 여 罪責이 이실 거시니 此則 萬分 切迫흔 일이오니 必 此事緣을 念히여 念慮히여 주시물 바라옵넌 (後略)

【和訳】 /29 : b/ (前略) 私も官家から鉄物百餘稱をを貿易して納めろとて、數を決めて任されましたので、国の事をどうやって避け得ましようか。担当した後に、官家の催促が急なので、多分持ちこたえることができません。その間、鉄物が来ましたでしょうか、日夜待っております。鉄物分給の事に至りましても、他人より数少なく出給しましたら、或いは、私のはかりごとでなくしているのかと疑い /30 : a/ まして、罪責があるはずですので、これはまことに切迫したことでございますので、必ず、この事情を心に留め置かれお氣遣いくださいますようお願い申し上げます。（後略）

「隣語大方」 [朝鮮刊本 4 : 16b-17b] 【第206条】

(日) 官家より 鐵物一萬斤餘を求て納る様に各〴數を定て云付られまして 公儀の事をどふ避ませふよふも御座りませひで 請合ましたれば 催促が最急に御座つて こたへ難ふ御座りまするが如何 また何の音信も御座りませぬか 鐵物の御渡方も 他人より若少御座つては 内〴で減たかと疑われて 叱が御座りませふにより 御心をよせられて下されませひ。

(朝) 官家 의서 鐵物百餘稱을 質納히라 히고 各各數를 정히여 만기시니 나라 일을 어이 避히올고 擔當흔 후는 督納이 과연 急히여 몬 견디게 히엇스오니 언지

至今 아모 기척도 업습논고 至於 鐵物分給事호여도 他人의셔 혹 [殿]小호오
면 私事로이 업시호가 疑心호여 罪責이 인스올 거시니 十分 記念호여 주옵
소

⑦ 「韓牘集要」 【第40通】

(朝) /44 : b/(前略) 二隻{척}[大]船에 /45 : a/ 生銅 五十稱을 分載出來호다 호
오니 그 五十稱 말이 任官[이] 僉公닌 말을 듯고 그리 호 일인지 만히 나오
다호고는 日後에 엇덜고 호 의스로 그리 호지 此時 鐵物을 數를 기이지 못
홀 말슴과 卽今 私商의 鐵物이 亦是 公貿 鐵物인 줄을 無數히 하엿스오매
應當 五十稱이라 호고 僉公닌는 실로 아니호실 [듯] 싯브온디 手本의 五十稱
이라 호엿스오매 都中들도 落膽호여 이러호오면 開市도 브절 업다 호을 썬
아니라 使道겨옵서 震怒호옵서 僕을 亦是 此後船의 만히 나온다 호던 말을
속혀 알외 [다 호셔] 大責호옵실 썬 [아]니라 [國之大]事 그 /45 : b/ 릇되
게 호다 호옵서 [큰] [거초]{举措}를 호[려] 호옵[시니] [寒心키 莫]甚호와
[再〓{직〓}] 알외고(後略)

【和訳】 /44 : b/(前略) 二隻の大船に /45 : a/ 生銅五十称を積み分けて運んで来た
とございますので、その五十称の話というのは、任官が皆様方のお言葉を聞いて
そう申したのか、多く出来たと申せば、後でどうだろうかというお考えで
そう申しましたのか、この時分、鉄物の数を偽ることができないというお話
と、今私商の鉄物というのもやはり公貿易の鉄物であるということを、数え切
れないほど申しましたので、当然五十称というのは、皆様方は実際にはおっ
しゃっておられないものと存じますけれども、手本に五十称とございましたの
で、(朝鮮側の)商人共も落胆いたしまして、このようであるなら、開市も必要
ないと申すのみならず、東萊府使が甚だ怒られまして、私のことをこれまたこ
の後の船でたくさん出来すると申しましたのを偽って上申したと仰せられまし
て、大いにお叱りになるのみならず、国の大事を /45 : b/ 不埒にするとて、
大いに事を起こそうとなされまして、恐ろしきことこの上ございませんので、
再々申し上げます。(後略)

「隣語大方」 [朝鮮刊本 4 : 17b-19a] 【第207条】

(日) 今度の鉄物は公儀に拘りました事で御座るを 大船貳艘に わずか荒銅五拾稱
を積分て來と申儀を聞れまして 東萊が 我々より御代官中え兼て催促を致さ
ぬ故じやとて 甚怒被まして 我〓を大に叱られますのみなりませぬ 國の
大事を不埒にするとて 大に事を起とされまして 寒心すくなかりませぬによ
り 々様な分を御知らせ申て 變通の道を御相談申ませふとそんじて 罷下り

まして御座りまする。

(朝) 이번 質鐵은 官家の 係關한 일이온디 大船 두 척의 마치 生銅 五十稱 分載 出來한단 말을 듣조오시고 使道계셔 우리가 代官너피 預爲催促을 아니한 타 스로 이리한가 시보다하셔 震怒하시고 우리들 大責하실썸 아니라 나라 大事 를 그릇되게 하다하셔 큰 舉措를 하려 하시니 寒心하기 莫甚하오매 이런 줄 이나 아라시게 하옵고 變通할 도리를 議論하자 하고 느려 완습너

⑧ 「韓牘集要」 【第41通】

(朝) /47 : a/(前略)그 새 하직하옵던 날은 裁判[尊公]이 술을 만히 먹이시매 먹습고 公겨오셔 家親 向하여 [情]外之言을 하시매 과연 애롭스와 그러치 아닌 스연을 하옵노라 즈연 노호는 말슴은 만히 하옵고 죽시 총〃히 써나옴기의 덕으로 가서 다시 보옵도(고) 못 하엿습거와 公의 寬大하신 ㅁ음의 허물 아니 하오실 줄은 아오되 至今[스]지 ㅁ음의 不安하오며 피츨 付之一笑하올 일이오니 必 公겨오셔 이 일을 닛조오쇼셔(後略)

【和訳】 /47 : a/(前略)あの時お別れのご挨拶をいたしました日は、裁判尊公がお酒をたくさんお飲ませになりましたので、飲みまして、ご貴殿が親に向かって、思いもよらぬことをおっしゃられましたので、誠に切なく、そうではないという申し分を申し述べましょうとて、自然と語気を荒げた言葉もたくさん申しまして、直ちにそそくさと帰りましたので、家に帰って再びお目にかかることができずにおりますけれども ご貴殿様のご寛大なお心ゆえ、お咎めなさるまいとは存じますけれども、今に至るまで心中不安にございます。お互いに一笑に付すべきことにございますので、なにとぞご貴殿様におかれてもこのことをお忘れくださいませ。(後略)

「隣語大方」 [朝鮮刊本 4 : 19a-20a] 【第208条】

(日) 其日は 私にも酒に最酔まして 其許様にも 親などにそんじよらぬ事をおつしやれましたにより左様でなひと 申分を申述ませふと致て 自然と御氣に當事も申て歸ましたれ共 其元様の御寛大な御心故 御咎なさるまひとは存ますれども 未心中に安かりませひで 御怒を解ませふと存知て わざ々々様に入て參ましたにより 此後は 此事を御忘下被ましたらば 仕合まするで御座りませふ。

(朝) 그 날은 나도 술을 대단이 취하고 公계셔도 家親向하여 情外之言을 하시매 그러치 아닌 스연을 하노라 自然이 노호은 말도 하고 나갑습거니와 公이 寬大하신 ㅁ음의 허물 아니 하실 줄은 아오나 至今 ㅁ음의 未安하와 解怒하자

ㅎ고 부러 이리 완스오니 彼此란 이 일을 닐즈오시면 多幸할가 ㅎ읍니다

⑨ 「韓牘集要」 【第48通】

(朝) /53 : a/(前略)京 쇼식을 듯즈오니 ■ /53 : b/ 되는데로 모와 去二十五六
日로 發送ㅎ렷노라 ㅎ[옛]스오매 ■■ 기다리고 잇스오니 느려오면 即時 ㄱ
별ㅎ을 거시니 그리 [아르]시려니와 秋蔘에 專力을 ㅎ와야 僉公ㄱ게 싱광이
되[을]썸 아니오라 今番 銀들이 ㄱ〃 ㅎ여야 多少間 動得이 되올디 銀消肖은
至今 漠然ㅎ읍고 ㄱ는 秋蔘 賃得ㅎ기에 느저 가오매 두로〃〃 病中 深慮가
되여 걱정의 일이 되여 가오매(後略)

【和訳】 /53 : a/(前略)ソウルの便りを聞きましたところ、/53 : b/できるだけ集め
てこの前の二十五六日に発送するつもりだとのことでしたので、■■待って
おりますけれども、下ってまいりましたら、すぐにお知らせいたしますので、そ
のようなお心積もりでいらっしやいましょうけれども、秋の人参に力を入れて
こそ、皆様方に見目になるのみならず、今回の銀が十分であってこそ、多少な
りとも身動きができるようになるのですが、銀の消息は今に至るまで漠然とし
ており、時は秋の人参を仕入れるのに遅れてまいりますので、いろいろ病の中
深くおもんばかりまして、心配事になってまいりますので、(後略)

「隣語大方」 [朝鮮刊本 4 : 26b-27b] 【第218条】

(日) 此程都便が御座りました所に 人蔘もやふやく取集まして 近日内に送下さふ
と申て参ましたにより 到來致ましたらば 早速御知らせ申ませふが 秋蔘を
相働ましてこそ 御代官中にも御規模に成ませふにより 彼是に付 銀貨が余
計に御座りましたらば 多少の間致様も御座りませふに 銀子の御左右は ま
だ知れませず 時節は秋蔘を求まするに後まして 氣遣まする儀が限も御座り
ませぬ。

(朝) 요스이 京奇가 이시되 人蔘을 계요 收拾ㅎ여 近日間 下送ㅎ란노라 ㅎ연스오
니 得達ㅎ오면 즉시 아르시게 ㅎ오려니와 秋蔘을 專力ㅎ와야 代官ㄱ게도 生
光이 되올 거시오매 以此以彼の 銀貨가 ㄱㄱㅎ오면 多少間 動得이 되올디 銀
쇼식은 至今 邈然ㅎ고 ㄱ는 느저 가오매 녀녀가 적지 아니ㅎ외.

⑩ 「韓牘集要」 【第60通】

(朝) /61 : b/(前略)東萊예 留宿할 집을 사오니 改筑{기축}ㅎ 役事도 만코 客中
需用雜費{슈용잡비}도 許{허} /62 : a/ 多ㅎ온디 苟且ㅎ 일 이 만스오니 極히
민망ㅎ오니 綿子 伍十部만 주시면 쥬변할가 ㅅ브오니(後略)

【和訳】 /61 : b/(前略) 東萊に居住いたす家を買求めましたので、改築の工事も多くございますし、旅先での雑用物入も /62 : a/ 多くございますので、差支えます事が多くございますので、極めて困っております。綿五十本ばかりお渡しくださいましたならば、やりくりできるかと存じますので、(後略)

「隣語大方」 [朝鮮刊本 4 : 24b-25b] 【第215条】

(日) 近比東萊に居住致家を求まして御座れば 修理を致處も多御座り 旅宿の雑用物入も多御座りまして 差支ます事が多御座りまするにより 綿五拾本斗御渡下被ましたらば 變通の致様も御座りまするから 皆様御相談被下まして御取持下被まする様に御頼申まする。

(朝) 요스이 東萊 留宿할 집을 사옵더니 修補할 役事도 만코 客中の 需用雜費도 許多호오와 苟且할 일이 만스오니 綿子 五十本만 주시면 周便할가 시보오니 모다 議論호시고 施行호심을 바라옵너.

⑪ 「韓牘集要」 【第63通】

(朝) /64 : a/(前略) 出銀後 즉시 드러가시렛노라 호오니 스정의 섭섭 결연호오되 僕의 일을 호양 별통호여 前頭 保存호을 일을 盡心 宣力호시을 듯 시프오매 泰山마튼 은혜를 닦스올가 전혀 밋즈오며 디은보은{知恩報恩}이라 호읍는 일은 自古로 덧〃 호은 일이오니 어이 은혜을 모로오며(後略)

【和訳】 /64 : a/(前略) 出銀後、すぐご帰国なさるとおっしゃいますので、私情において残念でお名残り惜しゅうございますけれども、私のことを良いようにお取り計らいくださいまして、これからもたちゆくようにご尽力くださっているそうですので、泰山のごとき恩を蒙りましょうか、なにとぞお願い申し上げます。知恩報恩ということは古くから変わらないことですので、どうして恩を知らないことがありましょうか。(後略)

「隣語大方」 [朝鮮刊本 4 : 25b-26a] 【第216条】

(日) 承ますれば 出銀後御歸國なさる々そふに御座るから 心中に最殘多存知まする 今日御隙で御座らば御咄でも申ませふと存て 參ましたれ共 其様に御取込で御座るにより 其内又御見送り相兼 參らまして 御物語申ませふ。

(朝) 듣스온즉 出銀 後에 혹 還州호시기라 호오매 私情의 더욱 缺然호오와 오늘은 忠용호실 줄 아옵고 완스오되 저리 擾擾호시매 그 스이 다시 拜別 겸호여 드러와 所懷를 穩叙할가 호읍너.

「隣語大方」 [朝鮮刊本 4:26a-26b] 【第217条】

(日) 先比より折々申まする事は 何卒宜御變通被成まして 先〃相保まする様に
御力を盡被下されまして 重御恩をほどこされましたらば 恩を知て恩を報と
申ことは 古より定た事で御座りまするにより 何しに御恩を忘ませふか。

(朝) 거번부터 縷縷히 ㅎ읍는 일은 아모쵸로나 好樣變通ㅎ오시고 前頭 支保ㅎ계
盡心 宣力ㅎ오시고 泰山근흔 恩惠를 님히읍시면 知恩報恩이라 ㅎ읍는 일은
自古로 떨떨ㅎ은 일이오니 어이 님스올고.

以上の全数調査により、「隣語大方」巻4（朝鮮刊本）の文例の多くが「韓牘集要」に由来するものである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

第4節 まとめ

以上、本章においては、近世期の日・朝語学書のひとつである「隣語大方」について、その所拠資料「韓牘集要」との照合を通じて、文献学的考証をおこなった。まず、「韓牘集要」について、歴史記録類との照合を通じて、所収書簡の成立年や発信者等の考証を実施した。すなわち、「韓牘集要」の文例にあらわれる「対馬島失火」「天銀事」等の事件や「敏甫」「子淳」等の人物名を手掛かりに、その文例の成立年等を明らかにした。つぎに、「隣語大方」と「韓牘集要」の文例を逐一照合し、すべての対応例を明示し、「隣語大方」巻4（朝鮮刊本）の文例の多くが「韓牘集要」に由来するものであることを指摘した。本論文の検討・考察により、従来未解決であった「韓牘集要」の文例の成立過程が解明され、「隣語大方」の文例の歴史的淵源の一部が具体的に明らかになったと信じられる。

第4章 「隣語大方」に現れた一・二人称代名詞の研究

本章は、近世期に成立した日朝対訳資料のひとつである「隣語大方」を対象として、日本語および朝鮮語の人称代名詞の使われ方を、文末語尾の丁寧度との対応の観点から分析したものである。従来、近世期の日朝対訳資料に基づいた人称代名詞の研究は、もっぱら朝鮮の倭学訳官と日本人との対話を内容とする「捷解新語」を対象としておこなわれてきたが、その他の諸資料についても順次検討を加えていく必要がある。本論文ではその一環として「隣語大方」を取り上げるが、資料の性格の違いによって、従来とは異なった方法で分析することとする。すなわち、「捷解新語」はストーリーを持つ連続した対話から成っているために、対話の場面や話し手・聞き手を容易に推測できる。よって、従来の研究は、該書のストーリーから特定される話し手・聞き手との関連から人称代名詞の分析をおこなってきた。しかしながら、「隣語大方」は断片的な文例を無秩序に羅列したものでストーリーがないため、それぞれの文例が、だれがだれにどのような場面で言った言葉なのか、特定できないことが多い⁴⁷⁾。よって、本論文では、話し手・聞き手との関連から人称代名詞を考察することを断念し、テキストの他の部分、すなわち、文末語尾の丁寧度との関連に着目して分析を試みた。日本語・朝鮮語ともに、人称代名詞と文末語尾の丁寧度との間に相関関係が観察されるが、日本語に比して朝鮮語の人称代名詞の各語はカバーする文末語尾の丁寧度が広いことを報告したいと思う。

「隣語大方」には、第2章で示した8つの異本があることが知られているが、本章では、「沈寿官本」を除いた残りの7つの諸本を研究対象にし、各本の日朝の一・二人称代名詞が文末語尾の丁寧度とどのように対応しているかを調査・分析する。

第1節 先行研究

「隣語大方」の人称代名詞を研究対象とした先行研究は、管見の限り、濱田敦(1969)のみである。なお、類似の他の資料を対象とした研究としては、同じく倭学書に属する「捷解新語」の人称代名詞を考察した韓美卿(1994)、薩摩苗代川朝鮮語学書の「漂民対話」の文末語尾を考察した黄文煥(2012)がある。

濱田敦(1969)は、「捷解新語」の原刊本(1676年)と改修本(1748年)を対象として、

47) 前章において述べたごとく、「隣語大方」の文例のうち11条の文例については、だいたい1732年ころに成立したとみられる書簡文集の「韓牘集要」にその淵源を求めることができ、その発信者と受信者がある程度推測することが可能である。しかし、その他の文例については、話し手と聞き手、発信者と受信者を特定することができない。

日朝両語の敬語にかかわる接頭辞・接尾辞の比較対照、それらと述部との関係について論じたものであるが、その考察結果を「隣語大方」および「交隣須知」と比較している。「隣語大方」の日朝の二人称代名詞の対応関係、および、それらの出現頻度数についての指摘は見られるが、本章でとりあげる、人称代名詞と文末語尾との関係についての言及はない。

韓美卿(1994)は、「捷解新語」の原刊本(1676年)、改修本(1748年)、重刊本(1781年)に見られる日本語の尊敬語、謙讓語、丁寧語、対称、自称、他称、不定称、接頭辞、接尾辞について論じ、また動詞「いう」の敬語形をとりあげ日朝対照研究をおこなったものである。特に人称代名詞については、「対称、自称、他称、不定称」が原刊本、改修本、重刊本ごとにどのように変わっていくのかを考察した。日本語の一・二人称代名詞や述部についての個別の言及は見られるが、それら相互の対応関係、およびその朝鮮語との比較対照はなされていない。

黄文煥(2012)は、「隣語大方」と編纂年代が近い「漂民対話」(上中下巻)を用い、各巻に現れる文末語尾の丁寧度を調査し、「 $\text{ㄱ}\text{여라}$ 」体(≒極降) < 「 $\text{ㄱ}\text{소}$ 」体(≒稍降) < 「 $\text{ㄱ}\text{ㅁ}\text{소}$ 」体(≒稍尊) < 「 $\text{ㄱ}\text{(ㅁ)}\text{ㅁ}\text{ㅅ}$ 」体(≒極尊)の四つの等級に分類した。また、上下巻と中巻の文末語尾の丁寧度を比較・検討し、両者の間に差異が存在することを指摘した。しかし、朝鮮語のみを研究対象としており、本章でおこなう日本語との比較対照はなされていない。

本章では、黄文煥(2012)の文末語尾の4つの等級体系を参考に、以上の3つの先行研究でおこわれていない、「隣語大方」朝鮮語の一・二人称代名詞と文末語尾の丁寧度の対応関係の調査・考察、およびその日本語との比較対照を試みる。

第2節 朝鮮語の一・二人称代名詞と文末語尾の丁寧度の対応関係

本節では、「隣語大方」の各異本ごとに、一・二人称代名詞(単数・複数)がどのような丁寧度の等級の文末語尾とともに用いられるかを調査し、丁寧度の高い文末表現から丁寧度の低い文末表現に分類配列して表にまとめる。記述の枠組みは黄文煥(2012)の4つの相対敬語法の等級体系(① $\text{ㄱ}\text{(ㅁ)}\text{ㅁ}\text{ㅅ}$ 体、② $\text{ㄱ}\text{ㅁ}\text{소}$ 類、③ $\text{ㄱ}\text{소}$ 類、④ $\text{ㄱ}\text{여라}$ 体)⁴⁸⁾に依拠するが、「隣語大方」には、「漂民対話」に現れない終結形である「 $\text{-ㄱ}\text{ㅁ}$ 」、「 -ㅁ 」が現れるので、これを「 $\text{ㄱ}\text{ㅁ}$ 類」と名づけ、加えることとする⁴⁹⁾。

48) 黄文煥(2012)は、② $\text{ㄱ}\text{ㅁ}\text{소}$ 類および③ $\text{ㄱ}\text{소}$ 類を、「-体」ではなく「-類」と命名した理由について、終結形に対する等級判定を一旦保留した状態で議論を進行するためであると述べている。本論文では、黄文煥(2012)の用語に依拠することとする。①～④は、①が最も丁寧度が高く、②③④の順に丁寧度が低くなる。

49) $\text{ㄱ}\text{ㅁ}$ 類は、② $\text{ㄱ}\text{ㅁ}\text{소}$ 類と③ $\text{ㄱ}\text{소}$ 類の間に入る丁寧度をもつ。なお、「隣語大方」は公的であらたまっ

2.1 一人称代名詞

一人称代名詞の単数は、「나(私)」と「이녀(인역)(私)」のみ現れ、複数は「우리(私たち)、우리들(私たち)」のみ現れる。現代朝鮮語で一人称代名詞の謙讓語である「저(わたくし)」は、「隣語大方」には現れない。김미형(2001)は、再帰代名詞であった「저(自分自身)」が一人称の謙讓語として使われた時期を1890年代と推定しており、朝鮮語の一人称代名詞として「나(私)」と「우리(私たち)」が、古代、中世、近代、現代朝鮮語に渡って現れ、近代以前においては「나(私)」が非謙讓・謙讓両方の役割をしていたと述べている。「隣語大方」の一人称代名詞の出現様相は、明治刊本も含め近代以前の朝鮮語の様相に合致するものである。

[表2] 「筑波大本」朝鮮語の一人称代名詞

単数	分類	複数	分類
나(78) ⁵⁰⁾	① ㅎ(읍)쇼셔体(29)	우리(30)	① ㅎ(읍)쇼셔体(10)
	② ㅎ읍소類(48)		② ㅎ읍소類(20)
	④ ㅎ여라体(1)		
이녀(5)	① ㅎ(읍)쇼셔体(3)	우리들(18)	① ㅎ(읍)쇼셔体(8)
	② ㅎ읍소類(2)		② ㅎ읍소類(10)

【単数】

나

[筑2:24a] 나도 앓가 드러 왓스오나 (中略) 感激ㅎ여 ㅎ읍느이다

(ㅎ(읍)쇼셔体)⁵¹⁾

(私モ 先刻入テ参タレドモ (中略) 辱ウゾンシマスル)

[筑3:01b] 저 사름이 앓가 바독을 두다가 내게 못 이긱다하고 (中略) 내가 ㅎ 번 지니간디 이제야 깃거하느 辞色이 뵈읍닌 (ㅎ읍소類)

(アノ人ガ先刻 碁ヲウツテ ワシにマケタトテ (中略) ワシが一バン負マシタレハ 今コソヨロコバルル ヤウスガ 見エマスル)

た場面での対話例文が多く、主として丁寧度の高い文末表現が用いられている。たとえば、「筑波大本」についてその文末表現の丁寧度の分布頻度を示せば、以下のとおりである。

文末語尾の総数 535個

朝鮮語① 109個(20%)、② 420個(79%)、③ 4個(0.7%)、④ 2個(0.3%)

このような「隣語大方」のもつ偏向性をふまえたうえで、それぞれの人称代名詞との共起関係を調査・分析することとする。

50) ()内の数字は出現頻度数。以下同様。

51) 例文の引用は、写本と刊本で代表的な「筑波大本」と「朝鮮刊本」の例文のみを挙げることにし、他の異本は省略する。以下同様。

[筑4:20a] 나도 그 當身^니과 흔 번의 發程^홀 양으로 헛었습더니 (中略) 이제야 느
려 왔습^닌(헛읍소類)

(私^モ アノシユト 同前ニ發程イタソウトシマシタニ (中略) 只今コソ下
ツテ参リマシタ)

[筑8:18a] (前略)나는 나라 일로 他鄉의 멈으로 이시니 민망^하다 (헛여라体)

((前略)手前ハ國ノコトデ 他郷ニ 逗留シ居テ難儀ナコトデア^ル)

이녀

[筑4:10b-11a] 이녀인들 싱각이 아니 잇스오리잇가마는 (中略) 아니 어렵스^운가
(헛(읍)쇼셔体)

(코노^方모 了簡ガナイコトデモ 고ザルマイカナレドモ (中略) ナニ
トムツカシイデハ^코サラスカ)

[筑5:03a] 도로^드라 이녀의 해밋기 쉽스^오리 (헛읍소類)

(却テ 此^方ニ 害ノ及ブ モノデ 고ザリ^마스^르)

【複數】

우리

[筑2:22b] 우리게 捷解新語라 헛고 日本말 비호는 冊이 잇습더니 (中略) 다^헛헛^홀가
헛읍^닌 (헛읍소類)

(私^方ニ セウカイ新語ト 申テ 日本詞ヲ 習ウ本ガ 고ザリ^마스^르ニ (中
略) 仕合^マ스^르데^고사^리마^세우)

[筑7:13a-13b] (前略)우리 大都 | 倚恃^헛읍^기는 公썩이오니 (中略) 브르^읍는^이다
(헛(읍)쇼셔体)

((前略)我我中 頼^ミ마^스르^ハ 其元バカリテ^고ザ^ルニ^ヨ리 (中略)
ヲ頼^ミ申^マ스^르)

우리들

[筑5:04b] 우리들이 공 밋기를 十^盲一^杖으로 알고 잇습^닌디 (中略) 늘 밋고 일을
헛가 시브^온고 (헛읍소類)

(我^共ハ 其元サマヲ 盲人ノ杖ノヤウニ 存シテ 居マ^スル^処ニ (中
略) 誰ヲ頼^ニ コトヲ致^スモノデ 고ザ^리마^스르^카)

[筑8:06a-06b] (前略)우리들은 아조 不攻自破가 되어 (中略) 아니 블상^하오^니잇^가
(헛(읍)쇼셔体)

((前略)我^レハ 不攻自破ト申モノデ (中略) 難儀ナ事デハ ゴザリマ
セヌカ)

[筑9:09b-10a] (前略)우리들의 意見과는 相在^호오매 (中略) 汲^피 生覺^호여 보옵시
과져 호옵^넌 (호옵소類)

((前略)我^レノ了簡ハ チカイヨスルニヨリ (中略) 深ウ了簡シテ ゴ
로우^지트우 存^지마스^르)

[表 3] 「朝鮮刊本」 朝鮮語の一人称代名詞

単数	分類	複数	分類
나(74)	① <u>호</u> (<u>읍</u>)쇼셔体(17)	우리(29)	① <u>호</u> (<u>읍</u>)쇼셔体(9)
	② <u>호</u> 옵소類(54)		② <u>호</u> 옵소類(20)
	<u>호</u> 옵類(2)		
	④ <u>호</u> 여라体(1)		
이 ^녀 (5)	① <u>호</u> (<u>읍</u>)쇼셔体(1)	우리들(14)	① <u>호</u> (<u>읍</u>)쇼셔体(8)
	② <u>호</u> 옵소類(4)		② <u>호</u> 옵소類(6)

【単数】

나

[朝1:04b] 나도 요스^이 暑症氣運^이이셔 (中略) 나도 強疾^호여 參詣^호읍^게 호옵^넌
(호옵소類)

(私も 此ほと 暑氣痛を いたして (中略) 私も 病氣を 推して 罷出^{ませ}
ふ)

[朝1:31a] 나도 안가 드리 완스^오나 (中略) 感激^호여 호옵^넌이다 (호(읍)쇼셔体)

(私も 先刻 入て 参りましたれとも (中略) 先達て 御尋に 預りまして 忝
ふ存^{ます}る)

[朝9:02a] (前略)아모커나 내 이실스^이의 느려 오게 ^호여 주^옵 (호옵類)

((前略)とふぞ 私の 逗留内に 下りて 参る様にして 下^{され}ませ^ひ)

[朝9:22b] (前略)나는 나라 일노^호여 他郷의 머무러 이시니 민망^호다 (호여라体)

((前略)手前^は 公用に付 他郷に 逗留して 居て 難儀な 事^{である})

이^녀

[朝1:17b-18a] (前略)이녀^이 므오 대접^호는 체^호여 달내면 (中略) 부^딕 노호^여 마
옵쇼셔(호(읍)쇼셔体)

((前略)此から 随分 うやまふ 軀をして ずかせ^ば (中略) 必腹^を た
て^{さつ}し^{やる}な)

[朝6:03a] 인역이 害 믿기 쉽스오리 (ㅎ읍소類)
(吾가 身に 害가 有もので 御座る)

【複數】

우리

[朝1:29a-29b] 우리게 捷解新語 | 라 ㅎ고 日本말 비호는 칙이 인습더니 (中略) 修整하여 주시면 多幸홀가 ㅎ읍닌 (ㅎ읍소類)

(我〃方に 捷解新語と申て 日本詞を 習ひまする 本が 御坐りまする
가 (中略) 御直し被下ましたらば 仕合まするで 御坐리ませふ)

[朝5:06b] (前略) 우리근 ㅎ 年少之人이 老爺를 爲하여 (中略) 무슴 인스ㅎ도록 ㅎ오리인가 (ㅎ(읍)쇼셔体)

((前略)我〃如き 年若者の御老人に對して (中略) 何の御挨拶に 及ませふ
か)

우리들

[朝2:08a] (前略) 우리들이라도 우격으로 (中略) 上年例로 ㅎ게 ㅎ사이다 (ㅎ(읍)쇼셔体)

((前略)我〃じやと申ても 無理に (中略) 去年の例に 致し様に 致しませ
ふ)

[朝2:12b] (前略) 우리들의 意見과는 相左호오매 (中略) 싱각하여 보시고져 ㅎ읍닌 (ㅎ읍소類)

((前略)我〃의 存寄は間違て居まするにより (中略) 必深御思慮被成度存知
まする)

[表 4] 「アストン文庫本」 朝鮮語の一人称代名詞

单数	分類	複數	分類
나(51)	① ㅎ(읍)쇼셔体(20)	우리(20)	① ㅎ(읍)쇼셔体(9)
	② ㅎ읍소類(30)		② ㅎ읍소類(11)
	④ ㅎ여라体(1)		
이녁(4)	② ㅎ읍소類(4)	우리들(12)	① ㅎ(읍)쇼셔体(6) ② ㅎ읍소類(6)

[表 5] 「苗代川本」 朝鮮語の一人称代名詞

单数	分類	複數	分類
나(42)	① ㅎ(읍)쇼셔体(15)	우리(14)	① ㅎ(읍)쇼셔体(5)

	② ㅎ읍소類 (27)		② ㅎ읍소類 (8)
			ㅎ읍類 (1)
이녀 (3)	① ㅎ(읍)쇼셔체 (1)	우리들 (8)	① ㅎ(읍)쇼셔체 (4)
	② ㅎ읍소類 (2)		② ㅎ읍소類 (4)

[表 6] 「明治刊本」 朝鮮語の一人称代名詞

単数	分類	複数	分類
나 (108)	① ㅎ(읍)쇼셔체 (62)	우리 (30)	① ㅎ(읍)쇼셔체 (18)
	② ㅎ읍소類 (34)		② ㅎ읍소類 (9)
	③ ㅎ소類 (9)		③ ㅎ소類 (2)
	④ ㅎ여라체 (3)		④ ㅎ여라체 (1)
이녀 (2)	① ㅎ(읍)쇼셔체 (1)	우리들 (18)	① ㅎ(읍)쇼셔체 (15)
	② ㅎ읍소類 (1)		② ㅎ읍소類 (3)

[表 7] 「濱田文庫本」 朝鮮語の一人称代名詞

単数	分類	複数	分類
나 (58)	① ㅎ(읍)쇼셔체 (18)	우리 (25)	① ㅎ(읍)쇼셔체 (8)
	② ㅎ읍소類 (38)		② ㅎ읍소類 (16)
	③ ㅎ소類 (2)		③ ㅎ소類 (1)
이녀 (4)	① ㅎ(읍)쇼셔체 (1)	우리들 (11)	① ㅎ(읍)쇼셔체 (5)
	② ㅎ읍소類 (3)		② ㅎ읍소類 (6)

[表 8] 「小倉文庫本」 朝鮮語の一人称代名詞

単数	分類	複数	分類
나 (2)	① ㅎ(읍)쇼셔체 (1)	우리 (8)	② ㅎ읍소類 (8)
	② ㅎ읍소類 (1)		

全異本において、一人称代名詞が現れる文の文末語尾の丁寧度は、① ㅎ(읍)쇼셔체、② ㅎ읍소類、ㅎ읍類、③ ㅎ소체、④ ㅎ여라体のすべての等級が現れるが、特に、一人称の単数・複数とも、② ㅎ읍소類が最も多い。

「나」は、① ㅎ(읍)쇼셔체、② ㅎ읍소類、ㅎ읍類、③ ㅎ소체、④ ㅎ여라体にわたり広く使われる。「이녀」は、① ㅎ(읍)쇼셔체、② ㅎ읍소類にわたり用いられ、「筑波大本、朝鮮刊本、苗代川本、明治刊本、濱田文庫本」では、丁寧度の高い文末語尾に当たる① ㅎ(읍)쇼셔체、② ㅎ읍소類にわたって現れるが、「アストン文庫本」では、② ㅎ읍소類にのみ現れる。

「우리」も、① ㅎ(읍)쇼셔체、② ㅎ읍소類、ㅎ읍類、③ ㅎ소체、④ ㅎ여라体にわたり広く使われ、「우리들」は、① ㅎ(읍)쇼셔체、② ㅎ읍소類にのみ現れる。「筑波大本、朝鮮刊本、アストン文庫本、苗代川本、明治刊本、濱田文庫本」では① ㅎ(읍)쇼셔체と② ㅎ읍소類がほぼ同じ頻度で現れる。

ぞんざいな文末語尾はほとんど現れないという資料上の偏向性があるため、この分布状況から一概に結論を導くことはできないが、いちおう、「우리」は、丁寧からぞんざいな文末語尾にわたり現れ、使用範囲が広いのに対し、「우리들」は、丁寧な文末語尾にのみ現れていて、「우리」より丁寧さが高いと考えることができる。

2.2 二人称代名詞

二人称代名詞は、「公(公)、자넨(君)、계·게서(あなた)、너(お前)、딕(あなた)、公넨(公様)、자넨넨(君達)、여러분넨(皆様方)」が現れる。このほか、二人称代名詞ではないかと疑われるものに、「代官넨(代官たち)、同官、令監、모다(皆)、선싱(先生)、선싱님(先生様)、老爺、老爺님(老爺様)、老丈님(老丈様)、訓丈님(訓丈様)、尊長님(尊長様)、장무네(掌務方)」があるが、文脈が不明瞭なため三人称代名詞である可能性を排除できないので、ここには考察の対象から省くこととする。

[表9] 「筑波大本」朝鮮語の二人称代名詞

单数	分類	複数	分類
公(24)	① ㅎ(읍)쇼셔体(7)	公넨(4)	② ㅎ읍소類(4)
	② ㅎ읍소類(17)		
자넨(8)	② ㅎ읍소類(7)		
	③ ㅎ소類(1)		
계, 게서(2)	② ㅎ읍소類(2)	자넨넨(2)	② ㅎ읍소類(2)
너(1)	④ ㅎ여라体(1)	여러분넨(1)	② ㅎ읍소類(1)

【单数】

公

[筑2:03a] (前略)公이 나오시기를 (中略) 하 답답히여 드러 왔습넨 (ㅎ읍소類)

((前略)其元サマノ ヲ出ナサルヲ (中略) アマリ キゼキニシテ 入テ マイリマシタ)

[筑6:17a] (前略)公겨오셔 老當益壯히읍신 (中略) 悲淚自落히올식이다 (ㅎ(읍)쇼셔体)

((前略)其元様ノ ヲ年カケラレマシテ マスマス ゴ壯ニゴザラシヤレマシテ (中略) ヲボエズ落淚イタシマスル)

자넨

[筑2:14b-15a] (前略)자넨게 나온 일이 잇게 히여 줄거시니 부디 背約지 마소 (ㅎ소類)

((前略)コナタニモ ヨイ事ノアルヤウニシテ ヤリマセウニヨリ 必ス

ヤクヲチガエサシヤルナ)

[筑3:22a-22b] 자닌 口辯이 (中略) 애이에 말면 뜻게 헝엿습닌 (헝읍소類)
(ゴジブンノ辨舌ガ (中略) カタカラ 云ダサシヤレヌガ ヨウコサリマ
スル)

계, 게서

[筑1:07b-08a] 게서는 累年親切^헝 스이오 (中略) 아마도 公의게 정이 만스오니
(헝읍소類)
(其元ニハ 數年 ヲヒタシイ間^데 ゴザリ (中略) ドウデ 其元^{사마}니 ジ
ヤウカ 多^다 ゴザリ마스르)

너

[筑8:18a] (前略)너는 先墓의 伐草^헝라 가되 (中略) 멈으로 이시니 민망^헝다 (헝여
라体)
(前略)其方^하ハ 先祖ノ墓ニ 草トリニ 行ケドモ (中略) 逗留シ居テ 難儀ナ
コトデア^르)

【複數】

公닌

[筑2:22b] (前略)公닌게 드려보내 올거시니 修整^헝여 주시면 다^다헝^헝가 헝읍닌
(헝읍소類)
(前略)其元^{사마}니 入テツカハシマセウニヨリ ヲナヲシナサレ 下サレタラ
ハ 仕合^하마스^르데 ゴサリマセウ)
[筑4:09b] 公닌가 아모리 英敏^헝시다 헝여도 (中略) 無不通知^헝시기 헝스오^리잇^가
(헝(읍)쇼셔体)
(各^하사^마카 イカニ 御發明^하나^트申^테모 (中略) 知^리ツク^소우^트나^사르^코트^가
타^야스^크 ゴザリマセウ카)

자닌닌

[筑1:06a] (前略)자닌닌를 아니 스^스랑^헝가 시^시브^온가 (헝읍소類)
(前略)코나^타시^유라 何^노 愛시^마스^르마^이카)

여러분닌

[筑5:16a] (前略)여러분닌 안자 계시기의 (中略) 좃시 대스롭티 아니 헝외 (헝읍소
 類)

(大ゼイ ゴザナサレマスルニツキ (中略) ゲイカ ソレホドニ ゴザ리마세
ヌ)

[表10] 「朝鮮刊本」 朝鮮語の二人称代名詞

单数	分類	分類	複数
公(23)	① 헝(읍)쇼셔体(6)	公닌(7)	① 헝(읍)쇼셔体(3)
	② 헝읍소類(17)		② 헝읍소類(3)
자닌(9)	② 헝읍소類(9)	자닌닌(1)	헝읍類(1)
계, 게셔(3)	② 헝읍소類(3)		① 헝(읍)쇼셔体(1)
너(1)	④ 헝여라体(1)		

【单数】

公

[朝1:03b-04a] (前略)공이 나오시기를 (中略) 하 답답헝여 이리 드리 완습닌 (헝읍
 소類)

((前略)其元様の御出を (中略) 餘の事に 々様に入て 参りました)

[朝4:19a-20a] (前略)공이 寬大헝신 ㅁ음의 허물 아니헝실 줄은 아오나 (中略) 多
 幸홀가 헝읍닌이다 (헝(읍)쇼셔体)

((前略)其元様の御寬大な 御心故御咎なさるまひとは 存ますれども
 (中略) 仕合まするで 御座리ませふ)

자닌

[朝4:05b] (前略)자닌쳐로 본갑식 갑절이나 바드려 헝니 (中略) 묻헝게 헝열습닌
 (헝읍소類)

((前略)此方の様に 元直に 倍も 取とさるるにより (中略) しにくふ 御座
る)

계, 게셔

[朝5:10b-11a] (前略)계 下人헝여 어더 주시면 德分の 生光일가 헝읍닌 (헝읍소
 類)

((前略)其元の家頼を以 求被下たらば 御蔭に 仕合まするで 御座리ま

세ふ)

너

[朝9:22b] (前略)너는 先墓의 伐草하라 가되 (中略)머무리 이시니 민망하다 (ㅎ여라体)

((前略)其方は 先祖の墓所に 草取に行共 (中略)逗留して居て 難儀な事である)

【複数】

公너

[朝1:28b-29b] (前略)公너끼 드려 보내올 거시니 修整하여 주시면 多幸할가 ㅎ읍너 (ㅎ읍소類)

((前略)其元様方へ 遣ませふにより 御直し被下ましたらば 仕合まするで 御坐りませふ)

[朝8:07a-07b] (前略)公너계셔 꾸지저 주읍 (ㅎ읍類)

((前略)皆様より叱て遣しやれませ히)

자너너

[朝5:07a] (前略)자너너를 아니 스랑하리일가 (ㅎ(읍)쇼셔体)

((前略)こなた衆を愛しますまいか)

[表11] 「アストン文庫本」 朝鮮語の二人称代名詞

単数	分類	複数	分類
公(13)	① ㅎ(읍)쇼셔体(5)	公너(5)	① ㅎ(읍)쇼셔体(3)
	② ㅎ읍소類(8)		② ㅎ읍소類(2)
자너(3)	② ㅎ읍소類(3)	여러분너(1)	② ㅎ읍소類(1)
계, 계셔(1)	② ㅎ읍소類(1)		
너(1)	④ ㅎ여라体(1)		

[表12] 「苗代川本」 朝鮮語の二人称代名詞

単数	分類	複数	分類
公(13)	① ㅎ(읍)쇼셔体(5)	公너(3)	① ㅎ(읍)쇼셔体(2)
	② ㅎ읍소類(8)		② ㅎ읍소類(1)
자너(3)	② ㅎ읍소類(3)	여러분너(1)	② ㅎ읍소類(1)
계, 계셔(1)	② ㅎ읍소類(1)		

[表13] 「明治刊本」 朝鮮語の二人称代名詞

単数	分類	複数	分類
공 (23)	① ㅎ(읍)쇼셔体 (17)	공네 (13)	① ㅎ(읍)쇼셔体 (11)
	② ㅎ읍소類 (5)		
	③ ㅎ소類 (1)		
자네 (8)	② ㅎ읍소類 (4)	자네네 (2)	② ㅎ읍소類 (2)
	③ ㅎ소類 (4)		② ㅎ읍소類 (1) ③ ㅎ소類 (1)
틱 (2)	① ㅎ(읍)쇼셔体 (1)	여러분네 (1)	① ㅎ(읍)쇼셔体 (1)
	② ㅎ읍소類 (1)		
너 (1)	④ ㅎ여라体 (1)		

[表14] 「濱田文庫本」 朝鮮語の二人称代名詞

単数	分類	複数	分類
公 (20)	① ㅎ(읍)쇼셔体 (4)	公너 (5)	① ㅎ(읍)쇼셔体 (3)
	② ㅎ읍소類 (16)		
자너 (5)	② ㅎ읍소類 (4)	자너너 (2)	② ㅎ읍소類 (2)
	③ ㅎ소類 (1)		② ㅎ읍소類 (2)
계, 게셔 (1)	② ㅎ읍소類 (1)	여러분너 (1)	② ㅎ읍소類 (1)

[表15] 「小倉文庫本」 朝鮮語の二人称代名詞

単数	分類	複数	分類
자너 (2)	② ㅎ읍소類 (2)	公너 (2)	② ㅎ읍소類 (2)
		자너너 (4)	② ㅎ읍소類 (4)

全異本において、二人称代名詞が現れる文の文末語尾の丁寧度は、文末語尾の等級体系の①から④まで広く現れる。その中でも、② ㅎ읍소類が多く現れ、次が、① ㅎ(읍)쇼셔体である。ㅎ읍類とぞんざいな終結語尾である④ ㅎ여라体の出現頻度数は少ない傾向が観察されるが、これは「隣語大方」の持つ資料上の偏向性によるものと考えられる。

「公、公너」は、① ㅎ(읍)쇼셔体、② ㅎ읍소類、③ ㅎ소類、ㅎ읍類、「자너、자너너」は、① ㅎ(읍)쇼셔体、② ㅎ읍소類と、③ ㅎ소類、「계、게셔」は、② ㅎ읍소類にのみ現れ、「너」は、やはりぞんざいな文末表現である④ ㅎ여라体と対応している。

二人称代名詞の文末語尾の丁寧度も教材という資料上の特質から、主に丁寧な語尾に現れるのが特徴であると言える。朝鮮語の二人称代名詞の中で、最も多く現れる「公」は、「隣語大方」の諸本の中でも時代的に古いものである「筑波大本、朝鮮刊本、アストン文庫本、苗代川本、濱田文庫本」と新しいものである「明治刊本」を比してみると、古い異本ではだいたい② ㅎ읍소類として現れ、「明治刊本」ではほぼ①

き(음)호체として現れることが分かる。

第3節 日本語の一・二人称代名詞と文末語尾の丁寧度の対応関係

諸本において、日本語の一人称代名詞(単数・複数)が、どのような等級の文末語尾とともに現れるかをみるため、山崎久之(1963)の相対敬語法の五つの等級体系(①第一段階(大敬語)、②第二段階(敬語)、③第三段階、④第四段階、⑤第五段階)⁵²⁾を用い、丁寧の表現からぞんざいな表現に分け、以下の表にまとめる。ここでは、日本語対訳文を持たない「小倉文庫本」は扱わない⁵³⁾。

3.1 一人称代名詞

全異本を合わせ、単数は「私、ワシ、此方、手前、吾ガ身、ワレ、我レ、我レ等、ソレガシ、コチ」、複数は「我〃、我〃共、私、我、ワ⁵⁴⁾、我〃中、私ナド、我等、ワシ⁵⁵⁾、此方、吾輩」が現れる。

[表16] 「筑波大本」日本語の一人称代名詞

単数	分類	複数	分類
私(59)	①第一段階(大敬語)(73)	我〃(25)	①第一段階(大敬語)(46)
ワシ(11)		我〃共(6)	
此方(2)		私(6)	
手前(1)		我(4)	
		我〃中(2)	
		私ナド(2)	
		ワシナト(1)	
私(7)	②第二段階(敬語)(9)	我〃共(2)	②第二段階(敬語)(3)
此方(2)			
手前(1)	④第四段階(1)	我〃(1)	

52) ①～⑤は、①が最も丁寧度が高く、②③④⑤の順に丁寧度が低くなる。

53) なお、「隣語大方」は公的であらたまった場面での対話例文が多く、主として丁寧度の高い文末表現が用いられている。たとえば、筑波大本についてその文末表現の丁寧度の分布頻度を示せば、以下のとおりである。

文末語尾の総数535個

日本語 ①444個(83%)、②90個(16%)、③1個(0.1%)

このような「隣語大方」のもつ偏向性をふまえたうえで、それぞれの人称代名詞との共起関係を調査・分析することとする。

54) 「私・我・ワ」は、日本語としては単数とも解釈できるが、対訳朝鮮語として一人称代名詞複数の「우리」が当てられていることから、ここでは複数とみなした。

55) 「ワシ」は、日本語としては単数とも解釈できるが、対訳朝鮮語として一人称代名詞複数の「우리」が当てられていることから、ここでは複数とみなした。

【単数】

私

[筑2:24a] 私モ 先刻 入テ 参タレド (中略) 先ニ ヲ問イ下サレマシテ 辱ウ ゴンシ
マスル (第一段階(大敬語))

(나도 앓가 드리 왔스오나 (中略) 묻져 무르 계옵시니 感激하여 하옵는이
다)

[筑4:16b] 私ハ 本ト 辨才ノナイモノデ ゴザルニヨリ (中略) ヨロシウ ヲサバキ下
サレマセイ (第二段階(敬語))

(나는 본디 口辨이 업슨 사람이오매 (中略) 善處하여 주옵쇼셔)

ワシ

[筑3:01b] (前略)ワシガ 一バン 負マシタレハ (中略) ヨロコバルル ヤウスガ 見エ
マスル (第一段階(大敬語))

((前略)내가 한 번 지니간디 (中略) 갖거하느 辞色이 되옵느)

此方

[筑2:13b] (前略)此方ヨリ ズイフン モテナス テイヲシテ ダマセバ (中略) 必ス ハ
ラタテ 寸シヤレルナ (第二段階(敬語))

((前略)이녁이 밋오 待接하느 체하여 달내면 (中略) 부디 怒하여 마옵쇼
셔)

[筑4:03b-04a] (前略)此方ノ タヲレハ (中略) 貴国シヤトテ 害ノナイコトハ コサリ
マスマイ (第一段階(大敬語))

((前略)이녁이 蕩敗하기느 (中略) 貴國인들 아니 해롭스올가)

手前

[筑8:13a-13b] (前略)手前トテモ 了簡ガ ゴザリマスルマイカナレドモ (中略) 気毒
ナコトハ ゴザリマセヌ (第一段階(大敬語))

((前略)이녁인들 生覺이 아니 잇스오리잇가마느 (中略) 不祥한 일이
업스외)

[筑8:18a] (前略)手前ハ 國ノコトデ 他郷ニ 逗留シ居テ 難儀ナコトデア
ル (第四段階)

((前略)나는 나라 일로 他郷의 멈으로 이시니 민망하다)

【複数】

我々

[筑4:04a] (前略)我々ガ 船ト アトヤサキニナツテ マイリマシタレドモ (中略) 何方エ マイリマシタモ ソンジマセヌ (第一段階(大敬語))
((前略)우리 배과 或先或後하여 왔습더니 (中略) 어드러 간지 아옵지 못 하였습닌)

[筑4:08b-09a] (前略)ワレ々々ハ 何ノワケモ ソンジマセヌニ (中略) 鳥飛梨落ルデ ゴザル (第二段階(敬語))
((前略)우리들은 아모란 줄도 모로닌디 (中略) 鳥飛梨落이올쇠)

我々共

[筑2:12b] 我々共 アノヤウニ 心遣ヒイタス所ニ (中略) 手袖傍觀テ 居テゴサル ハ マコトニ キコエスギテゴザル (第二段階(敬語))
(우리들이 이대지 걱정하닌디 (中略) 手袖傍觀하여 안즈시닌 거시 과연 올치 아니하외)

[筑8:05a] (前略)我々ドモ トリモツテ ゴ造作ヲ 省キマスレトモ カナラズ 後ノ例ニ ナサレナ(ママ)スルナ (第一段階(大敬語))
((前略)우리들이 드러셔 除弊를 하옵거니와 부디 後例 삼지 마옵쇼셔)

私

[筑1:08b] (前略)私ノ同役ガ見届テ参リマシタニヨリ (中略) 違イマセフカ (第一段階(大敬語))
((前略)우리 同任하닌 사람이 目覩하였스오니 (中略) 다르올가)

我

[筑1:10b-11a] 我国ノ酒ト (中略) 貴國ノ焼酒ノヤウニ ツヨウゴザラヌニヨリ (前略) 亭主ガ 忝フ存シマスルデ ゴザリマセフ (第一段階(大敬語))
(우리나라 술과 (中略) 貴國燒酒처럼 되지 아니하오매 (中略) 主人이 感激이 아올가 하옵닌)

我々中

[筑6:03a-04a] (前略)我々中勢イヲ立テ直シマシテ (中略) 케様ナキノドクナ時節ハ ゴザリマセヌ (第一段階(大敬語))

(우리의 形勢振起 ㅎ여 (中略) 이런 마이 업슨 時節이 업스외)

私ナド

[筑6:26a] (前略)私ナドノ類で ゴザリマセヌニヨリ イハユル 先毛後角デ ゴザリマ
スル (第一段階(大敬語))
(前略) 우리의 누가 아니오니 可謂先毛後角이 올식)

ワシナト

[筑4:07a-07b] (前略)ワシナトガ 辛苦致ス時ハ (中略) コノヤウナ 人心ガ ゴザリマ
セウカ (第一段階(大敬語))
(前略) 우리가 막 辛苦 ㅎ ㅁ되 ㄴ (中略) 그런 人心이 어이 잇스올고)

[表17] 「朝鮮刊本」日本語の一人称代名詞

単数	分類	複数	分類
私(64)	①第一段階(大敬語)(68)	我〃(32)	①第一段階(大敬語)(43)
此方(2)		私(4)	
手前(1)		私杯(2)	
我(1)		我等(2)	
私(8)		我〃中(1)	
吾が身(1)	②第二段階(敬語)(10)	我〃共(1)	②第二段階(敬語)(4)
此(1)		わし(1)	
手前(1)		此方(1)	
	④第四段階(1)		

【単数】

私

[朝1:31a] 私も 先刻 入て 参りましたれとも (中略) 御尋に 預りまして 忝ふ 存ま
する (第一段階(大敬語))

(나도 안가 드러 왁스오나 (中略) 무르시니 感激 ㅎ여 ㅎ읍 ㄴ이다)

[朝4:09b-10a] (前略)私が 請人に成て 一時の急を 救まして (中略) ほんな そばば
ちで 御座る (第二段階(敬語))

((前略) 내가 證人이 되여 一時救急을 ㅎ여 (中略) 所謂池魚之殃이 올쇠)

此方

- [朝3:14b-15a] (前略)此方も 了簡が御座ろふに (中略) 迷惑なでは 御座りませぬか
(第一段階(大敬語))
((前略)인역인들 싱각이 인스올뒤 (中略) 登樓去梯 곤호여 어렵스외)

手前

- [朝9:17a-17b] (前略)手前とても 了簡が御座りますれども (中略) 々様な 氣の毒な
事は御座りませぬ (第一段階(大敬語))
((前略)인역인들 아니 싱각이 인스올가 (中略) 이런 불상흔 일은
업스외)
- [朝9:22b] (前略)手前は 公用に付 他郷に 逗留して居て 難儀な事である (第四段
階)
((前略)나는 나라 일노호여 他郷의 머무러 이시니 민망흐다)

我

- [朝1:01b] (前略)我国の申付も 亦重ふ 御座りまするにより 左様に 我儘に 云しや
れまするな (第一段階(大敬語))
((前略)내 나라 申飭도 亦是 重호오니 그리 自作스러이 니르지 마옵소)

吾ガ身

- [朝6:03a] (前略)吾が身に 害が 有るもので御座る (第二段階(敬語))
((前略)인역이 害 믿기 쉽스오리)

此

- [朝1:17b-18a] (前略)此から 随分 うやまふ躰をして ずかせば (中略) 必腹を たて
さつしやるな (第二段階(敬語))
((前略)이녁이 먹오 대접호는 체호여 달내면 (中略) 부디 노호여
마옵쇼셔)

【複数】

我々

- [朝1:28b-29b] 我々方に 捷解新語と申て (中略) 御直し被下ましたらば 仕合ます
で御座りませぬ (第一段階(大敬語))

(우리게 捷解新語 | 라 ㅎ고 (中略) 修整ㅎ여 주시면 多幸홀가 ㅎ읍
닌)

[朝5:06b] (前略)我〃如き 年若者の御老人に對して (中略) 何の御挨拶に 及ませふ
か (第一段階(大敬語))

((前略)우리곶흔 年少之人이 老爺를 爲ㅎ여 (中略) 무슴 인스ㅎ도록 ㅎ
오리일가)

[朝6:04b] 我〃は 其元を 盲人の杖の様に 思ふて居まする所に (中略) 誰を頼に
致すもので御座るか (第二段階(敬語))

(우리들은 公을 十盲一杖으로 알고 인습닌딕 (中略) 놀을 믿고 홀가 시
보온고)

我〃中

[朝7:03b-04b] (前略)我〃中 勢を立直まして (中略) ㄱ様な 氣の毒な事は 御座り
ませぬ (第一段階(大敬語))

((前略)우리의 形勢振起ㅎ여 (中略) 이런 마이업슨 일이 업스외)

我〃共

[朝5:13b-14a] (前略)我〃共は 死ても 不足罪人て 御座りまする故 (中略) 御慎み
被成ませい (第一段階(大敬語))

((前略)우리들은 死有餘罪오매 (中略) 비밀이 ㅎ읍쇼셔)

私杯、我等

[朝3:10a-10b] (前略)私杯が 辛苦致時は 知らぬ振して被居て (中略) 此様の人心が
御座りませふか (第一段階(大敬語))

((前略)우리가 辛苦홀 제는 아론 체도 아니 ㅎ다가 (中略) 이런 人
심이 어이 인스오리일가)

ワシ

[朝9:08b] わしの直に参て 頼事と存知ますれども (中略) 其元方 御推察被下まして
濟まする様に 肝入て 被下ませひ (第一段階(大敬語))

(우리 친히 가 빌고져 ㅎ되 (中略) 공닌 아라셔 되도록 셔도라 주옵쇼
셔)

此方

[朝5:15a] (前略)此方如きの小人が そふした事が 御座ろふか (第二段階(敬語))
 ((前略)우리근흔 小人이 그런 일이 일스올가)

[表18] 「アストン文庫本」 日本語の一人称代名詞

単数	分類	複数	分類
私(45)	①第一段階(大敬語)(48)	ワレ〃〃(16)	①第一段階(大敬語)(26)
コノホウ(2)		ワレ〃〃トモ(9)	
ワシ(1)		ワ(1)	
私(4)	②第二段階(敬語)(6)	ワレワレ(4)	②第二段階(敬語)(4)
コノホウ(2)			
ワレ(1)	④第四段階(1)		

[表19] 「苗代川本」 日本語の一人称代名詞

単数	分類	複数	分類
私(40)	①第一段階(大敬語)(42)	我〃(13)	①第一段階(大敬語)(21)
コノ方(2)		我〃共(7)	
		私(1)	
私(2)	②第二段階(敬語)(3)	我〃(1)	②第二段階(敬語)(1)
コノ方(1)			

[表20] 「明治刊本」 日本語の一人称代名詞

単数	分類	複数	分類
私(87)	①第一段階(大敬語)(95)	我〃(17)	①第一段階(大敬語)(40)
ソレガシ(4)		我〃共(10)	
此方(2)		我(5)	
手前(2)		我等(3)	
		吾輩(3)	
私(9)	②第二段階(敬語)(10)	我〃(5)	②第二段階(敬語)(8)
我レ等(1)		我(1)	
我レ(5)	④第四段階(5)	我〃共(1)	
		吾輩(1)	

[表21] 「濱田文庫本」 日本語の一人称代名詞

単数	分類	複数	分類
私(58)	①第一段階(大敬語)(61)	我〃(10)	①第一段階(大敬語)(21)
コノホウ(2)		我〃ドモ(4)	
		ワ(4)	
		私(2)	

コチ(1)		ワシ(1)	
コノホウ(1)	②第二段階(敬語)(1)	我〃(1)	②第二段階(敬語)(2)
		我〃ドモ(1)	

日本語の一人称代名詞の現れる文の文末語尾は、だいたい①第一段階(大敬語)、②第二段階(敬語)の丁寧な表現で現れるが、これは「隣語大方」のもつ資料上の偏向性によるものとみられる。全異本の一人称代名詞の単数と複数の中、「私」と「我々」が一番多く現れるが、これらは、①第一段階(大敬語)、②第二段階(敬語)のみ現れ、丁寧な表現であることが分かる。また、「手前」は、①第一段階(大敬語)、④第四段階に現れ、文末語尾の段階に極端な差がみられる。日本語の一人称代名詞は、朝鮮語の一人称代名詞より、その種類が多く現れる。

3.2 二人称代名詞

二人称代名詞は、単数は「其元、其元様、此方、其方、アナタ⁵⁶⁾、アナタサマ⁵⁷⁾、御自分、御自分様、先様、ワレ、オ宅、汝」、複数は「其元方、其元様方、其元、其元様、コナタシユ、皆様、ご自分方、各、各サマ、大ゼイ、アナタ方⁵⁸⁾、ソナタ、ソナタガタ、ゴ多[■]」が現れる。そのほか、二人称の呼称として用いられ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疑われるものとして、「ご代官方、先生、コロウ人サマ、御師匠サマ、師匠様、同官、掌務方、老爺」が現れるが、文脈が不明瞭なため三人称代名詞である可能性を排除できないので、ここでは考察の対象から省くこととする。

[表22] 「筑波大本」日本語の二人称代名詞

単数	分類	分類	複数
其元様(17)	①第一段階(大敬語)(28)	其元方(3)	①第一段階(大敬語)(9)
其元(6)		其元様(2)	
ゴ自分(4)		コナタシユ(1)	
コナタ(1)		ゴ自分方(1)	
コナタ(4)		各サマ(1)	
ゴ自分(1)	②第二段階(敬語)(7)	大ゼイ(1)	
其元様(1)			

56) 「アナタ」が二人称代名詞として用いられた例は「明治刊本」にのみ現れる。「明治刊本」に現れた「アナタ」の23例中、20例が朝鮮語訳として「公」という二人称代名詞を用いている。

57) 「アナタサマ」も二人称代名詞として用いられた例は「明治刊本」にのみ現れる。「明治刊本」に現れた「アナタサマ」の5例中、3例が「公」、2例が「존장(尊長)님」という朝鮮語訳が当てられている。

58) 「アナタガタ」も二人称代名詞として用いられた例は「明治刊本」にのみ現れる。「明治刊本」に現れた「アナタガタ」の10例全て朝鮮語訳は「公」になっている。

其方(1)	④第四段階(1)	アナタ方(1)	②第二段階(敬語)(1)
-------	----------	---------	--------------

【単数】

其元

[筑1:07b-08a] 其元ニハ 數年 フヒタシイ間デ ゴザリ (中略) ドウデ 其元サマニ
 ジヤウカ 多ゴザリ マスル (第一段階 (大敬語))
 ((게서는 累年親切흔 스이오 (中略) 아마도 公의게 정이 만스오니)

其元サマ

[筑1:07b-08a] (前略) 其元サマニ ジヤウカ 多ゴザリ マスル (第一段階 (大敬語))
 ((前略) 公의게 정이 만스오니)
 [筑2:12b] (前略) 其元サマニハ 知タ躰モ セズシテ (中略) マコトニ キコエスギテ
 ゴザル (第二段階 (敬語))
 ((前略) 公겨서는 아른 체도 아니 헝고 (中略) 과연 올치 아니헝외)

コナタ

[筑1:03a-03b] (前略) コナタヨリ 取マスルカラ 必 日坊ヲチガエズ 入テゴサレイ
 (第二段階 (敬語))
 ((前略) 자내게 춧게 헝여시니 부디 期限을 背反티 말고 드려오게
헝읍소)
 [筑2:14b-15a] (前略) コナタニモ ヨイ事ノアルヤウニシテ (中略) 必ス ヤクヲ チ
 ガエサシヤルナ (第四段階)
 ((前略) 자넨게 나은 일이 잇게 헝여 줄 거시니 부디 背約지 마소)
 [筑4:05b-06a] (前略) コナタノヤウニ ヲシイ歲月ヲ ムタニ送ラレテ 生而知之カヤ
 スカリマセウカ (第一段階 (大敬語))
 ((前略) 자내처로 앗가온 歲月을 空送헝니 生而知之헝기 쉽스온가)

ゴ自分

[筑3:11a-11b] (前略) ゴジブンノヤウニシテハ ナカハレヤスーゴザロウ
 (第二段階 (敬語))
 ((前略) 자넨처로 헝다가는 離間헝기 쉽스오리)
 [筑3:22a-22b] ゴジブンノ辨舌ガ 蘊荼張儀ヨリ (中略) カタカラ 云ダサシヤレヌガ
 ヨウコサリ マスル (第一段階 (大敬語))

(자닌 口辨이 蕪張이에서 (中略) 애이에 말면 뜻게 헛엇습닌)

其方

[筑8:18a] (前略) 其方ハ 先祖ノ墓ニ 草トリニ 行ケドモ (中略) 逗留シ居テ 難儀ナ
コトデア^ル (第四段階)

((前略) 닌는 先墓의 伐草하라 가되 (中略) 멈으로 이시니 민망하다)

【複数】

其元ガタ

[筑2:16a] 其元方ノヲ 咄ト アノ人ガタノ申分ントハ (中略) ソノワケヲ クワシウ
仰セラレマ^セイ (第一段階 (大敬語))

(公닌 말씀과 그 사름닌 말과는 (中略) 그 緣由를 히비히 니르^옵쇼셔)

其元様

[筑2:22b] (前略) 其元サマニ入テ ツカハシマセウニヨリヲナヲシナサレ 下サレタ
ラハ 仕合マスルデゴサリマ^セウ (第一段階 (大敬語))

((前略) 公닌게 드려 보내올 거시니 修整하여 주시면 다^히할가 헛옵닌)

コナタシユ

[筑1:06a] (前略) コナタシユヲ 何ノ愛シマスルマイカ (第一段階 (大敬語))

((前略) 자닌닐 아니 스^랑할가 시^브온가)

ゴ自分方

[筑1:14a] (前略) ゴ自分方 ヨク云テキカセテ アノ様ニナイヤウニ サツシヤレマ^セイ
(第一段階 (大敬語))

((前略) 자닌 〃 잘 닐러 저리 말게 헛옵소)

各サマ

[筑4:09b] 各サマカ イカニ 御發明ナト申テモ (中略) 知リツクソウトナサルコトガ
タヤスク ゴザリマ^セウカ (第一段階 (大敬語))

(公닌가 아모리 英敏하시다 하여도 (中略) 無不通知하시기 쉽스오리잇가)

大ゼイ

[筑5:16a] (前略)大ゼイゴザナサレマスルニツキ (中略) 左様ニゴザルヤウ ゲイカ
ソレホドニ ゴザリマセヌ (第一段階 (大敬語))
((前略)여러분넌 안자 계시기의 (中略) 그리흐은지 좃시 대스롭티 아니
히외)

アナタ方

[筑3:05a-05b] (前略)アナタ方ノ前デ (中略) ケ様ナ微劣ナモノガ ドーシテ コサ
ローカ (第二段階 (敬語))
((前略)公넌 앞피 (中略) 그런 微劣흔 거시 어이 잇스올고)

[表23] 「朝鮮刊本」 日本語の二人称代名詞

単数	分類	複数	分類
其元(8)	①第一段階(大敬語)(20)	皆様(2)	①第一段階(大敬語)(7)
其元様(8)		其元方(1)	
御自分(3)		其元様方(1)	
此方(1)		各(1)	
		各様(1)	
此方(4)	②第二段階(敬語)(9)	こなた衆(1)	②第二段階(敬語)(1)
其元様(1)		御自分方(1)	
御自分(1)			
御自分方(1)			
皆様(1)			
其元(1)	④第四段階(1)		
其方(1)			

【単数】

其元

[朝1:07b-08a] (前略)其元が御坐らずば (中略) 生死肉骨之澤で 御坐りまする
(第一段階 (大敬語))

((前略)공이 아니 계시더면 (中略) 生死肉骨之澤이 읍도쇠)

[朝6:04b] (前略)其元を 盲人の杖の様に思ふて 居まする所に (中略) 誰を 頼に致す
もので御座るか (第二段階 (敬語))

((前略)공을 十盲一杖으로 알고 인습넌딕 (中略) 늘을 믿고 흘가시보은
고)

其元様

- [朝1:03b-04a] 其元様の御出を 早ふから 待て居ましたれとも (中略) 餘の事に ケ様 に入て 参りました (第一段階 (大敬語))
(公이 나오시기를 벌써부터 기다리오되 (中略) 하 답답하여 이리 드러 알습닌)
- [朝1:28b-29b] (前略)其元様方へ 遣しませふにより 御直し被下ましたらば 仕合まするで 御坐りませふ (第一段階 (大敬語))
(前略)公닌피 드러 보내올 거시니 修整하여 주시면 多幸할가 하습닌)
- [朝6:04b] (前略)其元様まで 左様に 情薄をつしやれては 誰を 頼に致すもので 御座るか (第二段階 (敬語))
(前略)公이 마자 그리 薄情이 하시니 놀을 믿고 할가 시보온고)

此方

- [朝3:08a] (前略)こなたのやふに 惜歲月を 空に送らしやれては 乍生知事が 成ませふか (第一段階 (大敬語))
(前略)자닌처로 안가온 歲月을 空送하시니 生而知之하기 쉽스온가)
- [朝4:05b] (前略)此方の様に 元直に倍も取とさるるにより (中略) とくいにはしにくふ御座る (第二段階 (敬語))
(前略)자닌처로 본갑식 갑절이나 마드려 하시니 (中略) 단골삼지 묻히게 하연습닌)

御自分

- [朝10:13a-13b] (前略)御自分の様にしては 親中で もちがふもので御座る (第二段階 (敬語))
(前略)자닌처로 하다가는 離間하기 쉽스오리)
- [朝10:26b-27a] 御自分の辯舌が 蘇秦張儀よりよいと 云ても (中略) かたから 云出さしやれぬが よふ御坐りまする (第一段階 (大敬語))
(자닌 口辨이 蘇張의셔 날다 하여도 (中略) 아이에 말면 조케 하연습닌)

御自分方

- [朝5:16a-16b] (前略)御自分方よふ云て 聞せて おふなひ様に さつしやれい

(第二段階 (敬語))

((前略) 자 님 잘 닐너 저리 말게 ㅎ읍소)

皆様

[朝10:6a-6b] (前略) 皆様の前で私を誹謗まするそふに御座る ヶ様な空気は御座ら
ん (第二段階 (敬語))

((前略) 公의 얌히셔는 날을 허러셔 ㅎ는가 시보오니 이런 미련 ㅎ
거순 업스오리)

其方

[朝9:22b] (前略) 其方は 先祖の墓所に 草取に 行共 (中略) 逗留して居て 難儀な 事
である (第四段階)

((前略) 너는 先墓의 伐草ㅎ라 가되 (中略) 머무러 이시니 민망ㅎ다)

【複数】

皆様

[朝1:20b-21a] 皆様の云しやれ分と あの人などの云分とは (中略) 其譯を委被仰ま
せひ (第一段階 (大敬語))

(公 님 말씀과 그 사람님 말과는 (中略) 그 緣由를 히비이 니르읍쇼
셔)

其元方

[朝9:08b] 其元方 御推察被下まして 濟まする様に 肝入て 被下ませひ
(第一段階 (大敬語))

(公 님 아라셔 되도록 셔도라 주읍쇼셔)

其元様方

[朝1:28b-29a] (前略) 其元様方へ遣ませふにより 御直し被下ましたらば 仕合ます
るで御坐りませふ (第一段階 (大敬語))

((前略) 公 님께 드려 보내올 거시니 修整ㅎ여 주시면 多幸ㅎ가 ㅎ
읍닌)

各

[朝2:12a-12b] 各の御了簡と 我々の存奇は 間違て居まするにより (中略) 必深 御思

慮被成度 存知まする (第一段階 (大敬語))

(公_ニ 所見과 우리들의 意見과는 相左호오매 (中略) 싱각호여 보시
고져 호_옵닌)

各様

[朝3:13a-13b] 各様の如何に 御發明など申ても (中略) 容易 御座りませふか
(第一段階 (大敬語))

(公_닌가 아모리 英敏호시다 호여도 (中略) 호시기야 쉽스오리일가)

こなた衆

[朝5:07a] こなた衆を 愛しますまいか (第一段階 (大敬語))

(자_닌닐을 아니 사랑호리일가)

[表24] 「アストン文庫本」 日本語の二人称代名詞

単数	分類	複数	分類
ソノ元サマ(8)	①第一段階(大敬語)(17)	ソノ元カタ(4)	①第一段階(大敬語)(6)
ソノ元(5)		ヲ _カ セイ(1)	
コナタ(3)			
ゴシブンサマ(1)			
ワレ(1)	④第四段階(1)	ソノ元サマ(1)	

[表25] 「苗代川本」 日本語の二人称代名詞

単数	分類	複数	分類
其元様(8)	①第一段階(大敬語)(16)	其元様方(2)	①第一段階(大敬語)(4)
其元(3)		各サマ(1)	
御自分様(3)		ゴ多[■](1)	
ソナタ(2)			
其方(1)	②第二段階(敬語)(1)		

[表26] 「明治刊本」 日本語の二人称代名詞

単数	分類	複数	分類
アナタ(24)	①第一段階(大敬語)(30)	アナタガタ(9)	①第一段階(大敬語)(10)
アナタサマ(3)		オホゼイ(1)	
ソナタ(2)			
オ宅(1)			
ソナタ(5)	②第二段階(敬語)(8)	ソナタガタ(1)	②第二段階(敬語)(2)
アナタ(3)		アナタガタ(1)	
ソナタ(1)	③第三段階(1)	ソナタ(1)	③第三段階(1)

汝(1)	④第四段階(1)		
------	----------	--	--

[表27] 「濱田文庫本」 日本語の二人称代名詞

単数	分類	複数	分類
其元サマ(9)	①第一段階(大敬語) (20)	其元様ガタ(1)	①第一段階(大敬語) (8)
其元(6)		ソコモトサマ(1)	
		ソコモトガタ(1)	
御自分(3)		ソナタガタ(1)	
コナタ(1)		ソナタシユ(1)	
		ヲ〴〵ゼイ(1)	
ソナタ(1)	其元(1)		
コナタ(3)	②第二段階(敬語) (5)	各〴〵サマ(1)	
其元サマ(2)			

日本語の二人称代名詞も、だいたい①第一段階(大敬語)、②第二段階(敬語)にわたり現れが、これは「隣語大方」のもつ資料上の偏向性によるものとみられる。二人称代名詞で一番多く現れるのは、「其元」と「其元様」であり、異本の古い方に当たる「筑波大本、朝鮮刊本、アストン文庫本、苗代川本、濱田文庫本」に多く現れる。しかし、「明治刊本」には「其元、其元様」が「アナタ」に交替されたため、「其元、其元様」より、「アナタ」が一番多く現れる。これによって、「明治刊本」の時期は、「アナタ」の使用が増えたことが分かる。

また、朝鮮語より日本語の方が、それぞれの二人称代名詞と共起する文末語尾の丁寧度の幅が狭い。また、日本語の一人称代名詞が朝鮮語の一人称代名詞より、その種類が多く現れたように、日本語の二人称代名詞も同様に、朝鮮語の二人称代名詞より、その種類が多様なのが特徴である。

第4節 一・二人称代名詞と文末語尾の丁寧度の対応関係の日朝対照

この節では、朝鮮語の一・二人称代名詞と文末語尾の待遇等級の対応関係について、対訳日本語との対照の観点から分析を試みる。「小倉文庫本」は、朝鮮語のみ書いてあり、日本語対訳文を持たないため、ここでは資料として扱わない。

4.1 一人称代名詞

単数形と複数形ともに、朝鮮語の文末語尾の丁寧度は「①ㄱ(邑)ㅂㅅ체、②ㄱㅂㅅㅅ類」で、これに対応する日本語は、「①第一段階(大敬語)、②第二段階(敬語)」である。特に、「②ㄱㅂㅅㅅ類」は、「①第一段階(大敬語)、②第二段階(敬語)」にわたり対応する場合が多い。「ㄱㅂㅅ類」に対応する日本語の文末語尾は、丁寧な

「①第一段階（大敬語）」であって、文末語尾として「①ㅎ(읍)쇼셔体、②ㅎ읍소類」と同じ丁寧度をもっていると考えられる。

上記した通り、朝鮮語一人称代名詞の文末語尾は、主に「②ㅎ읍소類」に現れ、日本語は、主に「①第一段階（大敬語）」に現れる。人称代名詞は、朝鮮語より日本語の方が多様に表れたが、文末語尾は、朝鮮語の方が日本語より幅広く使われていると考えられる。

[表28] 「筑波大本」 朝鮮語と日本語の一人称代名詞の文末語尾の丁寧度比較⁵⁹⁾

一人称単数	丁寧度	
	朝鮮語	日本語
나	①ㅎ(읍)쇼셔体(29)	①第一段階(大敬語)(28) ②第二段階(敬語)(1)
	②ㅎ읍소類(48)	①第一段階(大敬語)(42) ②第二段階(敬語)(6)
	④ㅎ여라体(1)	④第四段階(1)
이녀	①ㅎ(읍)쇼셔体(3)	①第一段階(大敬語)(3)
	②ㅎ읍소類(2)	①第一段階(大敬語)(2)

一人称複数	丁寧度	
	朝鮮語	日本語
우리	①ㅎ(읍)쇼셔体(10)	①第一段階(大敬語)(10)
	②ㅎ읍소類(21)	①第一段階(大敬語)(21)
우리들	①ㅎ(읍)쇼셔体(8)	①第一段階(大敬語)(8)
	②ㅎ읍소類(10)	①第一段階(大敬語)(7)
		②第二段階(敬語)(3)

[表29] 「朝鮮刊本」 朝鮮語と日本語の一人称代名詞の文末語尾の丁寧度比較

一人称単数	丁寧度	
	朝鮮語	日本語
나	①ㅎ(읍)쇼셔体(17)	①第一段階(大敬語)(17)
	②ㅎ읍소類(54)	①第一段階(大敬語)(46)
		②第二段階(敬語)(8)
	ㅎ읍類(2)	①第一段階(大敬語)(2)
④ㅎ여라体(1)	④第四段階(1)	
이녀	①ㅎ(읍)쇼셔体(1)	②第二段階(敬語)(1)
	②ㅎ읍소類(4)	①第一段階(大敬語)(3)

59) この表は、「筑波大本」における朝鮮語一人称代名詞がどのような丁寧度の朝鮮語文末語尾と共起するのかわを示したものである。なお、参考として、対訳日本語の文末語尾を示しておいた。

	②第二段階(敬語) (1)
--	---------------

一人称複数	丁寧度	
	朝鮮語	日本語
우리	① ㅎ(읍)쇼셔体(9)	① 第一段階(大敬語) (9)
	② ㅎ읍 소類(23)	① 第一段階(大敬語) (20) ② 第二段階(敬語) (3)
우리들	① ㅎ(읍)쇼셔体(8)	① 第一段階(大敬語) (8)
	② ㅎ읍 소類(10)	① 第一段階(大敬語) (6) ② 第二段階(敬語) (4)

[表30] 「アストン文庫本」 朝鮮語と日本語の一人称代名詞の文末語尾の丁寧度比較

一人称単数	丁寧度	
	朝鮮語	日本語
나	① ㅎ(읍)쇼셔体(20)	① 第一段階(大敬語) (20)
	② ㅎ읍 소類(30)	① 第一段階(大敬語) (26) ② 第二段階(敬語) (4)
	④ ㅎ여라体(1)	④ 第四段階(1)
이녀	② ㅎ읍 소類(4)	① 第一段階(大敬語) (2) ② 第二段階(敬語) (2)

一人称複数	丁寧度		備考
	朝鮮語	日本語	
우리	① ㅎ(읍)쇼셔体(9)	① 第一段階(大敬語) (8)	日本語一例は、 (人称、述語、文末語尾)無し
	② ㅎ읍 소類(11)	① 第一段階(大敬語) (9) ② 第二段階(敬語) (2)	
우리들	① ㅎ(읍)쇼셔体(6)	① 第一段階(大敬語) (5)	日本語一例は、(述語、文末語尾)無し
	② ㅎ읍 소類(6)	① 第一段階(大敬語) (4) ② 第二段階(敬語) (2)	

[表31] 「苗代川本」 朝鮮語と日本語の一人称代名詞の文末語尾の丁寧度比較

一人称単数	丁寧度	
	朝鮮語	日本語
나	① ㅎ(읍)쇼셔体(15)	① 第一段階(大敬語) (15)
	② ㅎ읍 소類(27)	① 第一段階(大敬語) (25) ② 第二段階(敬語) (2)

이녁	① ㅎ(읍)쇼셔체(1)	① 第一段階(大敬語)(1)
	② ㅎ읍소類(2)	① 第一段階(大敬語)(1) ② 第二段階(敬語)(1)

一人称複数	丁寧度	
	朝鮮語	日本語
우리	① ㅎ(읍)쇼셔체(5)	① 第一段階(大敬語)(5)
	② ㅎ읍소類(8)	① 第一段階(大敬語)(7) ② 第二段階(敬語)(1)
	ㅎ읍類(1)	① 第一段階(大敬語)(1)
우리들	① ㅎ(읍)쇼셔체(4)	① 第一段階(大敬語)(4)
	② ㅎ읍소類(4)	① 第一段階(大敬語)(4)

[表32] 「明治刊本」 朝鮮語と日本語の一人称代名詞の文末語尾の丁寧度比較

一人称単数	丁寧度		
	朝鮮語	日本語	
나	① ㅎ(읍)쇼셔체(62)	① 第一段階(大敬語)(59) ② 第二段階(敬語)(3)	
	② ㅎ읍소類(34)	① 第一段階(大敬語)(28) ② 第二段階(敬語)(5) ④ 第四段階(1)	
		③ ㅎ소類(9)	① 第一段階(大敬語)(6) ② 第二段階(敬語)(2) ④ 第四段階(1)
		④ ㅎ여라체(3)	④ 第四段階(3)
	이녁	② ㅎ읍소類(2)	① 第一段階(大敬語)(2)

一人称複数	丁寧度	
	朝鮮語	日本語
우리	① ㅎ(읍)쇼셔체(19)	① 第一段階(大敬語)(15) ② 第二段階(敬語)(4)
	② ㅎ읍소類(9)	① 第一段階(大敬語)(7) ② 第二段階(敬語)(2)
	③ ㅎ소類(1)	① 第一段階(大敬語)(1)
우리들	① ㅎ(읍)쇼셔체(15)	① 第一段階(大敬語)(12) ② 第二段階(敬語)(3)
	② ㅎ읍소類(3)	① 第一段階(大敬語)(3)

[表33] 「濱田文庫本」 朝鮮語と日本語の一人称代名詞の文末語尾の丁寧度比較

一人称単数	丁寧度	
	朝鮮語	日本語
나	① ㅎ(읍)쇼셔体(18)	① 第一段階(大敬語) (18)
	② ㅎ읍소類(38)	① 第一段階(大敬語) (38)
	③ ㅎ소類(2)	① 第一段階(大敬語) (2)
이녀	① ㅎ(읍)쇼셔体(1)	① 第一段階(大敬語) (1)
	② ㅎ읍소類(3)	① 第一段階(大敬語) (2)
		② 第二段階(敬語) (1)

一人称複数	丁寧度	
	朝鮮語	日本語
우리	① ㅎ(읍)쇼셔体(8)	① 第一段階(大敬語) (8)
	② ㅎ읍소類(17)	① 第一段階(大敬語) (16)
		② 第二段階(敬語) (1)
③ ㅎ소類(1)	② 第二段階(敬語) (1)	
우리들	① ㅎ(읍)쇼셔体(5)	① 第一段階(大敬語) (5)
	② ㅎ읍소類(6)	① 第一段階(大敬語) (5)
		② 第二段階(敬語) (1)

4.2 二人称代名詞

朝鮮語の単数形と複数形の二人称代名詞の文末語尾の丁寧度は、一人称代名詞と同じく「① ㅎ(읍)쇼셔体、② ㅎ읍소類」が多く現れ、これに対応する日本語も「① 第一段階(大敬語)、② 第二段階(敬語)」である。二人称代名詞も同様に、朝鮮語は「② ㅎ읍소類」で多く現れ、日本語は主に「① 第一段階(大敬語)」で多く現れる。

この「② ㅎ읍소類」も、「① ㅎ(읍)쇼셔体」より「① 第一段階(大敬語)、② 第二段階(敬語)」とともに対応することが多い。

[表34] 「筑波大本」 朝鮮語と日本語の二人称代名詞の文末語尾の丁寧度比較

二人称単数	丁寧度	
	朝鮮語	日本語
公	① ㅎ(읍)쇼셔体(7)	① 第一段階(大敬語) (7)
	② ㅎ읍소類(17)	① 第一段階(大敬語) (16)
		② 第二段階(敬語) (1)
자녀	② ㅎ읍소類(7)	① 第一段階(大敬語) (3)
	③ ㅎ소類(1)	② 第二段階(敬語) (4)
		① 第一段階(大敬語) (1)
계、게서	② ㅎ읍소類(2)	① 第一段階(大敬語) (2)

너	④ㅎ여라体(1)	④第四段階(1)
---	----------	----------

二人称複数	待遇等級	
	朝鮮語	日本語
公너	①ㅎ(읍)쇼셔体(4)	①第一段階(大敬語)(4)
	②ㅎ읍소類(4)	①第一段階(大敬語)(3) ②第二段階(敬語)(1)
자너너	②ㅎ읍소類(2)	①第一段階(大敬語)(2)
여러분너	②ㅎ읍소類(1)	①第一段階(大敬語)(1)

[表35] 「朝鮮刊本」 朝鮮語と日本語の二人称代名詞の文末語尾の丁寧度比較

二人称単数	丁寧度	
	朝鮮語	日本語
公	①ㅎ(읍)쇼셔体(6)	①第一段階(大敬語)(6)
	②ㅎ읍소類(17)	①第一段階(大敬語)(14) ②第二段階(敬語)(3)
자너	②ㅎ읍소類(9)	①第一段階(大敬語)(3) ②第二段階(敬語)(6)
게、게셔	②ㅎ읍소類(3)	①第一段階(大敬語)(3)
너	④ㅎ여라体(1)	④第四段階(1)

二人称複数	丁寧度	
	朝鮮語	日本語
公너	①ㅎ(읍)쇼셔体(3)	①第一段階(大敬語)(3)
	②ㅎ읍소類(3)	①第一段階(大敬語)(3)
	ㅎ읍体(1)	①第一段階(大敬語)(1)
자너너	①ㅎ(읍)쇼셔体(1)	①第一段階(大敬語)(1)

[表36] 「アストン文庫本」 朝鮮語と日本語の二人称代名詞の文末語尾の丁寧度比較

二人称単数	丁寧度	
	朝鮮語	日本語
公	①ㅎ(읍)쇼셔体(5)	①第一段階(大敬語)(5)
	②ㅎ읍소類(8)	①第一段階(大敬語)(8)
자너	②ㅎ읍소類(3)	①第一段階(大敬語)(3)
게、게셔	②ㅎ읍소類(1)	①第一段階(大敬語)(1)
너	④ㅎ여라体(1)	④第四段階(1)

二人称複数	丁寧度	
	朝鮮語	日本語

公넌	① ㅎ(읍)쇼셔体(3)	① 第一段階(大敬語)(3)
	② ㅎ읍소類(2)	① 第一段階(大敬語)(2)
여러분넌	② ㅎ읍소類(1)	① 第一段階(大敬語)(1)

[表37] 「苗代川本」 朝鮮語と日本語の二人称代名詞の文末語尾の丁寧度比較

二人称単数	丁寧度	
	朝鮮語	日本語
公	① ㅎ(읍)쇼셔体(5)	① 第一段階(大敬語)(5)
	② ㅎ읍소類(8)	① 第一段階(大敬語)(8)
자넌	② ㅎ읍소類(3)	① 第一段階(大敬語)(2)
		② 第二段階(敬語)(1)
계、게셔	② ㅎ읍소類(1)	① 第一段階(大敬語)(1)

二人称複数	丁寧度	
	朝鮮語	日本語
公넌	① ㅎ(읍)쇼셔体(2)	① 第一段階(大敬語)(3)
	② ㅎ읍소類(1)	
여러분넌	② ㅎ읍소類(1)	① 第一段階(大敬語)(1)

[表38] 「明治刊本」 朝鮮語と日本語の二人称代名詞の文末語尾の丁寧度比較

二人称単数	丁寧度	
	朝鮮語	日本語
공	① ㅎ(읍)쇼셔体(17)	① 第一段階(大敬語)(17)
	② ㅎ읍소類(5)	① 第一段階(大敬語)(3)
		② 第二段階(敬語)(2)
③ ㅎ소類(1)	① 第一段階(大敬語)(1)	
자네	② ㅎ읍소類(4)	① 第一段階(大敬語)(2)
		② 第二段階(敬語)(2)
	③ ㅎ소類(4)	② 第二段階(敬語)(3)
넋	① ㅎ(읍)쇼셔体(1)	① 第一段階(大敬語)(1)
	② ㅎ읍소類(1)	② 第二段階(敬語)(1)
너	④ ㅎ여라体(1)	④ 第四段階(1)

二人称複数	丁寧度	
	朝鮮語	日本語
공넌	① ㅎ(읍)쇼셔体(11)	① 第一段階(大敬語)(10)
		② 第二段階(敬語)(1)
② ㅎ읍소類(2)	① 第一段階(大敬語)(2)	

자네네	② ㅎ읍소類(1)	②第二段階(大敬語)(1)
	③ ㅎ소類(1)	③第三段階(1)
여러분네	① ㅎ(읍)쇼셔체(1)	①第一段階(大敬語)(1)

[表39] 「濱田文庫本」 朝鮮語と日本語の二人称代名詞の文末語尾の丁寧度比較

二人称単数	丁寧度	
	朝鮮語	日本語
公	① ㅎ(읍)쇼셔체(4)	①第一段階(大敬語)(4)
	② ㅎ읍소類(16)	①第一段階(大敬語)(14) ②第二段階(敬語)(2)
자네	② ㅎ읍소類(4)	①第一段階(大敬語)(2) ②第二段階(敬語)(2)
	③ ㅎ소類(1)	②第二段階(敬語)(1)
계, 게서	② ㅎ읍소類(1)	①第一段階(大敬語)(1)

二人称複数	丁寧度	
	朝鮮語	日本語
公넌	① ㅎ(읍)쇼셔체(3)	①第一段階(大敬語)(3)
	② ㅎ읍소類(2)	②第二段階(敬語)(2)
자넌넌	② ㅎ읍소類(2)	①第一段階(大敬語)(2)
여러분넌	② ㅎ읍소類(1)	①第一段階(大敬語)(1)

第5節 まとめ

以上、「隣語大方」に現れる人称代名詞を文末語尾の丁寧度との関連から分析を試みた。

(1)朝鮮語の一人称代名詞の複数である「우리」は、① ㅎ(읍)쇼셔체、② ㅎ읍소類、ㅎ읍類、③ ㅎ소類、④ ㅎ여라체에わたり現れ、「우리들」は、① ㅎ(읍)쇼셔체、② ㅎ읍소類に現れる。それにより、複数の「우리」は、丁寧からぞんざいな文末語尾にわたり現れ、使用範囲が広いことが分かるが、「우리들」は、丁寧な文末語尾としてのみ現れ、「우리」より丁寧さが高いとも考えられるが、ぞんざいな文末語尾がほとんど現れない「隣語大方」の資料上の制約による可能性もあるため、さらなる調査・考察が必要である。

(2)「明治刊本」には「其元、其元様」が「アナタ」に交替されたため、「アナタ」の使用が増えたが、これから具体的に「アナタ」の役割がどのように変わったかを考察する必要がある。

(3)日本語に比して、朝鮮語の一・二人称代名詞の各語はカバーする文末語尾の丁寧度が広い。日本語の一・二人称代名詞は、朝鮮語の一・二人称代名詞より、その種類が多様であることが特徴である。

第5章 「韓語覚書」の朝鮮語カナ表記

本章は、対馬歴史民俗資料館に所蔵される『信使并譯官聘問之次第（仮題）』の附「韓語覚書」の母音と子音の朝鮮語カナ表記について調査・考察をおこなったものである。

本章の研究対象である「韓語覚書」は『信使并譯官聘問之次第（仮題）』に収められている。その書誌事項について簡単に述べると以下のとおりである。

対馬歴史民俗資料館所蔵〔図書番号：宗家文庫、記録類、朝鮮関係R-5〕⁶⁰⁾。1冊、写本。全11丁で、こより綴じになっている。外題は無く、表紙の右上に朱色で花押印と思しきものが押されている。その下に篆刻で「簡牘」と書かれた朱色の判子が押されている。

1丁から5丁表までは、日本側の倭館館守等が朝鮮側の訓導等に充てた漢文の書簡とその和訳の用例集である。東萊府使の宴席出席を要求する内容などの書簡が都合3通収められており、日本側が朝鮮側に手紙を書く時のマニュアルとして作成されたものと見られる。6丁表から9丁表までは、「信使并譯官聘問之次第」であるが、年代順に通信使および訳官使が羅列してある。記載されている年代が元禄9年（1696年）までであるため、本書『信使并譯官聘問之次第（仮題）』は元禄9年以降に書かれたものであることが明らかであるが、おそらく元禄9年をさほど下らない時期に書かれたものと推測される。「韓語覚書」は、本書の裏表紙から天地さかさまに閉じられており、11丁裏から9丁裏までの都合2丁半に、カナで表記された朝鮮語の単語および文が収められている。たとえば、

60) 『宗家文庫史料目録（記録類Ⅱ）』（宗家文庫調査委員会編、厳原町教育委員会発行、1985年）
p. 460。

	終始
和	鮮
ヲ	ナ
ヽ	シ
ル	ユ
マ	グ
テ	ト
ト	ロ
云	キ
心	ラ
也	ハ
	ン
	ト
	チ
	ラ

のごとく、まず、漢字で見出し語を示し、その右横にカタカナで朝鮮語の発音を書き、さらに、その下に朝鮮語と日本語で単語の意味を説明してある。この朝鮮語による意味説明もカタカナで表記されている。

一体カナで表記された朝鮮語の資料は、ハングルで表記された本国資料からは窺い知れない音声・音韻的情報を伝えることがあり、従来から「全一道人」、「朝鮮語訳」などの朝鮮語カナ表記資料が朝鮮語および日本語の音韻史資料として利用されてきた。ここにとりあげる「韓語覚書」もそれらの既存資料に匹敵する資料的価値を有するものと予想されるが、本章では、母音と子音部分の転写システムについて、カナ表記とハングル表記復元形とを対照しつつ検討する。なお、必要に応じて適宜、既存の朝鮮語カナ表記資料とも比較する。そして、本書が、既存の朝鮮語カナ表記資料とおおむねは類似した傾向を示す一方で、子音の部分では「ㄷ (d)」口蓋音化を過剰訂正した特異な例も散見され、朝鮮語東南方言の特徴を顕著に示す独自性も有することなどを主張する。

「韓語覚書」の母音と子音の朝鮮語カナ表記は、ハングルによる本国資料からはうかがい知れないその当時（元禄9年(1696年)ころ）の朝鮮語の音声・音韻についての情報を提供するものと期待される。

第1節 母音の朝鮮語カナ表記について

本節では、「韓語覚書」の朝鮮語カナ表記の母音について考察するが、ほぼ同期に

成立した朝鮮語カナ表記資料である「全一道人」、「朝鮮語訳」などと比較しながら述べていくこととする。

1.1 単母音

朝鮮語単母音のカナ表記を表にまとめると次のようである。

[表40] 単母音のまとめ

	ㅏ (a) ⁶¹⁾ (206) ⁶²⁾	ㅓ (ə) (55)	ㅜ (o) (67)	ㅜ (u) (30)	ㅡ (u) (118)	ㅣ (i) (172)	ㅚ (e) (103)
語頭	ア段(53)	オ段(39) オ段+ヲ(5) ウ段+ア(1)	オ段(28) ウ段(1)	ウ段(22) オ段(1) オ段+ヲ(1)	ウ段(19) オ段(55)	イ段(27)	ア段(10) オ段(10)
非語頭	ア段(152) オ段(1)	オ段(10)	オ段(37) オ段+ヲ(1)	ウ段(6)	ウ段(34) オ段(9) イ段(1)	イ段(144) ウ段(1)	ア段(45) オ段(37) ア段+イ(1)

1.1.1 「ㅏ」(a)

「ㅏ」は、総207例が現れる。語頭音節は53例が現れ、全て「ア段のカナ」で表記された。

非語頭音節は154例が現れ、その中、「ア段のカナ」が152例、「オ段のカナ」が1例である。残り1例は、朝鮮語に対するカナ表記がない。

[表41] 「韓語覚書」 「ㅏ」の例

語頭	ア段のカナ		
	004 ⁶³⁾	ナリ	[날이] ⁶⁴⁾
	011	カク ^ㄱ	[각각]
	028	ナヒ	[나히]
	060	ナンナチ	[났나치]
非語頭	ア段のカナ		
	011	カク ^ㄱ	[각각]
	060	ナンナチ	[났나치]
	071	ドグ ^ㄱ ダム	[농담]
	072	コヲツン ^ㄱ マル	[거짓말]
	オ段のカナ		
	019	サルコ ^ㄱ ブタ	[술값다]

61) ハングルのローマ字表記は、河野六郎(1955)による。

62) こちらの表の数字は、朝鮮語カナ表記がないのは省略して記入したものである。以下同様。

63) 例文番号。以下同様。

64) []内のハングル表記は、対応する中期朝鮮語の語形を示したものである。以下「全一道人」、「朝鮮

「全一道人」は、語頭・非語頭音節で「ア段のカナ」にのみ現れる。

[表42] 「全一道人」 「ㅏ」の例

ア段のカナ				
語頭	[全:61] ⁶⁵⁾	アニン	ならさる	[아닌]
非語頭	[全:34]	アサ{아사}	うはひ	[앗아]

「朝鮮語訳」は、ほとんどの場合、「ア段のカナ」が当てられる。ただし、例外的に「オ段のカナ」が当てられたものもあるが、これは「자다(寝る)」が「잠(眠り)」からの類推により「즈다」と再解釈されたものである可能性がある。「韓語覚書」の例019「サルコブタ」(슬갈다)の「-갈다」も、「オ段のカナ」が当てられているが、これは、形容詞を作る接尾辞「-갈다」の対に当たる、母音「ㅏ(ə)」を持つ「-갈다」を転写したものと解釈できる。

[表43] 「朝鮮語訳」 「ㅏ」の例

語頭	ア段のカナ			
	[訳:1:07b] ⁶⁶⁾	アツソ* ⁶⁷⁾ ムイ	朝に	[아츨이]
非語頭	ア段のカナ			
	[訳:1:37a]	アニラ	御ざりませぬ	[아니라]
	オ段のカナ			
[訳:1:05b]	ソ*ル	(夜の寝ら(らませぬ))	[잘]	

1.1.2 「ㅏ」(ə)

「ㅏ」は、総55例が現れる。語頭音節では45例が現れ、その中、「オ段のカナ」は39例、(オ段のカナ) + 「ㄹ」は5例、(ウ段のカナ) + 「ア」は1例である。

非語頭音節では10例現れるが、全て「オ段のカナ」に現れる。

「ㅏ」を、(オ段のカナ) + 「ㄹ」で表したのは、中期語の声調の上声に対応するので、声調の上声あるいは長音を表すものと見られる。すなわち、「거짓말(嘘)」、および、「헐단(崩す)」の第一音節は、中期語において上声であったものであるが、ともに、オ段のカナ + 「ㄹ」が当てられている。

(ウ段のカナ) + 「ア」で表した例078については、おそらくは、語幹「쓰-(書く)」の母音「ㅡ」が脱落せずに語尾「어서(て)」に接続した形態の「쓰어서(書いて)」に対応するものと考えられる。

語訳も同様。

65) 安田章(1964)にある「全一道人」の写真に付してあるページ番号である。

66) 巻数と丁数である。以下同様。

67) 三点を付けたものを表すために、横に「*」を付ける。以下、他のカナも同様。

「ㅍ」が「ア段のカナ」に表記されたことにつき、岸田文隆(2010a:101)は、「非語頭音節でア段のカナが当てられるのは、非語頭音節で「ㅍ」と「ㅍ」の対立が弱化するとともに、低舌の「ㅍ」のほうに傾く傾向があることを示すものと思われる」と述べている。

「韓語覚書」に現れる(オ段のカナ)＋「ㄹ」のような長音を表すカナ表記は、「朝鮮語訳」には現れない。しかし、「全一道人」には、「거죽(嘘)」(コウツク)を、オ段のカナ＋「ウ」で表記し、「韓語覚書」のように長音を表している。

これについて、허인영(2014:100)は、「‘거죽(嘘)’の第1音節‘거’は、全て中世韓国語の上声であって、現代韓国語の長音である。長母音を表す仮名がㄹ(wo)ではなく、우(u)であるのは長音の高母音化(‘거:’ > ‘구:’)を反映することと考えられる」と述べている。「全一道人」には、「거죽(嘘)」のように中期語で上声であって、現代韓国語で長音である例が、オ段のカナ＋「ウ」以外の表記も見られる。以下に、その例を書いておく。

[表44] 「韓語覚書」 「ㅍ」の例

語頭	オ段のカナ		
	051	コクテ*グ	[걱덩]
	053/061	ゴシラ/コシラ	[것이라]
非語頭	ウ段のカナ＋「ア」		
	078	スアシヤ	[쓰어서(써서)]
	オ段のカナ		
	050	ホクボキ	[벽버기]
	055	クイコル	[기걸]
非語頭	オ段のカナ＋「ㄹ」		
	067	コヲツンマル	[거죽말]
	067	ホヲタン	[혈단]

「全一道人」は、語頭音節では「オ段のカナ」、非語頭音節では「ア段、オ段のカナ」に現れる。

[表45] 「全一道人」 「ㅍ」の例

語頭	オ段のカナ			
	[全:26]	ストクル	餅を	[씩을]
非語頭	[全:29]	トロオン{더러운}	きたなき	[더러분]
	ア段のカナ			
	[全:24]	フ*ルラ{불러}	よひ	[불러]
	[全:26]	トウソイバン{두세번}	再三	[두세번]
非語頭	[全:27]	ニヨハ{녀허}	いれ	[녀허]

	[全:35]	テ*マシヤ{저머셔}	いとけなくして	[점어셔]
	[全:95]	ニルラツタニ	いたりしに	[니를엇더니]
	オ段のカナ			
	[全:29]	トロオン{더러온}	きたなき	[더러븐]
	[全:76]	テ*モシヤ{저머셔}	いとけなくして	[점어셔]
	「全一道人」の上声で長音表記の例			
	[全:24]	タア	皆	[다]
	[全:29]	スウ{수}ヲブトニ	かすもなく	[수 업더니]
	[全:47]	コウツ〃{거죽}	うそに	[거죽]

「朝鮮語訳」も語頭音節で、「オ段のカナ」が当てられるが、非語頭音節では「オ段のカナ」のほか、「ア段のカナ」が当てられる。

[表46] 「朝鮮語訳」 「ㅈ」の例

語頭	オ段のカナ			
	[訳:1:52a]	モクコ	タへ	[먹고]
非語頭	オ段のカナ			
	[訳:1:42a]	ソブソブハラブキル〃	御残多ひことは	[섬섬히읍기를]
	ア段のカナ			
[訳:1:30b]	アモカナ	どふか	[아모커나]	

1. 1. 3 「ㅊ」(o)

「ㅊ」は、総70例が現れる。語頭音節で30例が現れ、その中、「オ段のカナ」が28例、「ウ段のカナ」が1例、残り1例は、朝鮮語に対するカナ表記がない。

非語頭音節では40例が現れ、その中、「オ段のカナ」が37例、(オ段のカナ) + 「ヲ」が1例、残り2例は、朝鮮語に対するカナ表記がない。

例023「창졸」の「졸」が(オ段のカナ) + 「ヲ」に現れるが、これは上記の中期語の上声に由来する「ㅈ」が(オ段のカナ) + 「ヲ」に現れた例に似ている。

しかし、この「졸」は上声に由来しない。これにつき、허인영(2014)は、「上声であった音節がすべて長母音に転写するのではなく、上声でなかった単語も長母音に表記された場合がある。‘ㅈ음’は第1音節が上声であったが、(149ㄷ)で長母音に表記されない一方、(149ㄹ)の‘ㅈ’は上声でない去声であったが、長母音に表記されている」と述べた。

[表47] 「韓語覚書」 「ㅊ」の例

語頭	オ段のカナ		
	036	コグドロイ	[공도로이]
	066	モハム	[모함]
ウ段のカナ			

	066	ツザク	[조작]
非語頭	オ段のカナ		
	036	コグドロイ	[공도로이]
	040	コグノン	[공론]
	ウ段のカナ		
	078	イル■■ン	[일흠[둔]]
	(オ段のカナ)+ヲ		
	023	サ*クソ*ヲル	[창졸]

「全一道人」は、語頭・非語頭音節で「オ段のカナ」のみ現れる。

[表48] 「全一道人」 「ㄷ」の例

語頭	オ段のカナ			
	[全:33]	ヲラハニ	きたれといへるに	[오라하니]
	上声でなかった長母音に表記された場合			
	[全:27]	チヨコム{豆菰}	すこし	[조곰]
	[全:79]	ストヲ	また	[또]
非語頭	オ段のカナ			
	[全:70]	ネキコ	すき	[너기고]

「朝鮮語訳」も語頭・非語頭音節で、「オ段のカナ」に現れる。「ㄷ」と「ㅌ」の交替が起り得る一部の語について「ウ段のカナ」が当てられた例も見られる。「朝鮮語訳」には「ㄷ」をオ段のカナ+「ヲ」のような長音表記した例は現れない。

[表49] 「朝鮮語訳」 「ㄷ」の例

語頭	オ段のカナ			
	[訳:1:19b]	コツ	花も	[꽃]
非語頭	オ段のカナ			
	[訳:1:07b]	サ*イゾ	才知か	[지조]
	[訳:1:24a]	アモ イルト	何事も	[아모 일도]
	ウ段のカナ			
	[訳:1:36a]	アム イリ	何事が	[아모 일이]

1. 1. 4 「ㅌ」(u)

「ㅌ」は、総31例が現れる。語頭音節では25例が現れ、その中、「ウ段のカナ」が2例、「オ段のカナ」が1例、(オ段のカナ)+「ヲ」が1例、残り1例は、朝鮮語に対するカナ表記がない。

(オ段のカナ)+「ヲ」は、上声由来の「ㅌ(ə)」の場合と同じく、上声あるいは長母音を表すものと見られる。また、「ㅌ」は、「ㄷ(d)」の後ろでは「オ段のカナ」に現れる。

非語頭音節では6例が現れ、全て「ウ段のカナ」に表記された。

[表50] 「韓語覚書」 「ㄷ」の例

語頭	ウ段のカナ		
	024	ムンドク	[문득]
	063	フ*ソ*	[부조]
	(オ段のカナ)+ヲ		
	010	トヲツヘ*ン	[두편]
非語頭	オ段のカナ		
	034	トロ	[두로]
	ウ段のカナ		
非語頭	052	フ*ンフ*	[분부]
	061	ヲトツン	[얻어준]

「全一道人」、「朝鮮語訳」でも同様の傾向を示し、語頭・非語頭音節とも「ウ段のカナ」に現れる。

[表51] 「全一道人」・「朝鮮語訳」 「ㄷ」の例

ウ段のカナ				
語頭	[全:23]	ウルコ{울고}	なき	[울고]
	[訳:1:06a]	ウツチ	笑しやる(な)	[웃디]
非語頭	[訳:1:15b]	徳芬{トクフ*ン}ニヤ	御影を蒙りました段は	[덕분이야]

「全一道人」、「朝鮮語訳」の「ㄷ」も、「ㄷ(d)」の後ろでは「オ段のカナ」に現れる。

[表52] 「全一道人」・「朝鮮語訳」ㄴ(n)、ㄷ(d)+「ㄷ」の例

ㄴ(n)、ㄷ(d)+オ段のカナ				
語頭	[全:54]	ドワ{누어}	ふして	[누버]
	[全:94]	トコ	おきて	[두고]
	[訳:1:35b]	トウ	式	[두]
非語頭	[全:75]	ヲトワ	暗く	[어두워<어드버]
	[訳:1:60b]	コトチ	被収(ませぬ)	[거두디]

1. 1. 5 「一」(ㅁ)

「一」は、総118例が現れる。語頭音節は74例が現れ、その中、「ウ段のカナ」が19例、「オ段のカナ」が55例である。

非語頭音節は44例が現れ、その中、「ウ段のカナ」が34例、「オ段のカナ」が9例、「イ段のカナ」が1例である。「一」は「ㄷ(u)」と同様に、「韓語覚書」、「全一道人」、「朝鮮語訳」で「ㄷ(d)」の後ろでは「オ段のカナ」に現れる。

[表53] 「韓語覚書」 「一」 の例

語頭	ウ段のカナ		
	040	クルン	[그른]
	060	ト/ツ/ンノン	[듣느]
	オ段のカナ		
	034/033/041	トチラ/トキラ/トギラ	[뿐이라]
非語頭	ウ段のカナ		
	040/061	ゴスル/コスル	[것을]
	073	コヲツク	[거죽]
	オ段のカナ		
	024	ムンドク	[문득]
	079	ビトン	[믿은]
	イ段のカナ		
007	ゾイミラ	[처음이라]	

「全一道人」は、語頭・非語頭音節で「ウ段のカナ」に現れる。

[表54] 「全一道人」 「一」 の例

語頭	ウ段のカナ			
	[全:38]	クリヲ{グリ워}	なつかしく	[그리버]
	ㄷ(d) + オ段のカナ			
非語頭	[全:26]	ドルコ	老ひ	[늙어]
	ㄷ(d) + オ段のカナ			
	[全:68]	トリヤ	たき	[두드려]

「朝鮮語訳」も、語頭・非語頭音節で「ウ段のカナ」、「オ段のカナ」、「エ段のカナ」、「イ段のカナ」が当てられたものもある。「エ段のカナ」で当てられたのは、ウムラウトを反映しているものとみられる。

[表55] 「朝鮮語訳」 「一」 の例

語頭	ウ段のカナ			
	[訳:1:03a]	ク	左様な	[그]
	エ段のカナ			
	[訳:1:61a]	テレ	入って	[들어]
	ㄷ(d) + 「一」			
非語頭	[訳:1:34a]	トリヨ	入れて	[들여]
	[訳:1:39b]	トロシヅル	御聞被成ませうと	[들으실 줄을]
	イ段のカナ			
	[訳:1:13b]	鬱陵島{ウルリグト}	鬱陵島	[울릉도]
	ウ段のカナ			

	[訳:1:47a]	キツフ*ヲブキ	うれしさは	[깃브옵기]
--	-----------	---------	-------	--------

1. 1. 6 「ㅣ」(i)

「ㅣ」は、総176例が現れる。語頭音節では29例が現れ、その中、27例が「イ段のカナ」に現れる。残り2例は、朝鮮語に対するカナ表記がない。非語頭音節では147例が現れ、145例が「イ段のカナ」、1例が「ウ段のカナ」に現れる。残り1例は、朝鮮語に対するカナ表記がない。

[表56] 「韓語覚書」 「ㅣ」の例

語頭	イ段のカナ		
	060	シハギ	[시형]
	060	ヅルノン	[니르논]
	079	ビトン	[민은]
非語頭	イ段のカナ		
	036	コグドロイ	[공도로이]
	078	タチム	[다집]
	060	イリラ	[일이라]
	ウ段のカナ		
	008	チムヅラ	[짐춇이라]

「全一道人」は、語頭音節では「イ段のカナ」、非語頭音節では「エ段のカナ」に現れる。

[表57] 「全一道人」 「ㅣ」の例

語頭	イ段のカナ			
	[全:23]	イシヤ	いて	[이셔]
	[全:106]	イバツキ{이밧기}ル	そなへる事を	[이받기를]
非語頭	エ段のカナ			
	[全:18]	ノハハ*レニ	おとせしを	[노하 버리니]
	[全:33]	テレラ	しんすへしと	[드리라]
	[全:72]	トンハ*グメニナ{돈빅민이나}	錢百緡ほとに	[돈빅면이나]
	[全:106]	モケチモツハヤシニ	おませさりしに	[막이디 몰 ㅎ얏이니]

「朝鮮語訳」も、語頭・非語頭音節で「イ段のカナ」に現れる。しかし、非語頭音節においては「エ段のカナ」に現れるものもある。「エ段のカナ」表記につき、岸田文隆(2010a:104)は、「非語頭音節において、[i]と[e]の対立が弱まり、低舌の[e]のほうに傾く傾向があることを示すものと思われる」と述べている。

[表58] 「朝鮮語訳」 「ㄷ」の例

語頭	イ段のカナ			
	[訳:1:12b]	イシニ	御座る程に	[이시니]
非語頭	イ段のカナ			
	[訳:1:09b]	イリ	ヶ様に	[이리]
	エ段のカナ			
	[訳:1:12b]	ニエケチ	なひがしろに	[너지디]
	[訳:1:55b]	アムレハヤト	とふしても	[아무리 ㅎ야도]

1. 1. 7 「ㄷ」(e)

「ㄷ」は、総104例が現れる。語頭音節では20例が現れ、「ア段のカナ」が10例、「オ段のカナ」が10例現れる。

非語頭音節では84例が現れ、その中、「ア段のカナ」が45例、「オ段のカナ」が37例、(ア段のカナ) + 「イ」が1例である。

語頭音節の「ㄷ」は、先行する子音によって、「ア段」または「オ段のカナ」のみで表記されるものと、「ア段、オ段」の両方で表記される場合がある。

宋敏(1986)は、「全一道人」の朝鮮語カナ表記について分析したものであるが、先行する子音の資質によって「ㄷ」が「ア段」または「オ段のカナ」で表記され、第一音節に位置する「ㄷ」の非音韻化(「ㄷ」が「ㄸ(a)」へ合流すること)の拡散過程について次のように、aからeの環境順で変化したと述べた。

- a. [-鼻音性、-舌端性、-粗擦性] 子音部類 (ㅎ (h)、ㄱ (g, k)、ㅍ (b, p))
- b. [-鼻音性、+舌端性、-粗擦性] 子音部類 (ㄷ (d, t)、ㄹ (r, l))
- c. [-鼻音性、+舌端性、+粗擦性] 子音部類 (ㅅ (s)、ㅆ (j))
- d. [+鼻音性、-舌端性、-粗擦性] 子音 (ㅁ (m))
- e. [+鼻音性、+舌端性、-粗擦性] 子音 (ㄴ (n))

「全一道人」の第一音節の「ㄷ」のカナ表記は、abcの環境では「ア段、オ段」に現れる。また、cの「ㅆ(j)」とdeの環境では「オ段」でのみ現れる。

[表59] 「全一道人」 「ㄷ」のカナ表記⁶⁸⁾

	子音	ア段		オ段			
a	ㅎ (h)	41	ハナヒイ	[한히]	17	ソラグホコ	[소랑호고]
	ㄱ (g)	37	カライ	[카이]	56	コルロル{글을}	[글을]
41		カザグ	[마장]				

68) 宋敏(1986:112-116)の例を参考にして筆者が表にした。

	ㅃ (b)	70	ハ*リ{벼리}코	[벼리고]	123	ホ*ワチヨ{벗아져}	[벗아져]
b	ㅅ (d)	28	タラ{드라}나	[드라나]	110	トツトワ{드토와}	[드토와]
c	ㅆ (s)	107	サルチニ{술지니}	[술지니]	17	ソラグホコ	[스랑호고]
	ㅈ (j)				65	ソ*ロ{즈로}	[즈로]
d	ㅊ (m)				47	モヲル{므올}	[므올]
e	ㄴ (n)				82	ㄴ몰크키{느몰국이}	[느몰국이라도]

「朝鮮語訳」の 第一音節の「、」のカナ表記は「全一道人」と非常に似ており、abcの環境では「ア段、オ段」、cの「ス(j)」とdeの環境では「オ段」にのみ現れる。

[表60] 「朝鮮語訳」 「、」のカナ表記

	子音	ア段			オ段		
a	ㅎ (h)	[訳:1:39b]	ハル	[홀]	[訳:1:38a]	ホコ	[호고]
	ㄱ (g)	[訳:1:37b]	カザグ	[마장]	[訳:1:26a]	コヲル	[마술]
	ㅃ (b)	[訳:1:26a]	ハ*ラミ	[벼름이]	[訳:1:54a]	ホ*ル (セ)	[벌서]
b	ㅅ (d)	[訳:1:54b]	タル	[들]	[訳:1:29a]	トルメヨ	[들며]
c	ㅆ (s)	[訳:1:48a] サラツスプタニマノン [숯숯습더니마논]			[訳:1:62a] ソルソヲトイ [숯소오티]		
	ㅈ (j)				[訳:1:35a]	ソ*セ	[즈세]
d	ㅊ (m)				[訳:1:02a]	モヲミ	[므습이]
e	ㄴ (n)				[訳:1:12b]	ノヅラ	[눗으라]

宋敏(1986)に基づき、「韓語覚書」の「、」をみてる。

語頭は、acの環境で「ア段」、deの環境で「オ段」に現れ、「全一道人」と同様である。

[表61] 「韓語覚書」 「、」のカナ表記

	子音	ア段			オ段		
a	ㅎ (h)	084	ハムタイ	[홀 뻬]			
	ㄱ (g)	054	カラチタン	[마르치단]			
	ㅃ (b)	044	ハ*ルキン	[벌힌]			
c	ㅆ (s)	019	サルコブタ	[술잡다]			
d	ㅊ (m)				076	モトイ	[므딛]
e	ㄴ (n)				060	ノムイ	[눔의]

しかし、「全一道人」、「朝鮮語訳」の「、」の結果と異なって、志部昭平(1988:72)は、「高麗詞之事」の「、」のカナ表記について以下のように述べている。

母音 ㅏ⁶⁹⁾は、第二音節以下でのわずかな例外を除いて、アあるいはオ段の仮

69) 本論文での「、」(e)である。

名で写され、これをアとオのいずれの仮名で写すか、については一定の音韻的条件が存在していないようである。このことはこの朝鮮語において、この音がよく保存され、その音価は日本語のアとオとのいずれにも聞こえる音であったことを示すものであろう。

以上のように、志部昭平(1988)は、「・」は一定の音韻的条件が存在していないようであると述べたが、「高麗詞之事」の第一音節の「・」を宋敏(1986)に従って再検討してみると、abcの環境では「全一道人」、「朝鮮語訳」と同じく、abは「ア段」、cは「ア段、オ段」に現れる。しかし、cの「ス(s)」は「朝鮮語訳」と異なり「オ段」のみが現れる。dは「オ段」と「ア段」、eの環境では「オ段」に現れる。したがって、「高麗詞之事」の「・」も「全一道人」、「朝鮮語訳」とほぼ同一の傾向にしていると言えよう。

[表62] 「高麗詞之事」 「・」のカナ表記⁷⁰⁾

子音	ア段			オ段		
	子音	ア段	オ段	子音	ア段	オ段
a	ㅎ (h)	316	ハンダライ	[<u>ㅎ</u> 들]		
	ㄱ (g)	292	カラチラ	[<u>ㄱ</u> 치라]		
	ㅂ (b)	093	バイ	[<u>ㅂ</u>]		
b	ㄷ (d)	013	スタリ	[<u>ㅅ</u>]	052	トリキ
		317	タライ	[<u>ㄷ</u>]	189	トツカラ
c	ㅌ (j)	094	サンバイ	[<u>ㅌ</u> ㅂ]	363	ソセキ
d	ㄹ (m)	042	バラ	[<u>ㄹ</u>]	209	モウミ
		309	マスン	[<u>ㄹ</u> ㅅ]	042	モリ
e	ㄴ (n)				294	ノイロ
					203	ノリヲラ

ここで「韓語覚書」の第一音節に位置する「・」の非音韻化の過程をさらに明らかにするためには前接する子音ごとに、「・」が「ア段」あるいは「オ段」に現れる比率を調べる必要がある。それを以下の表に示す。

[表63] 「韓語覚書」 語頭・非語頭の「・」の比率

語頭音節の「・」			非語頭音節の「・」		
子音	ア/オ	比率	子音	ア/オ	比率
ㅎ (6 ⁷¹⁾)	ア段(6)	100%	ㅎ (42)	ア(40)	95.2%
ㄱ (2)	ア段(2)	100%		オ(2)	4.8%
ㅂ (1)	ア(1)	100%	ㄷ (1)	オ(1)	100%
			ㄹ (14)	ア(5)	35.7%

70) 志部昭平(1988:86-99)の例を参考にして筆者が表にした。

				オ(9)	64.3%
ス(1)	ア(1)	100%	ス(3)	オ(3)	100%
			ㄷ(1)	ア(1)	100%
ロ(7)	オ(7)	100%	ㄷ(1)	オ(1)	100%
ㄴ(3)	オ(3)	100%	ㄴ(21)	オ(21)	100%

「韓語覚書」の語頭音節「・」は、ㅎ(h)、ㄱ(g)、ㅂ(b)、ㅅ(s)で100%「ア段」に現れ、ㄹ(m)、ㄴ(n)では、100%「オ段」に現れる。以上の検討は、宋敏(1986)の第一音節に位置する「・」の子音による非音韻化の拡散過程の裏付けになると考えられる。72)

つぎに、「韓語覚書」の非語頭音節の「・」は、ㅎ(h)、ㄹ(r, l)では「ア段、オ段カナ」に現れる。ㅎ(h)の後ではおおむね、「ア段」に現れ、ㄹ(r, l)は多く「オ段」に現れる。ㄷ(d)、ㅅ(s)、ㄷ(z)、ㄴ(n)の後では「オ段」に現れる。ㄷ(c)は1例であるが、「ア」に現れる。

[表64] 「韓語覚書」の非語頭音節「・」の例

	子音	ア段			オ段		
a	ㅎ(h)	029	クルツハン	[크룻한]			
b	ㄷ(d)				050	ハンドシ	[반드시]
	ㄹ(r, l)	066	サラムル	[사룸을]	061	サロムル	[사룸을]
c	ㅅ(s)	066	サラムル	[사룸을]	016	レソラン	[레스란]
d	ㅇ(´) < ㄷ						
	(z)				054	モヲミ	[모음이]
e	ㄴ(n)				083	クルツトエノン	[크룻되논]

1. 2 上向二重母音

朝鮮語の上向二重母音のカナ表記を表にまとめると次のようである。

71) 「韓語覚書」に現れる頻度数。

72) なお、「高麗詞之事」、「全一道人」、「朝鮮語訳」、「韓語覚書」よりも後代に成立したと考えられる「物名」の朝鮮語カナ表記からは、第一音節の「・」の非音韻化がさらに進行した姿をうかがうことができる。

例 m+e マル(mer・馬・25オ) マッドウライ(mes-nu-wi・伯・17ウ)
 マルラッタ(mer-ras-ta・乾・9ウ)
 n+e ナム(nem・他人・19オ) ナルカイ(ner-kai・翼・24オ)
 ナツ(nes・顔・21オ) ナラカンダ(ne-ra-kan-ta・飛・24オ)

(李康民1993:177)

[表65] 「韓語覚書」 上向二重母音のカナ表記のまとめ

	ㅃ (ya) (16)	ㅅ (yə) (65)	ㅆ (yo) (12)	ㅠ (yu) (8)	ㅊ (wa) (8)
語頭	(イ段のカナ) + 「ヤ」 (6)	エ段(23) ----- (イ段のカナ)+ 「ヨ」 (1) ----- (イ段のカナ)+ 「エ」 (1)	(イ段のカナ)+ 「ヨ」 (8)	(イ段のカナ)+ 「ユ」 (4)	ア段(2)
非語頭	(イ段のカナ)+ 「ヤ」 (10)	エ段(30) ----- (イ段のカナ)+ 「ヤ」 (7) ----- (イ段のカナ)+ 「ヨ」 (3)	(イ段のカナ)+ 「ヨ」 (3) ----- (イ段のカナ)+ 「ユ」 (1)	(イ段のカナ)+ 「ユ」 (4)	ア段(2) ----- (ウ段のカナ)+ 「ア」 (2) ----- (ウ段のカナ)+ 「ワ」 (2)

1. 2. 1 「ㅃ」 (ya)

「ㅃ」は、総16例が現れる。語頭音節では6例、非語頭音節では10例現れるが、いずれも、(イ段のカナ+)「ヤ」に現れる。

また、綴りが「ㅃ」ではないが、例030のように、「ㅣ (i)」+「ㅃ (a)」の結合で「ㅃ」と発音され、(イ段のカナ+)「ヤ」に現れる場合もある。

[表66] 「韓語覚書」 「ㅃ」の例

(イ段のカナ+)「ヤ」			
語頭	006	チヤグナイ	[장릭]
	030	マツタチヤノン	[맛당치얏은]
	046	シヤグウイ	[상의]
	080	シヤグドク	[상동]
非語頭	077	ヲニヤク	[언약]
	052	チヨグイシヤ	[정의샤]
	067	ハヤ	[히야]

「全一道人」、「朝鮮語訳」も語頭・非語頭音節で(イ段のカナ+)「ヤ」に現れる。

[表67] 「全一道人」・「朝鮮語訳」 「ㅃ」の例

(イ段のカナ+)「ヤ」				
語頭	[全:21]	シヤグハイ	ひごろ	[상해]
	[全:115]	ヤツサ*イ {야채}	鬼あまた	[야척]
非語頭	[全:41]	ハ*ヤム	へひ	[비얏]
	[訳:1:04a]	大丈夫 {チヤグブ}	男の	[大丈夫 {당부}]
	[訳:1:45b]	イゾイヤ	唯今	[이제야]

1. 2. 2 「ㅍ」(yə)

「ㅍ」は、総66例が現れる。語頭音節では26例が現れ、「エ段のカナ」が23例、(イ段のカナ+)「ヨ」が1例、(イ段のカナ+)「エ(エ)」が1例である。残り1例は、朝鮮語に対するカナ表記がない。

非語頭音節では40例が現れ、「エ段のカナ」が30例、(イ段のカナ+)「ヤ」が7例、(イ段のカナ+)「ヨ」が3例である。

「エ段のカナ」が当てられたものは、順行同化の結果「ㅍ」が前舌化し、[ə]が[e]に変化したことを示すものと見られ、単母音化がある程度進んだと考えられる。(イ段のカナ+)「ヤ」が当てられたものは、第2音節以下で「ㅍ」が陽母音(低舌母音)に傾いたものと解釈される。

[表68] 「韓語覚書」 「ㅍ」の例

語頭	エ段のカナ					
	001	セグフ*ミ	[성품]	064	ケンドイタ	[견디다]
	030	ネグニ	[령리]	077	ベントグ	[변통]
	(イ段のカナ+)「ヨ」					
	052	チヨグ	[뎡]			
非語頭	エ段のカナ					
	036	コクヘ*ン	[공편]	051	コクテ*グ	[적뎡]
	049	テ*グネグ	[뎡녕]			
	(イ段のカナ+)「ヤ」					
	041	コクジヤク	[공정]	065	ロシヤ	[로셔]
	078	スアシヤ	[쓰어셔(써셔)]	087	モツチヤラハン	[모쳐라흔]
	(イ段のカナ+)「ヨ」					
057	ネムニヨ	[넘녀]	059	ヲリヨラン	[어려운]	

「全一道人」は、語頭音節で「エ段のカナ」、(イ段のカナ+)「ヨ」に現れる。語中音節でも「エ段のカナ」に現れ、(イ段のカナ+)「ヨ」、(イ段のカナ+)「ヤ」、エ段のカナ+「イ」にも現れる。

[表69] 「全一道人」 「ㅍ」の例

語頭	エ段のカナ			
	[全:30]	ケヲリ{겨올이}ラ	冬なりけるに	[겨슬이라]
	[全:46]	メグハヤ	おふせ付られ	[멍헝야]
	[全:123]	テ*ニヨクイ{저녁의}	晩かた	[저녁의]
	(イ段のカナ+)「ヨ」			
[全:102]	キヨロツタニ{결오더니}	く〃みあいしに	[결오더니]	

非語頭	エ段のカナ	[全:25]	チヨセ{豆書}	みことのり	[조서]
	(イ段のカナ+)「ヨ」	[全:72]	クノチヨ{싯허져}	たゑて	[싯허져]
		[全:118]	ヲリヨヲ	■■■■(難しく)	[어려버]
	エ段のカナ+「イ」	[全:32]	シヤグセイ{상서}	尚書	[상서]
	(イ段のカナ+)「ヤ」	[全:57]	トロ{더러}ナヤ	へしていだし	[덜어 내야]

「朝鮮語訳」も、語頭音節で「エ段のカナ」、(イ段のカナ+)「エ」に現れる。

非語頭音節でも「エ段のカナ」、(イ段のカナ+)「ヨ」、イ段のカナ+「エ」、エ段のカナ+「エ」、エ段のカナ+「ヨ」、まれに「ア段のカナ」も現れる。「ヨ」が当てられたものは、非語頭音節にしか見られないことである。

[表70] 「朝鮮語訳」 「ㅍ」の例

語頭	エ段のカナ	[訳:1:32b]	エラハ*ン	度々	[여러번]
	イ段のカナ+「エ(エ)」	[訳:1:09a]	廉恥{니엠치}ヲブシ	廉恥もなひやうに	[렴티없이]
非語頭	エ段のカナ	[訳:1:09a]	偶然{우엔}	誠に	[우선]
	(イ段のカナ+)「ヨ」	[訳:1:02a]	クキョグハル	見物する	[구경할]
		[訳:1:21a]	カチヨ	取	[가져]
	イ段のカナ+「エ(エ)」	[訳:1:30a]	庸劣{ヨグニエル}ハン	文盲な	[용렬흔]
	エ段のカナ+「ヨ」	[訳:1:08a]	アルメヨン	しられませうならば	[알면]
	ア段のカナ	[訳:1:35a]	エラ サ*キラト	数艘にても	[여러 척이라도]

1. 2. 3 「ㅍ」(yo)

「ㅍ」は、総13例が現れる。語頭音節では9例が現れ、8例が(イ段のカナ+)「ヨ」に現れる。残り1例は、朝鮮語に対するカナ表記がない。

非語頭音節では4例が現れる。(イ段のカナ+)「ヨ」が3例、(イ段のカナ+)「ユ」が1例である。

(イ段のカナ+)「ユ」は、非語頭音節において、「ㅍ」と「ㅑ」の対立が弱化することを示すものであろう。

[表71] 「韓語覚書」 「ㅟ」 の例

語頭	(イ段のカナ+)「ヨ」		
	002	チヨグシ	[중시]
	003	チヨクナイ	[중늑]
非語頭	(イ段のカナ+)「ヨ」		
	009	タムヨク	[탐욕]
	063	フ*チヨク	[부족]
	(イ段のカナ+)「ユ」		
	002	ナシユグ	[내중]

「全一道人」は、語頭・非語頭音節で（イ段のカナ+）「ヨ」に現れる。

[表72] 「全一道人」 「ㅟ」 の例

(イ段のカナ+)「ヨ」				
語頭	[全:123]	シヨヤチ{쇼야지}	子牛{코우신}	[쇼야지<쇠야지]
非語頭	[全:33]	フルヒヨ	不孝	[불효]
	[全:70]	クルルチヨハアニハニ	ものよみをすかず	[글을 돌아 아니하니]

「朝鮮語訳」は、語頭・非語頭音節で（イ段のカナ+）「ヨ」が当てられる。非語頭音節では（イ段のカナ+）「ユ」、「エ段のカナ」も当てられている。

[表73] 「朝鮮語訳」 「ㅟ」 の例

語頭	(イ段のカナ+)「ヨ」			
	[訳:1:25a]	ヨソイ	此比は	[요스△]
非語頭	(イ段のカナ+)「ヨ」			
	[訳:1:06b]	シヨクテ*リ	しやう事もなひ事(ては御座らぬか)	[숙절이]
	(イ段のカナ+)「ユ」			
	[訳:1:11a]	カラフシユシヤ	被成ませひ	[가읍쇼샤]
	[訳:1:59a]	마읍시유셔	被成まするな	[마읍쇼셔]
	エ段のカナ			
[訳:1:13b]	アモテ*ロナ	何とそ	[아모조로나]	

1. 2. 4 「ㅠ」 (yu)

「ㅠ」は、総9例が現れる。語頭音節では5例が現れる。4例が（イ段のカナ+）「ユ」に現れ、残り1例は、朝鮮語に対するカナ表記がない。

非語頭音節では4例で、全て（イ段のカナ+）「ユ」に現れる。

[表74] 「韓語覚書」 「ㅠ」 の例

(イ段のカナ+)「ユ」			
-------------	--	--	--

語頭	035	シユンヘ*ン	[슌편]
	035	チュツヘ*ン	[쥬편]
非語頭	039	セシユ	[세슈]
	083	シルシユ	[실슈]

「全一道人」は、語頭・非語頭音節で（イ段のカナ+）「ユ」に現れる。

[表75] 「全一道人」 「ㅍ」 の例

(イ段のカナ+) 「ユ」				
語頭	[全:24]	チュグハヤ	重く	[똥꺽야]
	[全:84]	リュクユレギ{육유령이}	陸幼齡	[륙유령이]
非語頭	[全:84]	リュクユレギ{육유령이}	陸幼齡	[륙유령이]

「朝鮮語訳」も、語頭・非語頭音節で（イ段のカナ+）「ユ」が当てられ、語頭音節では（イ段のカナ+）「ヨ」も現れる。

[表76] 「朝鮮語訳」 「ㅍ」 の例

語頭	(イ段のカナ+) 「ユ」			
	[訳:1:39a]	猶同{ユトグ}ハンナラ	同国に	[유동훈 나라]
	(イ段のカナ+) 「ヨ」			
非語頭	[訳:1:04a]	重{チュヨグ}ハン	重き	[똥꺽]
	(イ段のカナ+) 「ユ」			
	[訳:1:26a]	拔穂{ハ*ルシユ}ハル	穂のこきまする	[발슈홀]

1. 2. 5 「ㅍ」 (wa)

「ㅍ」は、総8例がある。語頭音節では2例が現れ、全て「ア段のカナ」に表記された。非語頭音節では6例が現れる。「ア段のカナ」が2例、(ウ段のカナ+)「ア」が2例、(ウ段のカナ+)「ワ」が2例である。

[表77] 「韓語覚書」 「ㅍ」 の例

語頭	ア段のカナ		
	038	ハルシユ	[활슈]
	048	ハグタグ	[황당]
非語頭	(ウ段のカナ+) 「ア」		
	045	シヤグツ*ア	[상좌]
	(ウ段のカナ)+ワ		
	061	サグクワグ	[쌍광]

「全一道人」について허인영(2014:87)は、先行する子音によってカナ表記が異なると述べ、子音によって分析している。結合する子音がない場合は「ワ」、ㄱ(g)との結

合は「クワ、グワ」、ス(j)と結合する場合は「サ*、ザ」、ㄴ(n)との結合する場合は「ヌワ」、ㅎ(h)との結合する場合は「フハ、ハ」に現れると述べている。

「韓語覚書」の「ㄱ」を허인영(2014)のように、結合する子音によって考えてみると、ㄱ(g)との結合は「クワ」、ス(j)との結合では「ツ*ア」、ㅎ(h)との結合では「ハ」に現れる。ス(j)を除き、「全一道人」、「朝鮮語訳」と同様である。

[表78] 「全一道人」 「ㄱ」の例

語頭	子音無し+ㄱ	[全:37]	ワグナイ{왕늑}ハトイ	往來する	[왕릭ㅎ딕]
	ㄱ(g)+ㄱ	[全:61]	クワコ	及第	[과거]
	ス(j)+ㄱ	[全:53]	サ*シヤグ{좌상}	座上	[좌상]
	ㅎ(h)+ㄱ	[全:22]	フハ{화화}ハヤ	化して	[화ㅎ야]
		[全:22]	ハモク{하목}ハヤ	和睦して	[화목ㅎ야]
	非語頭	ㄴ(n)+ㄱ	[全:28]	クワヌワグミヨ{관왕묘}	關王廟

「朝鮮語訳」は、語頭・非語頭音節で、(ウ段のカナ+)「ワ」のみ現れる。

[表79] 「朝鮮語訳」 「ㄱ」の例

(ウ段のカナ+)「ワ」					
語頭	[訳:1:36a]	クワツシミ	にくふ	[과심히]	
	[訳:1:47a]	ワツソラン	参ました	[왔스온]	
非語頭	[訳:1:37a]	왔스부코니와	参りまして御ざる	[왔습거니와]	
	[訳:1:55a]	門クワ	門	[문과]	

1. 3 下向二重母音

朝鮮語の下向二重母音のカナ表記を表にまとめると次のようである。

[表80] 「韓語覚書」 下向二重母音のカナ表記のまとめ

	ㅏ(ai) (16)	ㅓ(əi) (4)	ㅗ(oi) (5)	ㅜ(ui) (2)	ㅟ(wi) (16)	ㅝ(ei) (14)
語頭	ア段(2)	オ段のカナ+ 「イ」(1)	オ段のカナ+ 「イ」(3)		ウ段のカナ+ 「イ」(9)	ア段(2)
	ア段のカナ+ 「イ」(1)		オ段のカナ+ 「エ」(1)			ア段のカナ+ 「イ」(2)
非語	ア段のカナ+ 「イ」(12)	エ段(1)	オ段のカナ+ 「エ」(1)	ウ段のカナ+ 「イ」(2)	(ウ段のカナ+) 「イ」(5)	ア段のカナ+ 「イ」(4)

頭				オ段のカナ+ 「イ」(1)	オ段のカナ+ 「イ」(3)
	ア段(1)	エ段のカナ+ 「イ」(1)		エ段のカナ (1)	イ段のカナ+ 「ヨ」(1)
		ア段のカナ+ 「イ」(1)			ア段(1)

1. 3. 1 「ㅍ」(ai)

「ㅍ」は、総16例がある。語頭音節では3例が現れる。「ア段のカナ」が2例、ア段のカナ+「イ」が1例である。

非語頭音節では13例が現れる。ア段のカナ+「イ」が12例、「ア段のカナ」が1例である。

「ㅍ」のア段のカナ+「イ」の表記につき、「全一道人」に見られる「-에」のカナ表記について考察した민병찬(2003:118)は、「ハングル文字の影響による仮名表記、すなわち、表語的な表記であると解釈する方が妥当ではないかと考える。それは周知のように、ハングル母音字は基本母音字の組み合わせで構成されているので、芳洲⁷³⁾は、組み合わせさせた母音の音価に拘らず、ハングル文字を分解して、一つ一つ仮名に置き換えたものに過ぎないことを意味する。そう考えると、「-ㅍ」は「ㅍ」+「ㅣ」の形態なので、これは「ア列+イ」のような仮名で置き換えるのが自然ということになる」と述べている。

[表81] 「韓語覚書」 「ㅍ」の例

語頭	ア段のカナ+「イ」		
	084	タイ	[ㅍㅏ]
	ア段のカナ		
非語頭	001	サムギン	[ㅍㅏ깁]
	002	ナシユグ	[내중]
	ア段のカナ+「イ」		
	052	アライ	[아래]
	065	ホ*ツサ*イタ	[보채다]
	ア段のカナ		
	020	エクマ	[영매]

「全一道人」も、ア段のカナ+「イ」、 「ア段のカナ」に現れる。

73) 민병찬(2003)は、「全一道人」に見られる「-에」のカナ表記について考察したものであるが、この引用箇所に見える「芳洲」とは、「全一道人」の著者の雨森芳洲のことである。

[表82] 「全一道人」 「ㅍ」の例

語頭	ア段のカナ+「イ」			
	[全:27]	タイロ {대로}ハヤ	大に怒り	[대로히야]
	[全:29]	カイ	狗	[개<가히]
	[全:74]	カイカツタン {개곶툰}	犬のこたく	[개곶훈<가히곶훈]
	ア段のカナ			
	[全:35]	カエン {개연介然}ハトニ	介然たりしに	[개연히더니]
[全:36]	タンニツフ*ロ {땃넙프로}	竹の葉にて	[땃넙으로]	
非語頭	ア段のカナ+「イ」			
	[全:27]	クリンナイ {그린내}	くさきにおひ	[구린내]
	[全:27]	マクタイ {막대}ル〃	杖を	[막대를]
	ア段のカナ			
	[全:25]	ホ*ナヤ	たまわり	[보내야]

「朝鮮語訳」は、ア段のカナ+「イ」のみ現れる。

[表83] 「朝鮮語訳」 「ㅍ」の例

ア段のカナ+「イ」				
語頭	[訳:1:22a]	サイロライ	新しく	[새로이]
	[訳:1:60b]	サ*イ	とくと	[채]
非語頭	[訳:1:23b]	サ*ナイナイ	各〃	[자내내]
	[訳:1:61b]	アライ	下々(共は)	[아래]

1. 3. 2 「ㅍ」(əi)

「ㅍ」は、総4例がある。語頭音節では、オ段のカナ+「イ」で1例のみ現れる。

非語頭音節では3例が現れ、ア段のカナ+「イ」が1例、エ段のカナ+「イ」が1例、「エ(エ)段」が1例である。

ここで、「イ」の前に「エ段のカナ」が当てられたものは、ウムラウトを反映したものと見られる。また、「ㅍ」がオ段のカナ+「イ」に表記されることについて、민병찬(2003)は、上記の「ㅍ」の置き換えと同様であると述べている。

副詞語尾の「-게(-く)」は、「全一道人」、「朝鮮語訳」、「韓語覚書」において「カイ」、与格助詞の「-게(-に)」は、「全一道人」、「韓語覚書」で「コイ」に現れるのが同様である。副詞語尾の「-게」に「カイ」が当てられたのについて岸田文隆(2010a)は、近世語の資料にあらわれる語形「-개」に対応していると述べている。

[表84] 「韓語覚書」 「ㅍ」の例

語頭	オ段のカナ+「イ」		
	011	ソイコミラ	[제곰이라]

非語頭	ア段のカナ+「イ」		
	061	サロカイ	[사랴게]
	066	ソ*イイツカイ	[죄잇게]
	エ段のカナ+「イ」		
	052	サロムケイ	[사름게]
非語頭	エ(エ)		
	029	フルシエ	[블시에]

「全一道人」は語頭音節で、オ段のカナ+「イ」、「オ段のカナ」も現れる。「オ段のカナ」の後に「ユ」、「ヨ」で表記したのは、「ㅍ」の後ろに「ㄷ(u)」、「ㅍ(a)」がくる場合に見られる表記である。

非語頭音節では、ア段のカナ+「イ」、エ段のカナ+「イ」、オ段のカナ+「イ」が現れる。

[表85] 「全一道人」 「ㅍ」の例

語頭	オ段のカナ+「イ」		
	[全:18]	ソイ	三人の [세]
	[全:34]	ドイ{네}	そちか [네]
	[全:77]	ユイヲルリ{케얼리}アニハトニ	おこたらさりしに [케얼리 아니히더니]
	オ段のカナ		
[全:40]	モユキ{메요기}ヨヌル	鰻魚{ナマツ}なるを [메유기여늘]	
[全:60]	トヨ{테여}	やかれ [테여]	
非語頭	ア段のカナ+「イ」		
	[全:33]	テ*サ*イ{저제}	市に [저제<저재]
	[全:54]	ツクカイトヤツコヌル	死せんとせしを [죽게 되엇거늘]
	エ段のカナ(+「イ」)		
	[全:61]	キレシヤ	ゆき路に [길에서]
	[全:63]	キレイ	路に [길에]
	[全:95]	モヘイ{모히}	山へ [모해<모해]
	オ段のカナ+「イ」		
	[全:46]	ウロイエ{우레예}	かみなりして [올에예]
	[全:86]	イゾイ	今 [이제]
[全:118]	スリグイコイ	師匠の方へ [스승의게]	

「朝鮮語訳」は語頭音節で、オ段のカナ+「イ」のみ現れる。非語頭音節では、ア段のカナ+「イ」、オ段のカナ+「イ」、まれにエ段のカナ(+「イ」)が当てられる。

[表86] 「朝鮮語訳」 「ㅍ」の例

語頭	オ段のカナ+「イ」		
	[訳:1:34a]	ドイタヨソツ	四五六 [네다여섯]

	[訳:1:36a]	ソ*イ	其身の	[제]
非語頭	ア段のカナ+「イ」			
	[訳:1:23b]	イツカイ	及ふ様に	[잇게]
	[訳:1:61b]	ナイカイ	出す様に	[내게]
	オ段のカナ+「イ」			
	[訳:1:55b]	イゾイ	今の	[이제]
	[訳:1:61a]	ウリコイシヤ	我々方より	[우리게샤]
	エ段のカナ(+「イ」)			
	[訳:1:15a]	朝鮮ネ	朝鮮え	[朝鮮에]
[訳:1:17a]	ウリケイ	此方へ	[우리게]	

1. 3. 3 「ㅛ」(oi)

「ㅛ」は、総5例がある。語頭音節では4例が現れ、オ段のカナ+「イ」が3例、オ段のカナ+「エ」が1例である。

非語頭音節では、オ段のカナ+「エ」で1例のみ現れる。「エ」が当てられたのは、ウムラウトを表していると思われる。

[表87] 「韓語覚書」 「ㅛ」の例

語頭	オ段のカナ+「イ」		
	066	ソ*イイツカイ	[죄잇게]
	078	ソ*イメグル	[죄명을]
	オ段のカナ+「エ」		
非語頭	059	トエトロク	[되도록]
	オ段のカナ+「エ」		
	083	クルツトエノン	[그릇되느]

「全一道人」は、オ段のカナ+「イ」、オ段のカナ(+「ヤ」)に現れる。オ段のカナ+「ヤ」に転写されることについて허인영(2014:90)は、下向半母音[-j]に続く「ㅛ」が[je]に近い音価に現れることを意味すると説明している。

その他、ア段のカナ+「イ」、ウ段のカナ(+「イ」)、エ段のカナ+「イ」、オ段のカナ+「イ」、オ段のカナ+「エ」も見られる。

[表88] 「全一道人」 「ㅛ」の例

語頭	オ段のカナ+「イ」		
	[全:68]	コイ{ㅛ}ハン	あやしき [괴훈<ㅛ이훈]
	オ段のカナ(+「ヤ」)		
	[全:21]	トヤ{ㅛ여}	なり [되여]
	[全:102]	トヤツトニ	なりしに [되엇더니]
非語頭	ア段のカナ+「イ」		
	[全:63]	ムライバイ{무되비無頼輩}	斗方なきもの [무되비]

ウ段のカナ(+「イ」)			
[全:108]	カググギラハノン	姜肱といへる	[강굉이라 흥논]
[全:116]	チチヨクイ{지저괴}ミヨ	わや〃	[지저괴며<지저귀며]
エ段のカナ+「イ」			
[全:69]	ハンドギ{덩이}テイ{되}マンハン	ひとつのかたまりますほどの	[흔 덩이 되만흔]
オ段のカナ+「イ」			
[全:20]	ケイモイ	繼母	[계모]
[全:38]	サホイ{사회}	壻	[사회]
オ段のカナ+「エ」			
[全:109]	トエン{된}	なりたる	[된<드윈<드윈]

「朝鮮語訳」は、語頭音節ではオ段のカナ+「イ」に現れる。その他、エ段のカナ+「イ」、オ段のカナ+「エ(エ)」も現れる。エ段のカナ+「イ」、オ段のカナ+「エ(エ)」はウムラウトをあらわしているものであり、いずれも語頭音節に見られる点が注目される(岸田文隆2010a)。非語頭音節ではオ段のカナ+「イ」に現れる。

[表89] 「朝鮮語訳」 「ㅍ」の例

語頭	オ段のカナ+「イ」			
	[訳:1:02a]	トイメヨン	成ますれば	[되면]
	[訳:1:55a]	ソ*イコ	あたつて	[싸고]
	オ段のカナ+「エ」			
[訳:1:53a]	トエメヨン	成ましたらば	[되면]	
エ段のカナ+「イ」	[訳:1:24a]	テイン	(窮もなふ)	[된]
	オ段のカナ+「イ」			
非語頭	[訳:1:57a]	アニハライ	(起ませ)ぬ	[아니하외]

1. 3. 4 「ㅍ」(ui)

「ㅍ」は、総3例があるが、全て非語頭音節に現れる。2例はウ段のカナ+「イ」に現れ、残り1例は、朝鮮語に対するカナ表記がない。

[表90] 「韓語覚書」 「ㅍ」の例

非語頭	ウ段のカナ+「イ」		
	046	シヤグウイ	[상위]
	054	チフイ	[지휘]

「全一道人」は、語頭・非語頭音節で、ウ段のカナ+「イ」に現れる。その他、ウ段のカナ+「ヨ」、オ段のカナ+「ヨ」も現れる。ウ段のカナ+「ヨ」、オ段のカナ+「ヨ」は、「ㅍ(ə)」と「ㅍ(o)」が後ろにくる環境で現れる。これは半母音[j]に続く「ㅍ」、「ㅍ」が[jə]、[jo]に近い音価に実現したことを意味する。

[表91] 「全一道人」 「ㄱ」の例

語頭	ウ段のカナ+「イ」			
	[全:20]	ウイハヤ	ために	[위하야]
	オ段のカナ+「ヨ」			
	[全:19]	ドヨツサ*{뉘웃쳐}	くやみ	[뉘웃쳐]
	[全:31]	トヨ{뽀여}ナコヌル	おとりいてけるを	[뽀여 녹거늘]
非語頭	ウ段のカナ+「イ」			
	[全:100]	ヨウイン{여원}	やせたる	[여원]
	[全:106]	クイクン{괴근}	飢饉	[괴근<괴근]

「朝鮮語訳」は、語頭音節でウ段のカナ+「イ」、オ段のカナ+「イ」に現れる。非語頭音節ではウ段のカナ+「イ」に現れる。「ㄷ(d)」の後ろでは、オ段のカナ+「イ」が対応している。

[表92] 「朝鮮語訳」 「ㄱ」の例

語頭	ウ段のカナ+「イ」			
	[訳:1:06a]	ズ/ト/イ	誰が	[뉘]
	[訳:1:12b]	富貴{クイ}ノン	富貴は	[富貴{귀}느]
	オ段のカナ+「イ」			
	[訳:1:06a]	ズ/ト/イ	誰が	[뉘]
非語頭	ウ段のカナ+「イ」			
	[訳:1:12b]	富貴{クイ}ノン	富貴は	[富貴{귀}느]

1. 3. 5 「ㄴ」(ni)

「ㄴ」は、総16例がある。語頭音節では9例が現れ、全て（ウ段のカナ）+「イ」である。

非語頭音節では7例が現れ、（ウ段のカナ+）「イ」が5例、（オ段のカナ）+「イ」が1例、「エ段のカナ」が1例である。

[表93] 「韓語覚書」 「ㄴ」の例

語頭	ウ段のカナ+「イ」			
	055	クイコル		[괴걸]
	069	フイログ		[희롱]
非語頭	ウ段のカナ+「イ」			
	060	ノムイ		[눔의]
	オ段のカナ+「イ」			
	016	テ*ノイ		[전의]
	イ段のカナ			
	052	チヨグイシヤ		[명의사]
エ段のカナ				
078	ソ*イイネ		[죄인의]	

「全一道人」は、語頭音節ともウ段のカナ(+「イ」)、エ段のカナ(+「イ」)、オ段のカナ+「イ」が現れる。非語頭音節ではア段のカナ+「イ」も現れる。

また、まれに、「ヲイ」で表記した例がある。これについて허인영(2014:92)は、「例が少なく、正確な判断ができないが、‘거’(gə)が随意的に長く実現し、「ㄹ」の「ㄴ(m)」が脱落した可能性がある」と述べている。

[表94] 「全一道人」 「ㄹ」の例

語頭	ウ段のカナ			
	[全:21]	ムヨ{뮌여}ハトン	にくむ	[뮌여ㅎ던]
	[全:57]	スエミ	しうとめ	[스어미]
	ウ段のカナ+「イ」			
	[全:56]	フイン{훤}	白き	[훤<훤]
非語頭	エ段のカナ			
	[全:37]	テワ{썩여}	うけて	[썩워]
	[全:71]	テレニ	おませしに	[디리니]
	ア段のカナ+「イ」			
	[全:18]	ハ*ツカイ{밧긔}	外へ	[밧긔]
非語頭	ウ段のカナ+「イ」			
	[全:38]	ミノイ{민의}	張民か	[민의]
	[全:55]	コウイ{거의}	おふかた	[거의]
	[全:54]	ヒヤグル フ*イヲ{픽여}	香をたき	[향을 픽여<향을 퀴워]
	[全:113]	セカヌイ{세간의}	世上の	[세간의~세간의]
	エ段のカナ+「イ」			
	[全:26]	フ*テイ{부딤}	かならず	[부딤~부딤]
	オ段のカナ+「イ」			
[全:56]	ケンドイチ モツタヤラ	たゑかねけるを	[견디디 못 햏야랴]	
非語頭	ヲイ			
	[全:29]	コヲイ{거의}	和訳なし(おふかた)	[거의]

「朝鮮語訳」も、語頭・非語頭音節でウ段のカナ+「イ」が現れる。非語頭音節ではエ段のカナ+「イ」、オ段のカナ+「イ」、「イ」も現れる。「全一道人」、「朝鮮語訳」には、子音「ㄷ(d)」の後ろの「ㄹ」は、オ段のカナ+「イ」に現れる。

[表95] 「朝鮮語訳」 「ㄹ」の例

語頭	ウ段のカナ+「イ」			
	[訳:1:29a]	スイン	酸さ(を)	[스인]
非語頭	[訳:1:52b]	ムイノン	×まし[〇にく]まする	[뮌논]
	ウ段のカナ+「イ」			
	[訳:1:16a]	以前ヌイ	以前より	[以前の]
	[訳:1:50b]	チツクイノン	守りまする	[디킴논~딤훤논]
非語頭	エ段のカナ+「イ」			

	[訳:1:45b]	フ* <u>テイ</u>	必	[부 ^ㅅ 딤~부 ^ㅅ 딤]
	オ段のカナ+「イ」			
	[訳:1:48b]	フ* <u>トイ</u>	何とそして	[부 ^ㅅ 딤~부 ^ㅅ 딤]
	イ			
	[訳:1:12a]	都中 <u>イシヤ</u>	商人中より	[都中의셔]
[訳:1:29a]	朝 <u>タイ</u>	朝夕	[朝夕의]	

1. 3. 6 「ㅅ」(ei)

「ㅅ」は、総14例がある。語頭音節では5例で、ア段のカナ+「イ」が2例、「ア段のカナ」が2例、オ段のカナ+「イ」が1例である。

非語頭音節では9例で、ア段のカナ+「イ」が4例、オ段のカナ+「イ」が3例、イ段のカナ+「ヨ」が1例、「ア段のカナ」が1例である。

[表96] 「韓語覚書」 「ㅅ」の例

語頭	オ段のカナ+「イ」		
	077	ホ* <u>イバン</u>	[빈 ^ㅅ 반]
	ア段のカナ		
	061	<u>サグクワグ</u>	[싱 ^ㅅ 광]
	ア段のカナ+「イ」		
040	<u>カイツチャ</u>	[썩 ^ㅅ 치아]	
066	<u>アイミヨ</u>	[익 ^ㅅ 딤]	
非語頭	オ段のカナ+「イ」		
	064	ケン <u>ドイタ</u>	[견 ^ㅅ 딤다]
	076	モ <u>トイ</u>	[므 ^ㅅ 딤]
	(ア段のカナ)+イ		
	006	チャ <u>グナイ</u>	[장 ^ㅅ 린]
	074	セ <u>ダイ</u>	[세 ^ㅅ 딤]
	イ段のカナ+「ヨ」		
	066	<u>アイミヨ</u>	[익 ^ㅅ 딤]
ア段のカナ			
060	シ <u>ハギ</u>	[시 ^ㅅ 흥]	

「全一道人」は語頭音節では、ア段のカナ(+「イ」)、ア段のカナ(+「ヤ」)、エ段のカナで現れる。

非語頭音節では、オ段のカナ+「イ」、ア段のカナ+「イ」、エ段のカナ+「イ」、エ段のカナ、ウ段のカナ+「イ」が現れる。

허인영(2014:95)は、「ㅅ」のカナ表記を固有語と漢字語で分類した。固有語は、ア段のカナ+「イ」、オ段のカナ+「イ」、エ段のカナ+「イ」が現れ、漢字語は、ア段のカナ+「イ」、オ段のカナ+「イ」、ア段のカナが現れると述べている。

[表97] 「全一道人」 「ㄷ」の例

語頭	ア段のカナ(+「イ」)			
	[全:27]	スカイタラ{씨드라}	氣かつき	[씨드라]
	[全:36]	マヤ{미야}	くり	[미야]
	エ段のカナ			
	[全:26]	メンドラ{민드라}	こしらへ	[민드라]
	[全:76]	メンバブ{민밤}	菜{サイ}なきめし	[민밤<뽕밤]
非語頭	オ段のカナ+「イ」			
	[全:115]	ソ*イトグテ*イクニ	梯潼帝君	[지동제군이]
	ア段のカナ+「イ」			
	[全:63]	ムライバイ{무뢰비無頼輩}	斗方なきもの	[무뢰비]
	[全:111]	サムネン アナイ{안히}	三年の内に	[삼년 안히]
	ウ段のカナ+「イ」			
	[全:24]	サグアツフ*イ{장알퐁}	床の前に	[장앞이]
	エ段のカナ+「イ」			
	[全:95]	モヘイ	山へ	[모히]
	オ段のカナ+「イ」			
[全:38]	サホイ{사히}トヤ	壻となり	[사히되여]	
閉鎖音	[全:30]	サグセン	なまもの	[싱션]
	[全:72]	トンハ*グメニナ{돈빅민이나}	錢百緡ほとに	[돈빅면이나]
	[全:118]	サ*ク{칙}ル	書物を	[칙을]
固有語	[全:27]	スカイタラ{씨드라}	氣かつき	[씨드라]
	[全:36]	マヤ{미야}	くり	[미야]
	[全:42]	マツルソイ{마줄식}	むかへらるゝおりふし	[맞을식]
	[全:71]	ソロイル	聲を	[소리틀]
	[全:100]	カルホヤ{콜히야}	ゑらひ	[콜히야]
	[全:104]	サグガクチアニホコ	おもわす	[싱각치 아니호고]
漢字語	[全:60]	マイコリ{미골}トヤ	しやりこうへとなり	[미골이 되여]
	[全:103]	ソ*モイ{즈미}	あねい	[즈미]
	[全:105]	シユンハグ	巡行	[순행]
	[全:110]	セグソイ{송식}	くじ{訟事}に	[송식]
	[全:120]	カイカ{기가}	改嫁	[기가]

「朝鮮語訳」は語頭音節では、ア段のカナ(+「イ」)、オ段のカナ+「イ」(ㄹ(m)の後ろで)に現れる。

非語頭音節では、ア段のカナ、ア段のカナ+「イ」、ウ段のカナ+「イ」、オ段のカナ+「イ」が現れ、ウムラウトを反映したと見られるエ段のカナ+「イ」が現れる。

[表98] 「朝鮮語訳」 「ㄷ」の例

語頭	ア段のカナ(+「イ」)			
	[訳:1:06a]	マヤグ	いつも	[미양<미상]
	[訳:1:58a]	ハ*イ	船	[빡]

	オ段のカナ+「イ」		
	[訳:1:18b]	モイヤ	疎じ(さしやれまするか) [미야]
非語頭	ア段のカナ		
	[訳:1:04a]	施行{シハグ}チ	払しやれ(ぬは) [시행티]
	[訳:1:06a]	白髪{ハ*ク[ハ*ル]}	白髪 [백발]
	ア段のカナ+「イ」		
	[訳:1:24a]	アハイ	少年 [아히]
	[訳:1:55b]	カルハイチ	撰は(ぬと) [골히디]
	ウ段のカナ+「イ」		
	[訳:1:07b]	アツソ*ムイ	朝に [아침이]
	[訳:1:58a]	アツフ*イ	前に [앞이]
	オ段のカナ+「イ」		
	[訳:1:27b]	アモドイ	何国も [아모디]
	[訳:1:31a]	アヲムノイ	存まする [아옴디]
エ段のカナ+「イ」			
[訳:1:19a]	カルテイ	参りまする所が [갈 디]	
[訳:1:62b]	カノンデイ	参る時 [가논 디]	

「韓語覚書」、「全一道人」、「朝鮮語訳」で「ア段のカナ」は、終声の「ㄱ(g)」や「ㅇ(ŋ)」の前で二重母音「ㅟ」の「ㅣ(i)」が脱落する現象が観察される。

そして、先行する子音が「ㄷ(d)」の場合、「ㅟ」の表記は、「韓語覚書」の非語頭音節で、オ段のカナ+「イ」、(ア段のカナ)+イに現れる。

[表99] 「韓語覚書」 「ㄷ(d)」 + 「ㅟ」

非語頭	オ段のカナ+「イ」		
	064	ケンドイタ	[견디다]
	076	モトイ	[모디]
	(ア段のカナ)+イ		
074	セダイ	[세디]	

「全一道人」は語頭音節で、ア段のカナ+「イ」に現れる。

非語頭音節では、ア段のカナ+「イ」、エ段のカナ(+「イ」)、オ段のカナ+「イ」に現れる。

[表100] 「全一道人」 「ㄷ(d)」 + 「ㅟ」

語頭	ア段のカナ+「イ」		
	[全:31]	タイハヤ	對し [디하야]
非語頭	ア段のカナ+「イ」		
	[全:28]	カヲンダイ	内に [가온디]
	エ段のカナ(+「イ」)		
	[全:17]	ホ*ンデイ	本より [본디]
	[全:95]	ヲテ	とれに [어디<어디]

	オ段のカナ+「イ」			
	[全:49]	クトイ{ <u>ユ</u> イ}	君の	[<u>ユ</u> 의]

「朝鮮語訳」は非語頭音節で、エ段のカナ+「イ」に現れる。

[表101] 「朝鮮語訳」 「ㄷ(d)」 + 「ㅣ」

	エ段のカナ+「イ」			
非語頭	[訳:1:19a]	カル <u>テ</u> イ	参りまする所が	[갈 <u>디</u>]
	[訳:1:62b]	カノ <u>ン</u> デ <u>イ</u>	参る時	[가 ^ㄴ <u>디</u>]

1. 4 三重母音

朝鮮語の三重母音のカナ表記を表にまとめると次のようである。

[表102] 「韓語覚書」 三重母音のカナ表記のまとめ

語頭	ㅟ(yøi) (6)	ㅟ(wøi) (1)
	エ段(4)	
	エ段のカナ+「エ」(1)	オ段のカナ+「イ」(1)
非語頭	エ段(1)	

1. 4. 1 「ㅟ」(yøi)

「ㅟ」は、総8例がある。語頭音節では6例が現れ、「エ段のカナ」が4例、エ段のカナ+「エ」が1例である。残り1例は、朝鮮語に対するカナ表記がない。

非語頭音節では2例が現れ、「エ段のカナ」が1例である。残り1例は、朝鮮語に対するカナ表記がない。

エ段のカナ+「エ」は、上声に由来する「ㅟ」である。これも第一音節の上声あるいは長母音を表すものと見られる。

[表103] 「韓語覚書」 「ㅟ」の例

語頭	エ段のカナ		
	016	ㄹ <u>ㅟ</u>	[<u>ㄹ</u> 스]
	074	ㅜ <u>ㅟ</u> 다이	[<u>ㅜ</u> 디로]
	エ段のカナ+「エ」		
	076	ㅜ <u>ㅟ</u> 엠ㄹ	[<u>ㅜ</u> 엠]
非語頭	エ段のカナ		
	016	ㄷ* <u>ㄹ</u> ㄹ	[<u>전</u> ㄹ]

「全一道人」は語頭音節で、エ段のカナ(+「イ」)、イ段のカナ+「ヨ」が現れる。

非語頭音節では、エ段のカナが現れる。また、処格助詞「예」は「エ」に表記している。

허인영 (2014:97)は、「ㄷ」がエ段のカナ+「イ」に現れることについて、「ㄷ」の核母音が「ㅏ (a)」にもかかわらず、エ段のカナで表記したのは、「ㅏ (a)」の前舌的音価が半母音 [j] を伴う環境で維持されるためだと考えられる」と述べている。また、処格助詞「예」が「エ」に表記したのは、「この助詞が現代韓国語の[je]に近い音価で実現したことを意味する」と述べている。

[表104] 「全一道人」 「ㄷ」の例

語頭	エ段のカナ(+「イ」)			
	[全:33]	セイ{세}	朱緒	[세]
	[全:35]	メヨ{메워}	つまりて	[메워]
	[全:84]	ヘ*イバク{폐백}ル	幣帛を	[폐백을]
	[全:121]	ケイブ	繼父	[계부]
非語頭	エ段のカナ			
	[全:24]	イエ{이예}	和訳なし(それ故)	[이예]
	[全:79]	フンゲ{훈계}	ゐけん	[훈계]

「朝鮮語訳」は語頭音節で、エ段のカナ、エ段のカナ+「イ」、イ段のカナ+「エイ」が現れる。

非語頭音節では、エ段のカナ、「ヤ」が現れる。「ㄷ」の場合と異なり、「ㄷ」には、「ヨ」が当てられたものがない点が注目される。また「ヤ」が当てられたものがあるが、これは、非語頭音節で「ㅏ (a)」と「ㅑ (ya)」の対立が弱まるとともに、低舌の「ㅏ」のほうに傾く傾向があることを示すものである。

[表105] 「朝鮮語訳」 「ㄷ」の例

語頭	エ段のカナ			
	[訳:1:57b]	エツクワ	爰元と	[예과]
	エ段のカナ+「イ」			
	[訳:1:61b]	弊{베이}ト	費も	[페도]
非語頭	イ段のカナ+「エイ」			
	[訳:1:56a]	ニエイ	昔	[네]
	エ段のカナ			
	[訳:1:24a]	サイハイエ	新年には	[새히예]
非語頭	[訳:1:49a]	ソ*セ	疾と	[즈세]
	ヤ			
	[訳:1:02a]	コルレツキヤ	抱て	[걸럿기예]

「ㄷ」のカナ表記を「ヤ」に表すのは、「朝鮮語訳」にのみ見られ、「韓語覚

書」、「全一道人」には現れない。

1. 4. 2 「ㅞᄂᆞᆫ」(wəi)

「ㅞᄂᆞᆫ」は、総1例のみがあり、オ段のカナ+「イ」に現れる。

[表106] 「韓語覚書」 「ㅞᄂᆞᆫ」の例

語頭	オ段のカナ+「イ」		
	067	ホイハ*グ	[휘망]

「全一道人」は、オ段のカナ+「エ」に現れる。この表記について、허인영 (2014:99)は、「オ段のカナ+「エ」の表記が[we]に近いと解釈しており、下向半母音[-j]を反映する「イ」が見えないのは[wəj]>[we]への前舌母音化および[-j]の脱落を暗示する」と述べている。

[表107] 「全一道人」 「ㅞᄂᆞᆫ」の例

非語頭	オ段のカナ+「エ」			
	[全:75]	ニロエンマノイ	七日めに	[닐췌만의]

1. 5 まとめ

本節においては、「韓語覚書」の朝鮮語カナ表記の母音について考察した。考察が不十分であるが、特徴をまとめると以下のようなものである。

まず、単母音については、以下の点が指摘できる。

(1)第一音節の「・」の非音韻化の過程:「韓語覚書」の第一音節「・」は、「高麗詞之事」、「全一道人」、「朝鮮語訳」とおおむね、同じ傾向を示し、非音韻化の過程を反映している。一方、これら資料よりも後代に成立したと見られる「物名」に比すれば、「韓語覚書」はより古い状態を反映していると言える。

(2)「ㅞᄂᆞᆫ(a)」と「ㅞᄂᆞᆫ(u)」を表すカナの後ろに「ヲ」を付けた表記は、中期語の声調の上声あるいは長音を表すものと見られる。しかし、上声に由来しない単語も長音化している例もある。この長音表記は、「全一道人」にも同じ形態が見られるが、「朝鮮語訳」には見られない。

(3)「ㅞᄂᆞᆫ(a)」が、第2音節以下で陽母音(低舌母音)に傾いた傾向が見られる(例:

「ㅑ」が「ア段のカナ」に対応するもの)。「全一道人」、「朝鮮語訳」も同じ傾向が見られる。

次に、上向二重母音については、以下のごとく、単母音化が進みつつある兆候が観察される。

(4) 「ㅑ(yə)」と「ㅑ(yəi)」は、語頭・非語頭音節で、おおむね、「エ段のカナ」が当てられた。これは「ㅑ」が前舌化し、[ə]が[e]に変化したことを示すものと見られ、二重母音の単母音化がある程度進んだと考えられる。「全一道人」、「朝鮮語訳」も同じく、「ㅑ」と「ㅑ」の単母音化が進んでいる。

一方、下向二重母音については、まだ、単母音化が起こっていない状態が観察されるが、後続子音との関係において、次の特徴的現象が指摘できる。

(5) 「韓語覚書」、「全一道人」、「朝鮮語訳」で、二重母音「ㅑ(ei)」の後ろに終声の「ㄱ(g)」や「ㅇ(ŋ)」がくると、「ㅑ(i)」が脱落する現象が同じく観察される。

以上を要するに、本資料の朝鮮語カナ表記は、「全一道人」、「朝鮮語訳」とほぼ同時期の朝鮮語の音韻・音声を反映した資料として、位置づけられると言える。

第2節 子音の朝鮮語カナ表記について

第1節においては、「韓語覚書」の母音の朝鮮語カナ表記について論じたが、本節は、その続きとして、子音部分について調査・考察をおこなった。母音と同じく、ほぼ同期に成立した朝鮮語カナ表記資料である「全一道人」、「朝鮮語訳」などと比較したところ、「韓語覚書」の子音に同様な傾向が見られたが、とくに「韓語覚書」に現れる子音の中に、「ㄷ(d)」口蓋音化を過剰訂正した現象が見られた。これは韓国の東南地方で現れる音声的な特徴である。この資料の朝鮮語カナ表記は、ハングルによる本国資料からはうかがい知れないその当時(元禄9年(1696年)ころ)の朝鮮語の音声・音韻についての情報を提供するものと期待される。

2. 1 破裂音

2. 1. 1 ㄱ(g)

(1)語頭初声

「韓語覚書」の語頭初声「ㄱ」は、総41例が現れ、36例が「カ行音」、4例が「ガ行音」に現れる。残り1例は、朝鮮語に対するカナ表記がない。

「ガ行音」のカナが当てられたものは、すべてが依存形式の場合で、「ㄱ」に先行する音節の終声が鼻音「ㄴ(n)、ㄹ(m)、ㅇ(p)」の場合、その影響によって「ガ行音」のカナに現れる。しかし、依存形式が必ず「ガ行音」のカナに現れるわけではなく、「カ行音」でも現れるが、これは濁点がなくとも、濁音と発音されるものである。また、「カ行音」で発音される例の中では、語頭「ㄱ」に先行音節の終声は、子音の場合(例073)、濃音化を起こして「カ行音」に現れたのも見られる。

[表108] 「韓語覚書」の語頭初声「ㄱ」

カ行音	036	ㄱㄱ도로이	[공도료이]	054	ㄱㄱ라치탄	[마르치탄]
	037	ㄱㄱㅎ*74)ㄱ	[공평]	064	ㄱㄱ드읏타	[견뎛다]
依存形式の場合						
カ行音	061	사롬르 사라카이 하논 ㄱ시라				[사롬을 사라게 ㅎ는 ㄱ이랴]
	061	랴트쯔 ㄱ쯔트				[얻어준 ㄱ도]
	061	랴쯔코치야한 ㄱ스르				[얻고져 ㅎ ㄱ을]
	063	쯔논 ㄱ시라				[주는 ㄱ이랴]
	065	사롬르 호*쯔사*이논 ㄱ시라				[사롬을 보채는 ㄱ이랴]
	066	소*이이쯔카이 하논 ㄱ시라				[죄잇개 ㅎ는 ㄱ이랴]
	070	사롬르 호*쯔사*이논 ㄱ시라				[사롬을 보채는 ㄱ이랴]
	078	일[ム] ㄱ시라				[일홈 [둔] ㄱ이랴]
	079	일ㄱ ㄱ켄나논 ㄱ시라				[일을 어긋나는 ㄱ이랴]

	083	クルツトエノン <u>コシラ</u>	[그릇되는 것이라]
ガ行音	040	ヲロミヤ クルン <u>ゴスル</u>	[옹으며 그른 것을]
	053	アム マリラト ニルノン <u>ゴシラ</u>	[아므 말이라도 니르느 것이라]
	069	サロムル ホ*ツサ*イノン <u>ゴシラ</u>	[사름을 보채느 것이라]
終声子音+カ行音(濃音化)	073	コヲツク <u>コシラ</u>	[거죽 것이라]

「全一道人」の語頭初声「ㄱ」は、「カ行音」と「ガ行音」が現れる。「ガ行音」は「韓語覚書」と同様に、すべてが依存形式の場合で、「ㄱ」に先行する音節の終声⁷⁴⁾が鼻音「ㄴ(n)、ㄹ(m)、ㅇ(ŋ)」の場合に現れる。

[表109] 「全一道人」語頭初声「ㄱ」

カ行音	[全:56]	<u>カニ</u>	ゆきしに	[가니]
ガ行音	[全:57]	ハングルツ{ <u>그릇</u> }	一碗	[흔 그릇]

「朝鮮語訳」の語頭初声「ㄱ」も、「カ行音」と「ガ行音」を当てる場合がある。

[表110] 「朝鮮語訳」語頭初声「ㄱ」

カ行音	[訳:1:02a]	<u>カリヤ</u>	帰ふと	[가랴]
	[訳:1:63b]	<u>ケヨ</u>	漸々と	[계요]
ガ行音	[訳:1:16a]	奇ハン <u>ゴスル</u>	珍しき品を	[추흔 것을]
	[訳:1:52a]	マサム <u>ゲシニ</u>	生質か御座るにより	[마숨 겨시니]

(2)語中初声

「韓語覚書」の語中初声「ㄱ」は、総30例。そのうち、29例に「カ行音」、1例に「ガ行音」が当てられている。「ガ行音」が当てられた例は、鼻音が前接した場合である。

「カ行音」と「ガ行音」が現れる環境を以下に述べると、「カ行音」は、

①先行音節の終声「g(ㄱ)、t(ㄷ/ㅌ)」の次に、後行音節の初声「ㄱ」が現れる場合である。この場合、語中初声「ㄱ」は、濃音化し「ㄱㄱ(gg)」と発音され「カ行音」のカナに現れる。

②先行音節の終声「ㅎ(h)」の次に、後行音節の初声「ㄱ」が現れる場合である。この場合、語中初声「ㄱ」は、激音化し「ㅋ(k)」と発音され「カ行音」のカナに現れる。

③先行音節が有声音(母音)で終わっていて、その後行音節の初声に「ㄱ」がきた場合、「ㄱ」は「カ行音」のカナに現れる。

④先行音節の終声の位置で「ㅇ」が現れ、その後行音節の初声が「ㄱ」がきた場合も

74) 三点を付けたものを表すために、横に「*」を付ける。以下、他のカナも同様。

「ㄱ」は「カ行音」のカナに現れる。

[表111] 「韓語覚書」の語中初声「ㄱ」

①終声「ㄱ(g)、ㄷ(t)」+「カ行音」(濃音化)					
011	カク ^リ	[각각]	066	ソ*イイツカイ	[죄잇게]
025	ク[フ*]コ	[급거]	076	モツコ	[뭇고]
②ツ+カ行音(激音化)					
034	チヨツカイ	[똥개]			
③有声音+「カ行音」					
011	ソイコミラ	[제곱이라]	061	サロカイ	[사름게]
038	ソンシカ	[손씨가]	045	ヲクンナタン	[어긋나단]
④終声「ㄹ(r)」+「カ行音」					
019	サルコブタ	[슬갑다]	047	モルコ	[멀고]
019	スルコブタ	[슬굽다]	082	シルクイ	[실귀]

「ガ行音」は、語頭の「ガ行音」と同様に、「ㄱ」に先行する音節の終声が鼻音「ㄴ(n)、ㄹ(m)、ㅇ(ŋ)」である場合にのみ現れる。しかし、「ㄱ」に先行する音節の終声が鼻音「ㄴ(n)、ㄹ(m)、ㅇ(ŋ)」である場合に「カ行音」で現れることもあるが、それは、語頭の「ㄱ」と同様に濁点がなくとも、濁音で発音されるものである。

[表112] 「韓語覚書」語中初声で鼻音化した「ㄱ」

終声鼻音+「カ、ガ行音」							
鼻音+「ガ」	001	サムギン	[생긴]	鼻音+「カ」	052	ヲムキヨ	[엄교]
					052	サロムケイ	[사름게]

以上の例において、濁点をふった「ガ行音」が当てられたものが鼻音が前接する場合に限られている点が注目される。この傾向は、他の朝鮮語カナ資料でも観察され、「全一道人」・「朝鮮語訳」の語中初声「ㄱ」も、「カ行音」と「ガ行音」のカナが当てられているが、「ガ行音」に現れるのは、「ㄱ」に鼻音が前接した場合である。

[表113] 「全一道人」・「朝鮮語訳」語中初声で鼻音化した「ㄱ」

ガ行音	[全:66]	ハニガチ{헝가지}ロ	一様に	[헝가지로]
	[訳:1:23a]	イリヨランゴ	儀て御坐るか	[일이온고]

この現象は、当時の日本語の「ガ行音」が有声性だけではなく、鼻音性も有していたことを示すものと考えられる。⁷⁵⁾

75) J. ロドリゲス著の『日本大文典』(1604~1608年刊行)には、以下のようにあり、その当時の日本語の

ところで、「韓語覚書」には、本来形の「ㄱ」ではなく、もともと「ㄷ(d)」であったものが高舌母音の前で口蓋音化して「ㅈ(j)」に変化し、さらに過剰訂正によって「ㄱ」に転じた例が散見される。

[表114][韓語覚書]の過剰訂正により生じた「ㄱ」の例

「カ行音」と「ガ行音」のカナ		
012/014	トギラ/トキラ	[<u>ㅍ</u> 이<ㅍ>라> <u>ㅈ</u> 지<ㅈ>라> <u>ㅈ</u> 기<ㅈ>라]
(参考)002	トチラ	[<u>ㅍ</u> 이<ㅍ>라> <u>ㅈ</u> 지<ㅈ>라] (過剰訂正がなされていない例)

この「ㄱ」過剰訂正は、「ㄱ」が口蓋音化して「ㅈ(j)」になる現象の存在を前提としており、朝鮮語東南方言に特徴的な現象である。김주필(2015:108)には、「慶尚道方言の場合、‘ㄷ’が口蓋音化した‘ㅈ’を‘ㄱ’に過剰訂正した例のみが現れる」とある。「韓語覚書」が朝鮮語東南方言を反映した資料であることを物語るものと言えよう。

金周弼・岸田文隆訳(2016:32)は、ㄷ口蓋音化の過剰訂正の出現過程について以下のように述べている。

(12)過度矯正의 出現 過程

- 1) {i, y}の前で、‘ㄷ, ㅌ’が ‘ㅈ, ㅊ’に交替する口蓋音化の規則を適用せずに、可能な限り ‘ㄷ, ㅌ’をそのまま使用するとする。
- 2) {i, y}の前で ‘ㄷ, ㅌ’が ‘ㅈ, ㅊ’に交替した形態に対しても、口蓋音化した分節音である ‘ㅈ, ㅊ’を 元来の形態である ‘ㄷ, ㅌ’に戻して使用しようとする。
- 3) このような努力にもかかわらず、口蓋音化の現象が拡散すると、{i, y}の前で元来 ‘ㅈ, ㅊ’であった音を ‘ㄷ, ㅌ’が口蓋音化したものと誤認して ‘ㄷ, ㅌ’に戻してしまう。

(12)において、過剰訂正は(12. 3)の段階で生成されたものと推定される。そして過剰訂正は社会で容認されていない口蓋音化した形態を排除しようとした社

一部の濁音(ダ行音やガ行音)が鼻音を伴って発音されたことが知られる。

D、Dz、Gの前の母音に関する第三則

○ D、Dz、Gの前のあらゆる母音は、常に半分の鼻音かソンソネーテかを伴ってゐるやうに発音される。即ち、鼻の中で作られて幾分か鼻音の性質を持つてゐる発音なのである。例へば、Mađa(未だ)、Mido(御堂)、madoi(惑ひ)、(後略)など。

(J. ロドリゲス原著；土井忠生訳(1955:637)『日本大文典』)

会的意識に起因した現象として、口蓋音化の拡散を阻止しようとする意図的な努力の結果として、生起した現象と推定される。

また、김주필 (2015:109)は、「過剰訂正現象は調音位置上の対立関係に基づいているという特徴が現れる。口蓋音化現象が調音位置上の変化を見せてくれる現象であるため、このような調音位置を基に過度矯正が起こるのは自然な結果であると言えるだろう」とも述べている。

なお、[表114]の例012において、鼻音が前接しないにも関わらず濁点を付した「ギ」が現れている点が特異である。あるいは、「韓語覚書」の成立当時において、「ガ行音」がすでに鼻音性を喪失しはじめていたことを示すものかもしれない。

「全一道人」の語中初声「ㄱ」は、「カ行音」と「ガ行音」のカナに現れる。語中にも拘らず「カ行音」に現れているが、これについて安田章(1964:25)は、濁点はないけれども有声として受け止めなければならないと述べている。

「ガ行音」に現れるのは、「ㄱ」に先行する語の終声が鼻音「ㄴ、ㄹ、ㅇ」の場合に現れる。

[表115] 「全一道人」語中初声「ㄱ」

カ行音	[全:17]	トクイ{妬忌투괴}ハヤ	ねためるものにて	[투괴 ^ㄱ 히야]
	[全:18]	ナカメン{나가면}	出■たまは〃	[나가면]
「全一道人」の「ガ行音」の例：前の音節の末尾に鼻音がある場合				
ガ行音	[全:20]	サグガク{싱각}ハヤ	おもひ	[싱각 ^ㄱ 히야]
	[全:54]	モヨクカムゴ{모욕굼고}	沐浴し	[모욕 ^ㄱ 굼고]
	[全:61]	サムゲグン{삼경은}ハヤシヤ	三更はかりに	[삼경은 ^ㄱ 히야셔]
	[全:66]	ハニガチ{훈가지}ロ	一様に	[훈가지 ^ㄱ 로]
	[全:79]	フンデル{훈계}〃	みけんを	[훈계 ^ㄱ 를]
	[全:119]	メグゲグ{명경}	明經	[명경]

「朝鮮語訳」の語中初声「ㄱ」も、「カ行音」と「ガ行音」のカナを当てている。

「朝鮮語訳」も「韓語覚書」、「全一道人」と同様に、「ㄱ」に先行する語の終声が鼻音「ㄴ、ㄹ、ㅇ」の場合「ガ行音」に現れる。

[表116] 「朝鮮語訳」語中初声「ㄱ」

カ行音	[訳:1:02a]	スタイカ	時分が	[빼가]
	[訳:1:07a]	ナキロル	出るを	[나기 ^ㄱ 를]
前の音節の末尾に鼻音がある場合				
ガ行音	[訳:1:07b]	不足{フ*チヨク}ハンガ	不足な故て	[不足 ^ㄱ 히가]

	[訳:1:31b]	ヨンゲン	移しました	[옴긴]
--	-----------	------	-------	------

(3)終声

「韓語覚書」の終声「ㄱ」は、総26例が現れる。24例が「カ行音」、残り2例は、朝鮮語に対するカナ表記がない。

[表117] 「韓語覚書」の終声「ㄱ」

ク	009	タムヨク	[탐옥]	089	タグテ*ク	[탕덕]
	024	ムンドク	[문득]	089	シクタン	[씩단]
	039	テ*クタ	[적다]	051	コクテ*グ	[걱덩]

「韓語覚書」の終声「ㄱ」の後に「ㅎ(h)」が接続する場合、激音化が起こるが、それぞれを別に書いた表記が見られる。このような現象は、「全一道人」、「朝鮮語訳」にも見られる。

[表118] 「韓語覚書」の激音化が起こる環境

ク+ハ	063	フ*チョクハル	[부축홀]
-----	-----	---------	-------

「全一道人」、「朝鮮語訳」にも同様に終声の「ㄱ」が、「ク」に現れ、また、後続音節の頭音が鼻音の場合は、それに同化し「ㅇ(ŋ)」に発音され、「グ」に現れる。

[表119] 「全一道人」の終声「ㄱ」

ク	[全:35]	エクソ{역소}	公役	[역소]
	[全:59]	イウクコ{이우고}	和訳なし	[이우고]
	[全:92]	クハ*ク{국박}	國家博士	[국박]
グ	[全:34]	モグ{떡}ノニヤ	くいけるそ	[떡노냐]
	[全:44]	ツグノンヅル〃{죽는 줄을}	死するを	[죽는 줄을]
	[全:46]	ヘ*ラグ{벼락}マサ*	かみなりしてうちころされ	[벼락 맞아]
	[全:72]	トンハ*グメニナ{돈백민이나}	錢百緡ほどに	[돈백면이나]

[表120] 「朝鮮語訳」の終声の「ㄱ」

ク	[訳:1:02a]	格別{카구벨}イ	格別に	[각별히]
	[訳:1:03b]	イブタイトロク	只今迄	[이때도록]
グ	[訳:1:32b]	工作米{코그자그미}	工作米	[공작미]
	[訳:1:49a]	ノグノクチ モツヒ여	及ひませひて	[넉넉치 못히여]

[表121] 「全一道人」・「朝鮮語訳」の「ク+ハ」の例

ク+ハ	[全:111]	ソ*クハ{속하}	おひ	[속하]
-----	---------	----------	----	------

	[訳:1:02b]	サ*クハン	はつ明な	[착히]
	[訳:1:27b]	サ*クハヲルコ	とふ御ざらふか	[죽히올고]
	[訳:1:39a]	キヤラクハン	結構な	[가룩히]

2. 1. 2 ㄷ(d)

(1)語頭初声

「韓語覚書」の語頭初声「ㄷ」は総15例。13例に「タ行音」、2例に「タ*行音」を当てる。「タ*行音」が当てられた例は、「ㄷ」が口蓋音化して「ㅌ」に変化したものである。

[表122] 「韓語覚書」の語頭初声「ㄷ」

タ行音	007	タグソ*	[당초]	010	トヲツヘ*ン	[두편]
	034	チヨツカイ	[똥개]	060	ト/ツ/ンノン	[뜰논]
タ*行音	049	テ*グネグ	[뎡녕]	076	テ*ンジャグ	[뎡장]

「全一道人」の語頭初声「ㄷ」も、「韓語覚書」と同様に「タ行音」のカナを当てる。

[表123] 「全一道人」の語頭初声「ㄷ」

タ行音	[全:29]	トロオン{더러운}	きたなき	[더러운<더러븐]
	[全:47]	ト{ㄷ}ノンカル〃	よくきる〃刀	[드논 갈을]

「朝鮮語訳」の語頭初声「ㄷ」は、先述の「ㄱ(g)」と同様に「タ行音」と「ダ行音」のカナを当てる。「ダ行音」のカナに現れる環境は「ㄱ」と同様で、「ㄷ」の前にある終声鼻音「ㄴ(n)、ㄹ(m)、ㅇ(ŋ)」の影響による。「韓語覚書」には、語頭に「ダ行音」のカナは見られない。

[表124] 「朝鮮語訳」の語頭初声「ㄷ」

タ行音	[訳:1:29a]	タア	皆	[다]
	[訳:1:29a]	テレコ	献し	[드리고]
前の語の末尾に鼻音がある場合(すべて依存形式の例)。				
ダ行音	[訳:1:15a]	ヲトン デイ	くらがりに	[어둔 덕]
	[訳:1:31b]	アロヨムノン ダイロ	申上まする通	[알외웁논 대로]

(2)語中初声

「韓語覚書」の語中初声「ㄷ」は、総55例が現れ、40例に「タ行音」、13例に「ダ行音」、2例に「タ*行音」が当てられる。「タ*行音」が当てられた例は、語頭初声

の場合に同じく、「ㄷ」が口蓋音化して「ㅌ」に変化したものである。

[表125] 「韓語覚書」の語中初声「ㄷ」に対するカナ表記

①終声「ㄱ(g)、ㅌ(t)、ㅂ(b)」+「ㄷ、ㄷ*行音」(濃音化)					
030	マツタチヤノン	[맛당창논]	089	シクタン	[씩단]
075	ヲゾロブタ	[어즈럽다]	051	コクテ*グ	[격덜]
②母音+「ㄷ、ㄷ*行音」					
母音+「ㄷ行音」			母音+「ㄷ*行音」		
018	レタイロ	[레대로]	074	セダイロ	[세디로]
③終声「ㄹ(r)」+「ㄷ行音」					
038	ドルタ	[널다]	082	イルタン	[일단]
④鼻音+「ㄷ、ㄷ*行音」					
鼻音+「ㄷ行音」			鼻音+「ㄷ*行音」		
002	ナシユグトロキラ	[내중도록이라논]	017	ウグダギ	[응당]
015	テ*ンタイロ	[전대로]	024	ムンドク	[문득]
071	シヤグトク	[상동]	071	ドグダム	[농담]
048	ハグダグ	[황당]	088	タムダグ	[담당]

「ㄷ*行音」は、基本的に鼻音が前接する場合に現れるが、ときに鼻音が前接せず、母音に直接後続する場合にも現れる。母音が前接しない場合によって、ときに「ㄷ*行音」が当てられることがあるのは、その他の朝鮮語カナ表記資料にも共通して見られる現象である。「全一道人」および「朝鮮語訳」でも、語中初声「ㄷ」に「ㄷ*行音」が当てられるのは、おもに鼻音の後であるが、鼻音以外の有声音の後で現れることもある。

[表126] 「全一道人」・「朝鮮語訳」の語中初声「ㄷ」

ㄷ*行音	[全:24]	ソンゾドル	孫たちを	[손조들을]
	[訳:1:02b]	ナイ マルダイロ	私申分を	[내 말대로]

このように「ㄷ」には、「ㄱ」の場合にはない例外が現れるが、これは日本語の濁音の歴史的変遷過程と関連があるものと見られる。安田章(1973:299-302)は、「捷解新語」における「ㄱ行音」と「ㄷ*行音」に対するハングル音注の違い(前者はほぼ必ず鼻音を前置させるのに対し、後者は鼻音を前置させるものとさせないものが混在している)に基づき、日本語濁音の鼻音的要素の消失は「ㄱ行音」よりも「ㄷ*行音」において先に起こったとの推論を提示している。朝鮮語カナ表記資料に見られる「ㄱ」と「ㄷ」に対するカナ表記の如上の違いは、「捷解新語」に見られる現象と軌を一にするものであり、当時の日本語濁音において、「ㄱ行音」が未だ鼻音性をほぼ保持していたのに対し、「ㄷ*行音」は徐々に喪失していく過程にあったことを示すものと考

えられる。

「全一道人」の語中初声「ㄷ」は、「タ行音」と「ダ行音」に現れる。「ダ行音」は、「ㄷ」と同様で、鼻音の後で現れ、また、有声音の後でも現れる。有声音の後で「ダ行音」に現れるのは、主に「다(da)」の前に先語末語尾⁷⁶⁾「-이(i)」が付いた「-이다(である)」の場合である(허인영2014:54)。「韓語覚書」には「-이다(である)」の形は現れない。

[表128] 「全一道人」の有声音・鼻音+語中初声「ㄷ」

有声音+ダ行音			
[全:18]	チウリイ <u>ダ</u>	さむかるへしといわれしに	[치부리 <u>이다</u>]
[全:48]	ツコチイ <u>ダ</u>	死すへしといへりける	[죽어지 <u>이다</u>]
鼻音+ダ行音			
[全:24]	ヲンコン <u>ダイ</u> {원컨대}	願くは	[원컨 <u>대</u>]
[全:44]	セグ <u>ドイ</u> {성되}	むまれつき	[성 <u>되</u>]
[全:62]	ヘン <u>ダル</u> {현달}ハリラ	顯達なるへしと	[현달 <u>하리라</u>]
[全:88]	フン <u>ド</u> {훈도}	訓導	[훈 <u>도</u>]
[全:120]	カグ <u>ドク</u> キユウ{강덕휴}	康徳休	[강 <u>덕휴</u>]

「朝鮮語訳」の語中初声「ㄷ」は、「タ行音」と「ダ行音」に現れるが、「韓語覚書」と同様に鼻音以外にも有声音の後でも「ダ行音」に現れる。

[表129] 「朝鮮語訳」の語中初声「ㄷ」

タ行音	[訳:1:02a]	ハ* <u>タイ</u>	海上に	[바 <u>다</u> 히]
	[訳:1:30a]	コイシヤ <u>ト</u>	其元様も	[게 <u>서</u> 도]
ダ行音	有声音+ダ行音			
	[訳:1:04b]	薪 ^ル ハ <u>ライ</u> ダ	残多存まする	[섭 <u>섭</u> 호 <u>이</u> 다]
	[訳:1:32b]	コ <u>ド</u> チ モツハル	奇来ませぬ	[거 <u>두</u> 디 <u>몯</u> 흘]
	鼻音+ダ行音			
	[訳:1:02a]	應 <u>当</u> {우 <u>그</u> 다 <u>그</u> }	定て	[<u>응</u> 당{응 <u>당</u> }]
[訳:1:23a]	豊年ニヨ <u>ラン</u> デ <u>イ</u>	豊年でも御座るに	[<u>豊</u> 年이 <u>온</u> 디]	

(3)終声

「韓語覚書」には、終声「ㄷ」の例は見当たらないが、「ス(s)」が終声の位置において「ㄷ」に中和された例が見られ、すべて「ツ」が当てられている。

76)先語末語尾:어말 어미 앞에 나타나는 어미. ‘-시’, ‘-읍- ‘ 따위와 같이 높임법에 관한 것과 ‘-았- ‘, ‘-는- ‘, ‘-더- ‘, ‘-겠- ‘ 따위와 같이 시상(時相)에 관한 것이 있다(국립국어연구원1999).

(引用者訳)

語末の語尾の前に現れる語尾。‘-시’, ‘-읍- ‘などのように敬語法に関するものと、‘-았- ‘, ‘-는- ‘, ‘-더- ‘, ‘-겠- ‘などのような時相に関するものがある。

[表130] 「韓語覚書」の終声「ㄷ」

ツ	004	モツトロ	[<u>못</u> 도록]	053	ウツ	[<u>웃</u>]
	008	チムツ ^ル ラ	[<u>짐</u> 춧이라]	061	コツト	[<u>것</u> 도]
	030	マツタチャノン	[<u>맛</u> 당찰논]	066	ソ*イイツカイ	[<u>죄</u> 잇개]
	032	モツトルタ	[<u>못</u> 홀타]	076	モツコ	[<u>못</u> 고]

また、「韓語覚書」で終声「ㄷ」の後続に「ㅎ」が接続すると激音化が起こり、「タ行音」に現れる。

「韓語覚書」の例

032 ○不便 {フ*ルヘ*ン} 불편

○ヘナンチ モツトルタハン トチラ

편안치 못홀타홀 뜯이라

「全一道人」の終声「ㄷ」は、「ツ」に現れるが、その中に「ス」で表した例も1つある。

[表131] 「全一道人」の終声「ㄷ」

ツ	[全:43]	ミツチモツハヤシヤ	およはすして	[<u>밋</u> 디 몰 ㅎ야셔]
ス	[全:81]	カスクロ {갓고료}	さかさまに	[<u>갓</u> 고료]

「朝鮮語訳」の終声「ㄷ」は、「ツ」、「ン」、激音化する環境では「ツ+ハ行音」、「ツ+タ行音」に現れる。ここで、「ツ」に現れるものの一部は「韓語覚書」と同様に、「ス」や「ズ」などが終声の位置においては「ㄷ」に中和されたものである。

[表132] 「朝鮮語訳」の終声「ㄷ」

ツ	[訳:1:07b]	トツコ	聞て	[<u>듣</u> 고]
	「ス、ズ」が「ㄷ」に中和された例			
	[訳:1:02a]	イツソヲレニワ	有で御座らふけれ共	[<u>잇</u> 스오려니와]
激音化の例				
ツ+ハ	[訳:1:42b]	ホ*シル ドツハニ	御逢被成ませう程に	[<u>보</u> 실 듯 ㅎ니]
ツ+タ	[訳:1:34a]	モツタ/ハ/コ	難ふ御座りまして	[<u>몰</u> ㅎ고]

2. 1. 3 ㅅ(b)

(1)語頭初声

「韓語覚書」の語頭初声「ㅅ」は、総28例が現れ、24例が「ハ*行音」、4例が「ハ

行音」を当てる。

[表133] 「韓語覚書」の語頭初声「ㅍ」に対するカナ表記

ハ行音	050	ホクボキ	[ㅍㅍ기]
ハ*行音	026	フ*ルウイ	[ㅍ의]

「全一道人」の語頭初声「ㅍ」は、「バ行音」と「ハ*行音」が現れる。「バ行音」に表記されているのは過ちで二点を打ったとみている。

[表134] 「全一道人」の語頭初声「ㅍ」

バ行音	[全:43]	カムトグハン <u>バ</u> イラ	感動せるゆへなりと	[감동흔 배라]
ハ*行音	[全:45]	ハ*イ{ㅍ}ルㄹ	船を	[ㅍ를]

「朝鮮語訳」の語頭初声「ㅍ」は、「ハ*行音」を当てる。

[表135] 「朝鮮語訳」の語頭初声「ㅍ」

ハ*行音	[訳:1:02a]	ハ*タイ	海上に	[바다히]
	[訳:1:45a]	ホ*ルセト	疾にも	[블셔도]

(2)語中初声

「韓語覚書」の語中初声「ㅍ」は、総9例。5例に「ハ*行音」、4例に「バ行音」を当てる。母音終わりと終声鼻音(ㄴ, ㅇ)の後で「ハ*行音」と「バ行音」に現れ、終声「ㄱ(g)」の後では「バ行音」(例050)に現れている。

[表136] 「韓語覚書」の語中初声「ㅍ」

バ行音	050	ホクボキ	[ㅍㅍ기]	057	フ*ン <u>バ</u> ル	[분별]
	068	ビ <u>バ</u> グ	[비방]			
ハ*行音	029	マグ <u>ハ</u> *ル	[망발]	052	フ*ン <u>フ</u> *	[분부]
	067	ホイ <u>ハ</u> *グ	[휘방]			
有声音+「ハ*行音」(①)、非有声音+「バ行音」(②)						
①029	マグ <u>ハ</u> *ル	[망발]		②050	ホクボキ	[ㅍㅍ기]

以上の語頭・語中の初声「ㅍ」に対するカナ表記を観察するに、おおむねは、無声音[p]として発音される場合には「ハ*行音」を、有声音[b]として発音される場合には「バ行音」が当てられる。

「全一道人」や「朝鮮語訳」においても、おおむね同様の傾向がみとめられ、無声音[p]として発音される場合には「ハ*行音」を、有声音[b]として発音される場合には

「バ行音」が当てられる。

[表137] 「全一道人」の語中初声「ㅂ」

バ行音	[全:21]	ホ*ンバトリヨ	ならふへき	[본받으리오]
ハ*行音	[全:49]	チクフ*ヌイ{직분의}	職分を	[직분의]

[表138] 「朝鮮語訳」の語中初声「ㅂ」

バ行音	[訳:1:05a]	イバン	此度は	[이번]
	[訳:1:39a]	差備{サ*ビ}ルㄹ	役人を	[差備{차비}를]
ハ*行音	[訳:1:15b]	徳芬{トクフ*ン}ニヤ	御影を蒙りました段は	[徳芬{덕분}이야]

(3)終声

「韓語覚書」の終声「ㅂ」は、総7例。5例に「ブ」、1例に「フ*」と1例に「ム」を当てる。「ム」が現れるのは、終声の「ㅂ」の後続の初声に鼻音「ㄴ(n)」がある場合である。

[表139] [韓語覚書]の終声「ㅂ」

ブ	019	サルコブタ	[술갑다]	062	トブタ	[돌다]
	019	スルコブタ	[술걸다]	075	ヲゾロブタ	[어즈럽다]
フ*	025	ク[フ*]コ	[급거]			
ム	028	ヲムノン	[업논]			

「全一道人」の終声「ㅂ」は、「ブ」、「フ*」に現れるが、これは二点を三点に間違えて書いたようである。

[表140] 「全一道人」の終声「ㅂ」

ブ	[全:100]	ニブコ	着	[널고]
フ*	[全:19]	タイテフ*チ	あいしらわさりしに	[되접디]

「朝鮮語訳」の終声「ㅂ」は、「ブ」と「フ」が現れる。

[表141] 「朝鮮語訳」の終声「ㅂ」

ブ	[訳:1:11a]	スイブチ アニ ハヲブコ	成難ひ事て御座る故	[쉽디 아니 흥읍고]
	[訳:1:13b]	害ロブキ	害が	[해롭기]
フ	[訳:1:11a]	カラフシユシヤ	被成ませひ	[가읍쇼셔]
	[訳:1:15a]	カツソフタニ	様に御座りまするに	[곧습더니]

2. 1. 4 ㄹ (k)

「韓語覚書」の語頭初声と語中初声「ㄹ」は、総2例。すべて「カ行音」のカナが当てられる。

[表142] 「韓語覚書」の語頭・語中初声「ㄹ」

語頭	038	ク <u>タ</u>	[크다]
語中	036	へ* <u>ン</u> カイハタ	[편캐하다]

「全一道人」の語頭・語中初声「ㄹ」も、「カ行音」に現れる。

[表143] 「全一道人」の語頭・語中初声「ㄹ」

カ行音	[全:31]	クコイ	おふいに	[크게]
	[全:47]	ト{ㄷ}ノ <u>ン</u> カル	よくきる [〃] 刀を	[드는 칼<갈을]

「朝鮮語訳」の初声「ㄹ」は、語頭の例しか見当たらないが、「カ行音」が当てられている。

[表144] 「朝鮮語訳」の語頭初声「ㄹ」

カ行音	[訳:1:50b]	ク/ユ/ウブコ	大きくて	[크읍고]
-----	-----------	---------	------	-------

2. 1. 5 ㅍ (t)

(1) 語頭初声

「韓語覚書」の語頭初声「ㅍ」は、総4例。すべて「タ行音」が当てられる。

[表145] 「韓語覚書」の語頭初声「ㅍ」

タ行音	001	テ <u>ン</u> セグ	[뎨성]	009	タムヨク	[탐옥]
	009	タム <u>タ</u>	[탐타]	089	タ <u>グ</u> テ*ク	[탕덕]

「全一道人」の語頭初声「ㅍ」は、「タ行音」のカナにのみ現れる。

[表146] 「全一道人」の語頭初声「ㅍ」

タ行音	[全:17]	トクイ{妬忌투기}ハヤ	ねためるものにて	[투기하야]
-----	--------	-------------	----------	--------

「朝鮮語訳」の語頭初声「ㅍ」も、「タ行音」のカナを当てる。

[表147] 「朝鮮語訳」の語頭初声「ㄷ」

タ行音	[訳:1:04b]	トム	隙	[툼]
	[訳:1:53b]	タコ	乗て	[타코]

(2)語中初声

「韓語覚書」の語中初声「ㄷ」は、総5例。4例に「タ行音」、1例に「タ*行音」を当てる。「タ*行音」を当てた例は、「ㄷ」が口蓋音化して「ㄸ」に変化したものである。

[表148] 「韓語覚書」の語中初声「ㄷ」に対するカナ表記

タ行音	009	タムタ	[탐타]	077	ベントグ	[변통]
	032	モツトルタハン	[못홀타한]			
タ*行音	089	タグテ*ク	[탕택]			

「全一道人」の語中初声「ㄷ」は、「タ行音」のカナに現れ、激音を表すため「タ行音」の前に「ツ」をともなう場合がある。

[表149] 「全一道人」の語中初声「ㄷ」

タ行音	[全:36]	チュクトグル	竹筒に	[뚝통<동을]
	[全:85]	イツトリ {이틀이}	二日	[이틀이]

「朝鮮語訳」の語中初声「ㄷ」も、「タ行音」のカナが当てられるが、激音を表すため「タ行音」の前に「ツ」をともなうことが多い。

[表150] 「朝鮮語訳」の語中初声「ㄷ」

タ行音	[訳:1:31b]	ミツテイ	下に	[밑의]
	[訳:1:62a]	去番フ*ツタ	先比より	[거번부터]

2. 1. 6 ㅍ (p)

(1)語頭初声

「韓語覚書」の語頭初声「ㅍ」は、総4例。「ハ*行音」が2例、「ハ行音」と「バ行音」が1例ずつである。

[表151] 「韓語覚書」の語頭初声「ㅍ」

ハ行音	032	ヘナンチ	[편안치]
バ行音	050	ビレン	[필연]

ハ*行音	010	ヒ*ツサ*イ	[피츠이]
	036	ヘ*ンカイハタ	[편캐하다]

「全一道人」の語頭初声「ㄷ」は、「ハ*行音」のほか、「ハ行音」も現れるが、これは三点を打ち忘れたものとみられる。

[表152] 「全一道人」の語頭初声「ㄷ」

ハ行音	[全:56]	ハルシビナマ	八十あまり	[팔십이나마]
ハ*行音	[全:43]	ヘ*ナンハヤ	なをり	[편안하야]

「朝鮮語訳」の語頭初声「ㄷ」は、「ハ*行音」に現れる。

[表153] 「朝鮮語訳」の語頭初声「ㄷ」

ハ*行音	[訳:1:31b]	ハ*イヤ	掘て	[꺾야]
------	-----------	------	----	------

(2)語中初声

「韓語覚書」の語中初声「ㄷ」は、総14例。12例に「ハ*行音」、1例に「バ行音」、1例に「ハ行音」を当てる。また、激音を表すため「ハ*行音」の前に「ツ」をとともなうこともあるが、これは、「全一道人」、「朝鮮語訳」でも同様にみられることである。

[表154] 「韓語覚書」の語中初声「ㄷ」に対するカナ表記

ハ行音	035	チュツヘン	[츄뵐]	ハ*行音	001	セグフ*ミ	[성품]
バ行音	043	ナグバイ	[낭뵐]		030	ヒ*ツヘ*ン	[비뵐]
					033	フルヘ*グ	[블뵐]

「全一道人」の語中初声「ㄷ」は、「ハ*行音」に現れ、激音を表すため「ハ*行音」の前に「ツ」をとともなう。他に、「ツ+ヒ」、「ツ+ブ」が現れるが、これは三点を打ち忘れたか、二点に書き間違ったのとみられる。

[表155] 「全一道人」の語中初声「ㄷ」

ハ*行音	[全:18]	ソルヒ*ヤ{솔피}	かてんして	[솔피]
ツ+ヒ	[全:9]	クツヒ	急	[급히]
ツ+ブ	[全:94]	ニヨツブイ	わきに	[넙히]

「朝鮮語訳」の語中初声「ㄷ」は、「ハ*行音」に現れ、激音を表すため「ハ*行

音」の前に「ツ」をともなうことがある。

[表156] 「朝鮮語訳」の語中初声「ㄷ」

ハ*行音	[訳:1:39b]	逸筆{イルヒ*ル}クワ	手法の勝れました人と	[逸筆{일필}과]
ツ+ハ*行音	[訳:1:07b]	ノツヒ*	たつとく	[눈이]

2. 2 破擦音

破擦音の「ス(j)」と「ㄷ」は、後行する母音によって、様々なカナ表記に現れる。よって、「ス、ㄷ+母音」の形で考察する。

2. 2. 1 ス(j)

(1)語頭初声

「韓語覚書」の語頭初声「ス」は、総25例。「チ、ツ」が13例、「テ*」が5例、「ソ*」が4例、「ゾ」と「ソ」が1例ずつ現れる。残り1例は、朝鮮語に対するカナ表記がない。

「ス」は、後行する母音によって、様々なカナで表記されている。これを表にまとめると、以下のようなものである。

[表157] 「韓語覚書」の語頭初声「ス」

	ア段	イ段	ウ段	エ段	オ段
サ行					ソ
ザ行					ゾ
サ*行					ソ*
タ行		チ	ツ		
タ*行				テ*	

「韓語覚書」の「ス」の用例数が少ないが、「オ段」には「サ行・ザ行・サ*行音」のカナが現れ、「イ段、ウ段、エ段」には、「タ行、タ*行音」のカナが現れることが分かる。以下の表は「ス」の具体的な用例である。

[表158] 「韓語覚書」の語頭初声「ス」に対するカナ表記

サ行音	011	ソイコミラ	[제곰이라]		
ザ行音	062	ゾソ	[조소]		
サ*行音	024	ソ*ルエン	[졸연]	078	ソ*イイネ [죄인의]
	066	ソ*イイツカイ	[죄잇게]	078	ソ*イメグル [죄명을]
タ行音	002	チヨグシ	[중시]	034	チュツヘ*ン [쥬편]
	063	ツノン	[주논]	066	ツザク [조작]

タ*行音	015	テ*ンタイロ	[전대로]	039	テ*クタ	[적다]
	028	テ*グシン	[정신]			

「全一道人」の語頭初声「ス」も、「サ行、ザ行、サ*行音」、「タ行、タ*行音」のカナに現れるが、後行する母音によって、その表記が異なる。

「ス+ト(a)」は「サ、ザ、サ*、チャ」に現れる。「ザ」は鼻音に後行する。「ス+ト(a)、ユ(o)」は「ソ、ゾ、サ*、ソ*」に現れるが「ソ」は三点を打ち忘れたとみられる。「ス+ト(u)、一(w)」のは「ツ、ヅ」に現れるが、「ヅ」は鼻音に後行する。「ス+ト(i)」は「チ」、「ス+ト(ya)」は「チャ」、「ス+ト(yə)、ユ(yo)」は「チヨ、テ*」、「ス+ト(yu)」は「チュ」、「ス+ト(e)、ヰ(wa)、ヱ(əi)」は「サ*、ソ*」、「ス+ト(ei)、ヰ(oi)」は「サ*イ、ソ*イ」、「ス+ト(yəi)」は「チヨ、テ*」と現れる。

[表159] 「全一道人」の語頭初声「ス」

ス+ト(a)						
サ行音	[全:24]	サグアツフ*イ{장알푼}	床の前			[장앞이]
ザ行音	[全:33]	クン ザヌイ	おふきなるいれもの			[큰 잔의]
サ*行音	[全:51]	サ*{자}코	寝て			[자고]
タ行音	[全:63]	チャググイ	ばくち			[장괴<장괴]
ス+ト(a)、ユ(o)						
サ行音	[全:88]	メグ ソㄷㄷク	明の時			[명 적]
ザ行音	[全:120]	ゾツサ*{죇차}	随ひ			[죇차]
サ*行音	[全:66]	アニル サ*키{적이}	せられさる時			[아닐 적의]
	[全:54]	ソ*カクル{조각}	へら			[조각을]
ス+ト(u)、一(w)						
タ行音	[全:33]	ツルキヤ{즐겨}	ゆきとむながりけるを			[즐겨]
ダ行音	[全:76]	ヒユグアクハン ズル	凶悪ならんとは			흉악한 주를
ス+ト(i)、ト(ya)、ト(yə)、ユ(yo)、ユ(yu)						
タ行音	[全:122]	チロコ{지르코}	さけひ			[지르코]
	[全:26]	チャグソ*ツ{장춌}	禮のこことく			[장춌]
	[全:44]	チヨタイ{제대}	楮太			[제대]
	[全:99]	チヨセク	朝夕			[조석<도석]
	[全:54]	チュク{죽}イ	粥に			[죽의]
タ*行音	[全:76]	テ*モシヤ{저머셔}	いとけなくして			[절어서]
ス+ト(e)、ヰ(wa)、ヱ(əi)						
サ*行音	[全:32]	ソ*シク	子			[조식]
	[全:53]	サ*シヤグイ	座上			[좌상]
	[全:86]	ソ*イ	その			[제]
ス+ト(ei)、ヰ(oi)						
サ*行音	[全:100]	サ*イムル	財寶を			[지물을]
	[全:115]	ソ*イトグテ*イクニ	梶瀆帝君			[지동대군이]
	[全:72]	ソ*イ	罪			[죄]

ス + ㅟ (yæi)			
タ*行音	[全:103]	テ*ヲツチ {제어치制御} 모츨하트라	手せうにもおよはさりき [제어치 못 하더라]

「朝鮮語訳」の語頭初声「ス」も、「サ行、ザ行、サ*行音」、「タ行、ダ行、タ*行音」のカナに現れるが、後行する母音によって、その表記が異なる。

「サ*、シ*、セ*、ソ*」、「ザ、ジ、ゾ」、「サ、ス、ソ」、「ツ*、テ*」、「ヂ、ヅ」、「チ、ツ、テ」のように、様々な形に現れる。「ア段」と「オ段」は「サ*、ザ行音」のカナ、「イ段」と「ウ段」は「ダ、タ行音」のカナ、「エ段」は「ダ行音」のカナを用いるのが基本である。

[表160] 「朝鮮語訳」の語頭初声「ス」

ス + ㅏ (a)			
サ行音	[訳:1:55b]	サル	よふ [잘]
ザ行音	[訳:1:02a]	滋味 {ザ/ゾ/ミ}	面白ひ [滋味 {즈미}]
	[訳:1:02a]	滋味 {ザ/ゾ/ミ}	面白ひ [滋味 {즈미}]
ス + ㅑ (o)、ㅓ (ei)、ㅕ (yø)			
サ*行音	[訳:1:05a]	ソ*ツスブコニワ	乍憚 [죇슴거니와]
	[訳:1:42b]	サ*イゾ ケシン ツ*ル〃	御器量の御さる段を [진조 겨신 줄을]
	[訳:1:04b]	定 {セ*ク}チ	定 [정치 < 덩치]
ス + ㅜ (u)、ㅣ (i)			
タ行音	[訳:1:15a]	チナイキエ	暮しまして [지내기에]
	[訳:1:07b]	ツカ/거/ト	死すとも [죽어도]
ダ行音	[訳:1:19b]	春節リン ツ*ル〃	春の節といふ義を [춘절인 줄을]
タ*行音	[訳:1:42b]	サ*イゾ ケシン ツ*ル〃	御器量の御さる段を [진조 겨신 줄을]
	[訳:1:44a]	テ*ムン	若き [젊은]

(2)語中初声

「韓語覚書」の語中初声「ス」は、総21例。「タ行音」が10例、「ダ行音」が1例、「タ*行音」が3例が現れ、「サ行音」が1例、「ザ行音」が4例、「サ*行音」が2例である。

語中初声の場合も語頭初声と同様に、「タ行音」のカナ（チ、ツ、ヅ、ツ*、テ*）と「サ行音」のカナ（ザ、シ、ジ、ゾ、ソ*）に現れる。

[表161] 「韓語覚書」の語中初声「ス」

サ行音	002	ナシユグ	[내중]		
ザ行音	041	コクジヤク	[공정]	075	ヲゾロブタ [어즈럽다]
サ*行音	023	サ*クソ*ヲル	[창졸]	063	フ*ソ* 부조
タ行音	013	ウイチ	[의지]	061	ヲトツン [얼어준]

77) 三点(*)が抜けたのと考えられる。

	073	コヲツク	[거죽]	078	タチム	[다짐]
ダ行音	008	チムヅ ^ツ ッラ	[짐줍이 ^라]			
タ*行音	045	シヤグツ*ア	[상좌]	081	ムテ*グ	[무정]

「全一道人」の語中初声「ス」も、「ザ行、サ*行音」、「タ行、ダ行音、タ*行音」のカナに現れるが、後行する母音によってその表記が異なる。

「ス+ト(a)」は「ザ、サ*」、「ス+ト(ə)、ユ(o)」は「ゾ、ソ*」に現れる。「ゾ」は鼻音に後行する場合がある。「ス+ト(u)、一(w)」は「チュ、ツ」に現れる。「ス+ト(i)」は「ジ、チ、ヂ」に現れる。「ジ、ヂ」は鼻音に後行する。「ス+ト(ya)、ト(yə)、ユ(yu)」は「ゼ、チャ、ヂヤ、チュ、チヨ、ヂヨ、テ*」、「ス+ト(e)」は「ゾ、ソ*」、「ス+ト(əi)」は「サ*イ、ソ*イ」、「ス+ト(oi)」は「ソ*イ」、「ス+ト(ei)」は「ゾイ」、「ス+ト(yəi)」は「ゼイ」に現れる。

[表162] 「全一道人」の語中初声「ス」

ス+ト(a)				
ザ	[全:33]	ホンザ{훈자}	ひとり	[훈자<히벌사]
サ*	[全:120]	ゾツサ*{죇차}	隨ひ	[죇차]
ス+ト(ə)、ユ(o)				
ソ*	[全:49]	トソ*ク{도적}ハヤ	ぬすみ	[도적히야]
鼻音+ゾ	[全:50]	インゾグ{인종}	仁宗	[인종]
ソ*	[全:57]	フイソ*グ{휘종}	熙宗	[휘종]
ス+ト(u)、一(w)				
チュ	[全:109]	エグチュ{英俊}ニ	すくれたる人なる	[영준이]
ツ	[全:49]	ヲツロイリヨ{어즈러이리오}	見たらんや	[어즈러비리오]
ヅ	[全:115]	ヲヅロイ{어즈러이}	みたりに	[어즈러비]
ス+ト(i)、ト(ya)、ト(yə)、ユ(yu)				
鼻音+ジ	[全:76]	ネ*ロムジ{녀름지}イハヤ	耕作をして	[녀름지시히야]
チ	[全:30]	サ*チ{츠지}	みたぬ(やうに)	[츠지]
鼻音+ヂ	[全:44]	コンヂ{건디}ニ	すくひけるに	[건지니<건디니]
ス+ト(ya)、ト(yə)、ユ(yu)				
ヂヤ	[全:90]	セグヂヤグドリヨ	楊成章に	[성장드러]
(鼻音+)ゼ	[全:43]	シゼル	その時	[시절]
	[全:90]	チヨグゼキ{蹤跡}	ゆきかた	[종적]
チャ	[全:34]	モクコチャ	くひたきと(おもひ)	[먹고져]
	[全:18]	ナイチコチャ	逐出すへきと	[내티고져]
鼻音+ヂヤ	[全:45]	コンヂヤナイン	すくゐたる	[건져낸<건더넌]
	[全:109]	モンヂヤ	さきに	[몬져]
(鼻音+)ヂヨ	[全:72]	クノチヨ{쓴혀져}	たゑて	[쓴혀져]
	[全:116]	チチヨクイ{지저귀}ミヨ	わや	[지저귀며]
	[全:78]	コンヂヨ{건져}ナイニラ	すくひけり	[건져내니라<건더내니라]
テ*	[全:34]	カテ*{가져}	もちたる	[가져]

	[全:118]	チテ*クイ{지저귀}ミヨ	わや	[지저귀며]
チュ	[全:70]	セチュニ{세준이}ラ	徐駿と	[세준이라]
ス+ (e)				
ザ	[全:114]	アザビ{아즈비}	おぢ	[아즈비]
鼻音+ヅ	[全:24]	ソソ	孫	[손즈]
ソ*	[全:64]	クルソ*{즈}	數字	[글즈]
ツ	[全:42]	マツルソイ{마즐식}	むかへらる〃おりふし	[마즐식]
(鼻音+)ヅ	[全:111]	アヅビ	おぢ	[아즈비]
	[全:28]	ソ*ヅニ{즈즈니}	たつねけるに	[즈즈니]
ス+ ㅁ (ai)、ㅂ (oi)、ㅍ (ei)				
サ*イ	[全:33]	テ*サ*イ{저제}	市に	[저제]
ソ*イ	[全:88]	ハヤシルソ*イ	しける時	[햏얏일제]
ソ*イ	[全:118]	ノソ*イ	盧操	[노죄]
ゾイ	[全:43]	モゾイ{모지}	母子	[모지]
ス+ ㅅ (yoi)				
ゼイ	[全:50]	ハグゼイ{황제}	皇帝	[황제]

「朝鮮語訳」の語中初声「ス」は、「ス+ㅏ (a)」は「サ*」、「ス+ㅑ (ə)」は「サ」、「ス+ㅓ (u)、ㅡ (w)」は「ス、ヅ」、「ス+ㅓ (i)」は「チ」、「ス+ㅕ (y ə)」は「ジヨ、ヂエ、テ*」、「ス+ㅛ (yo)」は「シ*ヨ」に現れる。

[表163] 「朝鮮語訳」の語中初声「ス」

ス+ㅏ (a)				
サ*	[訳:1:06a]	ホムサ*	和訳なし(ひとり)	[흠자]
ス+ㅑ (ə)				
サ	[訳:1:44b]	ドサト	おそなはりても	[늦어도]
ザ	[訳:1:19b]	ニザツスムノイ	忘れまして御座る	[잊었습니]
ス+ㅓ (u)、ㅡ (w)				
ス/ヅ	[訳:1:19b]	奔走{フ*ンス/ヅ}ハン	鬧敷き	[奔走{분주} 혼]
ヅ	[訳:1:31b]	チツソランヅク	建まする時は	[짓스온즈]
ス+ㅓ (i)				
チ	[訳:1:02a]	カチ	帰る事も	[가지<가디]
ス+ㅕ (yə)				
ジ	[訳:1:44b]	モンジヨ	先	[몬져]
ヂ	[訳:1:44a]	モンヂエ	先	[몬져]
テ*	[訳:1:13b]	フ*テ*ロブソナル	御無用な	[부절업스올]
ス+ㅛ (yo)				
シ*ヨ	[訳:1:13b]	ナシ*ヨグイ	後に	[내중의]

2. 2. 2 ㄷ (c)

(1) 語頭初声

「韓語覚書」の語頭初声「ㄷ」は、総3例。2例が「サ*行音」に現れる。残り1例は、朝鮮語に対するカナ表記がない。「ㄷ」も後行する母音によってその表記が異な

る。「ㄷ+ㅏ(a)」は「サ*」、「ㄷ+ㅑ(ə)」は「ソ*」に現れる。

[表164] 「韓語覚書」の語頭初声

ㄷ+ㅏ(a)	サ*	023	サ*クソ*ヲル	[창졸]
ㄷ+ㅑ(ə)	ソ*	007	ソ*イミラ	[처음이라]

「全一道人」の語頭初声「ㄷ」は、「サ*、サ*イ、ソ*、ソ*イ」、「チ、チュ、チュイ、テ*」に現れる。「後行する母音によってその表記が異なる。「ㄷ+ㅏ(a)」は「サ*」、「ㄷ+ㅓ(i)」は「チ」、「ㄷ+ㅕ(e)」は「サ*、ソ*」、「ㄷ+ㅗ(yə)」は「テ*」、「ㄷ+ㅛ(oi)」は「ソ*イ」、「ㄷ+ㅜ(ei)」は「サ*、サ*イ」、「ㄷ+ㅠ(yəi)」は「テ*」、「ㄷ+ㅠ(yui)」は「チュイ」に現れる。

[表165] 「全一道人」の語頭初声「ㄷ」

ㄷ+ㅏ(a)				
サ*	[全:49]	サ*クキ{착히}	義ある	[착히]
ㄷ+ㅑ(o)				
サ*	[全:111]	ソ* ヨトロインナル	六月八日	[초여들햇날]
ㄷ+ㅓ(i)				
チ	[全:83]	チュウミ{치음이}	さむく(こさりませぬかと)	[치우미<치봄이]
ㄷ+ㅕ(e)				
サ*	[全:30]	サ*チ{츠지}	みたぬ(やうに)	[츠지]
ソ*	[全:28]	ソ*ヅニ{츠즈니}	たつねけるに	[츠즈니]
ㄷ+ㅗ(yə)				
テ*	[全:88]	テ*ブル	妾を	[첩을]
ㄷ+ㅛ(oi)				
ソ*イ	[全:22]	ソ*イサルラミ{최산남이}	崔山南といへる	[최산남이라]
ㄷ+ㅜ(ei)				
サ*	[全:103]	サ*ク{척}ハトニ	しかりまわし	[척하더니]
サ*イ	[全:113]	(クワマヌル)サ*イ{척}ワ	吏の役を交代し	[(과만을) 척와]
ㄷ+ㅠ(yəi)				
テ*	[全:52]	モロノンテ*{체}	見しらぬふり	[모르논 체]
ㄷ+ㅠ(yui)				
チュイ	[全:32]	チュイ{취}ハヤ	取て	[취하야]

「朝鮮語訳」の語頭初声「ㄷ」は、「サ*、ソ*」、「テ*」、「チ、ツ」、「ゼ」が当てられる。

[表166] 「朝鮮語訳」の語頭初声「ㄷ」

サ*	[訳:1:02b]	サ*クハン	はつ明な	[착훈]
ゼ	[訳:1:03b]	青{צעק}春ヌル	青春を	[청춘을]

チ	[訳:1:25a]	チブソヲニ	寒ふ成ました	[침스오니]
ツ	[訳:1:37b]	ツム	針	[침]

(2)語中初声

「韓語覚書」の語中初声「ㄷ」は、総13例。「タ行音」が7例、「サ*行音」が6例現れる。

「ㄷ」も「ㄷ」と同様に後行する母音によって、その表記が異なる。「ㄷ+ㅜ(o)」は「ソ*」、「ㄷ+ㅣ(i)」は「チ、チヤ」、「ㄷ+ㅓ(e)」は「サ*」、「ㄷ+ㅑ(ya)」は「チヤ」、「ㄷ+ㅕ(yə)」は「チヤ」、「ㄷ+ㅚ(ai)」は「サ*イ」に現れる。

[表167] 「韓語覚書」の語中初声「ㄷ」

タ行音のカナ				
ㄷ+ㅣ(i)	チ	030	マツタチヤノン	[맛당치얌은]
		032	ヘナンチ	[편안치]
		040	カイツチヤ	[씨치야]
		056	カラチタ	[마르치다]
		060	ナンナチ	[낫나치]
ㄷ+ㅑ(ya)	チヤ	040	カイツチヤ	[씨차]
ㄷ+ㅕ(yə)	チヤ	087	モツチヤラ	[모쳐라]
サ行音のカナ				
ㄷ+ㅜ(o)	ソ*	007	タグソ*	[당초]
ㄷ+ㅓ(e)	サ*	010	ヒ*ツサ*イ	[피츄이]
ㄷ+ㅚ(ai)	サ*	065	ホ*ツサ*イタ	[보채다]

「全一道人」の語中初声「ㄷ」は、「ㄷ+ㅑ(a)」は「ツ+サ*、ツ+ソ*、鼻音+サ*」、「ㄷ+ㅕ(ə)、ㅜ(o)」は「ツ+サ*、ツ+ソ*、ツ+ツ、鼻音+ゾ/ソ*」、「ㄷ+ㅓ(w)」は「ツ+ツ」、「ㄷ+ㅣ(i)」は「チ、ツ+チ」、「ㄷ+ㅓ(e)」は「ソ*、サ*」、「ㄷ+ㅑ(ya)」は「チヤ、ツ+チヤ」、「ㄷ+ㅕ(yə)」は「チヤ、ツ+チヤ、チヨ、ツ+チヨ、テ*、ツ+テ*」、「ㄷ+ㅚ(ai)」は「ツ+サ*、ツ+サ*イ」、「ㄷ+ㅜ(əi)」は「ツ+サ*イ」、「ㄷ+ㅟ(oi)」は「ツ+ソ*イ」、「ㄷ+ㅝ(ei)」は「サ*イ」、「ㄷ+ㅞ(yəi)」は「ツ+テ*」に現れる。

[表168] 「全一道人」の語中初声「ㄷ」

ㄷ+ㅑ(a)				
ツ+サ*行音	[全:28]	ソ*ツサ*	追かけ	[좃야]
	[全:71]	ソモツソ*{스뭇차}	通し	[스뭇차]
鼻音+サ*行音	[全:76]	ハ*ンサ*ヌル{반찬을}	よきさいを	[반찬을]
ㄷ+ㅕ(ə)、ㅜ(o)				
ツ+サ*行音	[全:19]	ドヨツサ*{뉘웃쳐}	くやみ	[뉘웃쳐<뉘으쳐]

	[全:122]	ミツソ*	及ひ	[미쳐]
	[全:30]	コツソ*{고초苦楚}	難儀	[고초]
鼻音+ザ行音	[全:28]	サ*ク <u>ゾ</u> ライ{창출히}	あわて〃	[창출히]
鼻音+サ*行音	[全:27]	カムソ*{삼초}ワツタか	かくしおき	[삼초앗다가<마초앗다가]
ツ+タ行音	[全:55]	ヲツツニ{오촌}ナハトラ	五寸ほとなりし	[오촌이나 ㅎ더라]
「ㄷ+」(u)				
ツ+タ行音	[全:17]	カルコツツル{글꽃출}	蘆の花を	[글꽃출<글꽃을]
ㄷ+] (i)				
(ツ+)タ行音	[全:18]	ナイ <u>チ</u> コチャ	逐出すへきと	[내 <u>치</u> 고져<내티고져]
	[全:75]	カロツ <u>チ</u> コ{가르치고}	つんさき	[마 <u>르</u> 치고]
ㄷ+・(e)				
ツ+サ*行音	[全:30]	コツソ*{고초苦楚}	難儀	[고초<고초]
鼻音+行音	[全:26]	チャグソ*ツ{장춌}	禮のことく	[장춌<장춌]
ツ+タ行音	[全:52]	アツツムイ	あさ	[아츨이]
ㄷ+ ㅏ (ya)				
チャ	[全:116]	ムン <u>チャ</u> ググニ	文昌君か	[문 <u>창</u> 군이]
ツ+チャ	[全:113]	クツ <u>チャ</u> ハン	わけなき	[구 <u>차</u> 한]
ㄷ+ ㅑ (yø)				
タ行音	[全:89]	スカイ <u>チャ</u> {깨쳐}	わり	[깨쳐]
	[全:75]	スカイ <u>チ</u> ヨ{깨쳐}	つんさき	[깨쳐]
鼻音+タ行音	[全:42]	ノモチ <u>ヨ</u>	あふれ	[넘 <u>쳐</u> <넘쳐]
タ*行音	[全:103]	モイテ*{쳐}	打擲し	[메 <u>쳐</u>]
ツ+タ*行音	[全:19]	フツテ*{후쳐}	後妻	[후 <u>쳐</u>]
鼻音+タ*行音	[全:20]	テ* <u>ン</u> テ*ウイ	前妻の	[전 <u>쳐</u> 의]
ㄷ+ ㅓ (ai)				
ツ+サ*行音	[全:102]	ホ* <u>ツ</u> サ*ヤ{붓채여}	せめつけ	[붓 <u>채</u> 여<보 <u>차</u> 야]
	[全:115]	ヤ <u>ツ</u> サ*イ{야채}	鬼あまた	[야 <u>채</u>]
ㄷ+ ㅕ (øi)				
ツ+サ*行音	[全:77]	フ* <u>ツ</u> サ*イ <u>チ</u> ル{붓채질}	扇にて	[붓 <u>채</u> 질]
ㄷ+ ㅗ (oi)				
ツ+サ*行音	[全:123]	サ* <u>ツ</u> ソ* <u>イ</u> {자취}	醜跡	[자 <u>취</u>]
ㄷ+ ㅛ (ei)				
ツ+サ*行音	[全:33]	コツサ* <u>イ</u> ク〃{고취국}	菰菜の羹	[고 <u>취</u> 국]
ㄷ+ ㅜ (yøi)				
ツ+タ*行音	[全:99]	フツテ*{후채}	後妻	[후 <u>채</u>]

「朝鮮語訳」の語中初声「ㄷ」も、「ㄷ+] (i)」は「ツ+チ」、「ㄷ+・(e)」は「(ツ)+サ*行音」、「ㄷ+ ㅑ (yø)」は「ツ+テ*」に現れる。

[表169] 「朝鮮語訳」の語中初声「ㄷ」

ㄷ+] (i)				
ツ+タ行音	[訳:1:09a]	カロ <u>ツ</u> チラ	御教訓被下よと	[마 <u>르</u> 치라]
ㄷ+・(e)				
(ツ)+サ*行音	[訳:1:05a]	モ <u>ツ</u> サ*シコ	御済被成	[모 <u>츠</u> 시고]

	[訳:1:07b]	アツソ*ムイ	朝に	[아침의]
	[訳:1:26a]	ソイソ*ン	烈しひ	[세춘]
え + ㅍ (ya)				
ツ + タ*行音	[訳:1:41a]	阿諂{アツテ*ム}ハヤ	へつらひて	[阿諂{아첨<뎡}히여]

2. 3 摩擦音

2. 3. 1 ス(s)

(1)語頭初声

「韓語覚書」の語頭初声「ス」は、総42例が現れる。41例すべてに「サ行音」を当てる。残り1例は、朝鮮語に対するカナ表記がない。

[表170] 「韓語覚書」の語頭初声「ス」

サ行音	001	サムギン	[생긴]	039	セシユ	[세슈]
	019	スルコブタ	[슬굽다]	045	ソロ	[서로]
	035	シユンヘ*ン	[순편]	056	ソヌロ	[손으로]

「全一道人」の語頭初声「ス」は、すべて「サ行音」に現れる。

[表171] 「全一道人」の語頭初声「ス」

サ行音	[全:17]	ソラグホコ	愛し	[스랑히고]
	[全:26]	スエムイコイ	しうとめに	[쉬어미게]
	[全:56]	ソサ{소사}ナコ	ぬけいて	[숫아나고]
	[全:56]	セチユニラ{세준이라}	徐駿と	[세준이라]

「朝鮮語訳」の語頭初声「ス」も、「サ行音」のカナに現れる。

[表172] 「朝鮮語訳」の語頭初声「ス」

サ行音	[訳:1:03b]	サラミ	人は	[사람이]
	[訳:1:11a]	ソロ	迭の	[서르]

(2)語中初声

「韓語覚書」の語中初声「ス」は、総31例が現れ、29例すべてに「サ行音」を当てる。残り2例は、朝鮮語に対するカナ表記がない。

[表173] 「韓語覚書」の語中初声「ス」

サ行音	001	テンセグ	[턴성]	038	ハルシユ	[활슈]
	009	ヨクシム	[육십]	050	ハンドシ	[반드시]

	016	レソ	[레소]	086	ムサグ	[무상]
	040/061	ゴスル/コスル	[것을]	053/061	ゴシラ/コシラ	[것이라]

「全一道人」の語中初声「ス」は、すべて「サ行音」に現れる。

[表174] 「全一道人」の語中初声「ス」

サ行音	[全:34]	アサ{아사}	うはひ	[앗아]
	[全:41]	チンソヲイ	進士	[진스위]

「朝鮮語訳」の語中初声「ス」も、すべて「サ行音」に現れる。

[表175] 「朝鮮語訳」の語中初声「ス」

サ行音	[訳:1:02b]	アニ ハシニ	御座らぬ故	[아니 히시니]
	[訳:1:20b]	ホ*ルセ	最早	[벌셔]

(3)終声

上の2. 1. 2 c(d)の(3)終声に述べたように、「ス」は、終声の位置においては「ㄷ」に中和され、全て「ツ」が当てられる。

[表176] 「韓語覚書」の終声「ス」

タ行音	004	モツトロ	[못도록]	061	コツト	[것도]
	030	マツタチヤノン	[맛당창논]	066	ソ*イイツカイ	[죄잇게]
ン	045	ヲクンナタン	[어긋나단]	067	コヲツンマル〃	[거긋말을]
	060	ナンナチ	[낫나치]	077	ヲクンナノン	[어긋나논]
ク	073	コヲツク	[거긋]			

2. 3. 2 ㅇ (h)

(1)語頭初声

「韓語覚書」の語頭初声「ㅎ」は、総46例が現れ、すべて「ハ行音」に現れる。

[表177] 「韓語覚書」の語頭初声「ㅎ」

ハ行音	018	ハノン	[호논]	056	フンシユ	[훈슈]
	076	ヘエムル	[헐을]	067	ホイハ*グ	[회방]

「全一道人」の語頭初声「ㅎ」は、すべて「ハ行音」に現れる。

[表178] 「全一道人」の語頭初声「ㅎ」

ハ行音	[全:22]	フハ{ <u>화</u> }ハヤ	化して	[<u>화</u> ㅎ야]
	[全:99]	フ*スロヂル{ <u>쓰림질</u> }ハミヨ	はわき	[<u>쓰림질</u> ㅎ며]

「朝鮮語訳」の語頭初声「ㅎ」も、「ハ行音」に現れる。

[表179] 「朝鮮語訳」の語頭初声「ㅎ」

ハ行音	[訳:1:06a]	ホムサ*	和訳なし(ひとり)	[<u>흠</u> 자]
	[訳:1:58a]	ハヲブノイ	存まする	[<u>흐</u> 읍너]

(2)語中初声

「韓語覚書」の語中初声「ㅎ」は、総23例が現れ、18例が「ハ行音」、「ノ」、「ト」、「キ」で1例ずつ現れる。残り2例は、朝鮮語に対するカナ表記がない。

「ㅎ」は母音の前後や「ㄴ(n)、ㄹ(m)、ㅇ(ŋ)、ㄹ(r)」の終声の後の「ㅎ」が弱くなるが、上記の「ノ」は「ㅎ」前にある終声「ㄴ(n)」が後行の初声「ㅎ」に移して発音するため、「ノ」と表記したのである(連音化)。

「ト」は、「ㅎ」の前の終声「ㄷ(t)」が後行音節の初声「ㅎ」と結合すると「ㅌ(t)」の音になる(激音化)。「キ」も「ト」と同様に激音化を起こしたことである。

[表180] 「韓語覚書」の語中初声「ㅎ」

ハ行音	006	イフ	[<u>이후</u>]	066	モハム	[<u>모함</u>]
ノ	028	マノン	[<u>만흔</u>]			
ト	032	モツトルタハン	[<u>못홀타흔</u>]			
キ	044	ハ*ルキン	[<u>북힌</u>]			

「全一道人」の語中初声「ㅎ」は、「ハ行音」に現れる。

[表181] 「全一道人」の語中初声「ㅎ」

ハ行音	[全:54]	ホ*ヒヤ{ <u>벼혀</u> }	きり	[<u>벼혀</u>]
	[全:71]	ウブハブ{ <u>음합</u> }センサギ	泣鴿先生	[<u>음합선싱</u>]

「朝鮮語訳」の語中初声「ㅎ」も、「ハ行音」に現れる。

[表182] 「朝鮮語訳」の語中初声「ㅎ」

ハ行音	[訳:1:03b]	秋毫{ <u>호</u> }ト	少も	[<u>秋毫</u> { <u>호</u> }도]
	[訳:1:29b]	マンヒ	たんと	[<u>많이</u>]

(3)終声

「韓語覚書」の終声「ㄹ」は、1例のみで「ツ」に現れる。終声「ㄹ」は、「ㄷ(t)」に中和されるので、「ツ」に現れたのである。「朝鮮語訳」の終声「ㄹ」も同様である。「全一道人」には終声「ㄹ」は現れない。

[表183] 「韓語覚書」の終声「ㄹ」

ツ	034	チョツカイ	[똥개]
---	-----	-------	------

2. 4 鼻音

2. 4. 1 ㄴ(n)

(1)語頭初声

「韓語覚書」の語頭初声「ㄴ」は、総16例が現れ、12例が「ナ行音」に現れ、3例が「ダ行音」、1例が「ジ」に現れる。

[表184] 「韓語覚書」の語頭初声「ㄴ」

ナ行音	002	ナシユグ	[내종]	053	ニルノン	[니르논]
	018	ノムイ	[늪의]	060	ナンナチ	[났나치]
	057	ネムニヨ	[넢녀]	067	ノムル	[늪을]
ダ行音	047	ドルニカ	[널으니까]	038	ドルタ	[널다]
	071	ドグダム	[농담]			
ジ	060	ジルノン	[니르논]			

語頭初声「ㄴ」に「ダ行音」が当てられた例は、朝鮮語の鼻音「ㄴ」が異音として出わたりoffglideの破裂音[ⁿd]をともなう場合があることと関連しているものと見られる。

「全一道人」の語頭初声「ㄴ」は、「ナ行音」、「ヌ*、ネ*」、「ド」に現れる。安田章(1964:25)は、「全一道人」の「ダ行音」のカナについて、「諺文のnが語頭に立ち、しかも後続母音が「ə・u・w」の陰母音である時は、ドや二点を付したヌ(ヌ*)で受け止められるようである」と述べた。

[表185] 「全一道人」の語頭初声「ㄴ」

ナ行音	[全:41]	ナムン	残りたる	[남은]
	[全:85]	ナムノンチラ{남엇논지라}	あまりたり	[남엇논지라]
ヌ*	[全:68]	ヌ*ワツ{누엇}トニ	ねしに	[누엇더니]
ネ*	[全:76]	ネ*ロムジ{녀름지}イ	耕作	[녀름지이]

[表186] 「全一道人」の「ダ行音」のカナ(安田章1964:25)

nə	ドクワセグソハリラ(52)
nəi	ドイ(34)
nu	ドワ(54)、ドワシトイ(59)、ヌ*リムン(24)、ヌ*ワツトニ(68)
nui	ドヨツサ*(19)
nuu	ヌ*グヒイ(22)、ヌ*ツコ(61)、ヌ*ルクン(74)、ヌ*ルクトイ(79) ヌ*ルクコ(100)

「朝鮮語訳」の語頭初声「ㄴ」は、「ナ行音」に現れ、まれに「ダ行音」が現れる。「ズ」、「シ」も現れるが、これは四つ仮名表記の混同により、「ヅ」を「ズ」、「ヂ」を「ジ→シ」と表記したものである。

[表187] 「朝鮮語訳」の語頭初声「ㄴ」

ナ行音	[訳:1:02b]	ナノン	私は	[나논]
	[訳:1:36a]	ネキヤ	被思まして	[네기야<너기야]
ダ行音	[訳:1:11a]	ドルコ	なぐさみ	[놀고]
ズ	[訳:1:03a]	ズルクン	年老ました	[늙은]
	[訳:1:06a]	ズ/ト/イ	誰が	[누]
シ	[訳:1:18a]	シツソヨン	忘れます	[잊조은]
ヂ	[訳:1:56a]	ヂルコブ	七	[닐곱<닐곱]

(2)語中初声

「韓語覚書」の語中初声「ㄴ」は、総33例が現れる。33例全てが「ナ行音」のカナに現れる。

[表188] 「韓語覚書」の語中初声「ㄴ」

ナ行音	003	チヨクナイ	[중년]	040	シルノン	[시루년]
	056	ソヌロ	[손으로]	078	ソ*イイネ	[죄인의]

「全一道人」の語中初声「ㄴ」は、「ナ行音」に現れる。

[表189] 「全一道人」の語中初声「ㄴ」

ナ行音	[全:24]	メノリ{며느리}クワ	よめと	[며느리과]
	[全:26]	アニツカイ	せさりしに	[아니케 히니]
	[全:37]	ホ*ナイコ{보내고}	やり	[보내고]

「朝鮮語訳」の語中初声「ㄴ」も、「ナ行音」に現れる。

[表190] 「朝鮮語訳」の語中初声「ㄴ」

ナ行音	[訳:1:03b]	ウツトミヨヌル	第一で御さるを	[웃듬이어늘]
	[訳:1:05b]	サヲナワ	あしふて	[사오나와]

(3)終声

「韓語覚書」の終声「ㄴ」は、総139例で、126例が「ㄴ」に現れる。その他、11例は連音化によって「ナ行音」に現れ、「ㄹ」、「ㄴ」が1例ずつ現れる。

終声の「ㄴ」を「ㄹ」で表す場合は、「ㄴ」の後行音節の初声「ㄷ」が来る場合におこるが、「ㄴ」が流音化したものと見られる。

「ㄴ」で現れた例は、「ㄷ」が鼻音化したものとみられる。

[表191] 「韓語覚書」の終声「ㄴ」

ㄴ	019	エクミン	[영민]	044	フ*ㄴメグ	[분명]
	023	ムンドキラン	[문득이관]	088	ソㄴゾ	[순소]
	036	コクヘ*ㄴ	[공편]	089	シクタン	[씩단]
ㄹ	016	テ*ㄹレ	[전레]			
ㄴ	084	ハムタイ	[훈 ㄴ]			

「全一道人」の終声「ㄴ」は、「ㄴ」、「ナ行音」、「ㄴ」に現れる。

[表192] 「全一道人」の終声「ㄴ」

ㄴ	[全:20]	ハ*ㄴドシ	いかなれは	[반드시]
ナ行音	[全:66]	ハニガチ{훈가지}ロ	一様に	[훈가지로]
ㄴ	[全:09]	ネムヂヨ{년도}	年條	[년도]

「朝鮮語訳」の終声「ㄴ」も、「ㄴ」、「ㄴ」に現れ、「韓語覚書」と同様に「ㄷ」が後続する場合は「ㄹ+ナ行音」に現れる。

[表193] 「朝鮮語訳」の終声「ㄴ」

ㄴ	[訳:1:02a]	イブタイノㄴ	唯今は	[이때늘]
ㄴ	[訳:1:19b]	ハムタイ	暫時	[훈때]
	[訳:1:54b]	ハムタイト	一時も	[훈때도]
ㄹ+ナ行音	[訳:1:08b]	遠慮{ㄹㄹ리요}	遠き慮	[遠慮{원려}]

2. 4. 2 ㄹ(m)

(1)語頭初声

「韓語覚書」の語頭初声「ㄹ」は、総43例が現れ、42例が「マ行音」に現れるが、

「ビ」に現れるのも1例ある。

「ビ」に現れるのは、語頭初声「ㄴ」が「ダ行音」に転写されたのと同様に、朝鮮語の鼻音「ㄹ」が異音として出わたりoffglideの破裂音「ㄴb」をともなう場合があることと関連しているものとみられる。

[表194] 「韓語覚書」の語頭初声「ㄹ」

マ行音	005	モム	[몹]	047	モルコ	[멀고]
	015	マリラ	[말이라]	075	モヲミ	[므슴이]
	024	ムンドク	[문득]	080	ムシン	[무신]
バ行音	079	ビトン	[빚은]			

「全一道人」の語頭初声「ㄹ」も、「マ行音」に現れ、「ビ」に現れる。

[表195] 「全一道人」の語頭初声「ㄹ」

マ行音	[全:48]	マンナ	逢ひ	[만나<맛나]
ビ	[全:78]	ビリ	奇特に	[미리]

「朝鮮語訳」の語頭初声「ㄹ」も、「マ行音」を当て、「ブ」も現れる。

[表196] 「朝鮮語訳」の語頭初声「ㄹ」

マ行音	[訳:1:02a]	マル	物語	[말]
	[訳:1:04b]	ミツソ*ブコ	御頼	[밑좁고]
	[訳:1:08a]	ムスン	何	[므슨]
ブ	[訳:1:05a]	無恙{ブヤグ}	無恙	[無恙{무양}]

(2)語中初声

「韓語覚書」の語中初声「ㄹ」は、総14例が現れ、すべて「マ行音」のカナに現れる。

[表197] 「韓語覚書」の語中初声「ㄹ」

マ行音	019	エクミン	[영민]	044	フ*ンメグ	[분명]
	029	エクマ	[영매]	053	アム	[아므]

「全一道人」、「朝鮮語訳」の語中初声「ㄹ」も「マ行音」にのみ現れる。

[表198] 「全一道人」・「朝鮮語訳」の語中初声「ㄹ」

マ行音	[全:121]	ナルマタ	毎日	[날마다]
	[訳:1:09a]	カヲメヨ	参まして	[가오며]
	[訳:1:36a]	アムイリ	何事が	[아모일이]

(3)終声

「韓語覚書」の終声「ㄹ」は、総37例が現れ、35例が「ム」に現れる。残り2例は、朝鮮語に対するカナ表記がない。

[表199] 「韓語覚書」の終声「ㄹ」

マ行音	005	モム	[몰]	071	ドグダム	[농답]
	009	タムタ	[탈타]	075	シムナン	[심란]
	057	ネムニヨ	[넌너]	076	マカム	[마갈]

2. 4. 3 ㅇ(、ㅇ)

「ㅇ」は、語頭初声の位置では子音として音価をもたない()ため、終声についてのみ述べることにする。

「韓語覚書」の終声「ㅇ(ㅇ)」は、総83例が現れ、「グ」が56例、「ク」が18例、「ギ」が3例、「キ」が2例、「ム」が1例現れる。残り3例は、朝鮮語に対するカナ表記がない。

「ギ」に現れるのは、「ㅇ(ㅇ)」の前後に母音「ㅣ(i)」がある場合である。

[表200] 「韓語覚書」終声「ㅇ(ㅇ)」の例

グ	001	テンセグ	[턴성]	052	チヨグ	[딩]
	051	コクテ*グ	[걱딩]	049	テ*グネグ	[딩녕]
ク	041	コクジヤク	[공정]	020	エクマ	[영매]
	036	コクヘ*ン	[공편]	012	エエク	[영영]
ギ	060	シハギ	[시힐]	017	ウグダギ	[응당]
キ	050	ウクタキ	[응당]	061	サグクワキラ	[싱광이라]
ム	001	サムギン	[생긴]			
カナ無	030	マツタチャノン	[맛당창논]	012	エエク	[영영]

「全一道人」、「朝鮮語訳」の終声「ㅇ(ㅇ)」も、「グ」、「ク」、「ギ」に現れる。

[表201] 「全一道人」・「朝鮮語訳」の終声「ㅇ」

グ	[全:17]	ソラグホコ	愛し	[사랑호고]
---	--------	-------	----	--------

	[訳:1:54b]	クキヨグ	月見	[구경]
ク	[全:115]	メクハヤ	いっつけ	[명하야]
	[訳:1:02a]	当{タク}ハヤ	伴て	[당{당}하여]
ギ	[全:26]	トギ{뽕이}	糞	[뽕이]
	[訳:1:09b]	従容{チヨヨギ}ヒ	緩々	[従容{조용<중용}히]

2.5 流音 ㄹ(r)

(1)語頭初声

「韓語覚書」の語頭初声「ㄹ」は、総3例が現れ、2例が「ラ行音」、1例が「ナ行音」に現れる。

[表202] 「韓語覚書」の語頭初声「ㄹ」

ラ行音	016	レソ	[레소]	018	レタイロ	[레대로]
ナ行音	021	ネグニ	[녕리]			

現代韓国語の漢字語では、頭音法則により、語頭初声に「ㄹ」が出現せず、「ㄷ」
「ㅂ」などの[y-]に始まる二重母音や母音「ㅣ」の前では脱落し、その他の母音の前
では「ㄴ」に変わる。[表202]の「韓語覚書」の例を現代韓国語にすると、例016は
「예사」、例018は「예대로」、例021は「영리」になり、「ㄹ」が「ㅇ」に変わる。

「全一道人」の語頭初声「ㄹ」も、「ラ行音」、「ナ行音」に現れる。

[表203] 「全一道人」の語頭初声「ㄹ」

ラ行音	[全:26]	レイクワカツチ	禮のこつく	[례과 끝이]
ナ行音	[全:65]	ネイルㄹ	禮を	[례를<례를]

(2)語中初声

「韓語覚書」の語中初声「ㄹ」は、総147例が現れ、140例が「ラ行音」、6例が
「ナ行音」に現れる。残り1例は、朝鮮語に対するカナ表記がない。

「ナ行音」のカナに現れたのは、前の終声が鼻音子音の場合に後続初声の「ㄹ」が
「ナ行音」のカナに現れる。

[表204] 「韓語覚書」の語中初声「ㄹ」

ラ行音	016	テ*ルレ	[전례]	059	ヲリヨヲン	[어려온]
	040	クルン	[그른]	061	サロムル	[사름을]
	052	アライ	[아래]	066	サラムル	[사름을]
	054	カラチタン	[마르치단]	083	クルツ	[그릇]
ナ行音	006	チャグナイ	[장린]	040	コグノン	[공론]

	030	ネグニ	[령리]	075	シムナン	[심란]
--	-----	-----	------	-----	------	------

「全一道人」、 「朝鮮語訳」の語中初声「ㄹ」は、「ラ行音」に現れる。

[表205] 「全一道人」・「朝鮮語訳」の語中初声「ㄹ」

ラ行音	[全:18]	スロイ{술의}ルㄹ	車を	[수린를<술위를]
	[訳:1:31a]	トロタラ	却て	[도로되라]
	[訳:1:31b]	フルリヨ	流	[흘려]

(3)終声

「韓語覚書」の終声「ㄹ」は、総50例が現れ、47例が「ル」で現れる。残り3例は、朝鮮語に対するカナ表記がない。

[表206] 「韓語覚書」の終声「ㄹ」

ラ行音	019	スルコブタ	[슬굽다]	066	サラムル	[사름을]
	023	サ*クソ*ヲル	[창졸]	068	サロムル	[사름을]
	038	ドルタ	[널다]			

「全一道人」の終声「ㄹ」も、「ル」で現れる。

[表207] 「全一道人」の終声「ㄹ」

ル	[全:19]	フ*ルヒヨイ{불회}	不孝	[불효]
	[全:22]	タイウ{태우}へ*スル	大夫となれり	[태우 벼슬]
	[全:74]	ノコ{노고}ルㄹ 코ル{걸}코	なへをあげ	[노고를 걸고]

「朝鮮語訳」の終声「ㄹ」も、「ル」が現れ、まれに「ロ」が現れる。

[表208] 「朝鮮語訳」の終声「ㄹ」

ル	[訳:1:02a]	日本{イルボン}ノン	日本は	[日本{실본}은]
ロ	[訳:1:27b]	ハンカチロ コシニ	同然で御さる	[흔가지일 것이니]

2. 6 その他

2. 6. 1 「Δ(z)」

「韓語覚書」の「Δ」は、総2例が現れる。語頭初声の位置では現れず、語中初声に現れる。

「Δ」は、表記上では16世紀末までやっと維持されていたが、17世紀に入るとはまったく廃用された(李基文1998:203)。現代韓国語には存在しない子音である。その

音価について多様な説があるが、発音符号で「ʒʒ、z」であるとみるのが大体で、ローマ字では「j」とみるべきである(李崇寧1949:17)。「捷解新語」では「ザ行音」を「Δ」で表記している([表210])。

「Δ」が現れる環境は、終声「ㄴ、ㅇ」(濁音)と母音の間である(최현배1971:525、李基文1998:141)。「Δ」の消失過程は、15世紀後半から16世紀前半にかけてのことと推定している(李基文1998:142)、消失した「Δ」は、「ㅅ(s)」と「ㅇ(ʔ)」に変化した。

「韓語覚書」に現れる「Δ」は、元の音価である「z」(例088)と「Δ」が消失して変化した音価である「ㅇ」(例075)の両方の形に現れる。「韓語覚書」は17世紀後半の資料であるが、ここにまだ「ザ行音」として現れることから、「Δ」の消失は16世紀前半より遅くまで存在していたのではないかと考えられる。

中期朝鮮語に存在した子音「Δ」は、音素としては16世紀前半に消失したとされており、表記上では16世紀末までかろうじて維持されていたが、17世紀に入って完全に廃用されたものである。17世紀末以降の資料である「韓語覚書」において、なおもまだ「Δ」の音価を示すと見られる「ザ行音」のカナ表記が現れることから、後代においても、一部の語において「Δ」がその音価を維持する場合もあったのではないかと考えられる。

[表209] 「韓語覚書」の「Δ」

075	モヲミ	[모슬이]	088	ソング	[손소]
-----	-----	-------	-----	-----	------

[表210] 「捷解新語」の「Δ」

「捷解新語」巻1:01b	うちに御さらは	[우지니오사라마]
「捷解新語」巻1:25b	み加じきにとねきにまいて	[밍가시기니동녕기니마이때]

2. 6. 2 語頭複子音ㄱ-系、ㄴ-系

現代朝鮮語の語頭複子音(濃音)は、「ㄱ(gg)、ㄷ(dd)、ㄴ(bb)、ㅅ(ss)、ㅈ(jj)」のように、同じ子音二つを並書して現れるが、中期と近世朝鮮語の語頭複子音は、異なる子音を二つか三つを並書する。例えば、「b-」で始まる複子音(ㄱ-系)と「s-」で始まる複子音(ㄴ-系)がある。

中期と近世朝鮮語の語頭複子音をどのように発音されたかは、未だに議論されているが、以下のようにその意見は分けられる。

①ㄱ-系、ㄴ-系の語頭複子音が発音されたとみる意見、②ㄴ-系のみが発音されて

いるという意見(これはㄷ-系の例がないため)、③両方発音されず、ただㄷ-系とㄴ-系の次に来る子音が濃音であることを示す印であるという意見、④ㄷ-系は発音され、ㄴ-系は来る子音が濃音であることを示す印であるという意見がある。今の韓国では④が定説になっている。

以上のことについて、例をあげると以下のようなものである。

①ㄷ-系(発音有)⇒ 달(米): ピサル(寺島良安・和満三才圖會)

ヒサル(雨森芳洲・朝鮮物語)

ㄴ-系(発音有)⇒娑多 ㅅtha、史擔 ㅅtya(五大真言集)

(허웅1995:351)

②ㄴ-系(発音有)⇒ 013) スタリ(女子) ㅅdar

051) スコグ(雉子) ㅅgueq

(志部昭平1988:11、17)

③ㄷ-系(発音無)⇒ ps[全:72] フ*ソソヂラ

ss[全:99] フ*そろヂル

ㄴ-系(発音無)⇒ sk[全:27・32] スカイトラ

[全:61] スクム

(安田章1964:39)

④ㄷ-系(発音有)⇒ 니달(中世語)→입쌀(現代語)

조달(中世語)→좁쌀(現代語)

現代語に「ㄷ(b)」が残っている。

ㄴ-系(発音無)⇒ 15世紀初期文献「고스-(牽)」が「스스-」とも現れるので、

ㄴ-は「ㄱ(g)」が濃音(ㄱ(gg))であることを示す印。

(李基文1990:57、53)

「韓語覚書」の語頭複子音の例をみると、ㄷ-とㄴ-が発音されない形でカナ表記されているため、上記の③に当たるが、「韓語覚書」に現れる語頭複子音の例は少ないため、これで「ㄷ-」系と「ㄴ-」系を発音しなかったと判断するのは無理である。

[表211] 「韓語覚書」の「ㄷ-系」

ㅌ	003/075	トキラ/トチラ	[뽉이라]	077	トルル	[뽉을]
ㅌ	038	ソンシ	[손씨]			
ㅌ	084	タイ	[뽉]			

[表212] 「韓語覚書」の「ㄱ-系」

ㄱ	040	カイツチャ	[썩치아]	ㄱ	078	スアシャ	[쓰어서(씨서)]
---	-----	-------	-------	---	-----	------	-----------

이태희(2005:48)は、「ㄷ-系」子音の表記分布を通時的にみて、その音価の推移を考察したものであるが、「韓語覚書」に現れる‘ㅌ、ㅌ、ㅌ’の音価推移を表にまとめたのを以下にあげる。

첫째, 어두자음군 ‘ㅌ’의 음가 추이는 ‘/ㅌ/[pt]>/ㄷ/[t’]과 같이 18세기에 완료되었다고 생각한다.

(引用者訳)

第一、語頭子音群 ‘ㅌ’の音価の推移は‘/ㅌ/[pt]>/ㄷ/[t’]のように、18世紀に完了したと考えられる。

셋째, 그런데 ‘ㅌ’의 표기는 18세기 이후에까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17-18세기 이후까지 형태상으로는 ‘ㅌ’으로 표기되고 있지만 음가 추이는 일어났다. 즉 음가 추이는 ‘/ㅌ/[ps]>/ㅌ/[s’]와 같이 17-18세기에 완료된 것으로 본다.

(引用者訳)

第三、ところが、‘ㅌ’の表記は18世紀以降にまで変化が起こらなかった。それで17 - 18世紀以降まで、形態上は ‘ㅌ’に表記しているが、音価の推移は起こった。すなわち、音価の推移は ‘/ㅌ/[ps]>/ㅌ/[s’]のように17 - 18世紀に完了したと考えられる。

여섯째, ‘ㅌ’의 음가 추이는 ‘/ㅌ/[pt’]>/ㄷ/[t’]와 같이 15-16세기에 ‘/ㄷ/[t’]로 전환되기 시작하여 17세기까지 완료되어 ‘ㄷ’경음으로 편입되었다.

(引用者訳)

第六、‘ㅌ’の音価推移は‘/ㅌ/[pt’]>/ㄷ/[t’]’のように、15-16世紀に ‘/ㄷ/[t’]’に変わり始め、17世紀まで完了し ‘ㄷ’の濃音に編入した。

すなわち、이태희(2005)は、17世紀から18世紀にかけて「ㅃ-系」はすべて複子音としての音価を喪失したとの推定をおこなっている。それでは、「全一道人」と「朝鮮語訳」にはどのような傾向が見られるか。

岸田文隆(2009a)は、「全一道人」と「朝鮮語訳」に現れる語頭複子音のカナ表記について考察し、「ㅃ-系」と「ㅆ-系」が文字通りに発音されたことを主張し、表にまとめた([表213])。その中で目につくもののみを以下に挙げる。

[表213] 「全一道人」と「朝鮮語訳」の「ㅃ-、ㅆ-系」のカナ表記の分布

「全一道人」のカナ表記の分布				
複子音別	ㅃ系	ㅆ系	なし	合計
ㅃㄴ(bs)	35	1	0	36
ㅆㄴ(sg)	0	10	1	11
ㅃㄷ(sd)	0	34	4	38
ㅆㄷ(sb)	0	5	2	7
「朝鮮語訳」のカナ表記の分布				
ㅃㄷ(bd)	0	3	1	4
-ㅃㄴ(bs)	0	0	6	6
ㅆㄴ(sg)	0	2	2	4
ㅃㄷ(sd)	0	9	1	10

(岸田文隆2009a:23 - 24)

「韓語覚書」に現れる「ㅃ-系」と「ㅆ-系」は発音はしていないが、「韓語覚書」と成立年代が近い「全一道人」と「朝鮮語訳」には「ㅃ-系」と「ㅆ-系」をカナ表記していることから、当時は発音する場合としない場合が共存していたと考えられる。

2. 7 まとめ

本節では、「韓語覚書」の子音について考察し「全一道人」、「朝鮮語訳」の比較しながら考察を試みた。本資料の子音の朝鮮語カナ表記は、「全一道人」、「朝鮮語訳」とほとんど同様の傾向を示し、「全一道人」、「朝鮮語訳」と同時期の朝鮮語の音韻・音声を反映した資料として、位置づけられると言える。その中でも「韓語覚書」に目につく特徴は以下のようなものである。

(1)日本語濁音の鼻音性の喪失過程：朝鮮語の「ㄱ」をカナ表記する場合、「ガ行音」が当てられるのは、鼻音が前接する場合に限られるが、朝鮮語の「ㄷ」をカナ表記する場合は、鼻音が前接しない場合においても「ダ行音」が当てられた例がある。これ

は日本語の濁音の歴史的変遷過程と関連があるものと見られる。

安田章(1973:299-302)は、「捷解新語」における「ガ行音」と「ダ行音」に対するハングル音注の違いに基づき、日本語濁音の鼻音的要素の喪失は「ガ行音」よりも「ダ行音」において先に起こったとの推論を提示している。「韓語覚書」にみられる「ㄱ」と「ㄷ」に対するカナ表記の如上の違いは、「捷解新語」に見られる現象と軌を一にするものであり、当時の日本語濁音において、「ガ行音」が未だ鼻音性をほぼ保持していたのに対し、「ダ行音」は徐々に喪失していく過程にあったことを示すものと考えられる。

(2)口蓋音化の過剰訂正：「韓語覚書」に現れる「뽀이라」は、ㄷ(d)口蓋音化が起こった形態の「뽀지라」(トチラ)のみではなく、「トギラ」と「トキラ」にも現れている。これは、「뽀이라」が「ㄷ(d)」口蓋音化の現象が起こった「뽀지라」を元の音に戻そうとしたが、「ス」の元の音である「ㄷ」に戻さずに、「ス」がㄱ(g)口蓋音化が起こったものと誤解し、ㄱ(g)口蓋音化(ㄱ→ス)の方に戻しす“過剰訂正”が起こったのである。これは韓国の東南地方で現れる音声的な特徴である。

(3)語頭初声の「ㄴ」・「ㄹ」のoffglide現象：語頭初声の「ㄴ」に「ダ行音」が当てられた例と語頭初声の「ㄹ」に「バ行音」が当てられる例が現れる。これは、朝鮮語の鼻音の「ㄴ」と「ㄹ」が異音として出わたりoffglideの破裂音[^hd]と[^hb]をとまなう場合があることと関連しているものと見られる。

第6章 結論

本論文では、近世期の日本語と朝鮮語の対訳資料、とくに江戸から明治にかけて日朝両国において最も広く用いられた資料のひとつである「隣語大方」について、文献学的考証と言語学的分析をおこなった。

従来検討が不十分であった「隣語大方」の所拠資料のひとつ「韓牘集要」をとりあげ、歴史記録類との照合を通じて、所収書簡の成立年や発信者・受信者等の考証、「隣語大方」の各文例との関係等について考察した。

つぎに、「隣語大方」の言語学的分析として、人称代名詞、とくに一・二人称代名詞をとりあげ、文末語尾の丁寧度との対応の観点から分析を試みた。

また、以上の「隣語大方」に対する研究の補編として、近世期に日本で成立した朝鮮語学書のひとつ「韓語覚書」をとりあげ、文献学的考証と言語学的分析をおこなった。

第2章では、近世期におこなわれた日本語および朝鮮語の対訳資料、とくに日本において成立した朝鮮語学書について概観した。

「苗代川本」の中で、朝鮮語本文と日本語対訳をもつ「交隣須知」、「隣語大方」、「漂民対話」、「韓語訓蒙」、「講話」、「対談秘密手鑑」、「和語類解」、日本語本文と朝鮮語対訳をもつ「和韓問答」、朝鮮語本文のみをもつ「韓牘集要」、「惜陰談」、「崔忠伝」、また朝鮮語本文と日本語対訳、朝鮮語本文のみをもつ「淑香伝」、そして対馬島伝来の「全一道人」、「朝鮮語訳」、「韓語覚書」、「物名」の書誌的事項と先行研究について述べた。

第3章では、近世期に日朝両国において最も広く用いられた語学書のひとつである「隣語大方」について、その所拠資料たる「韓牘集要」との照合を通じて、文献学的考証をおこなった。

まず、「韓牘集要」について、歴史記録類との照合を通じて、所収書簡の成立年や発信者等の考証を実施した。すなわち、「韓牘集要」の文例にあらわれる「対馬島失火」「天銀事」等の事件や「敏甫」「子淳」等の人物名を手掛かりに、その文例の成立年等を明らかにした。つぎに、「隣語大方」と「韓牘集要」の文例を逐一照合し、すべての対応例を明示し、「隣語大方」巻4（朝鮮刊本）の文例のほとんどが「韓牘集要」に由来するものであることを指摘した。本論文の検討・考察により、従来未解

決であった「韓牘集要」の文例の成立過程が解明され、「隣語大方」の文例の歴史的淵源の一部が具体的に明らかになったと信じられる。

第4章では、近世期に成立した日朝対訳資料のひとつである「隣語大方」を対象として、日本語および朝鮮語の人称代名詞の使われ方を、文末語尾の丁寧度との対応の観点から分析した。

従来、近世期の日朝対訳資料に基づいた人称代名詞の研究は、もっぱら朝鮮の倭学訳官と日本人との対話を内容とする「捷解新語」を対象としておこなわれてきたが、その他の諸資料についても順次検討を加えていく必要がある。本章ではその一環として「隣語大方」をとりあげ、資料の性格の違いによって、従来とは異なった方法で分析した。すなわち、「捷解新語」はストーリーを持つ連続した対話から成っているために、対話の場面や話し手・聞き手を容易に推測できる。よって、従来の研究は、該書のストーリーから特定される話し手・聞き手との関連から人称代名詞の分析をおこなってきた。しかしながら、「隣語大方」は断片的な文例を無秩序に羅列したものでストーリーがないため、それぞれの文例が、だれがだれにどのような場面で言った言葉なのか、特定できないことが多い。よって、本章では、話し手・聞き手との関連から人称代名詞を考察することを断念し、テキストの他の部分、すなわち、文末語尾の丁寧度との関連に着目して分析を試みた。日本語・朝鮮語ともに、人称代名詞と文末語尾の丁寧度との間に相関関係が観察されるが、日本語に比して朝鮮語の人称代名詞の各語はカバーする文末語尾の丁寧度が広いことを報告した。

以下、「隣語大方」に現れる人称代名詞を文末語尾の丁寧度との関連から分析した結果である。

(1)朝鮮語の一人称代名詞の複数である「우리」は、①ㄱ(음)ㅅㅌ체、②ㄱ음ㅅㅌ類、ㄱ음類、④ㄱ여라体にわたり現れ、「우리들」は、①ㄱ(음)ㅅㅌ체、②ㄱ음ㅅㅌ類、ㄱ음類に現れる。それにより、複数の「우리」は、丁寧からぞんざいな文末語尾にわたり現れ、使用範囲が広いことが分かるが、「우리들」は、丁寧な文末語尾としてのみ現れ、「우리」より丁寧さが高いとも考えられるが、ぞんざいな文末語尾がほとんど現れない「隣語大方」の資料上の制約による可能性もあるため、さらなる調査・考察が必要である。

(2)「明治刊本」には「其元、其元様」が「アナタ」に交替されたため、「アナタ」の使用が増えたが、これから具体的に「アナタ」の役割がどのように変わったかを考察

する必要がある。

(3)日本語に比して、朝鮮語の一・二人称代名詞の各語はカバーする文末語尾の丁寧度が広い。日本語の一・二人称代名詞は、朝鮮語の一・二人称代名詞より、その種類が多様であることが特徴である。

第5章では、対馬歴史民俗資料館に所蔵される『信使并譯官聘問之次第（仮題）』の附「韓語覚書」の母音と子音の朝鮮語カナ表記について調査・考察をおこなった。

一体カナで表記された朝鮮語の資料は、ハングルで表記された本国資料からは窺い知れない音声・音韻的情報を伝えることがあり、従来から「全一道人」、「朝鮮語訳」などの朝鮮語カナ表記資料が朝鮮語および日本語の音韻史資料として利用されてきた。ここにとりあげる「韓語覚書」もそれらの既存資料に匹敵する資料的価値を有するものと予想されるが、本章では、母音と子音部分の転写システムについて、カナ表記とハングル表記復元形とを対照しつつ検討した。なお、必要に応じて適宜、既存の朝鮮語カナ表記資料とも比較した。そして、本書が、既存の朝鮮語カナ表記資料とおおむねは類似した傾向を示す一方で、子音の部分では「ㄷ(d)」口蓋音化を過剰訂正した特異な例も散見され、朝鮮語東南方言の特徴を顕著に示す独自性も有することなどを主張した。

まず、「韓語覚書」の朝鮮語カナ表記の母音について考察した。考察が不十分であるが、特徴をまとめると以下のようなものである。まず、単母音については、以下の点が指摘できる。

(1)第一音節の「ゝ」の非音韻化の過程： 「韓語覚書」の第一音節「ゝ」は、「高麗詞之事」、「全一道人」、「朝鮮語訳」とおおむね、同じ傾向を示し、非音韻化の過程を反映している。一方、これら資料よりも後代に成立したと見られる「物名」に比すれば、「韓語覚書」はより古い状態を反映していると言える。

(2)「ㅏ(a)」と「ㅜ(u)」を表すカナの後ろに「ヲ」を付けた表記は、中期語の声調の上声あるいは長音を表すものと見られる。しかし、上声に由来しない単語も長音化している例もある。この長音表記は、「全一道人」にも同じ形態が見られるが、「朝鮮語訳」には見られない。

(3)「ㅏ(a)」が、第2音節以下で陽母音（低舌母音）に傾いた傾向が見られる(例：

「ㅈ」がア段のカナに対応するもの)。「全一道人」、「朝鮮語訳」も同じ傾向が見られる。

次に、上向二重母音については、以下のごとく、単母音化が進みつつある兆候が観察される。

(4)「ㅈ(yə)」と「ㅉ(yəi)」は、語頭・非語頭音節で、おおむね、エ段のカナが当てられた。これは「ㅈ」が前舌化し、[ə]が[e]に変化したことを示すものと見られ、二重母音の単母音化がある程度進んだと考えられる。「全一道人」、「朝鮮語訳」も同じく、「ㅈ」と「ㅉ」の単母音化が進んでいる。

一方、下向二重母音については、まだ、単母音化が起こっていない状態が観察されるが、後続子音との関係において、次の特徴的現象が指摘できる。

(5)「韓語覚書」、「全一道人」、「朝鮮語訳」で、二重母音「ㅊ(ei)」の後ろに終声の「ㄱ(g)」や「ㅇ(ŋ)」がくると、「ㅊ」(i)が脱落する現象が同じく観察される。

つぎに、「韓語覚書」の子音も「全一道人」、「朝鮮語訳」と比較しながら考察を試みた。その中でも「韓語覚書」に目につく特徴は以下のものである。

(1)日本語濁音の鼻音性の喪失過程：朝鮮語の「ㄱ」をカナ表記する場合、「ガ行音」が当てられるのは、鼻音が前接する場合に限られるが、朝鮮語の「ㄷ」をカナ表記する場合は、鼻音が前接しない場合においても「ダ行音」が当てられた例がある。これは日本語の濁音の歴史的変遷過程と関連があるものと見られる。

安田章(1973:299-302)は、「捷解新語」における「ガ行音」と「ダ行音」に対するハングル音注の違いに基づき、日本語濁音の鼻音的要素の喪失は「ガ行音」よりも「ダ行音」において先に起こったとの推論を提示している。「韓語覚書」にみられる「ㄱ」と「ㄷ」に対するカナ表記の如上の違いは、「捷解新語」に見られる現象と軌を一にするものであり、当時の日本語濁音において、「ガ行音」が未だ鼻音性をほぼ保持していたのに対し、「ダ行音」は徐々に喪失していく過程にあったことを示すものと考えられる。

(2)口蓋音化の過剰訂正：「韓語覚書」に現れる「뽀이라」は、ㄷ(d)口蓋音化が起こっ

た形態の「쁘지라」(トチラ)のみではなく、「トギラ」と「トキラ」にも現れている。これは、「쁘이라」が「ㄷ(d)」口蓋音化の現象が起こった「쁘지라」を元の音に戻そうとしたが、「ㅍ」の元の音である「ㄷ」に戻さずに、「ㅍ」がㄱ(g)口蓋音化が起こったものと誤解し、ㄱ(g)口蓋音化(ㄱ→ㅍ)の方に戻しす“過剰訂正”が起こったのである。これは韓国の東南地方で現れる音声的な特徴である。

(3)語頭初声の「ㄴ」・「ㄹ」のoffglide現象：語頭初声の「ㄴ」に「ダ行音」が当てられた例と語頭初声の「ㄹ」に「バ行音」が当てられる例が現れる。これは、朝鮮語の鼻音の「ㄴ」と「ㄹ」が異音として出わたりoffglideの破裂音^[n]dと^[m]bをとともなう場合があることと関連しているものと見られる。

以上を要するに、本資料の朝鮮語カナ表記の母音と子音は、「全一道人」、「朝鮮語訳」とほぼ同時期の朝鮮語の音韻・音声を反映した資料として、位置づけられると言える。「韓語覚書」の母音と子音の朝鮮語カナ表記は、ハングルによる本国資料からはうかがい知れないその当時(元禄9年(1696年)ころ)の朝鮮語の音声・音韻についての情報を提供するものと期待される。

如上の本論文の考察により、「隣語大方」の言語資料的価値を一層明らかにするとともに、新資料「韓語覚書」を学界に紹介することにより、近世期日朝対訳資料の研究にわずかながらも一歩を進めることができたと考える。

参考文献

【日本語文献】

- 大武進(1996) 『薩摩苗代川新考』、川内：(株)村尾印刷
- 小倉進平(1940) 『増訂朝鮮語学史』、東京：刀江書院
- _____ (1964) 『増訂補注朝鮮語学史』、東京：刀江書院
- _____ (1966) 「「交隣須知」に就いて」、『交隣須知』、京都大学文学部国語学
国文学研究室編、pp. 3-20、京都：京都大学国文学会
- 金沢庄三郎(1911) 『朝鮮書籍目録』、出版社不明
- _____ (1933) 『濯足庵蔵書六十一種』、東京：金沢博士還暦祝賀会
- 韓美卿(1994) 「『捷解新語』における敬語研究」、東北大学博士論文
- 岸田文隆(1997) 「『漂民対話』のアストン文庫本について」、『朝鮮学報』第164
輯、pp. 33-53、天理：朝鮮学会
- _____ (1998a) 「アストン旧蔵の「交隣須知」関係資料について」、『朝鮮学報』
第167輯、pp. 1-39、天理：朝鮮学会
- _____ (1998b) 「W. G. Aston旧蔵江戸期・明治初期朝鮮語学書写本類에 대하여」、
『제 5차 조선학 국제학술 토론회 논문집』Vol. 2(歴史)、pp. 101-124、大
阪/北京：国際高麗学会
- _____ (2000) 「アストン旧蔵江戸期・明治初期朝鮮語学書写本類調査報告」、『青
丘学術論集』第17集、pp. 143-167、財団法人韓国文化研究振興財団
- _____ (2002) 「「漂民対話」の朝鮮語—その虚構的側面—」、『京都大学言語学
研究』第21号、pp. 109-145、京都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言語学研究室
- _____ (2004) 「「표민대화(漂民対話)」해제(解題)」、『Approaches to
Eurasian Linguistic Areas』vol. 7、pp. 123-183、神戸：神戸市看護大学
- _____ (2005) 「「交隣須知」の系統を考える」、朝鮮語史研究会、会議報告/口頭
発表
- _____ (2006a) 「対馬及び薩摩苗代川に於ける韓国語教育—新資料の発見と成立論
の新展開—」、第3回日韓人文社会科学学術会議、pp. 116-136、日本麗澤大
学・韓国ミレニアム研究院共催
- _____ (2006b) 「早稲田大学服部文庫所蔵の「朝鮮語訳」について—「隣語大方」
との比較—」、『朝鮮学報』第199・200輯、pp. 1-35、天理：朝鮮学会

- _____ (2008) 「早稲田大学服部文庫所蔵『朝鮮語訳』の朝鮮語かな表記について(その1:子音について)」、『*Dynamics in Eurasian Languages*』、pp. 71-102、神戸:神戸市看護大学
- _____ (2009a) 「早稲田大学服部文庫所蔵「朝鮮語訳」について-文献学的考証と言語資料的価値-」、京都大学言語学懇話会第81回例会, 2009年12月, 会議報告/口頭発表
- _____ (2009b) 「『隣語大方』の淵源:『朝鮮語訳』と『韓讀集要』」、第1回譯學書學會創立總會 및 學術會議、pp. 72-84、又石大校
- _____ (2009c) 「語学書と歴史記録—早稲田大学服部文庫所蔵「朝鮮語訳」と対馬宗家文書との照合—」、『朝鮮半島のことばと社会—油谷幸利先生還暦記念論文集』、pp. 236-268、東京:明石書店
- _____ (2010a) 「「朝鮮語訳」の朝鮮語かな表記について(その2:母音について)」、『譯學書 研究의 現況과 課題』、pp. 98-115、第2回譯學書學會國際學術會議発表文
- _____ (2010b) 「朝・日語学書「隣語大方」の淵源」、李東哲編『日本語言文化研究』、pp. 65-72、延辺大学出版社
- _____ (2011) 「朝鮮語対話書「惜陰談」・「和韓問答」と戸田頼母「贅言試集」」、第2回中日韓朝言語文化比較研究國際シンポジウム(延辺大学)、國際會議
- 金周弼・岸田文隆訳(2016) 「近代韓国語の‘t>ʃ’変化を通じてみた音韻変化の機制—規則性仮説と語彙拡散仮説の問題点と代案を中心に—」、『朝鮮学報』第239輯、pp. 1-46、天理:朝鮮学会
- 金文姫(2017a) 「「韓語覚書」の朝鮮語かな表記について—母音について—」、『日本語文學』第73輯、pp. 3-29、韓国日本語文學會
- _____ (2017b) 「「韓語覚書」の朝鮮語かな表記について—子音について—」、『大阪学院大学外国語論集』第73号、pp. 23-47、大阪学院大学外国語学会
- 許秀美(2016) 「朝鮮語学書と歴史資料—『講話』を中心に—」、『日本語言文化研究』第四輯、pp. 144-157、延吉:延辺大学出版社
- 河野六郎(1955) 『研究社世界言語概説』、市河三喜・服部四朗編、pp. 357-439、東京:研究社出版株式会社
- 斎藤明美(2001) 『『交隣須知』의 系譜와 言語』、서울:J&C
- _____ (2002) 『『交隣須知』の日本語』、東京:至文堂
- 志部昭平(1988) 「陰徳記 高麗詞之事について-文禄慶長の役における仮名書き朝鮮

- 語資料-」、『朝鮮学報』、第128輯、pp. 1-102、天理：朝鮮学会
- 申忠均(2000) 「『隣語大方』の假定条件表現—朝鮮資料の流れから—」、『日本語文學』9、pp. 53-81、韓国日本語文學會
- 成嘯慶(1991) 「『倭語類解』の刊本と写本の体裁比較—苗代川写本『和語類解』の原本復元の試みから—」、『東北大学文学部日本語学科論集』第1号、pp. 92-106、東北大学文学部日本語学科
- 田阪正則(2009) 「『崔忠伝』韓日対訳本について」、『日語日文學研究』第71輯、pp. 95-112、한국어어일문학회
- 田代和生(2007) 『日朝交易と対馬藩』、東京：創文社
- 陳南澤(2003) 『朝鮮資料による日本語と韓国語の音韻史研究』、東京大学博士論文
- 鶴園裕(1995) 「沈寿官家本『漂民対話』について」、『朝鮮学報』第156輯、pp. 97-128、天理：朝鮮学会
- 鄭 光(1990) 『薩摩苗代川伝来の朝鮮歌謡』、京都：中村印刷株式会社
- 土井忠生訳(1955) J. ロドリゲス 『日本大文典』、東京：三省堂
- 信原修(2008) 『雨森芳洲と玄徳潤—朝鮮通信使に息づく「誠信の交わり」—』、東京：明石書店
- 濱田敦(1958) 「倭語類解解説」、『倭語類解』京都大学文学部国語学国文学研究室編、pp. 1-8、京都：京都大学国文学会
- _____ (1966) 「薩摩苗代川に伝えられた交隣須知について」、『交隣須知』京都大学文学部国語学国文学研究室編、pp. 21-55、京都：京都大学国文学会
- _____ (1969) 「敬語」、『国語国文』38(7)、pp. 1-27、京都大学文学部国語学国文学研究室
- _____ (1970) 『朝鮮資料による日本語研究』、東京：岩波書店
- 朴真完(2015) 「苗代川本『対談秘密手鑑』の研究：薩摩藩朝鮮通事の言語学習をめぐって(木田章義教授退職記念特輯(第2))」、『国語国文』85(5)、pp. 423-395、京都大学文学部国語学国文学研究室
- 福島邦道(1969) 「朝鮮語学習書による国語史研究」、『国語学』76、pp. 47-58、国語学会
- 藤井茂利(1989) 「薩摩美山に伝わった朝鮮語資料の一性格—『韓語訓蒙』の表記法をめぐって—」、『奥村三雄教授退官記念 国語学論叢』、pp. 470-495、東京：(株)桜楓社
- 片茂鎮(1986) 「『倭語類解』と『交隣須知』の相互交渉について—原『交隣須知』復元への試みから—」、『岡山国文論稿』(14)、pp. 22-33、岡山大学言語国

語国文学会

- 편무진·유춘희(2001) 「『淑香傳』の日本語について」、『한국일본어문학회 학술 발표대회논문집』、pp. 81-84、한국일본어문학회
- 箕輪吉次(2011a) 「早稲田大学本『朝鮮語訳 小説 三』「崔孤雲伝」(上):翻字、及び、諸本との主たる校異(稿)」、『일본학논집』 26、pp. 112-173、경희대학교 일본학연구원
- _____ (2011b) 「早稲田大学本『朝鮮語訳 小説 三』「崔孤雲伝」(下):翻字、及び、諸本との主たる校異 (稿)」、『일본학논집』 27、pp. 82-163、경희대학교 일본학연구원
- 安田章(1963) 「隣語大方解題」、『隣語大方』京都大学文学部国語学国文学研究室編、pp. 1-42、京都：京都大学国文学会
- _____ (1964) 『全一道人の研究』、京都：京都大学国文学
- _____ (1966) 「苗代川の朝鮮語写本類について-朝鮮資料との関連を中心に-」、『朝鮮学報』 39/40、pp. 210-237、天理：朝鮮学会
- _____ (1973) 「重刊改修捷解新語解題」、京都大学文学部国語学国文学研究室編『三本対照捷解新語 积文・索引・解題編』、京都：京都大学文学学会(初出は、京都大学国文学会発行『重刊改修捷解新語』(1960))
- 山崎久之(1963) 『国語待遇表現体系の研究』、東京：武蔵野書店
- 山本進(2013) 「朝鮮後期の銀品位」、『北九州市立大学外国語学部紀要』(135)、pp. 25-50、北九州：北九州市立大学外国語学部
- 유춘희(2002) 「『淑香傳』の日本語について」、『日本語文學』 13、pp. 229-249、韓国日本語文學會
- 李康民(1993) 「影印『物名』資料並びに解題」、『朝鮮学報』第148輯、pp. 147-217、天理：朝鮮学会
- _____ (1994) 『朝鮮資料による日本語の史的研究』、京都大学博士論文

【韓国語文献】

- 김미형(2001) 「국어대명사의 어휘사」、『한국어 의미학』 9、pp. 1-48、한국어 의미학회
- 김영신(1981) 「「표민 대화」(漂民對話)연구」、『어문학교육』 4、pp. 15-53、한국어문교육학회
- 김주필(2015) 『구개음화의 통시성과 역동성』、태학사

- 南權熙(1983) 「奎章閣 西庫와 그 書目分析」、『奎章閣』7、pp.127-185、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규장각)
- 문경호(2015) 「『漂民對話』의 사료적 가치와 표류선의 구조」、『도서문화』46、pp.81-117、국립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 민병찬(2003) 「『全一道人』에 있어서의 「-꺠」의 仮名 転写에 대한 考察」、『日本學報』57、pp.109-122、한국일본학회
- 박근웅(2011) 「漂民對話의 조선학적 고찰(漂流船舶의 船型 推定)」、『대한조선학회 논문집』48(1)、pp.67-75、대한조선학회
- 박진완(2010) 「『朝鮮語譯』의 모음 표기 고찰」、『한국어학』48、pp.131-155、한국어학회
- _____ (2011) 「나에시로가와본(苗代川本)『석음담(惜陰談)』에 대하여—조선어 학습서로서의 성격을 중심으로」、pp.121-148、『한국어학』52、한국어학회
- 宋 敏(1986) 『前期近代国語 音韻論 研究』、서울:塔出版社
- 신충균(2005) 「筑波大本 『隣語大方』의 特殊 記號」、『日本語文學』27、pp.33-52、韓国日本語文學會
- _____ (2006) 「明治刊本 『隣語大方』의 韓國語」、『日本語文學』31、pp.129-149、韓国日本語文學會
- _____ (2010) 「아스톤본 『隣語大方』의 漢字語 對譯」、『日本語文學』47、pp.101-120、韓国日本語文學會
- _____ (2012) 「아스톤본 『隣語大方』의 特異 漢字 表記語 考察—韓·中·日 言語史資料의 檢討를 通하여—」、『日本研究』제17집、pp.117-140、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 _____ (2016) 「朝鮮時代 日本語 學習書의 條件表現」、『日本語文學』69、pp.21-41、韓国日本語文學會
- 李康民(1996) 「朝鮮資料의 一系譜—苗代川本の 背景—」、『일본학보』(36)、pp.89-114、한국일본학회
- _____ (1999) 「言語資料로서의 『韓語訓蒙』」、『日本學報』第43輯、pp.123-137、한국일본학회
- _____ (2005) 「19세기 일본의 한국어 학습서」、『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학술대회』、pp.265-271、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 李基文(1990) 『国語音韻史研究』、서울:塔出版社

- _____ (1998) 『新訂版 国語史概説』、과주 : 대학사
- 李崇寧(1949) 「古語의 音韻과 文法」、『歴代韓國文法体系』第1部 第42冊、서울 : 塔出版社
- 이태희(2005) 「합용병서 ‘ㅆ’ 계에 대한 음운사적 연구」、『언어연구』 제22권 제1호、pp. 35-50、서울 : 경희대학교 언어연구소
- 정병설(2005) 「18·19세기 일본인의 조선소설 공부와 조선관—〈최충전〉과 〈임경업전〉을 중심으로—」、『한국문화』 35、pp. 27-55、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한국문화)
- 鄭丞惠(2003) 『조선후기 왜학서 연구』、서울 : 대학사
- _____ (2009) 「『隣語大方』 朝鮮刊本の 成立과 撰者에 대하여—奎章閣 韓國本 書目『西庫書目』에 據하여—」、『국어사연구』 제9호、pp. 239-268、국어사학회
- 曹喜雄·松原孝俊(1997) 「『숙향전(淑香傳)』 형성연대 재고 -일본측 자료를 중심으로」、『고전문학연구』 12권0호、pp. 115-151、한국고전문학회
- 진태하(1973) 「『표민대화』」、『한글』 (151)、pp. 227-237、한글학회
- 최창완(2004) 『『交隣須知』와 敬語』、경북 : 대구대학교출판부
- 최현배(1971) 『고친 한글갈』、서울 : 정음사
- 片茂鎮(2005) 『『交隣須知』의 基礎的研究』、서울 : 제이앤씨
- 片茂鎮·岸田文隆(2005) 『『交隣須知』 異本叢書 3 【解題·本文·索引·原文】』、서울 : 흥문각
- 허 옹(1995) 『국어 음운학』、서울 : 샘문화사
- 허인영(2014) 『『全一道人』의 한국어 복원과 음운론적 연구』、고려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_____ (2015a) 「『全一道人』 가나 전사의 교정에 대하여」、『민족문화연구』 67호、pp. 167-214、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 _____ (2015b) 「『全一道人』과 『朝鮮語訳』의 한글 표기에 대하여」、『한국어학』 69、pp. 395-426、한국어학회
- 홍사만(2010) 「『隣語大方』의 부사 연구(1)—정도 부사를 중심으로—」、『국학연구론총』 제5집、pp. 33-63、택민국학연구원
- 黃文煥(2012) 「『漂民對話』의 相對敬語法에 對하여」、『譯學과 譯學書』 第3號、pp. 129-153、譯學書學會

【辭書】

국립국어연구원(1999) 『표준국어대사전』、서울 : (주)두산동아
崔鶴根(1990) 『增補韓國方言辭典』、서울 : 明文堂
南廣祐(2013) 『教學古語辭典』、서울 : (주)교학사

【資料編】

【資料編①】韓續集要

翻刻凡例：

1. 原資料には分かち書きが施されていないが、読解の便のため、現行正書法による分かち書きを施した。
2. 虫損等によって判読不能の部分は、「■」で示した。
3. 虫損等によって判読に疑いの存するものは、[]内に示した。
4. あとから加筆された部分は、〈 〉内に示した。
5. 塗抹してあるものには、下線を引いた。
6. 塗抹部分に対して加えられた修正部分は、塗抹を示す下線の直後に挿入した()内に示した。
7. 誤記と思われるものには、×印を付し、正しい表記と考えられるものを[]内に○印の後に示した。
8. 踊り字は「ㄱ」で示した。
9. 漢字の読み方などを当該単語の右側や左側に付してあるものは、{ }内に示した。

/ 1 : a/
韓牘集要

【第1通】

<두어날 스이> 僉公 平安{첨공평안} 하신 문안 덕스오며 僕은 오늘 開市에 ㄴ려가
려 하오되 使道겨옵셔 病患{병환}이 겨옵시기로 못 ㄴ려가오[니] 섭〃 하여이다, 오
날 鐵物을 내고져 하시던 거시라 人馬를 下送하오니, 아모카나, 모다, 議論하시고
더기 이득이, 주시물 밋줍너이다. 요스이는 凡{범}出物을 被執有無{피집유
무}로 하련노라 하시니, 奇別하기의 잇지 아니 하오려니와, 至於僕{시오복} 하여는,
被執多小도 生覺하시려니와, 卽今 貨鐵{못철}을 當흔 사름이오매, 짐작 하실 듯
시브옵고 아마도 납을 多少間 잇는대로 生覺(光{[광]}) 하시믈, 전혀 밋줍, 緣故이
셔 못 ㄴ려 가오니, 이리 덕스오니, 必{브딛}, 此스연 一代官씨, 즈시 하시고, 잘
하여 주시믈 브라오며, 二代官■

/ 1 : b/

시던 貢緞{공단}이, 東萊는 [업]스오매, 京{서울} 기별 하려 하[옵], 무슴
식이 돛스올지, 아라주심 밋줍너이다, 연고이라 하여, 못 가오니, 허믈 마
르쇼셔.

【和訳】

韓牘集要

<数日の間>皆様、お元気でいらっしゃるのでしょうか、お伺いのお手紙をしたためま
す。私は今日開市に下っていこうと思ったのですが、使道（東萊府使）様がお病気が
おありなので、下っていくことができず、残念です。今日鉄物を出そうとおっしゃっ
ておられたので、人馬を下送しますので、なにとぞ、皆議論なさって、少し利益を
（ほどこして）下さることを願います。最近は、全ての出物を売込みの有無によっ
ておこなうとおっしゃるので、お便りするまでもないでしょうが、私に至っては、売込
みの多寡もお考えになるでしょうが、只今、鉄の貿易を担当している者ですので、お
察しなさるかとお存じますし、おそらく鑑（ろう）を多少にかかわらずありったけ御高
配くださることを専ら信じております。事情があつて、下っていくことができません
ので、このようにお便りしますので、必ずこの事情を一代官に詳しくおっしゃって、
よろしくして下さいることを願います。二代官がおっしゃっておられた貢緞（^{しゆす}繻子）が
東萊にはないので、ソウルに便りを送ろうと思います。何の色がよろしいでしょう
か、お教えてくださいようお願いいたします。事情のために行けませんので、悪く
思わないでください。

【第2通】

數日스이

平安호오신, 문안 아읍고져 호오며, 僕은 년호여, 調病{도[병]} 호읍노라, 東萊 잇습더니, 오늘 느려 왔스오매, 문안이나 아읍고져 호는이다, 아모개[이] 게셔 公게 走紗{주사 / チリメンノコト} 五疋 왔스오니, 下人 보내옵서 가져 가읍, 僉中의 八疋 왔스오니, 來日 開市에 入送호리이다, 아모가이 便紙 보내오니, 보쇼셔, 거번 入執{우리콤} 白絲는, 僕이 마[춤] 병이 낫지 못 호 읍기로, 외오셔, 公만 밋줍고 편지호고 호엿습더니, 稱量{チルリヤク/ 칭량} 斤數도, 참혹 호읍[고] 中으[로도] 만히 잡히오니, 主{님}자 업슨 것 <須知ニ 논박■ 참혹■{ムゴフ■ラレタ} ト云アリ>1)

/2 : a/

고견호읍기는 공[넉]나 僕이나 [어이] 다료오리잇[가]마는 마이〳업는이다, 來日 기시[의], 追後{츄후}로 白絲八稱, 人蔘二十斤 드러 오을거시니, 公이 極力호시물 千萬 밋줍는이다, 종놈이 白絲 잇고{ヲ〳テ}, 와셔, 그져 가도 못 호고, 하 민망호오니, 陳皮五六稱 어더 주시면, 走, 方, 間 갑슨 入送호리이다, 두로{히로우} 救호여, 주읍심 밋는이다,

【和訳】

数日の間

お元気でいらっしゃるでしょうか、お伺い申し上げます。私は引き続き病気を治療するために東萊にりましたが、今日下って来ましたので、ご機嫌伺いでもいたたく存じます。某より御貴殿様へ走紗(ちりめん)五疋が届きましたので、下人をお送りくださり、持って行ってください。皆様方には八疋が届きましたので、明日開市に入送いたします。某が手紙を送ってきましたので、御覧になってください。この前の売り込みの白糸は、私がちょうど病気が治っておりませんでしたので、遠くから、御貴殿様のみを信じお便りをしておこなったのですが、称量の斤数もさんざんでしたし、見立てが中になったものも多かったので、持ち主がないのを

<須知ニ 논박■ 참혹■{ムゴフ■ラレタ} ト云アリ>

おもんばかりことは、御貴殿も私もなにも違わないはずですのに、困っております。明日開市に後ほど白糸八称・人蔘二十斤を入れてきますので、御貴殿が力をお尽くくださることをなにとぞお願いいたします。下人が白糸を載せてきて、そのまま(手ぶらで)帰ることもできず、とても困りますので、陳皮五、六称を求めてくだされば、走紗(ちりめん)なりとも方紬(もんなし)なりともともかく代価は入送します。広く求めてくださることをお願いいたします。

1) 「交隣須知」京大本巻4に、

論駁：논박은 참혹히 마옵소.

セメツケルコトヲ ムゴフ サシヤレマヌナ

とあり。

【第3通】

요스이 風日이 不好호오나

兪{첨}萬珍호신 問安 아옵고져 호오며, 구스이는, 연고가 만하, 오래 기시의도, 못 느려 가오니, 섭〃호을 썬 아니라, [僕]은, 그 齒痛{치통}이 낫지, 못 호은디, 傷寒을 重히 호여, 卽今 差{즈}道에 드러시되, 아직, 出入을 못 호기로, 더[적] [代]

/ 2 : b/

官씩, 수이 느려와²⁾ 뇌리[라] 언약{言約}호옵고, 至今 못 ■ 더욱 섭〃호오며, 一代官겨서, 大差使所求라 호[시]고, 白宮紬一疋, 서울 밧비 기별호여 어더 오라 호신, 便(片)紙를, 十三日호여 겨신디, 오늘이언(야) 傳호오매, 즈시 바닷스오나, 누고호여 傳게 호엿습던지, 그런 無形호은 일이 업스오며, 白宮紬란 비단이, 서울은, 응당, 엇기 쉽지 못흔 거시니, 넘너호오며, 出銀開市日, 赴{부}京의, 求호실 것들도 덕어 보내마 호시더니, 至今 덕어 보내시는 일 업스오니, 그도 此片紙쳐로, 中間浮沈이 되여, 기별지 못 호은 일이 되온지, 아옵고져 호오며, 또 數日前의, 鑄{추}錢次 鐵物과, 납을, 爲先 多少間 더욱 急히 직촉하여 겨오시니, 거번 내려 호시던

/ 3 : a/

生銅도, 必{부디}, 後市의, 皆{다} 내게 호시고, 납을, 必〃, 잇는대로 다 주시게 호시되, 僕이, 이 鐵物事{일}로, 느려와 잇습는, 늦지 잇게 호여 주심 브라오며, 거번도, 니로신 말씀 듯즈오니, 요스이 鐵物 내시기[예] 피집 업슨 사람의 느출{ウリコミノナイ人ノカヲ〃}, 민망히 너기셔, 즈져호시는가 시브옵거니와, 그는, 응당, 醍매간의, 그리 싱각호실 [시] 올스오되, 그런 일로, 피집 잇는 사람의게는, 불상호은 일이 되오니, 싱각호실 일이옵고, 나라히, 직촉호옵시는 일이오니, 今番[을]란, 爲先 被執 잇는 사람만, 優{우}數出給호셔도, 無妨{방}홀 듯 시브오니, 상의{相議}호시고, 必, 後市에란 잇는대로, 皆, 내시게 호시면, 깃브올가 호옵, 僕[의]게란, 各別, 상의호오셔, 브디〃〃, 限百稱호여 모져 주[시면, 多]

/ 3 : b/

幸호올가, 브라오며, 必, 빨딕 잇습더니, 此 下人오옵 ■ 白絲 속, 굴근 실을, 五六兩 어더 쓰올가 밧습고 [져 습], 數日 휘오면, 出入이 되올거시니, 出入이 되온 후, 즉시 느려가 뇌울 줄, 一代官씩, 즈시 엿즈오시고, 이 편지, 스연도, 즈시 엿즈오시고, 答狀호쇼셔

2)この部分、「隣語大方」に対応するものである。「隣語大方」朝鮮刊本に次のようにあり。

「隣語大方」[朝鮮刊本:4:23a-23b] 【第213条】

(日)何某は彼齒の病が得と無所に 傷寒をわづらひまして 此間は少快方では御座れども 又出入を致得ませぬから 私に代に行て分を聞て来て呉と申まするから ケ様に下て参ました

(朝)아모는 그 齒痛이 채 낫지 못호은디 傷寒을 重히 호여 요스이는 적이 차도의는 드러시되 아직 出入을 못호기의 날을 代行호여 曲折을 아라 달나 호오매 이리 느려완습디

【和訳】

最近、天気がよろしくございませんが、皆様珍重のご様子、お伺い申し上げます。その間は事情が多くて、ながらく開市にも下って行けませんでしたので、残念なのみならず、私はかの歯痛が治らないところ、傷寒を重く患って、今は治りかけていますが、まだ、出入ができないので、この前、代官様にすぐ下ってきてお目にかかりますと約束しましたのに、今に至るまで行けずにおりますので、なおさら残念でございます。一代官様が差使のお求めのものだとおっしゃって、白宮紬一疋、ソウルに急いで便りを送って、求めて来なさいとおっしゃった手紙を十三日に送られたところ、今日ようやく伝わりましたが、確かに受取りはいたしました、誰に言いつけて伝えさせたのか、斯様なでたらめな事はございませんし、白宮紬という絹織物というのは、ソウルでは当然求めにくいものなので、心配しております。出銀開市日に赴京のお求めの物も書いて送ろうとおっしゃっておりましたが、今に至るまでお書きになってお送りくださる事がないので、それもこの手紙のように、途中で無くなって便りを伝えられないことになったのか、お伺い申し上げます。また、数日前に、(朝鮮の朝廷が) 鑄銭のために鉄物(金属)と鐵(ろう)をまず多少に関わらずさらに急いで催促なされたのですが、この前出そうとなさっておられた生銅も必ず後市(私貿易の市)に全て出すようになさって、鐵(ろう)を必ずありったけ全部下さるようになさることをお願いいたしますが、私がこの鉄物の事で下ってきている面目が立つようにして下さることをお願い申し上げます。この前もおっしゃられたお言葉を聞きましたところ、最近鉄物を出されるに際して、売込みのない人の顔を迷惑に思われて、躊躇なさるのかと存じますが、それは当然売買の間においてそのようにお考えになることはご尤ではございますが、そのようなことによって、売込みのある人には気の毒なことになりますので、ご賢察なさるべきことです。国が催促しておられることですので、今回はまず売込みのある人のみ、数多く出給なさっても、差支えないかと存じます、ご相談なさって、必ず後市(私貿易の市)にはありったけ全部出すようにして下されば、嬉しゅうございます。私には、格別にご相談くださり、何卒百称を限ってすべてくだされば、幸いに存じます。どうしても使うべきところがございますので、この下人[が帰る便に] 白糸の中に太い糸を五、六両、求めて使うつもりですので、[入れておいてください]。数日後になると、出入ができると思いますので、出入ができるようになった後、すぐ下って行ってお目にかかることを、一代官様に委細申し上げられ、この手紙の内容も委細申し上げられて、お返事ください。

【第4通】

二十六日 ㅎ오신, 서찰{書札} 보옵고, 그 스이, 風日이 不順ㅎ오나, 平安ㅎ오신, 문안 아옵고 못내 깃브와 ㅎ오며, 僕은, 오늘 開市の 연고 잇스와 가옵지 못 ㅎ오니, 접〓 ㅎ오며, 南草 일은, 예서, ㅍ는 금을 못즈오니{ウレルソウバヲタツメル

니}, 극히, 豆흔 南草一稱의 돈을 拾兩 준다 호오니, 銀으로, 五兩은 되올 거시니, 貴國 南草는 아쁘리 豆하도, 마시 豆선 南草만 못 호오니, 그리 호을 제면

/4 : a/

갑시 덜호을 거시니, 싱각호여 호읍쇼셔

【和訳】

二十六日お送りになった手紙を拝見し、その間天気が不順でございましたけれども、ご平安の段承り、殊の外珍重に存じ奉ります。私は、今日開市に、事情があつて参れませんが、残念でございます。タバコの事はここで売っている相場を尋ねましたところ、極めて良いタバコ一称のお金が十兩であると申しますので、銀で五兩にはなりましようから、貴国のタバコはいくら良くても、味は朝鮮のタバコに及ばないので、そうした場合には、値段が劣るでしょうから、お考えになって、とりおこなってください。

【第5通】

仲夏{五月}의

<季夏{六月}>

旅候{녀후}, 平安하읍신, ×무[○문]안 아읍고져 덕스오며, 듯즈오니, 一代官公겨 오셔, 入歸{입귀} 호오신가 시브오니, 和館 留住時도, 만나 보읍던 못 호오나, 혹書辞{셔스}로, 往復{왕복} 호오니, 든〃 호읍더니, 入歸호오시니, 그런 섭〃 호은 일이 업느이다, 燕京은, 白絲 갑시, 疇마다 듯습고, 貴國形勢는, 져리, 虛無{허무} 호은가 시브오니, 이런 不幸호은 일이 업느이다, 北京形勢와 貴國形勢, 이러 호읍기로 스이에 드러, 買賣호읍는 사름은, 保存을 못호게 되엿스오니, 前頭 어이 支撐{지탱} 호을지 言念及此{언념급츠/ ヲルレム} 호오매, 寒心[호오믈] 어이, [다], 덕스오며, 前頭 일을, 싱각호오면, 마이 업느이다, 既已 出來■

/4 : b/

호은 거시읍고, 白絲{빅스} 役只{격기}는 不可可(不) 호을거시오매, 先出■ 白絲 物貨를, 姑先下送호오니, 잘 잡어 주오심, 千萬 [브라느]이다, 落後호은{トリヲトシノ} ト物도 잇스오니{一モ有ニヨリ}, 追後 下送호리이다{アトヨリ ヲクリツカワシマス}, 鐵物은, 그스이 낫습는지, 必, 優數히 出給호오셔여야{カスラク 出シクダサレイ}, 官家事{일}을, 미봉{彌縫} 호읍게{コトユエナク} 호엿스오니, 必, 十分 留念호오셔, 陸續{육독/ ヒキツヽキ} 호여, 優數 出給호오심, 千萬 밋줍느이다, 別鐵物, 役只{것기}는, 舍錫{함석}으로 호을줄 아랏스오니, 今謝恩{은}使의, 柵門{칙문}으로, 求買下{구무하}送 호오리이다, 아모의, 名下의도 鐵物 優數 出給호오심 千萬 밋줍느이다, 凡事을 公만 밋줍고 잇스오니, 범연이 싱각지 마오시고, 格別{각별} 고견호오심 千萬 밋줍느이다, 不關호오나 섭〃 호오와, 不腆左錄{부전좌록} 요(으)로 聊表寸忱{뇨표촌침} 호오니, 三公이 分領{분녕/ フルレグ} 호오쇼셔, 此外, 生抗羅{싱학나} 一疋, 走紗

/5 : a/

一疋, 大方紬三疋, 別送호오니, 아모의게, 좃즈옵쇼셔, 무궁{無窮}호오니, 년호여,
片紙 호을 거시오매, 잠, 굿치옵

【和訳】

仲夏(五月)に

〈季夏(六月)〉

旅中、ご平安の段、お伺い申し上げ、一筆啓上申し上げます。承りましたところ、一代官様が、ご入帰(対馬にお帰り)なさるようで、和館にご滞在の時も、お目にかかることはかないませんでした。が、ときには、書辞(手紙)で往復いたしますので、心強くございましたが、ご入帰なさいますので、斯様なお名残惜しいことはありません。燕京は、白糸の値段が使用の度ごとに高騰し、貴国の形勢はあのように空しく潰えたようですので、このような不幸なことはございません。北京の形勢と貴国の形勢がこのようでございますので、間に入って、売買をする人は身を保つことができなくなりましたので、これからどうやって持ちこたえるか、このことに言葉と考えが及ぶと、情けないこと、どうしてすべて書き尽くせましょうか。これからのことを考えると途方にくれます。すでに出来してしまったことであり、白糸の差し引きはやらざるを得ないでしょうから、先に出庫した白糸の物貨をとりあえず先に下送しますから、よろしくお受け取りくださいますようお願い申し上げます。とり落した荷物もございまして、後から下送いたします。鉄物は、その間出来いたしましたでしょうか、必ず数多く出してくださってこそ、官家のことを取り繕うことができましょうから、十分ご留意なさって、引き続き数多く出給のほど、なにとぞお願い申し上げます。別鉄物の差し引きは、トタンになさるものと存じておりますので、今度の謝恩使の柵門にて交易して求めて下送いたします。某の名義の下にも鉄物を数多く出給のほど、なにとぞお願い申し上げます。全ての事を御貴殿のみを信じておりますので、ないがしろに思召されず、格別ご高配の段、なにとぞお願い申し上げます。関係ございませんが、名残り惜しゅうございまして、粗末な贈り物にてささやかな真心を表わしますので、お三方がお分けになってください。この外、生抗羅(ろ(絹))一疋、走紗(ちりめん)一疋、大方紬(大もんなし)三疋を別送しますので、某からお受け取りください。情は尽きませんが、続いて手紙をお送りしますので、これまで。

【第6通】

新歳の

旅候, 萬福萬吉호오시고, 萬事를, 如意호시다 호오니, 못내 致賀{지하}호오며, 生은, 人事 용널호온디, 不幸호, 時節을 만나와, 破家亡身{피가망신}[호]을 至境이오매, 親舊{친구} 보옵기 붓그롭스와, 出入을, 아나 호옵고, 드러 잇습기로, 나와, 겨옵신줄 아오되, 드러가{入往}, 반가이 보옵지 못 호오니, 欲死無地{욕스무지}로 소이다, 우리 서로 아완 지 三十餘年이오니, 엇치, 情義{정의}, 범연{凡然}호오리 잇가, 古情{고정}을, 싱각호옵고, 晝夜{晝夜} 너지 못 호오매, 눈물{涙}, 흐르옵는{流} 줄, 썩듯지 못 호느이다, 무궁호오니 심식{心思} 어득호와 잠상 호느이다

【和訳】

新年に、

旅中、万福万吉にてあられ、万事ご順調の段、珍重の至りでございます。私は、人品庸劣のところ、不幸なる時節にめぐり合わせ、破家亡身の状況でございますので、友人に会うのが恥ずかしく、出入りをいたさず、引きこもっておりますので、（対馬から倭館へ）お出ましの段存じ上げておりますれども、入館のうえうれしくご拝面がかないませんので、死ぬに死にきれぬ思いでございます。私達が知り合ってから三十年余りになりますので、どうして人情と義理がなおざりでありましょうか。古き情を思い、昼夜忘れえざるにより、涙流るるを覚えぬ。情は尽きませんが、気が遠くなりますので、お伺い申し上げ、これまでにいたします。

【第7通】

/5 : b/

新歲에

僉候 萬福^ㅎ신, 問安 아읍고져 ^ㅎ오며, 僕은, 이리 ^느려 완 지, [오래되] 피츠{彼此}의 다스^ㅎ읍기로, ^ㅎ번, 兪용히, 서로 보읍지 못 ^ㅎ오나, 恨歎{한탄} ^ㅎ읍고, 지 내^느이다, 僕이, 今番, 差備{차비}를, 막혀, ^느려 오을 적의, 이전 買賣^ㅎ을 때, 被執冊子{즈} 中, 험이, 대단히, 틀린{チゴウ} 事{일}이 잇스오매, 그 틀리온{ソノチガヒ}, 험을, 바로게, 較{교}正^ㅎ자 ^ㅎ고 겸^ㅎ여 ^느려 왓스오되, 彼此, 公幹의 다스^ㅎ읍기로 옛때, 兪용히 만나, 말숨을 못 ^ㅎ엿스오매, 이리, 奇別^ㅎ오니, 一代官기도, 此 事緣{이 스연} 슬오셔 인(二)十一日, 일즉이, ^느려 오을 거시니, 그 날, 대되, 소임청의 못조와³⁾ 거시면, 친히, 보읍고, 말숨^ㅎ을가 ^ㅎ오와, 이리 專爲^ㅎ여, 弼別^ㅎ느이다, 多少事緣은, 보읍고 ^ㅎ을 거시매, 잠, 덕습^느이다

【和訳】

新年に

皆様、ご万福の段、お伺い申し上げます。私はこちらへ下って来てから久しく経ちますけれども、かれこれ多事のため、一度もごゆるりとお互いに会うことができませんが、嘆いて過ごしております。私がこの度差備官を担当して下ってきた時に、以前売買した時の売込み帳面のうち、計算が大いに間違ったものがありましたので、その間違った計算を正しく直そうと思い、兼ねて下ってきましたが、あれこれ公務多事のため、今までごゆるりとお目にかかり、申し上げることができませんでしたので、このようにお便りいたしますので、一代官様にもこの事情を申し上げます。二十一日、早く（私が東萊から任所へ）下ってきますので、その日皆様任所にちょうどいらっしゃれば、親しくお目にかかり、申上げようかと思っておりますので、このようにとくにお便り申し上げます。あれこれの内容は、お目にかかってお話いたしますの

3)第12通にあらわれる「맞초와」と同じ語か。中期語の「마초와(合わせて)」に由来するもので、「ちょうど」の意か。

で、これまで。

【第8通】

/6 : a/

旅候 平安^{ᄃᆞᆫ}읍신 일, 아읍고져 덕스오며, 앓픽, 連하여, 事緣{스연} 片紙^{ᄃᆞᆫ}읍고, 侄子下去{질즈^{ᄃᆞᆫ}것} 便의, 스연, 片紙, 또 ^{ᄃᆞᆫ}엿습더니, 보시니잇가, 一字, 回{회} 答을 보읍지 못 ^{ᄃᆞᆫ}오니, 答〃^{ᄃᆞᆫ}여이다, 人蔘折{절} 價^{ᄃᆞᆫ}, 어이, 決斷{결단}을 ^{ᄃᆞᆫ}오신지, 消息{소식}을 모로오니, 遠慮{월녀/ ヲルリヨウ} 中 지내오며, 天銀事^{ᄃᆞᆫ}, 十分 宣力{선력/ セルリエク} ^{ᄃᆞᆫ}오되, 至今 結末{결말/ ムスヒノ心}이 업스오니, 悶慮{민녀/ -リヨウ} 中 지내^{ᄃᆞᆫ}이다, 天銀事와, 鐵物事로, 侄子 아모의게로, 弔別^{ᄃᆞᆫ} 일 잇스오니, 종용히, 블러 보오^{ᄃᆞᆫ}인(시)고, 翁^{ᄃᆞᆫ} 말씀 잇스을 거시니, 諸公{제공}과, 相議^{ᄃᆞᆫ}오시고, 一代官公^{ᄃᆞᆫ}, 十分 宣力^{ᄃᆞᆫ}오셔, 周旋^{ᄃᆞᆫ}오시면, 萬分 多幸^{ᄃᆞᆫ}올가, 千萬 專恃^{ᄃᆞᆫ}읍고, 덕^{ᄃᆞᆫ}이다, 前後, 片紙, 答狀^{ᄃᆞᆫ}오시면, 千里{천리} 面目을 對^{ᄃᆞᆫ}온듯, 반갑스올가, 기^{ᄃᆞᆫ}리, ^{ᄃᆞᆫ}이다,

【和訳】

旅中、ご平安の段、お伺い申し上げます。前に続いて、事情のお便りを差し上げ、(倭館へ)下っていく甥に託けて事情のお便りをまた差し上げましたけれども、ご覧になりましたでしょうか。一字もお返事をいただいておりますので、もどかしゅうございます。人蔘の折価は、どのように決断をなさったのか、消息がわかりませんので、遠くから心配をしながら過ごしております。天銀の事は、精いっぱい尽力いたしますが、今に至るまで結果が出ておりませんので、もどかしい気持で過ごしております。天銀のことと鉄物のことで、甥の某に、消息を伝えてございますので、ごゆるりとお呼び出しになって、(甥が)申上げる言葉がでございますので、皆様方とご相談になり、一代官様に、大いにご尽力、ご周旋くされれば、どんなに幸いでしょうか、なにとぞお願い申し上げ、お便り申し上げます。前と後の手紙に返事をして下されば、はるかに拝面いたしたごとく嬉しゅうございましょうか、お待ち申し上げます。

【第9通】

[요]스이 風{풍}日이 뜻지 못 ^{ᄃᆞᆫ}오나 僉公 平安^{ᄃᆞᆫ}오심 문안 아읍■

/6 : b/

오며 [그]스이 ^{ᄃᆞᆫ}려가 ^{ᄃᆞᆫ}을 말씀도 잇습고 相議^{ᄃᆞᆫ}을 일도 잇습■ 분주^{ᄃᆞᆫ}을 썬아니라 僉公^{ᄃᆞᆫ} 다스지 아니^{ᄃᆞᆫ}신 𣵵을 모로[오니] 연고 업슨 𣵵을 弔別^{ᄃᆞᆫ}오시면 ^{ᄃᆞᆫ}려가와 보올가 ^{ᄃᆞᆫ}이다 이 적어 보내^{ᄃᆞᆫ}는 거슨 僕이 이번의 加資{가즈} ^{ᄃᆞᆫ}은 解^{ᄃᆞᆫ}을 {ヤクアガリ ユワイヲ} 數日間の ^{ᄃᆞᆫ}자 ^{ᄃᆞᆫ}오되 凡事 苟且莫甚^{ᄃᆞᆫ}와 전혀 밋습고 弔別^{ᄃᆞᆫ}오니 두로 구^{ᄃᆞᆫ}여 어더 주시믈 밋고 참귀^{ᄃᆞᆫ}오나 적어 弔別^{ᄃᆞᆫ}오니 柑子도 有色^{ᄃᆞᆫ} 거슬 어더 주시^{ᄃᆞᆫ}고 술을 브^{ᄃᆞᆫ} 大桶으로 맛 도^{ᄃᆞᆫ} 거슬 주시믈 밋습^{ᄃᆞᆫ}이다, <極키

4) ←解좌(解座)。各官衙に新しく赴任した下役が先輩におごったこと。

붓그립스오나 不得已ᄃᆞ여 可別ᄃᆞ이다> 後開市에 가올 거시니 긋치읍

【和訳】

この頃、天気がよろしゅうございませぬが、皆様方ご平安の段、お伺い申し上げます。

その間、(倭館へ)下って行って、申上げるべきお話もございませぬし、ご相談すべきこともございませぬのに、忙しいのみならず、皆様方のお忙しくない時を存じ上げませぬので、お差支えのない時をお知らせくだされば、(倭館へ)下って行ってお目にかかろうかと存じます。このようにお手紙申し上げますのは、私がこの度昇進いたしましたお祝いを数日の間にいたそうかと存じませぬが、あらゆることが余裕がないことこのうえなく、専らお願い申し上げて、お便り申し上げますので、あまねくお探しのうえお求めくださいますようお願い申し上げます。<極めて、お恥ずかしい次第でございませぬが、お便り申し上げます。みかんも色があるものを求めて下さい。お酒を何卒大きな桶で味のよろしいものをくださることをお願い申し上げます。> 後開市(私貿易の開市)に参りますので、これまで。

【第10通】

僉公 平安ᄃᆞ신 문安 덕스오며 거번은 ㄴ려 가오와 말씀도 다 못 ᄃᆞ읍고 도라 오〃
니 접〃ᄃᆞ오물 다 못 덕스오며 今日 開市나 ᄃᆞ[오면] 다시 말씀이나 ᄃᆞ올가 ᄃᆞ엿습
더니 그 天銀 일이 중시 막으시ᄃᆞ

/7 : a/

關文이 ㄴ려 오〃매 諸人の 所見이 ㄴ이 업시 네기읍고 僕의 所見과는 大不同ᄃᆞ오
매 마지 못ᄃᆞ여 또 使道 前の 無數히 알의읍고 市傍 다시 狀啓을 ᄃᆞ시게 極力ᄃᆞ노
라 ᄃᆞ오며 오늘 狀啓을 發送ᄃᆞ와야 行次의 및출 듯 시브오매⁵⁾ 開市는 못 ㄴ려 가
오니 허물지 마르시고 ㄴ일이나 모리나 別市을 請게 ᄃᆞ쇼셔 거번도 ᄃᆞ은 말씀이읍
거니와 남아 잇습는 鐵과 生銅은 數가 언마나 되읍는지 別市 請ᄃᆞ시ᄃᆞ 날 人馬을
下送코 시브오니 ㄴ시 可別ᄃᆞ오되 今番 同生의 北京의 生光이 되오니 必 잇습는 生
銅과 鐵을 다 주시되 其中의 鐵이 더 만스와야 나라히도 生光이 되읍고 同生의 北
京의도 德이 [될 듯 시브오니] 此 片紙 事緣과 또 이 銅鐵 말씀 ㄴ시 議論ᄃᆞ시
고 ■

/7 : b/

ᄃᆞ쇼[셔] [맛]초[와] 중놈 ㄴ려 가오매 天銀 말씀 아르시게 ■ᄃᆞ이다

【和訳】

皆様方ご平安の段、お伺い申し上げます。この前は(倭館へ)下って行きましたが、お話も尽くすことができずに帰ってまいりましたので、名残惜しい気持を書き尽くすことができませんが、今日開市でもするようでしたら、また、お話でもいたそうかと

5)この表現から、この書簡の作成日は、1731年の冬至使がソウルを出立する前と推測される。

思っておりますところ、かの天銀のことが結局だめだという関文が下りてきましたので、諸人の所見というものがとんでもないものだと思いますし、私の所見とは大いに異なりますので、已むに已まれず、また使道（東萊府使）の御前に何度も申上げ、只今もう一度（東萊府使から朝廷へ）状啓をなさるように力を尽すということですし、今日状啓を送らないと（冬至使の）使行に間に合わないようですので、開市には行くことができませんが、悪く思し召しなさらず、明日か明後日に別市を要請なさ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この前も申し上げたことをごさいますけれども、残っている鑛（ろう）と生銅は数がいくらになるのか、別市を要請なさる日に人馬を送りとうございますので、委細お便り申し上げますが、今回弟の北京の見目になりますので、なにとぞありったけの生銅と鑛（ろう）を全部くださいますようお願い申し上げますところ、その中でも鑛（ろう）がさらに多くてこそ、国に対しても見目になり、弟の北京にも徳がなるかと存じますので、この手紙の内容と、またこの銅と鑛（ろう）のお話を委細ご議論なさってください。ちょうど下人が（倭館へ）下って行きますので、天銀のお話をお知らせすべく、一筆啓上申し上げます。

【第11通】

數日前 ㅎ시던 片紙 보오니 그런 雨中의

僉公 萬安ㅎ시니 깃브오나 此間久(그 스이 오래) 開市 못 ㅎ읍기로 답〃 ㅎ은 등 僕 의게는 여러가지 복물이 ㄴ려 와서 좁은 집의 싸하 두오니 민망ㅎ을 썬 아니라 약 간 습도 ㄴ려 와서 진시⁶⁾ 못 드리오니 이런 답〃 ㄱ급이 업스온디 원슈 鐵物로 어 린 ㅈ식의게 죄를 ㄴ게 되엇는가 시브오니 오미에 心亂키 측냥치 못 ㅎ읍논디 使道 겨읍셔는 내 광둥 일에 極力ㅎ는디 鐵物事로 내게식지 나라히 致責을 ㅎ시논디 動 念을 아니ㅎ니 人蔘도 막코 公作米도 드리지마자 ㅎ시고 큰 ㅂ을 두

/8 : a/

읍시매 晝夜 用慮로 지내오며 僉公⁶⁾ 片紙事緣 보은 후로 더욱 用心이 되오와 ㅂ 〃 로 여러 말슴 알외읍고 오늘은 日勢가 ㄴ스오매 혹 來日스이 別開市나 ㅎ읍고져 ㅎ 여 又 人蔘 ㄴ려 가을 스연을 ㄱ절히 알외읍고 都中들도 發괄식지 ㅎ오니 使道겨읍 셔 來日이라도 나온 鐵物을 내여 오면 蔘을 드리게 ㅎ런노려 ㅎ읍시고 分付{분부} 를 ㅎ여 겨읍시매 此 事緣을 ㄱ별ㅎ오며, 狀啓식지 ㅎ려 ㅎ시던 일이 이만치 ㅂ니 여스오매 十分多幸ㅎ오며 卽今 나오다 ㅎ는 鐵物을 낸 후에 人蔘 ㄴ릴 分付을 ㅎ 마ㅎ여 겨읍시니 必〃(부디〃〃) 心의(ㅄ음의) 未平ㅎ실지라도 秋毫도 念慮 ㅄ르시 고 來日 別市을 請ㅎ고 철물을 ■ 開市에 [가]게 ㅎ시거나 ㄴ디〃 이대로 ㅎ읍 僕 이 ■

/8 : b/

[代官⁶⁾] 片紙ㅎ시기로 動念多少ㅎ리잇가 실로 이 [일]치 ㅂ리여 가오매 萬分多 幸ㅎ오나 或 代官⁶⁾계[셔] ㅎ각ㅎ시면 僕으로써는 居間宣力이 어려올가 시브오

6)=진작.

니 브디〃 僕の 말을 今番 썬 시항히시고 來日이나 모리나 내는 鐵物란 看品으로
名號 짓지 말고 내게 ㅎ쇼셔 이 片紙 回答 ㅈ시 보은 後 諸人의 心事을 定{정}게
되어시니 必〃 答狀 ㅈ시 ㅎ쇼셔

【和訳】

数日前にお送りになったお手紙拝見いたしましたところ、あのような雨の中で、皆様方万安の段、珍重に存じ奉ります。その間久しく開市ができませんでしたので、もどかしい中、私のところにはいろいろな荷物が下って参りましたので、狭い家に積んでございますので困るばかりではなく、少し人参も下って参りまして、早く差し上げることができませんので、このようなもどかしく、息詰ることはございませんところ、かたきの（あの憎らしい）鉄物で、幼い子供に罪を被らせることになったかと思えますと、寝ても覚めても心配でたまりませんが、（東萊）使道は、「わしは館中のことで力を尽しておるのに、鉄物のことでわしにまで国から責めをいたすことをなさるのに、（倭館側は）心を動かさずにおるから、人参も防ぎ公作米も入れないことにしよう」とおっしゃって、大いなる覚悟を決めておられますので、（私は）昼夜気遣わしく過ごしておりますが、皆様方のお手紙の内容を拝見いたしました後からは、ますます気遣いいたしまして、時々様々申し上げ、今日は天気がよろしゅうございますので、あるいは、明日のうちに、別開市でもいたしましよとて、又、人参を入送する理由を切に申上げて、都中(商訳)らも陳情までいたしましたので、（東萊）使道様が明日でも（対馬から）出来した鉄物を出して来たら、人参を入送するようにしてやろうとおっしゃって、お達しなさいましたので、この内容をお知らせ申し上げ、状啓までなさろうとしていたことが、これほどにまで解決いたしましたので、まことに幸いですし、ただいま（対馬から）出来したという鉄物を出した後に人参を入送するお達しをなさると仰せでございますので、なにとぞなにとぞご不安でありましても、少しもご心配なさらずに、明日別市を要請して鉄物を■開市に■なさるか、くれぐれもこのとおりになさってください。私が■御代官方が○お便りなさいましたので、心を動かすことが少のうございせん。実に、このこと[]解決していきますので、このうえなき幸いですし、もし、御代官方が[]思し召しでしたら、私といたしましては仲立ちをして力を尽すことが困難になるかと存じますので、くれぐれも私の話を今回だけは執り行われて、明日か明後日かに出す鉄物は、（公貿易の）看品の名目を付けないで（私貿易用として）、出すようにしてください。この手紙のお返事を委細拝見した後に（ようやく）、諸人の心が落ち着きましようから、必ずお返事をよろしく願いたします。

【第12通】

평안히신 問安 아읍고져 ㅎ오며 僕は 病勢 이리 지리히여 아마 모리 開市도 ㄴ려
가기를 定치 못 할가 시브오니 민망 답〃〃 ㅎ읍 京{서울} 귀별을 ㄸ즈오니 人蔘價
未給事로 大段히 시비가 되엇는가 시브읍고 意外에 賚咨官行次{저주관행차}가 나서

줄 이시되 十二月 난 蔘帳과 今番 改折價帳과 比하여 보오니 다른 사름들에게는 二三四式을 各〃 〃와 겨오시되 僕의게는 一分一里을 아니

/11 : a/

더하여 겨시니 더욱 冤慟하여 지[내]는 줄을 어이 아라시리잇가 모리 開市에 못 나려 가게 되엇습고 맛초와 아모가 僕의 所懷와 스정을 알고 나려 가오니 맛비 相議하여서 急〃 回答하시고 또 그 上〃 銀을 去番의 아니 하였더니잇가 一千兩만 一哉와 相議하여서 十分 비밀히 出送하소서 혹 아[나니] 잇스오면 大敗하올 겨시니 極力 비밀히 하소서 지리하여 굿치옵

【和訳】

ご平安の段、お伺い申し上げます。私は病勢がこのように長引きまして、おそらく明後日の開市も下っていくことが覚束ないと思っておりますので、困っておりもどかしく存じます。ソウルの便りを承りましたところ、人参価⁸⁾未給の事で大変な言争いになったようでございまして、思いがけず賫咨官⁹⁾行列が出来し、今月の晦日頃、出発しようといたしますので、銀の催促がますますひどくなるかと思っておりますので、このような困ったことはございません。鉄物のことと言争いが極めてひどくなりまして、遠からず、都中と私が大きな罪を被るでしょうから、このような心配がどこにございましょうか。また、人参売買の事で、議論するため、飛脚が参りましたが、人参が今度の冬至使行の回還の門に流入していったところ、また、賫咨官行列に出来したので、商人たちが、「人参は全て義州へ行くのでついに御代官方が今年の人参をお用ににならないのならば、こちら(倭館)の人参も義州に送りましょう」とて、便りが参りましたので、こんなにもどかしいことがどこにございましょうか。三四月になるまで判事様方も商人たちも人参の取引を始めないはずがございませんけれども、このように意地を張り合っておりまして、人参が全てだめになってしまった後は、却って値段も高くなり、御代官方がお用いになるのにも不足いたしまししょうから、どうなさろうというお積りでしょうか。今に至って無用なことばかりおっしゃって、これからの事をお考えになることがおできにならないのでしょうか。私はおそらく病勢がこのようですので、明後日の市に下って行くことはできないでしょうし、私が心中の思いますには、各人が一斤ごとに十両ずつ、あるいは、十二、三両ずつ損になると言うので、今となつては無益に一兩二兩高くしようとおっしゃらずに、すっぱりと五両ずつ今さらに高くし、五両ずつというのは人参価¹⁰⁾で足してやろうとおっしゃって、すっぱりと折価(値段交渉)文書をお出しになれば、商人たちがまた悪く言っても、私が仲立ちをして止めさせますし、今ソウルから議論のために送られてきた飛脚の返事として、

나 興起키고져 卞라는 일이옵지 天日도 照臨하시고 鬼神도 明鑑하시니 落本아니한 거슬 落本하
다 하고 百餘年來買賣를 一朝의 斷絶코져 하는 거시오니 그런 용심이 일스오면 실노 天罰이 일
스오리이다

8) 人参の値段、代価。ここでは、人参代往古銀を指すか。

9) 中国の朝廷へ咨文を持って行った使臣。

10) 人参の値段、代価。ここでは、人参代往古銀を指すか。

なんとかして、一代官様がお帰りなる時に、いちばんに多少なりとも（人参を）下送するつもりですので、この内容を一代官様とご一緒にいま急いでご覧になって、ご相談のうえお返事くだされば、急いで飛脚を送って、ばらばらになった人参を集め合わせるようにいたしますし、それを止めて意地を張り合うようでしたら、私もやはり困りますし、事態が全てだめになるでしょうから、必ず深くお考えになって急いでお返事ください。すべて人参の損がこのようになった後は、冬¹¹⁾今年の人参の売込みを御代官方に八、九月までに限って停止してくださいと言え、人参の値段も低くなり、事の情勢も当然是正されますが、八、九月まで停止することを迷惑に思われるでしょう。停止することができずに、御代官方の日用を■思し召すようでしたら、偽る事になりますので、それも考えてみてください。ただいまこのように仰々しく申し上げますのは、何とかして買売が連続して良い時節に出会い興起したく願うことをごさ
いまして、お天道様が照臨なさり、鬼神が明鑑なさいますのに、損でないものを損だと言って、百年余りの両国誠信の買売を一朝に破らんとするような邪心には災いが及び天罰がございましょうから、どうして嘘をつきましょうか。私に至りましては、さらに無念なことがございますが、十二月に出来した人参の帳面と今回の改折価の帳面と比べてみましたら、他の人々には二、三、四両ずつをそれぞれ高くしておられますのに、私には、一分一厘も足しておられないので、ますます無念の気持で過ごしていることをどうしてお分かりになれましょうか。明後日の開市に下って行けなくなり、ちょうど某が私の考えていることと事情を心得て、下って行きますので、急いで相談なさって、至急お返事くださり、また、かの上々銀（純度が最上級の銀）をこの前にしなかったのでしょうか。一千両ばかり一哉と相談なさって、くれぐれも秘密裏にご出送ください。もしも察する者がおりましたら（露見いたしましたら）、全く失敗いたしましたら、極力秘密裏におこなってください。長々と申し上げましたので、これまで。

【第13通】

어제 덕으신 事緣 즈시 보옵고 대되 平安하시니 깃브오나 오늘 느려 가자 ㅎ옵더
니 아모의 쏘 보기 [슬ㅎ]

/11 : b/

고 [응]당 싸흠이 될가 시[브오]매 아니 느려가옵거니와 ■가 어제 使道の 허무흔
말슴을 알외여 代官님을 그른 사람<으>로 아르시게 ㅎ고 今番 鐵物로 看品을 다 못
게 ㅎ려 ㅎ오니 저는 看品을 못츠면 罪를 아니 넘스오려니와 그 스이 都中과 僕은
어너 지경까지 가오며 代官님을 그르게 아르시게 ㅎ을 제는 凡事의 그릇되는 줄을
生覺지 아니ㅎ오나 僕이 居間하시니 念慮마르시고 오늘 內裨將 안즌 덕 看品曲折
을 니르시되 日本이 알기을 進上看品[은] <不過> 七八十稱이오 그 앞(남)은 二百稱
은 角契人을 내여주어 物貨나 白

11) 不詳。「さしあたり、とりあえず」の意か。後考を待つ。

/12 : a/

絲나 人蔘이나 당만^하여다가 주오면 代官들은 그를 가지고 나라히 쓰옵시^는 黑角을 당만^하여다가 드리옵^는디 요스^이는 角契 사^름들이 人蔘白絲物貨란 痘곰도 아니 ^하여 주오니 무슨 연고로 鐵物만 내^여 가려 ^하오며 代官들이온들 이^년 험을 밧거니 주거니 ^하려 ^하는 일이 그르^지 아니 ^하오니 進上鐵物을 분부대로 아니 내오면 그르^옵거니와 二百稱鐵物은 別貿 黑角으로 주^어 글로 物件{^진}을 당만^하여 오^게 ^하은 줄을 밧 아^옵거든 어^이 代官들이 그르^온고 요스^이 任官等^이면 이런 曲折란 모^로고 代官[^{들이} 그]

/12 : b/

[^른 줄]로 ^하오니 이 스^연 使道[^前]에 [^알]외^시고 일[^이]여도 二百稱을 밧 주^라 吩^咐^하옵^시면 주^오리 ^하시고 [代]官^년 그^릇 너^기시^는 ㅁ^딕을 使道 아^옵시^게 ^하면 깃^브고 凡事에 念慮가 업^슬가 시^브오니 그^리 아^르시^고 任官이 오^면 彼此 曲直을 畧^퍼 주^옵는^디 凡事에 속^이엇^던고 글^란 모^로고 ㅁ^관만 그^르다 ^하니 민^망^하외 ^하시고 ㅈ^시 말^씀을 ^하여 使道^의 그 말^씀이 오^게 ^하시고 오^날 看品^하기 말^기란 代官^년 任^意로 ^하시고 어^제 念慮^하노^라 ^하시^던 일^란 各別 矚^각^하쇼^셔 必〃 이 片紙

/13 : a/

하 번^거^하오니 ㅈ^시 업^시 ^하쇼^셔

【和訳】

昨日お手紙くださいました内容、委細拝見し、皆様ご平安の段、珍重に存じますけれども、今日（倭館へ）下って行こうとしておりましたが、某の面を見るのが嫌ですし、当然喧嘩になるようなので、下って行きませんが、（某は）昨日（東萊）使道様に嘘の話を申し上げ、御代官方のことを悪い人と思召されるようにしむけ、今回の鉄物で看品を全部終えるようにしようとするのですが、彼（某）は看品を終らせれば、罪を被らないでしょうけれども、その間都中（商訳、商人）たちと私はどの状況にまで至り、御代官方のことを（東萊府使が）誤解なさるようにしむけた時には、全ての事において間違うという事を考えないのですが、私が、中に入りましたので、心配なさらないで、今日内裨将座っているところで、看品のいきさつについて次のようにおっしゃってください。「日本側の理解では、進上の看品はわずか七、八十称であり、その残りの二百称は、角契人（角の請負の者）に払ってやって、物貨でも白糸でも人参でも調達して持って来たら、代官たちはそれを持って御国がお使いになる黒角を調達して納入するのですが、最近角契人（角の請負の者）らが人参と白糸と物貨をば少しも調達してくれないのに、何のわけ鉄物ばかり出給しようとしましようか。代官たちとても、当方の算用をやりとりしたりしようとする事というのは当然のことですので、進上の鉄物を命令どおり出給しないのならば間違いでしょうけれども、二百称の鉄物は、別貿易の黒角に与え、それで品物を調達して来るようにしたということを皆知っているのなら、どうして代官たちが間違っているのでしょうか。最近、任官たちはこのような事情を知らずに、代官たちが間違っているように言うの

で、このわけを（東萊）使道の御前に申上げて、（東萊使道が）일[이]여도 二百稱を皆（看品に）差し出せとご命令になるのなら、差し出しましょう」とおっしゃって、御代官方のことを誤解なさっておられる段を、（東萊）使道様がお分かりになるようにすれば、嬉しいですし、全ての事に心配がないかと存じますので、そうお心得になって、任官が来たら、「かれこれ是非曲直をただしてやるのだけれども、全ての事に中身の事情がどうであるのか、そのことをば分からずして、代官ばかり間違っていると困ったことだ」とおっしゃって、委細お話になって、（東萊）使道にそのお話が届くようにし、今日看品をするかしないかは、御代官方の任意でなさってください。昨日心配しているとおっしゃっておられた事は格別にお考えください。必ず必ず、この手紙は甚だめんどろでございますので、直ちに処分してください。

【第14通】

요스이 旱災이 極호오나 僉公 平安호신 문안 아읍고져 호오며 요스이는 使道 病患이 非輕호시기로 오래 ㄴ려가 보읍지 못 호오매 답〃히 지내오며 어제 卜物도 만히 ㄴ려 와서매 오늘 開市나 糶가 호엿더니 ㄳ춤의 雨勢 만습기로 來日 別開市나 糶가 호여 아니 ㄴ려 갓호오니 來日 緣故 업거든 別市을 請케 호시려니와 僕은 서울 圀別을 드로니 그 尺銅은 賑廳{진청}에서 아니 쓰읍시고 生銅을 밧치라 호읍시고 至[嚴{엄}]히 分부 ㄴ려 왔호오[니 이런 답〃]호은 일■

/13 : b/

戶曹[[호]조]로셔는 尺銅이나 生銅이나 不計호고 上來鐵數 ■여 大役을 못 되게 호다 호셔 僕의게 大責이 ㄴ려 왔호오[니] 아마 大罪을 넙호을가 宿食이 不安호읍고 新物事도 時方 捰미읍는디 作銀호여 보내 올 거시 니르호시고 人을 救호여 내시믈 ㄴ라읍고 덕습넉이다

【和訳】

この頃、暑さの極みにございますが、皆様方ご平安の段、お伺い申し上げます。この頃は（東萊）使道様のご病患が軽かりませず、ながらく（倭館へ）下って行くことができないので、もどかしく過ごしておりますが、昨日荷物もたくさん下って参りましたので、今日開市でもしようかと思っておりますところ、朝の雨勢がひどうございますので、明日別開市でもしようかと存じ、下って行きませんでしたので、明日お差支えがないようでしたら、別市を要請するようになさいますけれども、私はソウルの便りを承りましたところ、かの尺銅は賑廳でお使いにならず、生銅を納めよと仰せられて、至って厳しく仰せ付けが下って参りましたので、このような困ったことはございません。

戶曹からは、尺銅にせよ生銅にせよ拘らず、上納の鉄の数が[足りない]と仰せられて、大いなる役事をだめにしたと仰せられて、私に大きな叱りが下って参りました。おそらく大罪を被るのではないかと宿食が不安でございますし、新物の事も只今拵えているところでございますが、銀を拵えて送ってくるように仰せくださり、人をお救

いただきますようお願い申し上げます、一筆啓上申し上げます。

【第15通】

그 스이 雨勢 支離호오니 僉公 平安호신 줄 아옵고져 호오며 僕은 거번 든녀 오〃
며 感×胃[○冒]을 重히 호여 至今까지 痛症이 비경호오니 民망호을 썸 아니라 京
中 消息을 듯조오니 心亂키 測量 업스온 됴에 諸人의 心事가 不祥호옵고

/14 : a/

冬行 先來는 卽今 나을 때가 되여 卽今 人蔘事와 白[絲]事を 決斷치 못 호오면 今
年 買賣는 호려 호여도 형세로 못 되게 호엿스오니 變通호려 호시거든 必 오늘 결
단호쇼셔 僕은 病勢如此호여 못 느려 가오니 答〃히 너기시려니와 僕의 소회는 거
번의 皆 호엿습고 都中과 相議호신 후 부덕 決단호시고 僕의 折價文書란 중놈 보내
오니 扵〃히 封호여 보내쇼셔 二代官은 언제 帑을 扵시며 그 후 帑는 나온 일이 업
스온지 鐵物일로 사름들이 扵오 곳길 썸 아니라 [不久]에 難處{난처}之事가 날가
시브[오니 실]로 이 말슴 고■

/14 : b/

시고 또 飛船 보내셔 건[너온] 거[슬 多少] 不計{계} 호고 밧[비]■ 호오면 次{
차}〃 彌縫{미봉}이 되올가 호옵 오늘 開市을 지내옵고 今年 買賣 進退事로 各處
物主의게 步行을 보내려들 호오니 十分 淸각호셔 周便히 호쇼셔

【和訳】

その間、雨勢が長引いておりますが、皆様方ご平安の段、お伺い申し上げます。私はこの前、往復いたしまして、風邪を重くして、今に至るまで痛みが軽かりませず、困っておりますだけでなく、ソウルの消息を承りまして、心が乱れることが限りがない中に、諸人の考えが好ましからず、冬至使行の先來¹²⁾は只今出来る時分になりまして、只今人蔘の事と白糸の事を決断することができなければ、今年の売買はしようとしても、形勢からして、できなくなるでしょうから、變通しようと思し召しでしたら、必ず今日決断してください。私は病勢がこのようでございますので、下って行くことができませんので、もどかしく思召されるでしょうが、私の考えておりますことはこの前に全部申しましたし、(朝鮮側の)都中(商訳)たちと相談なされた後、なにとぞご決断くださり、私の折價文書は、下人を送りますので、しっかり封して送ってください。二代官様はいつ船にお乗りになり、その後、船は出来したことはございませんでしょうか、鉄物の事で人々がまことに難儀しているのみならず、遠からず、困った事が起るかと思存しますので、本当にこのお話を[お伝えになり]、また、飛船をお送りになって、(対馬から)渡って来た品物を多少によらず速やかに[お渡しくされば]、次第に取り繕うことができるかと存じます。今日開市をとりおこなってから、今年の売買進退の事で、各處の物主に飛脚を送ろうと思存しますので、十分お考えのうえ上手くいくようにしてください。

12) 外国へ行っていた使臣が帰って来るときに、それに先んじて帰ってくる訳官。

【第16通】

旅履 平安호옵신 문안 아옵고져 알피 년호여 事緣片紙호엿습더니 보옵시니잇가 蔘絲事는 앞피 누〃히 弔別호엿습거니와 此兩條件{츠냥조건}이 買賣間 一大關節이오 매 이리 덕스오니 汲히 矚각호오셔 買賣호는 사뎡으로 호여곰 보존케 호오쇼셔 日本 蔘絲 形勢을 듯즈오니 僉公 호오시는

/15 : a/

말슴도 맛당호시오되 近來 燕京 形勢 마이 업스와 白絲 出來之數 적습기로 數三年을 我國人이 白絲을 廣求호옵고 俺도 아모의게스지 누〃히 弔別호와 겨유 白絲 길 흘(을) 여러 이만이나 出來호오니 만분 다항호옵더니 貴國 形勢 마이 업는가 시브오니 이런 不幸호 일 업는이다 大概 數三年 白絲 出來 都數 不少호옵기로 白絲品 比前호여 劣습기는 理勢 그러홀 듯 시프옵고

僉公이 니르지 아니호셔도 俺도 絲品을 念慮호여 아모의게도 弔別호옵고 燕行負譯 들에게도 各別 申飭■

/15 : b/

오니 前頭는 絲品도 점〃 道하[지]올 [거]시니 白絲 責[望을 이]리 호오셔는 白絲 買賣는 못 되게 호을 거시니 비록 貴國 形勢 마이 업스올지라도 一代官公과 相議호오셔 買賣 길을 保存만 호여 가게 호시고 申飭을 호셔야 買賣가 니어 가올 거시니 今年스지만 相議 變通호시면 明年 爲始호여는 弔別호시는대로 變通호리이다 人蔘折價로 니르와도 年〃 이리 듯토는 거시 맛당치 아니호오되 蔘形勢 오죽호고야 이 지경의 가느니잇가 蔘落本이 比前太多호와 買賣 諸人이 보존지 못 호게 되엿습기로 不得

/16 : a/

不 누〃히 弔別호오니 비록 약간 增價호오셔도 銀兩 ㄷ토는 거시 아니오니 僉公의 상의호셔 今番스지 快히 變通호오시고 今年 秋採{츄치} 爲始호여는 減價홀 거시니 이리 아라 質蔘홀 줄을 判事 商人中의 미리 言及호시면 결단호여 낮즈올 거시니 深思善處호오쇼셔 改折價次 人蔘被執日記 벗겨 보내오니 改折價時 落漏치 말게 호쇼셔 친히 相對호와 買賣相議變通호을 일이 ㄹ득호오되 因{인}公호여 노력 갈 便이 업스오니 答〃 호여이다 此時 人蔘被執이 有害無益홀 줄 아오[되] 既已下送之[物]則 下送호

/16 : b/

옵는 거시 올습고 듯톨 일은 듯토는 거시 올스오매 上蔘 약간 下送호오니 잘 잡어 주오쇼셔 듯즈오니 銀과 鐵物이 나왔는가 시프오니 鐵物도 주시려니와 銀도 出給호오셔야 緊用호을 곳이 잇스오니 丁銀二千兩만 아모의게로 出給호오쇼셔 범연히 마오심 다시곰 브라느이다 무궁호오니 惚擾{총여} 잠상

【和訳】

旅中、ご平安の段、お伺い申し上げるべく、前に続いて事情のお手紙を差し上げましたけれども、ご覧になりましたでしょうか。人蔘と糸の事は、前に何度もお便り申し

上げましたけれども、この二つの条件が売買の間において最も根本に拘る事でございますので、このようにお便り申し上げますので、深くお考えになって、売買する者をして身を保つことができ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ませ。日本の人参と糸の情勢を承りますと、皆様方が仰せのお話も当然でございますけれども、近来燕京の情勢が困ったことになりまして、白糸の出来の数を記しますに、二三年の間を我国の人が白糸を広く求めまして、私も某にまで何度も手紙を送りまして、ようやく白糸の道を開いてこの程度になりとも出来るようになりましたので、まことに幸いに存じておりましたところ、貴国の情勢が困ったことになったようでございますので、このような不幸な事はございません。大概二三年の間の白糸の出来の総数は少のうございませぬので、白糸の品質は前に比べて低うございますのは、理としてそうございませぬし、皆様方が仰せにならずとも、私も糸の品質を心配いたしまして、某にも手紙を送りましたし、燕行使の員訳らにも格別に申し付けましたので、これからは糸の品質もだんだんよろしくなるでしょうが、白糸のお咎めを斯様になされては、白糸の売買はできなくなりませぬにより、いくら貴国の情勢が困ったことになったとは申しませぬも、一代官公とご相談になって、売買の道を保つようにさえして下さり、仰せ付けくださってこそ、売買がとり続きませぬから、今年までは相談して融通して下されば、来年からは、ご連絡くださったとおりにやりくりいたします。人参折価について申しませぬも、年々このように言争いませぬのは適当ではございませぬけれども、人参の情勢が一体全体いかほどござれば、この状況にまでなるのでございませぬか。人参の損失が前に比べて大いに多く、売買の諸人が身を保つことができなくなりませぬにより、やむをえず何度もお便りいたしますので、たとえ少し増価いたしましても、銀両を言い争うわけではございませぬので、皆様方にご相談なされて、今回まではすっぱりと融通して下さって、今年秋採を始めましたらば、減価いたしませぬにより、左様お心得くださり、人参の貿易をするということを、判事、商人たちに前もって言及なされば、決断してよろしゅうございませぬから、深思善処のほどお願い申し上げます。折価を改めるために、人参の売込み日記を写してお送りいたしますので、折価の時、漏れ落ちないようにして下さい。親しく対面して、売買相談のやりくりをすべきことがたくさんございませぬけれども、公務のため（倭館へ）下っていく便がございませぬのもどかしゅうございませぬ。この時分は人参の売込みは有害無益であると存じませぬけれども、すでに下送した物については下送するのがもっともであり、言い争うべきことは言い争うのがもっともございませぬので、上品の人参を少し下送しますので、よろしくお受け取りください。承りましたところ、銀と鉄物が出来たようでございませぬので、鉄物も下さいませぬけれども、銀も出給して下さってこそ、緊用の所がございませぬので、丁銀二千両ばかり某に出給して下さり。おろそかに思し召しなさいませぬよう、重ね重ねお願い申し上げます。情は尽きませぬが、ここまで。

【第17通】

두어날 스이 평안호오신 일 아옵고져 호오며 開市 날은 드리 갓스와 좋용히 말씀도 못 호오니 섭〃 호오며 久{오래} 겨시다가 줄연이 드리 가오시니 섭〃 호여이다 친히 드리

/17 : a/

가옵고져 호오나 臨行호여 응당 요〃 호을 듯 호오매 적어 기별호는이다 上年의 아모의게서 走紗 一百疋을 代官 僉中의 쓰이온 거시 僕의 物貨을너니 그 갑슬 僉中의 못즈오니 各〃 分用호여시니 수이 내시려니와 二代官겨셔도 쓰시다 호오니 언마를 쓰시며 僕도 來月初로(生) 上京호을너니 價銀을 推移호을 세여도(든) 주오시면 다 호호옵고 님의 거슬 갑게 호엿는이다 乘船時 드리 가오면 하직이나 호리이다

【和訳】

二、三日の間ご平安でいらっしゃいましたでしょうか、お伺い申し上げます。開市の日(倭館へ)入館いたしましたのに、ゆるりとお話もできず残念に存じ奉ります。ながらくいらっしゃったのに、急に(対馬へ)入帰なさいますので、寂しく存じます。親しく(倭館へ)入館いたしたいのですが、(対馬へ)お行きになるのに臨みまして、当然慌ただしくお過ごしかと存じますので、手紙を書いてお便り申し上げます。去年某から、走紗(ちりめん) 一百疋を御代官の皆様方に用いられたものというのが、私の物貨でございましたので、その値段を(御代官の)皆様方に伺いましたところ、各々分けて用いたということです、すんなりとお払いになるのでしょうか、二代官様もお用いになったと申しますので、いくらお用いになったのでしょうか。私も来月初めに上京しますが、 価銀を推移させる成り行きでございましたら、下されば幸いに存じますし、他人の物を返すようにいたします。乗船の時に(倭館に)入館いたしましたら、お別れの挨拶でもいたします。

【第18通】

起居 平安호옵신 問安호옵고져 덕스오며 줄연호 병을 엇즈와 지내옵기로 느려가옵 들 못 호옵기에 [히 뵈옵지]

/17 : b/

못 호오니 그 섭〃 호오믈 못내 덕는이다 다른 事緣은 ■都狀{장}의 호오니 一樣 보오쇼셔 進上黑角이 切急호오니 好品黑角을 우수히 내여 주옵시게 호시며 절가를 십분 돌보와 주셔야 角契가 보존호옵지 그리치 아니면 지팅키 어렵스오매 近二十年 親厚間의오매 진정을 기별호오니 범연이 마옵시고 黑角도 大中角類로 내여 죽시 올녀 보내시게 호오시믈 다시곰 밋줍는이다 不關호오나 生宥{항}羅一疋 走紗二疋 보내옵는이다 말씀 만스오나 잠상

【和訳】

起居ご平安の段、お伺い申し上げます。急に病を得て過ごしておりますため、(倭館へ)下って行くことができませんので、[お目にかかることが]できず、その残念な氣

持をどうして書き尽くせましょうか。他の事柄はすべて手紙に書きましたのでそのままご覧になってください。進上黒角が切迫いたしておりますので、好品の黒角を数多く出してくださるようになってくださり、折価を十分ご高配くださらなければ、角契（角の請負）が身を保つことができませんし、さもなければ、持ちこたえがとうございますので、二十年近くの親しき間柄でございますので、本当のことをお伝えいたしますので、ぞんざいにはなさらずに、黒角も大中の角類を出給し、早速上送して下さいますよう重ね重ねお願い申し上げます。関係ありませんが、生宍羅（ろ（絹））一疋、走紗（ちりめん）二疋を送ります。お話しすることは多うございますが、ここまで。

【第19通】

僉公 平安하신 문안 아옵고져 호오며 어제는 裁判에서 날

/18 : a/

이 어둡게 되옵기로 그리 가와 못 뵈오니 섭〓 호오나 어제 비션은 나오〓 니 깃브오며 거번 출물을 即時 上京하려 호옵다가 事緣 디테호여 못 보내엿습더니 今番 出來物도 수이 出給호오실 듯 시브오매 기드려 흠씩 발송호고 시브오되 오늘 기시논 은 당 느려 오기을 定치 못 할가 시프오매 오늘 기시가 或 못 느려 오옵거든 僕의게 出給호을 거슬란 모다 의논호오시고 오늘 연향 파흔 후 出使廳으로 出送호시면 깃브올가 밋즈오며 既已 僕의 습 감시 불상히 된다 호셔 거번도 有別히 구러 겨시니 至今 感■

/18 : b/

호옵거니와 今番도 有別호을 줄을 모다 의논 호시고 各別 留意호시믈 브라오며 회답호시믈 보옵[고] 오늘 草梁을 머무올듯 시브오니 連향 파흔 후 드러가 대되 뵈올가 호느이다

【和訳】

皆様方、ご平安の段、お伺い申し上げます。昨日は裁判屋にて日が暗くなりましたので、そちらに参ってお目にかかることができませんでしたので、残念でございました。昨日、飛船は出来いたしましたので、嬉しゅうございます。前回の出物を即時ソウルに上送いたそうといたしましたので、事情が長引きまして、送ることができませんでしたけれども、今回出来いたしました物もすぐ出給なさるかとお存じますので、待っていて、一緒に発送いたしたく存じます。今日の開市は、当然下って来るかどうか定かではないようでございますので、今日の開市にもし下って来ることができなかつたら、私に出給するものは、皆様で議論なさって、今日宴会が終った後、出使庁へ出送なされば、嬉しく存じます。既に私の人参の値段が良くななくなっているとおっしゃって、前回も格別にお取り計らいくださいましたので、今に至りましても忝く存じますが、今回も格別のご高配を皆様で議論なさって、格別にご留意くださることをお願い申し上げます。返事くださったのを拝見してから、今日草梁に留るかとお存じま

すので、宴会が終った後、（倭館に）入館して、皆様にお目にかかろうかと存じます。

【第20通】

밤스이 平安호신 문안 아옵고져 호오며 어제 오온 飛船 二隻 문정으로 시방 호읍
게 호엿스오니 두척 비선을 다 私書만 가져 오단 말씀이 되지 아니호오니 비록 은
이 오온 일은 업스와도 마지 못호여 銀 二三千兩이나 시러 왔다 호고 슈본을 호게
호엿느이다 그

/19 : a/

리 아니 호오면 東萊令監의 큰 일을 만나케 호엿스오매 마지 못호여 이리 호오나
괴별을 아니치 못호[여] 아라시게 괴별호느이다

【和訳】

夜間、ご平安の段、お伺い申し上げます。昨日参りました飛船二隻、問情を只今おこなうところでございますが、二隻の飛船が両方とも私書ばかり持って来たというお言葉は、話になりませんので、たとえ、銀が来たということはなかったとしても、止むを得ず、銀二、三千両ばかり載せて来たとして、手本（東萊府使への上申）をいたすつもりです。そのようにいたしませんと、東萊令監に大いなる事に遭うでしょうから、致し方なくこのようにいたしますが、お便りしないわけには参りませんので、お知らせすべく、お便り申し上げます。

【第21通】

그 스이 平安호신 문안 알고져 호오며 어제는 雨勢로 開市를 못 호매 僕의게도 蓼
이 十一斤이 먼저 느려 왔스오되 못 드리니 민망이 지내시려니×외[○와] 鐵物一事
로 朝家 | 震怒호읍서 前頭의 買賣間大事가 날가 시프은 등 使道겨읍서 또 大端히
구읍서 無事키[을] 못 브랄가 시프오니 이런 답〃 호 일이 업스오니 ■

/19 : b/

飛船이나 入送을 호오[신]지 必 수이 보내게 호시고 ■ 그 天銀을 至今 入送을 아
니 호고 밧고아 내여온다 말씀이 업슬 쏘 아니라 兩國間 買賣가 不明타 호고 서울
서 뒤라셔 朝家에 大端히 엿즈은 일이 이셔 더욱 震怒호읍신다 호오니 以此以彼에
念慮 마이 업스오며 銀船은 至今 不來호오니 人心이 洵{흥}〃 호여 不祥호오니 必〃
再明日란 別市를 호게 호쇼셔 鐵物 遲滯호읍는 緣故을 겨유〃 잘 알외고 今番 對馬
島 失{실}火로 遲滯를 호엿습거니와 此月 來月로는 응당 大小

/20 : a/

間 始爲出來호리라 호읍느이다 호고 狀啓를 호여 京을 잠깐 늦초고 또 失火로 恤
{홀}典을 不可不 호을 줄노 此事緣도 添{첨}入호엿스오니 이 스연 口外不出호시고
館守의만 종용이 호시고 任官들도 모로게 호쇼셔 아직은 僕이 十分 宣力호읍거니와
前頭 念慮 無窮호여이다 이 편지 스연 브딕〃 勿煩{물번}호쇼셔 총〃 잠상

【和訳】

その間、ご平安の段、お伺い申し上げます。昨日は雨勢により開市をおこなうことができませんでしたので、私のところにも人参が十一斤先に下って来ていたのですが、入送することができませんでしたので、難儀なさっておられるでしょうけれども、鉄物の一件により朝廷が大いにお怒りになられて、これから売買間の大事が起るかと思えます内、(東萊)使道がまた大変に振る舞われて、無事であることを望むことがかなわないようですので、このようなもどかしいことはございません。■飛船でも入送をなさいましたでしょうか、必ずすぐ送るようになさって、■「かの天銀を今に至るまで入送をせず、取り替えて出給するというお言葉がないのみならず、両国の間の売買が不明だ」と言って、ソウルで誰かが朝廷に大変に告げ口をしたことがあって、さらに大いにお怒りになられたと申しますので、かれこれを以て、心配は限りございません。銀船は今に至るまで来ておりませんので、人心が恐々として宜しゅうございませんので、明後日は別市をす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鉄物の遅滞する理由を(東萊府使に)ようやくようやく確かに申上げ、この度の対馬の失火により遅滞をしましたけれども、今月か来月には、当然多少なりとも出来し始めるだろうと申しておりますとて、状啓をいたしましてソウルを暫時なだめまして、また失火により恤典をおこなわないわけにはいかない旨を、この内容も添えましたので、このことを口外なさらず、館守様にだけ懇ろに申し上げ、任官たちにも知らせないようにしてください。まずは私が精一杯力を尽くしますが、これから心配の限りがございます。この手紙の内容をくれぐれも厭わないでください。忽々、まずは。

【第22通】

平安히 지내시옵는가 問安하옵고져 하오며 나는 上來後 即時 병 드러 近日이야 계유 差復{冬복} 하오니 이러하옵기에 그 스이 한번 편지도 못 하오니 [절] 업시 아라

■

/20 : b/

가 하옵너 一代官겨셔는 불셔 入歸하시다 하■ [섭]섭하여 하옵너 듯즈오니 凡事를 決斷하지 [아니]하고 드러 가시다 하니 우리는 아므리 흘 줄을 모로옵너 凡百物價가 兩國事 相違{상의} 하오니 흘 일 업습거니와 天下凡事가 利하기도 막양 되는 일 아니오 不利하기도 막양 되는 일 아니라 互相循環{순환} 하옵거든 엇지 一時不利하다 하고 買賣全體을 버려 念慮치 아니 하시니 此時을 當하여 我國衆人의 倚恃{의지} 하옵기를 公一人 쏜이오니 아모려나 凡事를 便宜{편의}로 하셔 人心을

/21 : a/

鎮定{진정} 하고 買賣를 扶支{부지} 하게 하[시]를 千萬 바라옵너¹³⁾ 白絲는 勿入來호

13) この部分、「隣語大方」に対応するものである。「隣語大方」朝鮮刊本に次のようにあり。

「隣語大方」[朝鮮刊本:4:15a-15b]【第204条】

(日)惣ての物貨の価が以前と比ますれば 相違致まして 氣の毒な事では御座れども 天下の事が都

라 호신다 호오매 계유 上〃年 及 上年 公木 格只를 下送호오니 원간 別被執이 數
多히 이서야 彼此 心情이 實호을 거슬 事勢如此호여 前日과 다르게 되오니 마이 업
습너 今番 絲品은 極擇{틱} 호여 보내오니 必 十分 顧念호셔 大害을 免호게 호여 주
옵소 鐵物事狀은 兪中의 畢陳호엿습거니와 上來後에 나라호로서 鐵物一百三十稱을
어더 ■라 우격[으]로 定호여 맛[지]시니 나라 ■ 謀 ■

/21 : b/

도 못 호고 [만]일 어더 드리지 못 호면 ■ 스 ■ 거시니 鐵物이 出來호거든 分給之
數를 他人의셔 加[數]는 브라지 못 호습거니와 他人과 긋게 주시믈 公만 밋고 잇습
너 人蔘은 下送호오되 반드시 差遲호여 드리 갈 거시니 一哉鄭判事 次知호여 드릴
거시니 그리 [아]옵소 兪中의도 分別호엿습거니와 上年條 白絲價銀을 天銀으로 畢
計호여 一哉鄭判事게 出給호시고 生銅이 未出來호여셔도 尺銅이나 生銅이나 二十稱
만 내여 주시되 卜物載去호 許多人馬가 空還호기 בל상호오니 부디 수이 出給호

/22 : a/

여 人馬上來便에 밋게 호여 주심 千萬 브라운너¹⁴⁾ 心中의 섭섭호여 薄物을 브내오
니 笑領호옵쇼셔

【和訳】

ご平安の段、お伺い申し上げます。私は（東萊へ）上って参りました後、すぐに病み
つきまして、最近になってようやく回復いたしました。このような状態のため、その
間一度もお便りもできませんでしたので、無礼に思し召しのことと存じます。一御代
官様はすでに（対馬へ）入帰なされたと申しますので、名残り惜しゅうございます。
承りましたところ、全ての事を決断なさらずに入帰なされたと申しますので、私共は
何とも致し方がございません。全ての物価が両国の事が相違いたしまして、致し様が
ございませんけれども、天下の全ての事が利になるのも、常になるものでもなく、不
利になるのも常になるものでもなく、互いに循環致すものでございますれば、どうし
て一時不利だと申して、売買の全体を捨てて、お顧みにならないのでしょうか。この
時に当たって我国の衆人が頼みといたしますのはご貴殿お一人だけでございますの

て利する事が不断有もので御座りませぬ 互に相循環致すもので御座れば 何しに一時に不利など
て 買賣の全体を捨て御心をよせられませぬか 我々中頼ますは 其元斗で御座るにより 何卒
万事を便誼になされまして 人の心の定ます様になされて 買賣の取続ます様になさる儀を
御頼申まする

(朝)凡百物貨 갑시 曾前과 비겨 보오면 相違호오니 마이 업습거니와 天下 凡事가 利도 穢양 되는
일 아니라 互相循環호여 가습거든 언지 一時 不利타 호고 買賣 全體를 브려 念慮치 아니호시
리인가. 우리 大都 倚恃호기는 公畚이오니 아모려나 凡事를 便宜로 호셔 人心을 鎮定케 호
고 買賣를 부지호게 호심을 브라운너

14) この部分、「隣語大方」に対応するものか。「隣語大方」朝鮮刊本に次のようにあり。

「隣語大方」[朝鮮刊本:4:16b]【第205条】

(日) 荷物をお〃せて参ました人馬が空に帰まするは 最残多存知まするから 鉄物なり共 多少間御
出下されましたらば 返がけにお〃せて遣ませふ

(朝) 짐을 시러 온 人馬가 空還호기 섭섭호오니 鐵物이나 多少間 出給호시면 回還의 載去호오리.

で、何卒全ての事を便宜に取り計らわれまして、人心を鎮め、売買を保ち続けるようになさることを何卒願ひ奉ります。白糸は、入来させないようにと仰せられたと申しますところ、ようやく一昨年及び去年の公木の差し引きを下し送りますので、そもそも別の売込みが数多くあってこそ、双方心情が確かにございますものを、事の事情がこの如くでございまして、以前とは異なるようになりましたので、心配に限りがございます。今回の糸品は至極選り抜いてお送りいたしますので、必ず十分ご高配くださり、大害を免れ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ませ。鉄物の事状は、皆様方にすべて申し上げましたけれども、(東萊へ)上って参りました後に、国から「鉄物百三十称を求めて送れ」と、無理やりに定めて割り振られましたので、■もできず、もしも求めることができなければ、■でしょうから、鉄物が出来いたしましたら、分給の数を他人より増やすことは望むことができませんけれども、他人と同じようにくださることを、ご貴殿のみを頼みにいたしております。人参は下送いたしますけれども、必ず遅延して入送されるでしょうから、遅くして入るので、一哉鄭判事に預けて入送させますので、左様お心得くださいませ。皆様方にもお便りいたしましたけれども、去年条の白糸価の銀を天銀で計算して、一哉鄭判事に出給してくださり、生銅が未だ出来していません、尺銅なり生銅なりで二十称ばかり出給してくださるのですが、荷物を載せて行った多くの人馬が、そのまま空しく帰って参りますのが宜しゅうございませぬので、何卒早くに出給して、人馬が(東萊へ)上って来る(帰りの)便に間に合うようにしてくださいませようお願いいたします。心中寂しゅうございませぬので、粗末な贈り物をお送りいたしますので、ご笑納くださいませ。

【第23通】

雨中의 僉候 平安호오신 문안 아읍고져 호오며 今日 開市는 우세 이려호여 못 호오니 접호여이다 公木手標을 即時 내여 보내마 호읍시매 대되 기드리고 잇스오되 至今 奇別이 업스오니 그 스이 무슴 多事호 일이 계오셔 그러호은지 모로와 호오며 다른 일이 아니라 官家 | 公木을 만히 바다 두시고 차하을 호려 호시고 手標을 직 축도 호시으며 賣[買]事로 니르와도 이[런] 거슬 타[셔] 上京을 호■의 ■

/22 : b/

올 호여 써야■ 買賣의 有益호 일이온 ■지 手標■ 아니 나읍기에 其間의 悶望호 일이 만스오매 기별호니 즈셔호 回示호읍쇼셔

【和訳】

雨中にて皆様、ご平安の段、お伺い申し上げます。今日開市は雨の勢が斯様にございまして行くことができませんので、残念でございます。公木の手形を即時出して送ると仰せでございますので、皆々待っておりますが、今に至るまでお便りがございませんので、その間何の多事なことがおありになったからなのか存じ上げませんけれども、他でもなく、官家が公木をたくさん収納になり、差し下そうとなさり、手形を催促もなさいまして、売買の事から申しまして、このようなことに乗じて、上京を

■、売買に有益なことで■手形が出来いたしませんので、その間に難儀なことが多くございますにより、お便り申し上げますので、委細お返事くださいませ。

【第24通】

意外に 덕으신 편지 보옵고 친히 만나 보옵는 듯 반갑스외다 당맨(님) 심호오니 대되 직니의 平安이 지내시고 비션이 오〃니 島中도 무스호신가 시브오니 못내 깃스 와이다 편지에 기별호신 말씀은 즈시 아랏스오나 당맨(님) 심호여 어제 관의 드러가와 議論호려 호엿습더니 길히 쓴허져 도로 나오옵고 오늘 東萊 올라 가려 호오나 물도 만코

/23 : a/

길히 쓴허진 덕 만키로 時方 즈저호고 잇습너이다 來日 지시는 ×바[○비]가 쾌히 개면 오〃러니와 이려호면 物貨를 싣고 어이 느려 오리잇가 그러키로 오늘 올라 가서 형세를 아라 오려 호엿더니 갈 길히 업서 못 올라 가오니 밤의 게오면 來日 새벽 가서 지시 밋쳐 느려 오려 호너이다 우리나라 도둥이나 대되 숨을 불셔부터 드리려 호오되 使道 허틀 아니 호시는 타시오니 來日 開市를 호옵거든 다쇼간 비션 와시니 호고 말씀이나 근절히 호시고 털물을 내오면 [혹] 지시에[야] 숨[이] 드[러] 오올 듯 시브옵고 우■

/23 : b/

앗[습고] 도[등]도 흠새 민망호여 호는거■ [그] 스이 ■ 될 줄 모르고 잇스오니 너일 새벽의 올라 가서 아라 ■ 호게 호엿너이다 기별지 아니 호셔도 우리는 넘너 호고 잇너이다 편지에 다쇼 스연 有煩호여 못 호오매 통스 드러 보내오니 즈시 듯 즈오쇼셔

【和訳】

思いがけずお書きになったお手紙拝見仕り、親しくお目にかかるがごとく嬉しゅうございます。長い梅雨がひどうございますが、皆様客地にてお元気に過ごして居られましょうか。飛船が来ましたところ、島中もご無事のごようす、珍重の至りにございます。お手紙にお書きになったお言葉は、よく分かりましたが、長い梅雨がひどくて、昨日倭館に入って、議論しようといいたしましたけれども、道が切れて、再び出てまいりまして、今日東萊へ登ろうといいたしましたけれども、水も多く道が切れたところが多いので、只今ためらっているところです。明日の開市には雨がすっぱりと晴れましたら参りますけれども、このような状態でしたら、物貨を載せてどうして下って行くことができますでしょうか。なので、今日（東萊へ）登りまして事情を調べて来ようといいたしましたけれども、行く道がなくて登って行けませんので、夜に雨が上がりましたら、明日明け方に（東萊へ）行って、開市に至るまでに（倭館に）下って来ようと存じます。我々にしても都中（商訳）にしても皆人参を早くから入れようと思っているのですが、使道（東萊府使）がお許しにならないせいですので、明日開市をいたしましたら、多少なりとも飛船が来たからとて、お話など懇ろになさって、鉄物をお出し

/25 : a/

家の 말씀은 잘 알외다 하오나 今明間 비가 나오와 鐵物을 내오면 무스호려니와
그렇지 못 호오면 어려운 일이 만스오니 답〃 절박호여이다 人蔘事로 二十九日 專
人 步行호엿스오니 수이 오을거시매 조금도 念慮치 마옵쇼셔 이 일은 僉公계셔도
僕等이 ㅁ음을 大되 죄오고 잇스오니 아모디 오와도 밧비 피집호을 거시니 그리 아
옵쇼셔 此事緣은 京{서울} 各別도 年호여 듯{드} ㅈ오니 各同事中이 宣力한다 호엿
스오니 현마 수[이] ■ 米手標을 鄭判事■ 내여 보내려

/25 : b/

■도 ■知과 소[약]이 잇다 호오니 ■로 ■ 보내 오쇼셔 무궁호오되 心身이 아■호
와 대강 덕습닉이다

【和訳】

皆様方、ご平安の段お伺い申し上げ、お便り致します。今日雨のために開市ができま
せんので、残念で寂しゅうございます。昨日[]で公事がまた下って来るので、官[]
私共[]どこにございましょうか。前回の開市に下ってきた後、鉄物が今日明日の間に
出ると官家に申上げましたところ、そのことを戸曹に報告いたしましたので、すぐに
(鉄物が) 上がって行くものと(思っ) ソウルでは待っているのですが、このよう
に漠然としておりますので、我々の心持がいかにばかりかと思われましてしょうか。人
を救い出した後でこそ、これからのことを後々まで望むのであって、一度トラブルに
なりましたら、全く滅びてしまうこととなりますので、皆様深く考えてみて下さい。
昨日卞同知が行ってきた事情は大体承りましたけれども、行ってきて官家によろしく
申上げたそうではございますけれども、今日か明日の間、船が出来して鉄物を出給す
れば大丈夫でしょうが、そうでなければ難儀なことが多いので、もどかしく切迫いた
しております。人蔘の事で二十九日に特別に人を立てて飛脚を送りましたので、近い
うちに来るはずですので、少しも心配しないで下さい。このことは、皆様方におかれ
ましても私たちが気をもんでおりますので、なんとしてでも、早くに売込みをするつ
もりですので、そのようにお心得ください。この事情はソウルの便りも続いて承りま
したけれども、各同事中(商人たち)が力を尽すと申しておりますので、どんなにす
ぐ■米の手形を鄭判事■出給し送ろうと■送って下さい。限りがなく、心身が■です
ので、あらましのみ記します。

【第27通】

밤스이 僉中 平安호오신 문안 아옵고져 호오며 今日 開市는 雨勢 如此호옵기로 못
호오니 ㅅ〃 호오며 一代官 米手標 今日 僕은 어제스이 ㄴ려가셔 보옵고 오쟈호엿습
더니 暑感氣連이 이셔 못 ㄴ려가옵고 ㅅ〃 히 지내오며 特送船은 나오는디 本宅 消
息이나 平安호시더니잇가 문안 알고져 호오며 今番이나 秋蔘

/26 : a/

價銀이 나왔습는지 必念慮호심 ㅄ라오며 금번 피집 습도 公論들이나 호여 보여신지

과연 落本긔될 양이오면 議論긔오시고 還出긔읍는 일이 올흔 듯 시브오니 必〃 너
 비 의논긔시믈 브라오며 活鷄{활계}는 六音 보내오니 혼 새 반찬의나 쓰읍쇼셔 新
 接{접}을 긔 나오신 새오매 아모 찬물이나 어더 보내읍고 시프오나 자실 거슬 엇줍
 지 못긔여 섭〃 긔여이다 數日後 ㄴ려 가올 거시오매 긔치ㄴ이다 편지 보시고 ■ 하
 쇼셔

【和訳】

夜の間、皆様方ご平安の段、お伺い申し上げます。今日開市は雨の勢がこのようござ
 いますため、できませんので残念でございます。一代官の米の手形を今日¹⁵⁾私は昨
 日のうちに下って行ってお目にかかって、帰って来ようと思っていましたところ、夏
 風邪の氣運があつて下って行けず、寂しく過ごしております。特送船は出来いたしま
 したけれども、本宅の消息などもご平安であられるでしょうか、お伺い申し上げま
 す。今回でも秋の人参を買うための銀が出来いたしましたでしょうか、必ずお氣にお
 かけくださいますようお願い申し上げ、今回の売込み人参も公論などでもなさってご
 らんになられたでしょうか、ほんとうに損になるようでしたら、議論なさって還出す
 ることが正しいようでございますので、必ず広く議論なさることを望みます。生きた鷄
 六羽を送りますので、一時のおかずにもお使い下さい。新接に出て来られたばかり
 の時でございますので、何かつまらない物でも求めて送りたいですが、召し上がるべき
 ものを求められなくて残念でございます。数日の後に下っていきますので、これにて
 終ります。手紙をごらんになって、■なさってください。

【第28通】

日氣■ 僉公客中 [긔]운 [평]■ ㅎ■ 문[안]■

/26 : b/

읍■ 나도 아직 무스히 잇■[오니] [다행긔여]■ ㄴ 今初三日 物貨舍錫 下送긔엿■
 니 無事[히 ㄴ려]가 執納긔시온지 初巡 白絲物貨 入館被執긔온 긔별을 今月二十日
 이야 어더 ㄴ습고 心神이 驚慌{경황}긔여 不知所言이로되이다 元間 買賣가 우리는
 被執을 만히 ㅎ고 代官ㄴ는 出物을 만히 ㅎ셔야 比긔면 男女가 서로 안고 잇습는
 ㄴ긔여 彼此{괴츠} 和合{화합}이 되오매 被執 物件中의도 白絲가 爲主긔여 被執긔
 읍더니 至於今年긔여 代官ㄴ 言內에 白絲을 勿入來긔라 ㅎ시니 이 말습이 이신 후
 ㄴ 白絲를 入送긔지

/27 : a/

아니 ㅎ여야 올스오매 上年 公木 格只 數 당홀 만×지[○치] 출혀 보내오니 此時
 예 약간 白絲 發送긔는 양을 보오니 심히 섭〃 ㅎ고 寒心긔믈 어이 다 ㅎ올고 下送
 後 念〃 싱각긔되 全數上絲에 잡히기는 정치 못긔니 或 中絲가 만히 되는가 적게
 되는가 녀녀긔읍더니 문서을 보오니 四稱을 ㅅ르 ㅅ셔 作名은 업스오되 下絲되리라
 ㅎ오니 놀납고 마이 업서 三日ㅅ지 ㅅ음을 정치 못긔엿ㄴ이다 代官ㄴ겨셔는 下送

15) この部分に誤脱あるか。文意つながらず。

잡는 거슬 언제 보와 겨시온지 ■긋지 못 헝엿습기[의] 下絲■가 [아모만] ■

/27 : b/

[인][습]도 ■고 잇습늑이다 白絲 四稱 ■ 흘■ 올스오되 이 作名이 千萬 놀납스온 데 아모려도 變通헝시몰 브라운늑 朴僉知 白絲는 數多헝니 變通을 엇지 너기실지 내 白絲는 數少헝 거시니 이만 일을 極難다 헝시올가 아모려도 變通헝여 주시몰 千萬 브라운늑 來月 念後에 發程헝여 늑려가올 거시니 반가이 보오몰 기드리옵 人參 二十四斤 저적 下去헝여 尙未入館이라 헝옵더니 그 후 入館헝온지 消息을 苦待헝옵 늑

【和訳】

天氣■皆様方、客地におかれましてご平安の段お伺い申し上げます。私も今のところ無事でございますので、幸いでございます。今月の三日に物貨のトタンを下送いたしましたけれども、無事に届いてお受け取りになりましたでしょうか、一回目の白糸の物貨が入館したものの売込みをしたという便りを今月の二十日になってようやく承り、心から驚き入りまして、何と云えばいいか分かりません。すべての売買たるもの、我々は売込みをたくさんして、御代官方は出物を多くなさってこそ、例えば男女がお互いに抱き合っているようで、お互い仲睦まじくなりますので、売込み物件の中にも白糸を第一にして売込みをしておりましたところ、今年に至って御代官方のお言葉の中に、白糸を送るなどおっしゃるので、そのお言葉があった後は、白糸を入送しないのが正しいので、去年の公木の差し引き分の数に当たる分だけ準備して送りましたが、この時になって少し白糸を発送するようすが見えますので、とても残念で情けないことを、どうして言い尽くせましょうか。下送後につらつら考えますに、全数上糸にするということは定めがとうございますから、あるいは、中糸が多くなるか少なくなるかと心配しておりましたところ、文書を見てみましたら、四称を別に用いて作名はございませんが、下糸になるといいますので、驚き入り、途方に暮れまして、三日まで心を静められませんでした。御代官方は下送するものを、いつご覧になられたのか、■できませんでしたので、下糸■人參も■ています。白糸四称■この作名がまことに驚き入りしましたが、何とかやりくりして下さることをお願い申し上げます。朴僉知の白糸は多いのでやりくりをどう思われるでしょうか、私の白糸は数が少ないものですので、これくらいのことを極めて難しいとおっしゃいますでしょうか。何としてでもやりくりして下さることを何卒お願い申し上げます。来月二十日後に（ソウルを）出発して（東萊へ）下って行きますので、嬉しくお会いすることを待ち望んでおります。人參二十四斤がこの前下って行きまして、まだ、入館していないと言っておりましたけれども、その後、入館いたしましたでしょうか、その便りを待ち焦がれています。

【第29通】

어제 헝오신 서찰{書札} 보옵고 旱炎의 僉候 平安헝오신 일

/28 : a/

아옵고 못내 깃브와 ㅎ늑이다 그 스이 開市도 못 ㅎ옵기로 오래 보옵지 못ㅎ오니
접〃 ㅎ오며 오늘 開市도 성치들 못 ㅎ옵기에 ㄴ려가옵들 못ㅎ오니 이런 접〃 ㅎ온
일이 업스오나 삼이 서울ㅅ지 온 줄은 ㅅ셔 드럿스오매 날마다 기드러 와 잇습더니
어제 서울셔 角契 朴僉知 편지을 보온 즉 松都[선] 皮先達 蔘 五十斤 金奉事 蔘 四
十斤이 이리 올라와셔 納稅의 論難{놀란}이 만ㅎ매 겨유 무스히 稅納은 ㅎ여시되
公事을 내지 못ㅎ여시니 初六日 스이 下送홀가 ■[나] 기별이 왓스오니 松都■는
■ 步行片紙 보오며 卽時 ■ 서울로 내온 거[시]

/28 : b/

納稅가 지체ㅎ여 이 ㅅㅅ지 못 오〃니 그[런 일이 어딴] 이시리[잇가] 初六日 ㅅ랏
스오면 數日間 드러오을 [거시]니 오옵거든 別開市를 卽時 ㅎ오량으로 싱각ㅎ엿스
오나 이 ㅅㅅ지 피집을 못 ㅎ오니 기별ㅎ을 말슴이 업늑이다 이런 事緣이나 ㅎ오며
今開市는 必 가려 ㅎ엿습더니 성치들 못ㅎ여 못 가오나 數日스이 ㅅ오을 ㅅ라늑이
다 서울셔 卞僉知 黃判事 蔘도 ㅎ가지로 갈 줄을 ㅎ엿더이다 食前의 鯉魚와 어름
보내엿습더니 ㅅ즈오시니잇가 二代官 求ㅎ신 거슨 그리 ㅎ리이다 무궁ㅎ오나 ㅅ난
ㅎ여

/29 : a/

긋치늑이다

【和訳】

昨日お書きになったお手紙拝見仕り、暑さの中、皆様方ご平安の段承りまして、珍重の至りにございます。その間、開市もできず、長い間、お目にかかれませんでしたので、残念にございます。今日の開市も体調がすぐれぬため、下って行くことができませんので、こんなに残念なことはありません。人参がソウルまで来たことは、既に聞いておりまして、日々待っておりましたところ、昨日ソウルから角の請負の朴僉知の手紙を読みましたら、松都では皮先達の人参五十斤、金奉事の人参四十斤がこちらへ上がって来て、納税の論難が多くて、やっと無事に税納はいたしました。公事の出給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ため、初六日の間に下送するかという便りが参りましたので、松都■飛脚の手紙を読んで、直ちにソウルに送って来た物が納税で遅滞して現在まで来ることができないのですが、そのようなことがどこにございましょうか。初六日に出発したならば、数日間に入って来るでしょうから、参りましたら、別開市を直ちにすつもりでございましたけれども、この時まで売込みができないので、お伝えする言葉がありません。このような事情でも伝えておきます。今の開市は、必ず行こうと思っておりましたけれども、体調がすぐれませず、行けません。数日の間にお目にかかることを望んでおります。ソウルからは、卞僉知、黄判事の人参も一緒に行くということをお願いしておりました。朝食前に鯉と氷を送りましたが、お受け取りになりましたでしょうか。二代官が求められたのは、そのようにいたします。限りがありませんが、気もそぞろでございますので、これにて終わります。

【第30通】

日氣極熱^ㅎ오니

氣運 平安^ㅎ신 ×무[○문]안 아읍고져 ^ㅎ오며 去度 片紙^ㅎ엿습더니 보시온지 卜物은 下送^ㅎ엿습더니 무스히 被執^ㅎ은 弼別 모로와 日夜 苦待^ㅎ읍^넉 우리도 買賣 일의 蓼[涉] ^ㅎ연 지 二十年의 되오되 代官^넉 돌보{トリモツテ}시기로 無事히 지내엿습더니 到今^ㅎ여 凡事에 落本이 참혹^ㅎ오니 아마 扶支^ㅎ지 못 할가 日夜 念慮^ㅎ는 가운데 [兩國]間 事務를 次知^ㅎ[신 지] [二十餘]年 恩惠{은혜} 님은 사름이 만■ [至於]此時[^ㅎ]

/29 : b/

공이 반드시 不祥히 너겨 구^ㅎ시리라 브라고 잇스오니 必 格別 넘너^ㅎ여 扶支^ㅎ게 ^ㅎ시를 브라고 잇습^넉 거번 편지에 銀 말슴 ^ㅎ엿습더니 엿지 ^ㅎ시온지 大方紬 一百五十疋 大〃方紬 二十疋 花方紬 八十疋 含錫 二十二稱 下送^ㅎ오니 즈시 맞좁고 나도 官家로서 鐵物 百餘稱을 質納^ㅎ라 ^ㅎ고 數을 定^ㅎ여 맞지시니 나라 일을 엿지 피^ㅎ올고{サケマシヨウカ} 擔當^ㅎ 후로 官家 督納이 급^ㅎ오니 아마 견디지 못^ㅎ게 ^ㅎ엿습^넉 그스이 鐵物이 왓습^넉가 日夜 기다리오며 至於鐵物分給之事^ㅎ여도 他人에서 數小히 나면 或 私計로 업시^ㅎ가 疑心^ㅎ

/30 : a/

여 罪責이 이실 거시니 此則 萬分 切迫^ㅎ 일^ㅎ오니 必 此事緣을 奇念^ㅎ여 念慮^ㅎ여 주시를 브라읍^넉16) 七月로 정녕{淸令(下寧)} 느려 가올 거시니 不久에 반가이 보올가 ^ㅎ는이다

【和訳】

天氣が極めて暑うございますが、ご平安の段、お伺い申し上げます。この前、手紙を送りましたが、お読みになったでしょうか。荷物は下送しましたけれども、無事に売込みなされた便りを存じ上げず、日夜待ち焦がれております。我々も売買のことに参加して、二十年になりますが、御代官方がお取り持ちくださいましたおかげで、無事に過ごしてまいりましたところ、今に至って全ての事に損がひどいので、多分維持できないのではないかと、日夜で心配しております内、両国間事務を受け持ってから二十年余り恩恵を受けた人が多いのですが、この時に至って御貴殿様がきっと不憫に思

16) この部分、「隣語大方」に対応するものである。「隣語大方」朝鮮刊本に次のようにあり。

「隣語大方」[朝鮮刊本:4:16b-17b]【第206条】

(日)官家より 鐵物一万斤余を求て納る様に各〃數を定て云付られまして 公儀の事をどふ避ませふよふも御座りませひで 請合ましたれば 催促が最急に御座つて こたへ難ふ御座りますが如何 また何の音信も御座りませぬか 鐵物の御渡方も 他人より若少御座つては 内〃で減たかと疑われて 叱が御座りませふにより 御心をよせられて下されませひ

(朝)官家の의서 鐵物 百餘稱을 質納하라 ^ㅎ고 各各 數를 정^ㅎ여 만기시니 나라일을 어이 避^ㅎ올고 擔當^ㅎ 후^넉 督納이 과연 急^ㅎ여 문 견디게 ^ㅎ연스오니 언지 至今 아모 弼척도 업습^넉고 至於鐵物分給事^ㅎ여도 他人의의서 혹 數小^ㅎ오면 私事로이 업시^ㅎ가 疑心^ㅎ여 罪責이 인스올 거시니 十分記念^ㅎ여 주읍소

가 比上年¹⁷ 減少¹⁸ 하다 ㅎ오니 ㄹ이 업¹⁹ ㄴ이다 上蔘 十六斤 十兩을 十六斤에 作封
/31 : a/

ㅎ여 보내오되 ㄱ ㅅ은 ㄱ 納稅가 극히 賤로와 그저 下送²⁰ ㅎ오니 皆 收納{슈랍} ㅎ은
후 ㅎ디 잘 ㄷ라 주오시되 品도 ㄷ흔 거시오니 凡事의 各別 顧護²¹ ㅎ오심 千萬 專恃
ㅎ²² ㄴ이다 冬行 卜物은 去月 二十七日 畢渡²³ 하다 ㅎ오니 今念間 入京²⁴ ㅎ ㄷ²⁵ ㅎ오니 卽
時 下送²⁶ ㅎ리이다 一代官公겨오서 連²⁷ ㅎ여 平安²⁸ ㅎ오시니잇가 片紙나 卽時²⁹ ㅎ여 못습고
싯브오되 空簡이 ㅅ³⁰ ㅎ와 아직 못습지 못 ㅎ오니 卜物 下送便에나 못습자 ㅎ읍거
니와 위션 문안 各別 [傳] ㅎ여 주쇼셔 出來³¹ ㅎ은 銀貨³² ㄴ 그스이 分給이나 ㅎ오신지
모로옵거니[와] ■이 出來

/31 : b/

ㅎ은 거슨 卽時 出給을 ㅎ오셔야 及時³³ ㅎ야 쓰는 일이 잇스오니 此後³⁴ 란 出來³⁵ ㅎ읍거
든 必 卽時 出給³⁶ ㅎ게 ㅎ쇼셔 무궁³⁷ ㅎ오나 맞슴 姪子 敏甫¹⁷ 出使로 ㄴ려 가오매 大
槩³⁸ ㅅ ㄷ스오며 未盡事緣은 敏甫의 口伸의 잇스을 거시니 ㅅ시 ㄷ스와쇼셔 총 ㅎ ㅅ
상

【和訳】

暑さがとてもひどうございますが、相変わリませず、旅の中、ご平安でございませうかお伺い申し上げ、一筆啓上申し上げます。前に返事いたしましたけれども、御覽くださいましたでしょうか。今年の人蔘は事態遅滞いたしましたせいで、とても心配なさっているかと存じますが、そのようなことはありません。今ではようやく、流れて下って行きますので、幸いです、全体の数が去年と比べて減少したというので、途方にくれております。上人蔘十六斤十兩を十六斤に作封（分けて包んで）して送りますが、松の実を取ったもの¹⁸の納税が極めて煩わしく、ただ下送いたしますので、全て収納した後、一緒によろしくお計りくださり、品も良いものですので、全ての事に格別ご高配くださいますよう何卒お願い申し上げます。冬至使行の荷物は先月の二十七日渡り終えたそうでございます、今月の二十日前後に入京するようでございますから、即時下送いたします。一代官公様が引き続きご平安でいらっしゃいますでしょうか、手紙でも即時に書いてお伺い申し上げたいのですが、贈り物が付いていない手紙が寂しく、まだお伺いできておりませんので、荷物の下送便でもお伺い申し上げようかと存じますけれども、まずは、格別によろしくお伝えくださいませ。出来いたしました銀貨は、その間、分給でもなさいましたでしょうか、存じ上げませんけれども、すでに出来したものは、即時出給をなさってこそ、時に及んで用立ちますので、この後は出来いたしましたら、必ず即時に出給す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限りがありませんが、ちょうど甥の敏甫が出使として下って行きますので、大略のみを書きます。尽していない内容は敏甫が口上で述べますので、詳しくお聞き下さい。匆々ま

17) 「姪子 敏甫(甥の敏甫)」とあることから、この書簡の発信者は、朴尙訥(敏甫)の叔父である朴泰信(信哉)と考えられる。

18) 「小さいもの」と訳すべきか。後考を待つ。

ずは。

【第33通】

흔 잇틀스이 극열호오니 連호여 平安호오신 問安 아옵고져 호오며 듯즈오니 어제은
(는) 飛船便의 자체가 벼슬호옵다 호은 회보을 듯즈오시다 호오니 듯좁고 죽히 깃
거호리잇가 우리도 듯좁고 하 깃브오매 치하호나이다 오늘 開市나

/32 : a/

느려 오옵드면 드러 가 뵈옵고 친히 치하호올디 듯즈오니 임관이 급흔 공간으로 東
萊 올라 가옵기에 今日 開市나 못 되어 來日 開市을 혼다 호오니 來日 친히 드러
가 치하호오려니와 爲先 치하호옵니다

【和訳】

二日間ほどたいそう暑うございますが、変わりませずご平安の段、お伺い申し上げます。
承りましたところ、昨日は飛船便にて息子さんが官職に付いたという喜ばしい便
りをお聞きになったとのことで、それを聞いてさぞかしお喜びのことと存じます。
我々もそれを聞いてとても嬉しく、お祝い申し上げます。今日開市でも下って来たな
らば、入館してお目にかかって、親しくお祝い申し上げるべきところですが、聞いた
ところ、任官が急な公務で東萊に上がるため、今日は開市ができず、明日開市をする
というので、明日親しく入館してお祝い申し上げますので、まずは、お祝いの言葉ま
で申し上げます。

【第34通】

요스이 風雨 사오납스오니 僉公 平安호신 문안 알고져 호오며 그스이는 開市도 못
호기로 오래 못 보오니 접〃 답〃히 지내옵 公木手標는 至今 出送호신 일이 업다
호오니 엇던 연권 줄 모로거니와 前頭 買賣로 널노도 手標 늦게야 내시는 [일이]
형세을 싱각지 아니 호시는 일 긋고 僕의 일로 널로

/32 : b/

도 一時一刻이 맞브옵더니 무슨 곡절로 이리 천연호옵는지 아모 쟤 될 줄 모로고
일이 답〃호여 잠 덕습 무슨 곡절이 잇거든 기시를 맞비 청호셔 手標 못 내는 스연
니르시고 手標를 연고 업시 내려 호시거든 오늘이라도 쾌히 내셔 諸人の 疑惑을 업
게 호쇼셔 서울셔는 또 鐵物 催促이 至嚴호오니 今番 飛船便에 즈셔 호은 弔別이
왔습던지 寤寐에 〈念〉慮 무궁호옵 거번의 니르시던 말슴은 即時 歩行도 보내여습
거니×외[○와] 今年 都數蓼이 덕게 드옵고 一代官 겨실제 맞고 드러 가느라 호시
던 말슴이 이시매 必 今 秋蓼도

/33 : a/

各別 宣力호오며 或 京中の 多少間 餘地가 잇거든 더 어더 보내라 호엿더니 어제
回答을 어더 보오니 多少間 되는 대로 斤〃兩〃 모호려니와 갑시 極高호여 卽今
斤〃兩〃 蓼에 갑슬 만히 줄 작시면 今 秋蓼 折價에 어려울 거시니 今年 蓼이 비록

數小入執을 ㅎ여시니 그만ㅎ여 秋蔘 나기스지 견딜가 시브거든 卽今 在京 ㅎ 蔘들을
구차히 모호지 말고 과연 繼用{계용}키가 어렵거든 아모리 前頭 蔘價가 어려워 되
리라 ㅎ고 마지 못홀 거시니 此 事緣을 ㅂㅂ비 의논ㅎ여 기별ㅎ리 ㅎ고 急步가 ㅂㅂ스
오매 이리 ㅂㅂ비 덕스오니 모다 보시고 답장

/33 : b/

ㅎ읍 ㅂㅂ디 이런 말씀 ㅂㅂ거히 마르시고 답장ㅎ읍 ㅂㅂ ㅎ을 말씀도 잇스오니 必 來日
스이 別開市ㅎ게 ㅎ쇼셔 이 답장 보옵고 急步를 도로 보내게 ㅎ엿느이다

【和訳】

最近、風と雨が悪うございますが、皆様方ご平安の段、お伺い申し上げます。その間
は、開市もできませんでしたので、長い間、お目にかかることができず、残念でもど
かしく過ごしております。公木の手形は、今に至って出送なされた事がないとおっ
しゃるので、どんな訳か存じませんが、これからの売買から申しましても、手
形を遅くに出されるというのは、形勢をお考えになっておられないことかと存じます
し、私の事から申しましても、一時一刻を急ぎますので、何の事情でこのように遅れ
るのか、いつになるかわからず、事がもどかしくて一筆啓上いたします。何か訳があ
るのでしたら、開市を急いで要請なさいまして、手形を出せない事情を仰せられまし
て、手形を無事出すおつもりでしたら、今日にでもすっぱりと出して、皆の疑惑がな
いようになさってください。ソウルからは、また鉄物の催促が厳しゅうございますの
で、今回の飛船便に詳しくおっしゃったお便りが来ましたのでしょうか、いつも心配
が限りございません。この前、おっしゃったお話は即時飛脚も送りましたけれども、
今年全ての数の人參が少なく入ってまいりまして、一代官がいらっしゃる時に信賴し
て（対馬に）帰るとおっしゃったお言葉もございますので、必ず今秋の人參も格別に
力を尽くしましょうし、あるいは、京中に多少なりとも可能性があるようなら、もっ
と求めて送れと申しましたところ、昨日返事を受け取りまして読んでみましたら、多
少なりともあるだけ、一斤一斤一両一両集めましょうけれども、値段が極めて高うご
ざいまして、今一斤一斤一両一両の人參に対価を多く費やそうといたしましたらば、
今秋の人參の値付けに難儀するでしょうから、今年の人參が、たしかに数少なく買い
付けましたので、やめにして秋の人參が出てくるまで耐えることができそうでしたら
ら、只今ソウルにある人參を苦勞して集めるのはやめることにし、本当に引き続き用
い難いのであれば、いくらこれからの人參の値段が難しくなるとしましても、やむを
得ないことなので、この事情を急いで議論して伝えますとて、飛脚が参りましたの
で、このように急いで一筆啓上申しますので、全てをお読みになってお返事くださ
い。なにとぞ、このような話を煩わしく思われなくて、お返事ください。また、申上
げる話もありますので、必ず明日中に、別開市するようにして下さい。このお返事を
読んでから飛脚を再び送るよういたします。

【第35通】

요스이 老炎이 심호오니

客候 萬安하시며 眼患은 그스이 더 나오시니잇가 念慮호오며 今日은 訓導下處까지 나오셔 말씀을 하시는가 시브오되 僕은 病이 낫지 못 하여 그리 가옵지 못호오니 섭키 무궁호오며 僕의 心事는 니르지 아니하여도 公겨셔는 응당 生覺이 겨실 거시오 數日前의 僉中으로 大小事緣을 덕엇스

/34 : a/

오매 또 弔別홀 거시 아니오되 相厚之情과 昔年の 僕의 買賣를 公겨셔 크게 勸하시던 일을 生覺호오면 마초와 이리 나와 겨신 새오니 公의 德을 넙고져 ברה리 잇가 말니잇가 此則人之常情이오매 다시 덕스오며 今番 蔘還出하기 말기는 僕의 蔘이라도 不敢任意{불감임의} 호옵는 줄은 所聞이 겨실 거시오니 僕이 必 還出을 말고져 아니호는 줄은 自然히 아르실 거시오되 다만 此事가 如此히 되온 후는 事勢大敗하여 難保之境의 가옵고 僕의 買賣는 不攻自敗가 되게 하였스오니 이런 설은 일이 어이 잇

/34 : b/

스오며 古今이 다로와 判事너 中の 일호는 사름이 不過 二三人 남아습다가 이제 또 一二人이 只자 病을 드오니 이런 痛泣호을 일이 어딴 잇스오며 卽今 買賣形勢는 과연 호고 시포은 일이 업스오나 오히려 僕이 일 잘호는가 녀겨 僕을 붓뜨러 가지고 前頭事을 호고져 호는 사름도 여러힌 줄을 公도 아니 아르시느니잇가 이러호은 즘음의 如此호은 形狀을 보오니 僕의 買賣호옵기 마음기는 姑捨호옵고 여러 사름이 붓뜨러 가지고 ברה던 일이 어이 不祥치 아니호오며 至於僕갓 人物이야 千萬을 ברה시다 관

/35 : a/

겨 ㅎ리잇가마는 韓起仲갓 人은 此時를 當하여 冢고만 일로 ברה시는 거시 네 사름이 冢고만 허믈로 于城갓 將×師[○帥]를 ברה고져 호는 일 긋스오니 어이 긋븐 일이 되오며 僕으로 니르온들 爲人이 不善하여 左右로 作罪호은 일은 非細호옵 거니와 응당 買賣間의 落本이 만하 人皆年〃 未格只호옵는 거슬 僕이 落本을 不計호고 極力 開路하여 至于今히 昌{창}大之路를 扨드다 니르올 거시니 바히 無功之人과 다를 쫓 시브온디 非我之罪호고 得失이 元非重大之事온디 人 ברה시기를 有若草介하시오니 人非木

/35 : b/

石인즉 어이 涕泣{체읍}之心이 업스오며 凡事을 自過不知[라] 草介갓치 아르시는 줄은 모로고 一心이 只매의 專力호오면 彼此의 德이 잇스올가 하여 前頭事을 爲하여 排置{비치}호은 것도 浩{호}大호옵고 卽今도 下來物이 잇습는 일도 僕의 홀 노로슬 다 호고 僉公너 留念하시는 德을 넙고져 ברה온 일이옵드니 卽今은 有若傷弓之鳥호옵고 孤掌難鳴之勢 되엇스오니 이런 設습고 不祥호은 일이 어이 잇스오되잇가 事機如此히 되온 후는 萬事의 無心히 되온 줄은 公이 矜각호실 듯 시브오매

/36 : a/

肝膽所懷을 一〃히 적스오니 今番으란 사오나온 일이 僕의 罪 아닌 줄과 如此些少得失로 此時의 人 버리는 일이 吉事 아니온 줄을 忖勘定所の 忖別히셔 今番은 十分顧念히셔 落本을 업게 히여 주노라 히시옵고 此後란 이런 일을 [못] 흘 줄로 判事 商人 僉中の 結約{결약}을 一〃히 히여 두오시면 彼此의 施恩{시은}과 報恩之道 되을 거시니 各別 留念히셔 이대로 히여 주시믈 바라오며 終始 蓼品이 劣흔 거시 네 罪요 劣흔 蓼의 重大흔 갑 주는 거시 後弊의 民망타 히셔 落本이 되

/36 : b/

올 세면 아모쵸로나 任官너와 都中の 잘 開論히여 [還]出을 하게 히오쇼셔 僕이 아모리 苟且히와도 이 恩惠을 讎스온 後는 一二年之間의 아모쵸로나 一〃이 갑스올 거시니 不過 先後은 꾸이시는 양으로 落本을 업시 히여 주시기만 바라노이다 무궁 히오나 代書오매 긋치노이다

【和訳】

近頃、残暑が厳しゅうございますが、旅先にてご平安でいらっしゃいますでしょうか、また、目の病気はその後さらに回復なさったのでしょうか、心配いたしております。今日は訓導が下の所まで出て来られて、お話をなさるかと思いますが、私は病気が治っておりませんので、そちらに行くことができませんので、残念でなりません。私の心中の考えは申し上げずとも、ご貴殿は当然お考えがおありでしょうし、数日前に皆様に大小の事情をおたよりいたしましたので、またお伝えするまでもございせんが、お互い厚い気持と昔年に私の売買をご貴殿が大きくしろとお勧めになったことを考えますと、丁度こちらに出てきていらっしゃる時でございますので、ご貴殿の徳を蒙ることを願わないことがございましょうか。これ則ち人の常の情でございますので、再びおたより申し上げます。今回人参の還出するかいなかは、私の人参でも敢えて任意にできないことは、お聞きになったことがおありでしょうから、私が必ず還出をやめようとしているわけではないことは自然とお分かりになるはずですが、ただし、この事がこのようになった後は、事勢が大きく敗れて身を保ちがたい状況にまでなり、私の売買は自ら敗れるようになるでしょうから、このような悲しいことがどこにございますでしょうか。今と昔が異って、判事方の中で仕事ができる者がわずか二三人残っていましたが、今また一二人までもが病になりましたので、このような悲泣すべき事がどこにありますでしょうか。ただ今の売買の形勢はまことにやりたいことがございせんのに、むしろ私が仕事が上手いと思われて、私を引留めておいて、これからの事をしようとする人も多いことをご貴殿もお分かりだと思います。こんな時に、このような形状をみたら、私が売買するかいなかはさておき、多くの人が引留めておいて、願っていたことがどうしてだめにならないことがありましようか。私のような人物に至りましてはすっかりお見捨てになられてもかまいませんでしょうけれども、韓起仲のような人はこの時に当たって些細な事でお見捨てになるということは、昔の人が小さい過ちで于城のような将帥を捨てようとする事と同じですので、

どうして喜ばしいことになるのでしょうか。私について申し上げましても、為人が宜しくないものであれこれと罪を犯しましたことは小さくごさいませんが、当然売買の間で損になることが多くて、人が皆年々差し引き清算できないでいるものを、私が損を顧みずに、極力開路して今に至るまで昌大の路を作れと申すつもりでございまして、全然功の無い人と違うように思いますけれども、私の罪ではござらず、得失が元々重大ではない事でございますのに、人をお捨てになることを藁くずのごとくになさるので、人は木石にあらざれば、どうして涙を流し悲しむ心がないのでしょうか。全ての事を自分の過ちを自分が知らないとして、藁くずのごとく思っておられることを知らずに、一心に売買に力を尽せばあれこれの徳があるだろうと思ひ、これからの事のために、布置しておきましたものも廣大であり、ただ今も下物があるのも私のすべき役割を尽くし、皆様方がお気にお留めくださる徳を蒙りたいと願ったこととございまして、ただ今は傷弓の鳥のごとく、孤掌難鳴（一人では事を成せない）の勢いになりましたので、このような恨めしく不憫なことがどこにありますでしょうか。事の成り行きがこのようになった後は万事に無心になるものだと、ご貴殿がお考えになるように思いますので、肝胆に懐きましたところを一々書き記します。今回は悪いことが私の罪でないということと、このように些細な得失でもってこの時に人を見捨てるのが吉事ではないということと、詳しく勘定所にお伝えくださって、今回のみ十分助けて損失がないようにしてやるつもりだとおっしゃって、この後はこのようなことはできない旨を判事、商人中に約束をしっかりとっておかれれば、お互いに恩を施すことと恩に報いることの道になるでしょうから、格別ご高配くださって、このとおりにして下さることをお願い申し上げます。最後まで、人参の品質が劣っていることはお前の罪であり、劣った人参に重い値段を支払うことは後の弊害になって迷惑だとおっしゃって、損になる形勢でございましたら、どうか任官方と都中によく論じて再発給をするようになさってください。私がいくら貧しくともこの恩に蒙りました後は、一二年の間に何とかして十分にお返しいたしますので、わずか先後（しばらくの間）のみお貸し下さる形で、損害を無くして下さることのみを願い奉ります。限りがございせんけれども、代書なので、ここまで。

【第36通】

潦炎{뇨염}이 甚酷호오니 兪候 平安호오신 일 아읍고져 덕스오며 卜物은 下送호엿 습더니 이 潦雨의 無事히 느려가와 피집이나 無弊히 호온지 넘녀 등 지내오며 卜物 便의 편지호읍고 聊呈小錄{뇨정소록} 호엿습더니 忝시 밧즈오시니

/37 : a/

잇가 追後 白絲 四稱 忝 下送호엿습더니 忝시 밧즈오시니 잇가 前去 人蔘도 밧즈와 겨오시려니와 人蔘 四十斤 下送호오니 잘 잡아 주오시되 大抵{저} 人蔘形勢 掣肘 {절추} 호는 曲折이 만스와 節晚호여 가오니 마이 업느이다 蔘形勢와 節晚호은 緣由는 俺이 淸別치 아니호와도 忝연 아오실 듯호읍고 小京金哨官과 起仲韓判事 느려

가오니 아니 듯즈오시리잇가 今年은 事勢을 곱피 생각호오셔 蔘品들 앓겨 보오셔
잘 잡아 주오시고 落本이나 하 만치 아니케 잡아 주오심 바라노이다 今曆行■■■ 多
■■■[아]

/37 : b/

직 모로읍거니와 絲價는 브디 제목을 ■■■■ [絲]을 호오셔야 買賣의 有益{익}호을
거시옵고 습가는 冬行畢給을 호오시려니와 曆行의도 各別 留念들 호오셔야 호을 거
시오 僕의게 相約호오신 것도 依約出給{의약출급}을 호×요[○오]셔야 호을 거시니
브디 범연히 생각치 마오쇼셔 무궁호오나 총〃 잠상 이 편지 스연을 一代官公前의
즈셔히 슬아 주쇼셔

【和訳】

梅雨の蒸し暑さが厳しゅうございますが、皆様、ご平安の段お伺い申し上げ、一筆啓上申し上げます。荷物は下送いたしましたけれども、梅雨の雨の中、無事に届き、売込みなども恙なくおこなわれましたでしょうか、心配しながら過ごしております。荷物の便で手紙をお送りして小録を差し上げましたが、委細お受け取りになりましたでしょうか。後ほど、白糸四称をまた下送いたしました、委細お受け取りになりましたでしょうか。前に送りました人参もお受け取りになっていらっしゃると存じますが、人参四十斤を下送いたしますので、よろしくお受け取りくださるに際し、大体人参の形勢がじゃまだてされることが多くて、時期が遅くなっていくので、困っております。人参の形勢と時期が遅くなった訳は、私が伝えなくても、自然にお分かりになるように存じますし、小京金哨官と起仲韓判事が下って行きますので、お聞きになれるでしょうか。今年は事勢を深くお考えになって、人参の品質を大事になさって、(品級を)よろしくお定めくださり、損失などがあまりに多くならないようにお定めくださることを願ひ奉ります。今度の曆行の多いか少ないかは、まだ分かりません。糸の値段はなにとぞその■■■■をなさってこそ、売買に有益でしょうし、人参の値段は冬行で出給を終える事をなさるでしょうけれども、曆行でも各別に留念くださるべきかと存じますが、私に約束なされたのも約束通りに出給をなさらないといけないでしょうから、なにとぞ、疎かにお考えにならないでください。限りがございませんが、ここまで。この手紙の内容を一代官様の御前に委細申し上げてください。

【第37通】

盛熱의 客裡 平安호오신 일 아읍고져 덕스오며 저적 平安 건너오〃 신 일 듯좁고 반
갑고 깃브읍거 아모랏

/38 : a/

타 업스오나 즉시 만나 보옵지 못 호오니 섭〃 호오믈 어이 다 덕스오리잇가 豚兒子
淳{돈오즈순}이 오와닐 듯즈오니 凡百이 조금도 전과 다르신 일이 업서 肌膚{기부}
호시며 壯호신 氣運이 比前減호시더라 호오니 상히 鑲鑲{확삭}호신 줄은 自少로 닉
이 아읍거니와 貴島 겨실제 酒色도 네에서 減치 아니케 호여 겨오실 듯 호오되 죠

곰도 神色이 감치 아니하여 겨오시더라 호오니 이리 나오신 후는 調攝{섭}을 잘 호실 거시니 老當益{익}壯호오실 거시니 더욱 깃브옵거니와 네 第一船正官이 다시 ■ 야 ■

/38 : b/

[가]우스오며 즉시 만나와 반기지 못 호오니 [섭〃]호오물 다 못 덕스올소이다 僕은 겨유 무스호오니 녀너호오심 밋즈온가 호오며 近來 衰{×휘[○쇠]}白도 호옵고 凡百이 比前有減호와 猶同老人하여 마이 업스오니 公겨셔는 僕의게 五六年 더 호시되 壯호 氣力이 衰치 아니 호시고 僕은 公의게 五六年 아리오되 이리 衰호엿스오니 各〃 氣質{질}이라 호 일 업습거니와 保養之道를 마르치쇼셔 頃{경}年 方紬 十疋 疋은 年久호 일리오라 그 스이 기별 아니 호오시매 專혀 닛좁고 스 못 브내온 일 호탄

/39 : a/

호오며 아온 후는 즉시 보내와야 올스오되 卽今은 서울도 物貨들이 끈혀져 업습기로 卽時 못 어더 보내오니 마이 업노이다 前頭의 行次連絡{년낙} 호오니 賚咨官 回還後 즉시 엿즈와 下送호리이다 듯즈오니 年少<호> 代官들이 만히 새로 난는가 시프오니 깃브옵거니와 僕의 네 벗은 公썸이시니 彼此 臨老호온 후는 서르 彼此 故人을 밋좁는 거시 人之常情이오니 호물며 公겨셔는 自少로 親호 스이오니 凡事을 公만 밋즈올 썸이오니 公겨오셔도 열현치 아니케 思量호오실 줄[은] 아오나 네 벗 [을 닛지 아니시고]

/39 : b/

大小事을 各別 顧見호시물 밋노이다 새로 난 [저므신 代官너]도 僕과 親호 스이오니 깃브옵거니와 상히 말씀으로 저므니는 저므니를 썸로고 늣으니는 늣으니을 썸로 단 말씀이 올스와 상의호을 일 곳 잇스오며 公과 田中 廣松公의 思量이 묻져 나오니 저므신 代官너피도 착호(실이) 니르오시려니와 公겨오셔도 凡事를 이리 思量호오셔 닛 정을 닛지 마르쇼셔 僕의 代官中 相約호은 일은 貴島 겨오실 적 너이 듯즈오시고 相確{상확}하여 決斷호오신 일이오니 다시 기별호을 [말]은 업습거니와 絲路蓼{스로습}

/40 : a/

路{노}가 各〃 다르오니 茂助公과 相議호오셔 人蓼 臉銀{념은}을 皇曆{황력} 冬至 兩行의 各 千兩式이나 顧見호오셔야 蓼路을 호게 호엿스오니 留念호오심 밋노이다 子淳의게도 人蓼 心付을 뉴념호오셔야 皆 各〃 蓼路도 宣力호을 거시니 顧念호오심 브라노이다 무궁호오나 歩行便이오라 아모란 情表도 못호옵 空簡썸이오니 섭〃 하여 이다 ×평[○편]지 답장이나 즉시 호시면 반가울가 호노이다

【和訳】

暑中、旅先にて、ご平安の段、お伺い申し上げ、一筆啓上申し上げます。この前、ご平安にお渡りなされたことを承りまして、珍重に存じ奉ります。何もございませんけれども、すぐお会いできませんので、残念な気持ちをどうして書き尽くせましょうか。

我が子の子淳¹⁹⁾が参りましたので、聞きましたところ、全てのことが少しも前とお変わりございませぬ、お肌のご様子やお元気なご様子が前と比べて衰えられたと申しますので、常々矍鑠としていらっしゃったことは子供の頃からよく存じ上げておりましたけれども、貴島（対馬）に居られる時、お酒の気運も昔から減っていらっしゃらないようでございますが、少しもお顔色が衰えていらっしゃらないと申しますので、こちら（倭館）へ出て来られました後は、保養をよくなさるでしょうから、老いてますます氣力が盛んになりましようから、いよいよ珍重に存じ奉りますけれども、昔の第一船正官が再び（お出ましになるとのことですのに）、すぐに会って喜んでお迎えすることができませんので、（残念な氣持）を書き尽くせませぬ。私はなんとか無事でございますので、ご心配にはおよびませぬ。近来体が衰弱いたしまして、全てのことが前と比べて衰えまして、あたかも老人と同じで、難儀なことです。ご貴殿は私より五六年上でございますけれども、優れた氣力が衰えることなく、私は公より五六年下でございますのに、このように衰えましたので、各々の氣質でございますから、致し方ございませぬけれども、保養の道をお教えくださいませ。頃年、方紬（もんなし）十疋の計算は、年久しいことですので、その間、お便りなさいませぬでしたので、まったく忘れて、今までお送りしておりませぬでしたことを慨歎いたしまして、分かった後はすぐお送りするのが尤でございますけれども、只今はソウルも物貨が絶えてございませぬので、直ちに入手してお送りすることがかないませぬので、難儀いたしております。これから（燕行使の）行列に連絡いたしますが、賚咨官が回還した後、すぐ求めて下送いたします。承りましたところ、年少の代官たちがたくさん新しく出来たようで、嬉しゅうございますけれども、私の昔からの友は、ご貴殿のみでございますので、双方老いに臨みました後は、互いに双方昔の友だちを頼みにするのが、人の常の氣持でございますので、ましてやご貴殿は幼い頃から、親しい間柄でございますので、全てのことをご貴殿のみをお頼み申し上げるのみでございますので、ご貴殿も疎かに思召しなさることはござらぬとは存じますけれども、昔の友（をお忘れになりませぬ）大小事を各別にご高配くださることをお願い申し上げます。新しく出来たお若い御代官方も私と親しい間柄なので、嬉しゅうございますけれども、常々申しますように、若者は若者に従い、老いた者は老いた者に従うと申します言葉がそのとおりでございまして、相談することがありさえすれば、ご貴殿と田中、広松様のことがまず思い浮かびますので、お若い御代官方にも着実にお申し付けなさるでしょうけれども、ご貴殿も全てのことをこのように思召されて、昔の情を忘れないでください。私の代官中と約束いたしましたことは貴島（対馬）に居られた時、既にお

19) 朴尙淳(子淳)。「訳科榜目」の康熙辛丑(1721)増広試の条に、彼の名が見え、この時三等で倭学に及第している。

「康熙辛丑(1721年)増広

朴尙淳 字子淳 庚辰(1700年)生 本密陽 倭学教誨崇祿 泰信子」

なおこの書簡の文中に「豚兒子淳（我が子の子淳）」とあることから、この書簡の発信者は朴尙淳(子淳)の父親の朴泰信(信哉)であることがわかる。

聞きになり、互いに議論して確実に決めて、決断なされたことですので、さらにお伝えすべき言葉はございませんけれども、糸の道、人参の道は各々異なりますので、茂助²⁰⁾様と相談なさせて頂き、人参臉銀²¹⁾を皇曆冬至両行に各千両ずつでもご配慮くださってこそ、人参の商路をとりおこないましょうにより、ご留念のほどお願い申し上げます。子淳にも人参の心付けをご留念くださってこそ、皆各々人参の商路に力をつくしましょうにより、ご高配のほどお願い申し上げます。情は尽きませんが、飛脚便ですので、何の贈り物も送れません。贈り物がない手紙ですので、残念でございます。手紙のお返事でもすぐくだされば、嬉しく存じます。

【第38通】

意外에 去月の ㅎ오신 回書 밧즈와 보옵고 탐 〃 반기오며 [連] ㅎ여 客裡 平安 ㅎ오시 ■ 遠慰{원위} 萬 〃 ㅎ느이[다] 僕은 [겨]유

/40 : b/

身恙{신양}은 업시 지내오니 遠賜{원스} 밧즈온가 ㅎ오 ■ 淸快 여러 순 편지 ㅎ옵기 ㄴ 買賣事도 위 ㅎ 일 ㅎ옵거니와 答狀{답장}이나 ㅎ오시면 積阻{적조} ㅎ 華顔을 相對 ㅎ은 듯 반가히 보옵자 ㅎ고 기다리오되 ㅎ번 答狀을 아니 ㅎ시니 ㅄ옵의 야속도 ㅎ옵고 古情{舊情}을 니저 겨오신가 長歎{탄} 中 지내옵더[니] 書辭을 보오니 書辭을 보오니 眼患이 겨오셔 그러 ㅎ오시던가 시브오니 과연 그러 ㅎ오시던 줄 아랏습거니와 卽今 眼患이 엇더 ㅎ오신지 도로혀 녀녀 ㅎ느이다 보오완 지도 하 오래옵고 이 리 와 머무오시니 或 因公 ㅎ와 ㄴ려갈 이

/41 : a/

르이나 잇스오면 반가히 보옵고 무궁 ㅎ 정회나 베프올가 기다리옵거니와 今番 大差使 差備 ㄴ 次第 잇습 ㄴ 거시라 玄僉知 가옵기로 못 ㄴ려가오니 ㅄ 〃 ㅎ옵거니와 公 머무오실시 현마 ㅎ번 만나 반기올 ㅄ 아니 이시리잇가 ㄴ즈오니 公은 老人이로라 ㅎ셔도 ㅄ곰도 ㅄ로 ㅎ신 일이 업다 ㅎ오니 助{조}力이 過人 ㅎ셔 ㄴ러 ㅎ시니 ㄴ브오며 僕은 數三年內에 白髮이 되와 의심 업슨 老人이 되엿스오니 光陰{음}이 倏忽{홀홀} ㅎ 줄만 ㅎ느이다 저머실 적과도 다르와 彼此 ㅎ가지[로] 늙어 가오니 ㅄ옵의 귀 ■와 旧時[厚]情이나 ■[기] ■[와]

/41 : b/

과연 ㄴ즈지 못 ㅎ오며 [久]與其[便] ㅎ오셔 [수이 만]나오 ■ 無限 ㅎ 情懷을 萬分之一이나 ㅄ올가 千萬 기다리느이다 ㄴ즈오니 一代官公겨오셔 平×양[○안]히 건너오신가 시프오니 千萬 ㄴ브오며 편지나 죽시 ㅎ여 ㄴ즈고 시프오되 今番 忽遽{총거} ㅎ와 미쳐 ㄴ즈지 못 ㅎ오니 ㅄ 〃 편지 ㅎ을 거시니 위션 문안 전 ㅎ여 주쇼셔 公의 書中의 一千七百五十兩 자리를 일{稱} ㅄ라 겨오시니 ㄴ지 아니 ㅎ오심 感激 ㅎ옵거니

20) 「分類紀事大綱」第2輯9冊目「御商賣之事」享保七年(1722年)の條に別御代官町手代として名前の見える「広松茂助」のことであろう。

21) 不詳。人参代往古銀のことか。

와 一代官 出來時 持來호신 銀貨를 어이 구차호오신지 顧念호오심 ברה이다 人蓼
일은 納稅事{납세스}로 拘碍호는 일이 잇스와

/42 : a/

至今 遲滯호오니 마이 업습거니와 기드리지 못호여 민망호여 호오실 줄이야 可별치
아니호오시다 어이 모로오며 혼 새운들 ㅁ음의 恤厚{歇厚, 後}히 너기와 ㄴ즈은 ㅈ
어이 이시리잇가 계유 納稅事는 變通을 호와 松都로서 多小間 쉬이 ㄴ려가려니와
蓼이 잘못 ㄴ려 都數가 大縮호은가 시프오니 ㄴ며 마이 업노이다 잇습는 거시야 陸
續호여 아니 ㄴ려가리잇가 冬行 卜物도 彼人의 연고로 ㄴ연 디체호오니 마이 업스
오며 今念間 出柵이 되올 듯 시브오니 來月 晦間 被執이 되올 듯 시브와[이]다
卜物 곳 入京호오면 卽■

/42 : b/

下送호리이다 무궁호오나 ㅁ피 ㅈㅈ 편지호올 거시■ 대개만 덕스오며 총〃호와 無
限호은 情懷를 다 못 덕스오니 ㅈㅈ호여 보오쇼셔

【和訳】

思いがけず先月にお送りになったお返事を拝受し拝読いたしまして、深く深く喜びま
して、続いて客地にてご平安の段、遠くより珍重に存じ奉ります。私はなんとか恙な
く過ごしておりますので、遠くよりご貴殿のお蔭を蒙りましたかと存じ奉ります。以
前に何度もお便りいたしましたのは、売買事のためでもあるのですが、返事なりとも
していただきますればご無沙汰いたしておりますお顔に相對しましたごとく嬉しく拝
見いたしましよとて、お待ちしておりますのに、一度も返事をなさいませんので、
心につれなくも存じますし、昔の情をお忘れになっていらっしゃるのかと長いため息
のうちに過ごしてありましたところ、お手紙を拝読いたしますと、眼の患いがおあり
で斯様であられたようでございますので、確かにそうであったと思いましたがけれど
も、ただいま眼の患いはいかがでございますでしょうか、むしろ心配に存じます。お目
にかかってからもたいへん久しゅうございますし、こちらへいらっしゃって逗留なさ
っていらっしゃいますので、もしも、公務によって（倭館へ）下って行くことでもござ
いまして、嬉しくお目にかかり、限りない思いでも施しましょうかと存じまして、
待っておりますけれども、今回の大差使の差備は順番があることなので、玄僉知が参
りますので、下って行くことができませんので、残念でございますが、ご貴殿がご逗
留の間にまさか一度もお目にかかって嬉しく存ずる機会がないことがございませう
か。承りましたところ、ご貴殿は老人だとおっしゃいますけれども、少しも衰えたと
ころがないと申しますので、力を添える（養生する）ことがすぐれていらっしゃいま
して、左様でございますので、嬉しく存じます。私は二三年の内に白髪になりました
で、紛れもなき老人になりましたので、年月が早いことを嘆くばかりでございます。
お若いころとも違ひまして、お互い一緒に老いて行きますので、心に■■旧時の厚情
でも■■まことに忘れえません。久しくお便りくださいますので、すぐにお目にかかり
ましたらば、無限なる思いの万分の一なりとも開陳いたしたく、千万お待ち申し上げ

ております。承りましたところ、一代官様をご平安にご渡海なさったごようすですので、まことに珍重に存じ奉ります。手紙なりとも直ちに書いてお伺い申し上げたいのですが、この度はまことに忙しくて、まだお伺いできずしておりますが、追々お手紙を送りますので、まずはよろしくお伝えくださいませ。ご貴殿の書中に千七百五十両の株のことをおっしゃっておられますが、お忘れでないことは忝く存じますけれども、一代官が出来する時、持って来られた銀貨をどうして難儀がられるのか、お気遣いくださいませようお願い申し上げます。人参の事は納税の事で差支えることがあるので、今に至るまで遅滞しておりますので、途方にくれておりますけれども、待ち焦がれて難儀していらっしゃることは、お知らせくださらずともどうして分からないことありまじょうか。一時たりとも、心におろそかに思って忘れた時がどうしてありまじょうか。ようやく納税の事は、やりくりをして、松都から多少なりとも早くに下って行くでしょうけれども、人参は間違えて伝えて、総数が大いに少なくなるようすですので、気遣いに限りがありません。あるものについては、もちろん連続して下送いたします。冬行の荷物も中国側の人たちの事情で自然に遅れますので、途方もございませぬし、今月の二十日前後に出柵になるようすですので、来月の晦日の間に売込みになりそうです。荷物さえ入京いたしますれば、即時下送いたします。限りがございませぬが、これから追々手紙を書きますので、あらましのみを書きます。忙しくて限らない思いを全て書きえませぬので、くみ取って読んでください。

【第39通】²²⁾

秋炎의 旅候 平安호오신 일 아읍고져 덕스오며 저적卜物 下送便 片紙호엿습더니
 答狀을 보읍지 못 호오니 섭섭호여이다 僕의 凡事는 公이 겨시니 可별치 아니호읍
 다 열현히 周旋호여 주실 거슨 아니오되 다시 적노이다 先送 白絲 變通은 어이 호
 오신지 大變通을 아니 호오셔는

/43 : a/

保存치 못호게 되엿스오니 公이신들 현마 矜각이 아니 겨시리잇가 追後 下送 白絲
 四十餘稱도 斤兩도 마이 업습고 中으로 잡으신 거시 만스오니 어이 그리 호시니잇
 가 或 中으로 잡으려 호시면 不好호 多子나 可희여 若干 잡으실 법 잇습거니와 十
 四稱이 中으로 갖스오니 그 白絲는 中으로 잡으실 品이 아니오니 觸處{촉체}의 이
 런 원통{冤痛}호 일어 어이 이시리잇가 各人의 中으로 잡으신 白絲와 比見호시면
 俺의 冤抑{원억}之端을 아니 아르시리잇가²³⁾ 白絲一款{일관}을 ■■ 泛然히 矜각호

22) この書簡は、第42通と大同小異の内容である。

23) この部分、「隣語大方」に対応するものである。「隣語大方」朝鮮刊本に次のようにあり。

「隣語大方」[朝鮮刊本:4:20a-21b]【第209条】

(日)弘記弘懋の白糸は 中に御立なざる〃品とは違まして ことごとく上品にお立なざる〃筈の白糸で御座りまする ぜひ中にお立なさりようと御思召まするならば かせで御撰なされて 少斗御取被成る〃儀は御座るまひ事で御座れとも 拾余称がことごとく中に立まして皆中より 中におとりなされたのとおくらへなされて御覧なされましたらば 私の難儀に存知まする分を御推察なされませふ

오셔 大變通을 아니 호오셔는 買賣호

/43 : b/

는 사름이 保存치 못호을 거시니 깊{深}히 싱각호쇼셔 僕으로 니로와도 數十年을 買賣을 호엿스오니 功之有無[姑]捨 勿論호옵고 四五年 白絲 買賣을 獨當호여 廣開호 사름을 功으란 쓰지 아니호시고 空然히 빚을 지워 못 살게 호셔여 올시리잇가 公이 十分 宣力 變通호셔 買賣도 陸續게 호시고 買賣의 用力호는 人을 保存게 호셔 야 올스오니 泛然히 싱각치 마르시고 깊히 留意호쇼셔 一에는 皇曆 出銀이 不遠호 오셔 出銀 多小 아직 모로옵거니와 今年 出給호오실 辛亥{신히}년 白絲代와 今年는 人蔘代 文書를

/44 : a/

相考호시면 아르실 거시매 分別지 아니 호옵거니[와] 僕의 帳內 庚戌{경술}條 蔘絲代 未出給호신 銀數를 謄送호오니 相准{준}호여 보시면 아니 아르시리잇가 此銀 七千七百餘兩은 上年 冬行 畢出給호실 거슬 至今 아니 주어 거시니 七千餘兩의 邊利를 空然히 스이예셔 무오니 이런 일이 어이 이시리잇가 今年은 心付도 브라지 아니 應當 出給호실 거시나 准數히 出給호시기만 밋즈오니 今番으란 公平二字을 깊히 싱각호오셔 買賣의 宣力호는 사름을 保存호게 호쇼셔 上年 未出給호신 銀과 今年 出給호실 銀數가 적지 아니호오니

/44 : b/

各別 留意호쇼셔 [多少事]緣은 僉中으로 호[오니] 즈시 보쇼셔 僕은 公 밋기를 泛然{범연}히 아니 호오니 公겨오셔도 僕의 일을 己事쳐로 싱각호오셔 變연히 마르쇼셔 一代官이 明春으로 나오신다 호오니 回泊호신 후 掃除萬事호고 느려 가을 거시니 반가이 보올가 待호느이다 무궁호오나 충〃 잠상

【和訳】

秋の残暑のなか、

旅先にて、ご平安の段、お伺い申し上げ、一筆啓上申し上げます。この前の荷物の下送便にてお手紙いたしましたけれども、お返事を拝見できずにおりますので、残念に存じ奉ります。私の全ての事は、ご貴殿に掛かっておりますので、お便り申さずとも、疎かに周旋なさるわけではございませんけれども、再び一筆啓上申し上げます。先にお送りしました白糸のやりくり(融通)はどうなされたのか、大いにやりくりを

掛目を申ても九拾斤或は 八拾九斤より内に入りました事は前後に御座りましなだに 今度は八拾六七斤に成ましたも御座りまするにより 近比斤量が損じて左様に御座るか 道中で失まして左様に御座るか 当処毎に難儀な事が多御座るにより 々様な分を御咄申ませふとそんじて下て参ました

(朝)弘紀弘懋白絲는 中으로 잡으실 品과는 다르와 盡數上品으로 잡으실 白絲 | 올너니 부덕 中品으로 잡으려 호시면 혹 다즈로/端으로/나 곁히여 약간 잡으실 법은 인습거니와 十餘稱이 다 中으로 갈스오니 各人의 中으로 잡으신 견과 比肩호여 보시면 나의 冤痛호여 호는 줄이야 아니 짐작호시리잇가. 斤兩으로 닐너도 九十斤 혹 八十九斤의 덜 들닌 일은 前後의 업습더니 이번은 八十六七斤 들닌 거시 인스오니 요스이 稱子가 상호거나 호여 그러호지 路中의셔 闕失호여 그러호지 觸處의 不習 스정어 만스와 이 설은 스연이나 호고져 호여 느려왈습닌

なさらなくては、身を保つことができないでしょうから、ご貴殿方とて、まさか思召し召し下さらないことはございませぬでしょう。追って、下送した白糸四十余称につきましても斤両も途方もございませぬし、中にお定めになったものが多くございませぬが、どうして斯様になさるのでしょうか。あるいは、中にお定めになさろうとなさるならば、宜しくないかせ（束）なりとも選んで、若干お定めになることはありませぬしょうが、十四称が中になりましたので、その白糸は中にお定めになるべき品位ではございませぬので、至る所に斯様な悔しいことがどうしてあるのでしょうか。各人が中にお定めになった白糸と比べてごらんになれば、私の悔しく思っておりますことをお分かりになれないはずがございませぬ。白糸一款をおろそかに思召されず、大いにやりくりをなさらなくては、売買を行なう者が身を保つことができないでしょうから、深くお考えくださいませ。私の事を申しまして、数十年も売買をいたしましたけれども、功の有無はさておき、四五年白糸の売買を一人で担当して広く開いた者をば、功はお取り上げなされず、いたずらに借金ばかり背負わせて、生きていけないようになさってならないのではないのでしょうか。ご貴殿様が十分ご尽力くださりやりくりしてくださって、売買も取り続くようになさり、売買に励んでいる者の身を保つようにしてこそ尤もでございませぬしょうから、疎かに思召されず、深くお氣遣いくださいませ。一つには皇暦の出銀が遠くございませぬので、出銀の多少はまだ存じませぬけれども、今年出給なさる辛亥年白糸代と今年の人参代は文書をお調べになればお分かりになりませぬしょうから、お便り申し上げませぬけれども、私の帳面の内の庚戌条の人参代と糸代の未出給の銀数を抜き書きしてお送りいたしますので、お調べになればお分かりになりませぬしょうが、この銀、七千七百余両は去年の冬至行に出給し終えるべきものを今に至るまでくださらないので、七千余両の利子を無駄にその間に支払いたしましたので、斯様なことがどうしてありませぬしょうか。今年につきましては心付も望みはいたしませんので、当然出給なさるべきものなりとも数をそろえて出給して下さることを願うばかりでございませぬ。今回は公平の二文字を深く思召しになって、売買に尽力している者の身を保つことができ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去年の未出給の銀と今年出給なさるべき銀数というのは少なくございませぬので、格別にお氣遣いくださいませ。あれこれの内容は、皆様方へお手紙いたしましたので、委細ごらんくださいませ。私はご貴殿様を信頼いたしますこと疎かにいたしませんので、ご貴殿様も私のことをご自身のことのごとく思召し召し下さって、疎かになさいませぬように。一代官様が明春出来なさるそうでございませぬしょうが、お戻りになりましたら、何事をおいても、（倭館へ）下ってまいりますので、嬉しくお目にかかりたく、心待ちにいたしております。限りはございませぬが、ここまで。

【第40通】

僉公 平安^へ신 일 알고져 ^호오며 心亂^호은 스연과 賑廳에 鐵物百稱을 今番의 僕의 名下로 上送지 못 ^호읍고^는 人情所在에 츄아 아니 上去지 못 ^홀 事緣을 弔別^호읍고

밤의 接眼을 못 하고 焦煎{초전} 하옵더니 訓導의 手本에 二隻{척}[大]船에

/45 : a/

生銅 五十稱을 分載出來하다 하오니 그 五十稱 말이 任官[이] 兪公넉 말을 듯고
그리 혼 일인지 만히 나오다 하고는 日後에 엇덜고 혼 의스로 그리 혼지 此時 鐵物
을 數를 괴이지 못할 말슴과 卽今 私商의 鐵物이 亦是 公貿 鐵物인 줄을 無數히
하엿스오매 應當 五十稱이라 하고 兪公넉는 실로 아니하실 [듯] 싯브온디 手本의
五十稱이라 하엿스오매 都中들도 落膽하여 이러하오면 開市도 브절 업다 혼을 싯
아니라 使道겨옵서 震怒하옵서 僕을 亦是 此後船의 만히 나온다 하던 말을 속혀 알
외[다 하셔] 大責하옵실 싯 [아]니라 [國之大]事 그

/45 : b/

룻되게 하다 하옵서 [큰] [거초]{舉措}를 하[려] 하옵[시니] [寒心키 莫]甚하와
[再〃{지〃}] 알외고²⁴⁾開市는 저희도 말고져 하옵거니와 一定 鐵物이 이리 零星 히
나와실 길이 업습고 應當 五十稱만 나[왓스]올 양이요면 그 曲折을 즈시 아옵시고
狀啓하시는 일이 올스오니 아모리 商人等이 기시을 마라지라 하올지라도 分付 下送
하여 曲折을 즈시 못잡고 결단하[쇼(여)]셔 알외고 皮先達 金哨官 兩人을 보내오니
十分 生覺하셔 과연 鐵物이 어더오기 어렵스오량이오면 어렵다 하고 今番 出來 鐵
數도 과연 [여츠]하기로 이러타 하실 양이면 출하리 아모리 되나[마나] 狀啓

/46 : a/

을 하게 하시고 우리도 罪를 免케 구옵는 일이 아니 <올흐니> 잇가 僕으로 니르온
들 오늘 아니 느려가리잇가마는 즈식은 시방 [갓]치여 잇습고 使道겨옵셔는 僕조차
거죽말할 줄로 大責하시올제면 무슨 面目으로 出入을 하고져 시프리잇가 兪公넉 答
狀을 보옵고 맞비 上去하여 鐵物形勢如此〃〃[하오]니 本價를 맞져지라 하옵고 갓
치인 즈식을 此時 炎中の 쇠히게 하옵는 거시 人情이오매 이리 덕스오니 모다 보시
고 브디〃 答狀하시오며 炎程의 葛粉과 雪糖이 不可無오니 多少間 어더 [주]쇼셔
이런 時節[과 世上]人事[가] 이러

/46 : b/

하올 줄 어이 싯각[하]여시리잇가 都是 ■[새] 人事[不]明하여 이리 하온디 당하엿
는가 시프오니 하올 말슴이 업습넉 眼患는 그 약을 브치오시니 效驗이 잇다 하오니

24) この部分、「隣語大方」に対応する部分である。「隣語大方」朝鮮刊本に次のようにあり。

「隣語大方」[朝鮮刊本:4:17b-19a]【第207条】

(日) 今度の鉄物は公儀に拘りました事で御座るを 大船貳艘に わずか荒銅五拾称を積分て来と申儀を
聞れまして 東萊が 我〃より御代官中え兼て催促を致さぬ故じやとて 甚怒被まして 我〃を大
に叱られますのみならず 国の大事を不埒にするとして 大に事を起とされまして 寒心すく
なかりませぬにより ケ様な分を御知らせ申て 變通の道を御相談申ませふとそんじて 罷下りま
して御座りまする

(朝) 이번 質鐵은 官家の 係關한 일이온디 大船 두 척의 마치 生銅 五十稱 分載出來하단 말을 듣즈
오시고 使道겨서 우리가 代官넉과 預爲催促을 아니하 타스로 이러하가 시보다 하셔 震怒하시고
우리를 大責하실 싯 아니라 나라 大事를 그른되게 하다 하셔 큰 舉措를 하려 하시니 寒心하키
莫甚하오매 이런 줄이나 아르시게 하옵고 變通할 도리를 議論하자 하고 느려 완습넉

그런 [깃브온] 일이 업넉이다 쏘 기별혀여 겨옵시매 지어 보내오니 녀혀여 브치오
시고 쾌복혀옵시믈 브라느이다 그 약을 써러지도록 브치오쇼셔

【和訳】

皆様方、ご平安の段、お伺い申し上げます。心乱なる事情と賑庁に鉄物百称を今回私
の名義にて（都へ）上送できなくては、気持ちとしてどうしても上京できないという
内容をお便りいたしまして、夜にはお目に掛かることができませんので、焦燥いたし
ておりましたところ、訓導の手本（しゅぼん）の中に、二隻の大船に生銅五十称を積
み分けて運んで来たとございますので、その五十称の話というのは、任官が皆様方
のお言葉を聞いてそう申したのか、多く出来たと申せば、後でどうだろうかというお
考えでそう申しましたのか、この時分、鉄物の数を偽ることができないというお話
と、今私商の鉄物というのもやはり公貿易の鉄物であるということ、数え切れない
ほど申しましたので、当然五十称というのは、皆様方は実際にはおっしゃっておられ
ないものと存じますけれども、手本に五十称とございましたので、（朝鮮側の）商人共
も落胆いたしまして、このようであるなら、開市も必要ないと申すのみならず、東萊
府使が甚だ怒られまして、私のことをこれまたこの後の船でたくさん出来すると申し
ましたのを偽って上申したと仰せられまして、大いにお叱りになるのみならず、国の
大事を不埒にするとして、大いに事を起こそうとなされまして、恐ろしきことこの上ご
ざいませぬので、再々申し上げます。開市は私共もやめようかと存じますけれども、
絶対に鉄物がこのように数少く出来するはずがございませぬし、当然、五十称しか出
来しないようすであれば、その訳を詳しくお調べになって状啓なきることが尤もでご
ざいますので、いくら商人たちが開市をやめてほしいと申しまして、言付けて下送
して、訳を詳しくお尋ねになって、決断して（朝廷に）申し上げ、皮先達、金哨官の
兩人を遣わしますので、十分お考えになって、どうしても鉄物が求めにくいようであ
れば、難しいとおっしゃってください。今回出来する鉄の数も本当にこの如くの事情
のせいでこのようであるというようすでしたら、むしろ、どのような結果になりま
しょうとも状啓を送るようになさいまして、我々も罪を逃れるようにすることが尤も
ではないでしょうか。私について申しまして、今日（倭館へ）下って行かないわけ
がないのですけれども、息子はただ今捉えられておりまして、東萊府使は、私すらも
嘘をついていると大いに責められるときに当たりましては、何の面目で（倭館へ）出
入をしようと思ひましようか。皆様方の返事を拝見し、急いで上って行きまして、鉄
物の形勢がこれこれしかじかなので、元々の代価（の代物）を 맞져지라²⁵⁾とて、捉え
られました息子をこの自分の暑中にて（風に）当たらせるのが人の情たるものでござい
ますので、このように一筆啓上申し上げます。全てをお読みになって、なにとぞな
にとそご返事下さい。暑中の道程に葛粉と砂糖が不可欠でございますので、多少にかか
わらずお求めください。このような時節柄や世の中の人事がこのようになることなど
どうしてお考えになることができたでしょうか。これすべて、私の人事が不明なため

25) 不詳。「献納したい」の意か。後考を待つ。

このような目に遭ったのかと存じますので、申し上げる言葉がございません。眼患はあの薬をお付けになられたところ、効果があったとおっしゃいますので、そのような珍重なことはございません。また、便りくださいましたので、薬を作ってお送りいたしますので、引き続きお付けになって、快復なさいますよう祈念申し上げます。その薬が無くなるまで、お付けくださいませ。

【第41通】

老炎이오되 日氣 덥스오니 년호여

■ 후 평안호읍신 일 아읍고져 덕스오며 올라온 후 憂患이 連綿호읍기에 즉시 문안 편지도 못 호오니 섭〓

/47 : a/

호읍기 아모라타 업스오며 그 새 하직호읍던 날은 裁判[尊公]이 술을 만히 먹이시매 먹습고 公겨오셔 家親 向호여 [情]外之言을 호시매 과연 애듭스와 그러치 아닌 스연을 호읍노라 즈연 노호는 말슴은 만히 호읍고 죽시 총〓히 썬나읍기의 덕으로 가서 다시 보읍도(고) 못 호엿습거와 公의 寬大호신 ㅁ음의 허물 아니 호오실 줄은 아오되 至今[迄]지 ㅁ음의 不安호오며 피쳐 付之一笑호을 일으오니 必 公겨오셔 이 일을 닛즈오쇼셔²⁶⁾ 明春으로 닛려 가올 거시니 아니 보오리잇가 무궁호오나 총요 잠상

【和訳】

残暑でございますけれども、天気が暑うございますが、続いて、ご平安の段、お伺い申し上げ、一筆啓上申し上げます。(ソウルに)上って参りました後、憂いが連綿として、早速ご挨拶のお手紙も差し上げられず、残念で何と申し上げようもございません。あの時お別れのご挨拶をいたしました日は、裁判尊公がお酒をたくさんお飲ませになりましたので、飲みまして、ご貴殿が親に向かって、思いもよらぬことをおっしゃられましたので、誠に切なく、そうではないという申し分を申し述べましようとして、自然と語気を荒げた言葉もたくさん申しまして、直ちにそそくさと帰りましたので、家に帰って再びお目にかかることができずにおりますけれどもご貴殿様のご寛大なお心ゆえ、お咎めなさるまいとは存じますけれども、今に至るま

26) この部分、「隣語大方」に対応する文例である。隣語大方 朝鮮刊本に次のようにあり。

「隣語大方」[朝鮮刊本:4:19a-20a]【第208条】

(日)其日は 私にも酒に最酔まして 其許様にも 親などにそんじよらぬ事をおつしやれましたにより 左様でなひと 申分を申述べませふと致て 自然と御氣に当事も申て帰ましたれ共 其元様の御寛大な御心故 御咎なさるまひとは存ますれども 未心中に安かりませひで 御怒を解ませふと存知て わざ〓〓ケ様に入て参ましたにより 此後は 此事を御忘下被ましたらば 仕合まするで御座りませふ

(朝)그 날은 나도 술을 대단이 취호고 公겨셔도 家親 向호여 情外之言을 호시매 그러치 아닌 스연을 호노라 自然이 노호은 말도 호고 나감습거니와 公이 寬大호신 ㅁ음의 허물 아니 호실 줄은 아오나 至今 ㅁ음의 不安호와 解怒호자 호고 부러 이리 완스오니 此後란 이 일을 닛즈오시면 多幸호가 호읍느이다

で心中不安にございます。お互いに一笑に付すべきことでございますので、なにとぞご貴殿様におかれてもこのことをお忘れくださいませ。明春、(東萊へ)下って行きますので、お目に掛かることがないはずがございません。限りはございませんが、ここまで。

【第42通】²⁷⁾

/47 : b/

秋炎の

僉候 平安^へおしん 일 아옵고져 덕스오며 一代官 留館時 [반가이]도 보오며 買賣上 相議^へ을 일도 만습고 대되 반가이 보옵고 [든]녀오고 시픈 々음은 々득^へ오되 所任 업시 느려가옵기 事體 엇더^へ와 느려가 보옵지 못^へ오니 섭[〃] [〃]음을 어이 다 덕스오리잇가 一에는 先送 白絲 變通은 어이 ^へ오신지 大變通을 아니^へ셔는 保存지 못^へ게 되엿스오니 僉公이신[들] [혈]마 矜각을 아니 ^へ시리잇가 네일은 모로오되 俺도 被執 始作^へ완 지 二十餘年이오되 下白絲란 말슴은 듯

/48 : a/

지 못^へ 일이오니 絲品이 위연만 々다 ^へ옵고 今年부터 卒然[히] 下로 잡으셔는 判事^々 中이나 商人中이나 保存^へ을 사름이 업스올 거시니 甚히 矜각^へ쇼셔 俺으로 니르와도 數十年 買賣上 功之有無는 姑捨勿論^へ옵고 四五年 白絲 玆매를 獨當^へ여 廣開^へ 사름을 功으란 아니 쓰시고 空然히 빗을 지워 [못 살]게 ^へ셔야 올^へ시리잇가 甚히 矜각^へ오셔 買賣도 陸續케 ^へ시고 買賣의 用力^へ는 사름을 保全^へ게 ^へ쇼셔 追後 下送 四十餘稱 白絲 被執^へ은 消[肖]을 듯즈오니 더욱 々이업스와 弔別^へ을 [말슴]이 업^々이다 弘記■■等

/48 : b/

絲는 中으로 잡으신 白絲[品]과 다[르]외다 上으로 잡으[실] [白絲]올너니 부디 中으로 잡으려 ^へ오시면 或 多子로나 固히여 若干 잡으실 법 잇습거×시[○니]와 十四稱이 中으로 갓스오니 各人의 中으로 잡으신 白絲品과 ×此[○比]見^へ면 冤痛^へ여 ्ह 줄이야 아니 짐작 ^へ시리잇가 斤兩을 니르와도 ×九十九[○九十]斤 或 八十九斤의 玆 들닌 일이 前後의 업습더니 今番은 八十七斤 或 八十六斤의 玆린 거시 잇스오니 그스이 稱子가 或 傷^へ여 그러^へ온지 路中의셔 或 闕失^へ온 거시 이셔 그러^へ온지 觸處의 々이업스온 일이 하 만스오니 弔別^へ을 말슴이 업습거니와 白絲 一款{관}을 必 大變通을

/49 : a/

^へ셔야 買賣도 陸續^へ옵고 僕도 保存^へ게 ^へ엿스오니 泛然히 矜각지 마르시고 甚히 留念^へ쇼셔²⁸⁾ 一의는 皇曆 出銀이 不遠^へ오니 出銀 多少는 아직 모로옵거니와 今年

27) この書簡は、第39通と大同小異の内容である。

28) この部分、「隣語大方」に対応する文例である。隣語大方」朝鮮刊本に次のようにあり。

「隣語大方」[朝鮮刊本:4:20a-21b]【第209条】

(日)弘記弘懋の白糸は 中に御立なさる〃品とは違まして ことごとく上品にお立なさる〃筈の白糸で

出給^ㅎ오실 辛亥年 白絲代와 今年 人蔘代는 文書를 相考^ㅎ오시면 아^ㄹ실 거시매 其
별치 아니^ㅎ옵거니와 僕의 帳內 庚戌条 蔘絲代와 [辛]亥年 人蔘代와 子淳 帳內 庚
戌条 未出給^ㅎ신 銀數를 膳{등}送^ㅎ오니 相准^ㅎ시면 아오시려니와 此銀 七千七百餘
兩은 上年 冬行의 畢給^ㅎ실 거슬 至今 아니 주어 겨오시니 七千餘兩의 邊利를 空然
[히] [스]이[예서] 무오니 이런 일[이 어]이 아

/49 : b/

시리잇가 餘年을 心付도 [브]라지 [아니]호오니 應當 出給[^ㅎ실] 거시나 准數히 出
給^ㅎ시기만 밋즈오니 今番으란 公平二字을 汲히 싱각^ㅎ오셔 買賣의 宣力^ㅎ는 사름
을 保存^ㅎ게 호쇼셔 一 今年 公木 手標는 分給^ㅎ여 겨실 듯 시브옵거니와 公木 격
끼 一款을 走紗 方紬을 變通^ㅎ렛노라 호오시더니 엇지 호시는지 停當^ㅎ 其별을 호
셔야 燕行의 求^ㅎ을 거시니 밧비 回答^ㅎ쇼셔 鐵物 일은 擘피도 其별^ㅎ엇습거니와
鑄錢은 今年十二月^{까지}지만 호게 定奪^ㅎ엇스오니 明年은 萬稱이 나와도 無用之物이
되오니 이 스연을 島中

/50 : a/

의 急〃히 通^ㅎ오셔 別買二千稱을 今年十一月內로 盡數出來^ㅎ오면 買賣의 萬分多幸
호을 거시니 十分 宣力^ㅎ쇼셔 舍錫은 今謝行의 求^ㅎ오니 出來^ㅎ옵거든 卽時 下送^ㅎ
리이다 明春 一代官 나오신다 호오니 出來^ㅎ시면 掃除{소제}萬事^ㅎ고 느러가을 거
시니 반가이 보올가 덕^ㅎ이다 무궁^ㅎ오나 중요 잠상

【和訳】

秋の残暑のなか、皆様方、ご平安の段、お伺い申し上げ、一筆啓上申し上げます。一
代官の留館の時嬉しくお目にかかりもし、売買上の相談することも多く、皆様方に嬉
しくお目にかかり（倭館へ）参りたい気持でいっぱいでございますけれども、役目も
なく、（倭館へ）下って行くのは事体としてどうかと存じますので、下って行ってお
目にかかることができませんので、残念な気持をどうして書き尽くせましょうか。一
つには、先にお送りしました白糸のやりくり（融通）はどうなされたのか、大いにや
りくりをなさらなくては、身を保つことができないでしょうから、ご貴殿方も、まさ

御座りまする ぜひ中にお立なさりようと御思召まするならば かせで御撰なされて 少斗御取被
成る〃儀は御座るまひ事で御座れとも 拾余称がごとく中に立まして皆中より 中におとりな
されたのとおくらへなされて御覧なされましたら 私の難儀に存知まする分を御推察なされませ
ふ 掛目を申ても九拾斤或は 八拾九斤より内に入りました事は前後に御座りましなんに 今度は
八拾六七斤に成ましたも御座りまするにより 近比斤量が損じて左様に御座るか 道中で失まして
左様に御座るか 当処毎に難儀な事が多御座るにより 々様な分を御咄申ませふとそんじて下て参
ました

(朝)弘紀弘懋白絲는 中으로 잡으실 品과는 다르와 盡數上品으로 잡으실 白絲 | 올너니 부덕 中品으
로 잡으려 호시면 혹 다즈로/端으로/나 곁히여 약간 잡으실 법은 入습거니와 十餘稱이 다 中으
로 갈스오니 各人의 中으로 잡으신 결과 比肩^ㅎ여 보시면 나의 冤痛^ㅎ여 호는 줄이야 아니 汲
작^ㅎ시리잇가. 斤兩으로 닐너도 九十斤 혹 八十九斤의 덜 들닌 일은 前後의 入습더니 이번은
八十六七斤 들닌 거시 入스오니 요스이 稱子가 상^ㅎ거나 호여 그러호지 路中의서 闕失^ㅎ여 그
러호지 觸處의 不^ㅎ습스 스정^이 만스와 이 설은 스연이나 호고져 호여 느러왓습닌

か思し召し召さらないことはございませんでしょう。昔のことは存じませんけれども、私も売込みを始めてから、二十年余になりましたが、下白糸というお話は聞いたことがないことですが、糸の品位が少々低いとおっしゃって、今年からいきなり下にお定めになりましたら、判事たちも商人たちも身を保つことができる者はいないと存じますので、深くお考えください。私の事を申しまして、数十年の売買上の功の有無はさておき、四五年白糸の売買を一人で担当し、広く開いた者をば、功はお取り上げなされず、いたずらに借金ばかり背負わせて、生きていけないようにしてはならないのではないのでしょうか。深くお考えくださって、売買も取り続くようになさり、売買に励んでいる者の身を保つようにしてください。追って、下送した四十余称の白糸の売込みの便りを承りましたところ、さらに途方もございませんで、お便りする言葉がございません。弘記■■等の白糸は中にお定めになる白糸とは異りまして、上にお定めになる白糸でございませんで、ぜひとも中にお定めになさろうとなさるならば、あるいはかせ（束）ごとにでも選んで、若干お定めになることはありえましようが、十四称が中になりましたので、各人が中にお定めになった白糸の品位と比べてみれば、悔しく思っておりますことは、御推察に成れないはずがございませうか。斤両を申しまして、九十斤、あるいは八十九斤を下回ったことは前後にございませんでしたが、今回は八十七斤、あるいは八十六斤に計測されたものがございませんで、その間に、計りがあるいは壊れたからなのか、路中であるいは欠損したものがあつたからなのか、至る所に途方もないことがまことに多くございませんで、お伝え申し上げる言葉がございませんけれども、白糸一款を必ず大いにやりくりをなさってこそ、売買も続けられますし、私も身を保つことができましようから、おろそかに思召されず、深くお気遣いくださいませ。一つには皇暦の出銀が遠くないので、出銀の多少はまだ存じませんけれども、今年出給なさる辛亥年白糸代と今年の人参代は文書をお調べになればお分かりになりましようから、お便り申し上げませんけれども、私の帳面の内の庚戌条の人参代と糸代と辛亥年の人参代と子淳の帳面の内の庚戌条の未出給の分の銀数を抜き書きしてお送りいたしますので、お調べになればお分かりになりましようが、この銀、七千七百余両は去年の冬至行に支給し終えるべきものを今に至るまでくださらないので、七千余両の利子を無駄にその間に支払いましたので、斯様なことがどうしてありえましようか。残りの年につきましては心付も望みはいたしませんので、当然出給なさるべきものなりとも数をそろえて出給してくださることを願うばかりでございませんで。今回は公平の二文字を深く思し召しになつて、売買に尽力している者の身を保つことができ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一つには、今年の公木の手形は分給なさつたようでございませんけれども、公木の差し引き一款を走紗（ちりめん）と方紬（もんなし）でやりくりしようと思せられましたけれども、どのようになさいましたでしょうか、最終的に決まつたお便りをくださらなければ燕行のときに求めますので、急いで回答してください。鉄物のことは前にもお伝えしましたが、鑄錢は今年の十二月までにするようになつたので、来年はたとえ一万称が出たとして

も、無用のものになりますので、この訳を対馬島中に急いでお伝えになって、別貿易の二千称を今年の十一月内に全部出来すれば、売買にとても良いでしょうから、十分ご尽力ください。トタンは今回の謝行のときに求めますので、出来いたしましたら、すぐ下送いたします。来年の春、一代官様が出来なさるそうでございますが、出来なさいましたら、何事をおいても、(倭館へ)下ってまいりますので、嬉しくお目にかかりたく、心待ちにいたしております。限りはございませんが、ここまで。

【第43通】

이리 기별호옵기 엇더호오되 前頭 買賣를 곱히 넘너호와 덕스오니 商量(냥)호쇼셔
人蔘 心付호오시는 거시 뚝스오되 其宗은 有害無益호와 人蔘 갑시 점〃 [도]다 가
오니 彼此의 이런 해로운 일이 ■■ 人蔘

/50 : b/

心付을 아니 호셔도 被執數는 痘곰도 減호는 일이 업스올 거시니 今年으란 人蔘心
付을 말고 보쇼셔 人蔘心付를 아니 호오시면 결단호여 낫스올 거시니 僕도 十分 宣
力호여 優數 被執호리이다 俺이 느려 가오면 相議 變通호을 일이 잇스오니 그리 아
르쇼셔

【和訳】

このように、お便り申し上げますのは、いかがかと存じますけれども、これからの売
買を深く氣遣いまして、一筆啓上申し上げますので、ご賢察くださいませ。人蔘の心
付をなさることはよろしいのですけれども、その実、有害無益でございますので、人
蔘の値段が、だんだん高くなっていきますので、双方にとってこのような害になるこ
とはございません。人蔘の心付をなさらなくても、売込数は少しも減ることがありま
せんので、今年是人蔘の心付をお止めになってみてください。人蔘の心付をなさらな
ければ、収まって良くなるでしょうから、私も十分力を尽くしまして数多く売込いた
します。私が(倭館へ)下って行きましたら、相談してやりくりすべきことがござい
ますので、そのようにお心得くださいませ。

【第44通】

그 스이 더위 심호오니

僉公 平平호신 일 알고져 호오며 初一日 편지호여 一哉게로 전케 호엿습더니 보시
온지 그 후 느려가 屯너오자 호■■ 使道 所患이 一向呻吟{향신음}中 지내옵시기로
민망 극급히 지내옵

/51 : a/

기시나 느려가고져 호되 都中이 연고 이세라 호고 여러 기시를 거르오니 이 袞가
호 袞 급호은 袞오니 이런 마업스온 일이 [어이 잇]습 公木 手標란 거시 六七月 곳
지내오면 失時호는 거시 되여 凡事[에] 어긋나고 前頭의 그릇되는 거시온디 이런
마업스온 일이 업스오매 또 이리 덕스오니 이 片紙 보시고 即時 別開市 請을 호게

호쇼셔 실노 호는 일들이 寒心호여 뵈오니 마이업노이다 서울 기별을 듯즈오니 白
絲는 多少間 不久에 느러오게 되엇는가 시프읍고 秋蔘事도 大作호읍는가 [깃]브오
되 此處卜物을 못 기다려 步行이 느러 [왓스오]■ [必] 來日

/51 : b/

別市를 호게 호시고 手標을 別市日에 내게 호시고 [몬져] 기별호은 말씀들 범〃 싱
각지 마르심 브라노이다 무궁호어나 총〃 잠상

【和訳】

その間、暑さが厳しゅうございますが、
皆様方、ご平安の段、お伺い申し上げます。初一日にお便りいたしまして、（鄭）一
哉に伝させるようにいたしましたけれども、ご覧になられましたでしょうか、その
後、（倭館へ）下って行って来ようと思いましたが、東萊府使のご病気がひたす
ら呻吟なさりながら過ごしておられるますので、難儀してもどかしく過ごしており
ます。

開市にでも下って行こうと思ひ、商人たちが支障があると言つて、あまたの開市を欠
けさせましたので、この時が（まさに）一時の急なる時分でございますのに、このよ
うな途方もないことがどこにございましょうか。公木の手形と申しますものは、六、
七月をすぎさえしたら時を失うことになりまして、全ての事がくるいまして、先々間
違いになるものでございますが、このような苦しいことがございませぬので、また斯
様に一筆啓上申し上げますけれども、この手紙をご覧になって即時別開市の申請をす
るようになさる。實際、おこなつておりますことが危なっかしく見えまして、仕
方がございませぬ。ソウルの便りを承りましたところ、白糸は多少なりとも遠からず
下つて来るようになったようすでございまして、秋人蔘の事も大にいに働きましたよ
うすでございまして、ここの荷物を待ちきれず、飛脚が下つて来ましたので、必ず明
日別市をするようになさつて、手形を別市日に出すようになさり、先だつてお伝え申
し上げましたお話しを疎かに思召されませぬようお願い申し上げます。限りはござい
ませぬが、ここまで。

【第45通】

어제 편지호엿습더니 보오시니잇가 凡事에(밤스이) 僉候 平安호신 문안 아읍고저
덕스오며 僕은 어제 기다리옵다가 못 호여 어긔 [일]이 밧브오매 올라 왓습거니와
오늘 짐을 밧여 너일 새벽의 다들 발송호오매 時方 僉公겨서 넘녀호여 일즉 보내시
기만 기다리고 잇스오니 일즉 敏甫 朴判事의게로 내여 보내 오시믈 천만 밧즈오며
二百兩을 취와 주시면 더 싱

/52 : a/

광일가 브라오니 브디 낙막지 마르쇼셔 銀五十兩을 더 주시는 일은 그져 주시나답
지 아니호읍고 牛皮{우피} 넘자들도 본디 [상]놈이오라 욱된 일이 만스오매 하 붓
그럽스와 이리 기별호오니 도로혀 므음의 不安호여이다

【和訳】

昨日お手紙いたしましたがお読みになりましたでしょうか。夜の間、皆様方ご平安の段、お伺い申し上げ、一筆啓上申し上げます。私は昨日待っておりましたが、待ち切れず、ここ（東萊）の仕事が忙しゅうございますので上って参りましたが、今日荷物を担いで、明日の明け方に皆々発送いたしますので、ただ今皆様方がお気遣いくださって早くにお送りになることばかりお待ち申し上げますから、早く敏甫朴判事に出給して送って来られることを、なにとぞお願い申し上げます。二百兩を満たしてくだされば、さらに見目になろうかと願っておりますので、なにとぞ寂しくなさらないでください。銀五十兩をさらにくださるということは、ただくださるというのとわけが違ひまして、牛皮の持ち主たちも元々卑しい者でございますゆえ、屈辱なることが多くございますので、あまりに恥ずかしくて、このようにお便り申し上げますけれども、却って、心が不安でございます。

【第46通】

氣候 平安^{ᄃᆞᆫ}신 문안 아읍고져 ^{ᄃᆞᆫ}며 僕은 服制을 만나 出入지 못 ^{ᄃᆞᆫ}기로 어제
느려가읍들 못 ^{ᄃᆞᆫ}니 접〃^{ᄃᆞᆫ}며 角契 朴僉知의게서 편지 오읍고 보낸 것 잇스오
[매] 드러 보내오니 즈시 밧즈오쇼셔 편지 스연을 보읍시려니와 민망^{ᄃᆞᆫ}은 일이 잇
는가 시프오니 고견^{ᄃᆞᆫ}쇼셔 무궁^{ᄃᆞᆫ}어나

/52 : b/

잠상

【和訳】

ご機嫌うるわしくございましょうか、お伺い申し上げます、私は喪に服することになりまして出入することができなくなりましたので、昨日（倭館へ）下って行くことができませんでしたので、残念でございます。角の請負の朴僉知から手紙が届き、送ったものがありましたので、入送いたしますので、確かにお受け取りください。手紙の内容をお読みになるでしょうけれども、困ったことがあるようですので、ご高配のほどお願い申し上げます。限りはございませんが、ここまで。

【第47通】

부리신 사름 오〃매 밤스이
旅候 平安^{ᄃᆞᆫ}신 줄 아읍고 깃브와 ^{ᄃᆞᆫ}며 어제는 入館^{ᄃᆞᆫ}려 ^{ᄃᆞᆫ}습더니 飛船이 回泊
^{ᄃᆞᆫ}였다 ^{ᄃᆞᆫ}매 僉公겨셔 多事^{ᄃᆞᆫ}실 듯 ^{ᄃᆞᆫ}기로 못 드러 갓스오니 今日은 入館^{ᄃᆞᆫ}리
이다 韓主簿게로셔 下來^{ᄃᆞᆫ}은 被執 物貨도 마스^{ᄃᆞᆫ}썸(니) 잇스오니 僉公겨셔 本方의 모
드신 후 卽時 下人을 出送^{ᄃᆞᆫ}오셔 드러 가시게 ^{ᄃᆞᆫ} 僕도 기다리고 잇싸가 가져가신
후 드러가게 하엿스오니 [일]즉 ×시[○사]름 出送^{ᄃᆞᆫ}오쇼셔 贖物은 單子대로 맞져
보내오니

/53 : a/

즈시 밧즈오쇼셔 총망 잠상

【和訳】

お遣わしになられました人が参りましたので、夜の間
旅先にてご平安の段を承りまして、珍重に存じ奉ります。昨日は入館しようと思いま
したところ、飛船が回泊したと申しますので、皆様方が多事でいらっしゃるよう
ですので、(倭館へ)入って行くことができませんでしたが、今日は入館いたします。韓
主簿から下来いたしましたうりこみの物貨もたくさんございますが、皆様方が本方
にお集まりになった後、直ちに下人を出送いたしましたして、お運び入れなさるよう
にいたします。私も控えておまして、持って行かれた後、(倭館へ)入って行くよう
にいたしまししょうから、早くに人を出送なさってください。餞別の贈り物は单子(書付)
の通りに預けてお送りいたしますので、確かにお受け取りください。それでは、こ
こまで。

【第48通】

그스이

僉公 平安호신 문안 알고져 호오며 僕은 外感으로 呻吟호다가 痢疾을 어더 二三日
이 되여시되 낫지 못호니 민망호옵거버 公木 手標事는 不得已호여 百同을 쓸 곳이
이셔 [밧]습고 지내옵다가 이녁이 도로혀 거죽말호 사람이 되니 그런 慚然{참연}호
고 이런 민망호은 일이 업스오니 느려가[와] 이 민망호은 스연을 호오려니와 아모
리 호셔도 열동을 더 주셔■■■ 몸의 시비가 업게 되엿스오니 京 소식을 듯즈오니
■■■

/53 : b/

되는데로 모와 去二十五六日로 發送호렷노라 호[였]스오매 ■■■ 기드리고 잇스오니
느려오면 即時 弼별호을 거시니 그리 [아르]시려니와 秋蔘에 專力을 호와야 僉公
에게 尙光이 되[올] 썬 아니오라 今番 銀들이 녀〃 호여야 多少間 動得이 되올디 銀消
肖은 至今 漠然호옵고 昨는 秋蔘 賃得호기에 느저 가오매 두로〃〃 病中 深慮가 되
여 걱정의 일이 되여 가오매²⁹⁾ 來日 一哉를 下送호을 거시니 그 天銀事나 묻져 議
論호여 보시되 必〃 有煩히 말게 호쇼셔 마초와 어든 거시라 鯉魚 五尾 보내오니

29) この部分、「隣語大方」に対応するものである。「隣語大方」朝鮮刊本に次のようにあり。

「隣語大方」[朝鮮刊本:4:26b-27b]【第218条】

(日)此程都便が御座りました所に 人蔘もやふやく取集まして 近日内に送下さふと申て参ましたによ
り到来致ましたらば 早速御知らせ申ませふが 秋蔘を相働ましてこそ 御代官中にも御規模に成
ませふにより 彼是に付 銀貨が余計に御座りましたらば 多少の間致様も御座りませふに 銀子
の御左右は まだ知れませず 時節は秋蔘を求まするに後まして 氣遣まする儀が限も御座りませ
ぬ

(朝)요스이 京奇가 이시되 人蔘을 계요 收拾호여 近日間 下送호란노라 호연스오니 得達호오면 즉시
아르시게 호오려니와 秋蔘을 專力호와야 代官에게도 生光이 되올 거시오매 以此以彼の 銀貨가
넉넉호오면 多少間 動得이 되올디 銀 소식을 至今 邈然호고 昨는 느저 가오매 넘너가 적지 아
니 호외

십〃 ㅎ신디 판찬의나 ㅎ쇼셔 엇그제 右道에 大船에(二)

/54 : a/

隻이 블니다 ㅎ오니 그 비에나 鐵物이 나옵논지 朝廷으로서 極히 不美{미}히 아옵
셔 큰 시비가 낫다 ㅎ오니 右道船에 鐵物이나 아니 왓습거든 禁徒船 가옵논디 괴별
ㅎ여 밧비〃〃 드리와 急〃히 내게 ㅎ쇼셔 病이 나오면 卽時 ㄴ려가 이대히 말슴이
나 ㅎ고 오리이다

【和訳】

その間、皆様方、ご平安の段お伺い申し上げます。私は風邪で呻吟いたしております
うちに、痢疾を得まして、二三日になりましたが、治りませんので、困っております
す。この前の公木の手形の事は、やむを得ず百同を使うところがあつて、お願いして
おりましたところ、私がむしろ嘘をついた人になりまして、そのような気が重く、こ
のような困ったことがございませんので、下って行って、この困った事情を申上げる
つもりでございますが、何としてでも十同をさらにくださつてこそ、この身に叱りが
まいることがないようになるでしょうけれども、ソウルの便りを聞きましたところ、
できるだけ集めてこの前の二十五六日に発送するつもりだとのことでしたので、
■
待っておりますけれども、下ってまいりましたら、すぐにお知らせいたしますので、
そのようなお心積もりでいらっしゃいましょうけれども、秋の人参に力を入れてこ
そ、皆様方に見目になるのみならず、今回の銀が十分であつてこそ、多少なりとも身
動きができるようになるのですが、銀の消息は今に至るまで漠然としており、時は秋
の人参を仕入れるのに遅れてまいりますので、いろいろ病の中深くおもんばかりまし
て、心配事になってまいりますので、明日（鄭）一哉を下し送りますから、かの天銀
の事でもまずご議論になることと存じますが、なにとぞ煩わしくないようにしてくだ
さい。ちょうど手に入りましたので、鯉五匹を送りますので、何も無いときに、おか
ずにでもして下さい。おととい右道に大船二隻が漂着したそうですが、その船にでも
鉄物が出来しましたでしょうか、朝廷より極めて宜しからず思召されて、大なる叱り
がまいつたと申しますので、右道船に鉄物でも出来していないようでしたら、禁徒船
が行きますので、お知らせして急いで急いで、入つて来て、急いで出すようにしてく
ださい。病が治つたら、すぐ下つて行きまして、このあたりのお話でもしてまいりま
す。

【第49通】

數日間 日氣 猝然히 츄오니 平安 ㅎ읍신 문안 아옵고져 ㅎ오며 그스이 眼患은 엇더
ㅎ읍시니잇가 그 약을 [지]어 보내[쟈] ㅎ온디 졸연히 날이 칩습고 대풍이 부읍기
로 [거의를] ■[다] 업셔 거의를 잡지 못 ㅎ엿습기를 [못 지]어 보내■

/54 : b/

[이런] 섭〃 ㅎ은 일 업스오며 오늘라도 어■■이■■[로] 点烙 {점낙} ㅎ을 거슬 민
[도]라 보내려 ㅎ엿습더니 李引儀{니인의} ■셔 못 ㅎ을 줄노 니르읍시매 아니 ㅎ여

보내오며 오늘 李引儀 [느]려 가옵시니 必 豆흔 약을 상의하옵시믈 브라느이다 數
日間 뵈을 거시니 잠상

【和訳】

数日の間、天気が急に寒くなりまして、ご平安の段お伺い申し上げます。その間、眼
患はいかがでございましょうか。その薬を作って送ろうと思うのですが、急に天気が
寒くなりまして、台風が吹きますので、蜘蛛を探してもおらず、蜘蛛を捕まえること
ができませんので、(薬を) 作ってお送りすることができませんので、このような残
念なことはごとはございませぬ。今日にでも求めて■■点烙をすべきところ、薬を
作って送ろうとしましたが、李引儀ができないとおっしゃいましたので、作らずに送
りますので、今日李引儀が下って行かれますから、必ず良い薬を相談なさることを願
います。数日のうちにお目にかかりますので、ここまで。

【第50通】

卽惟{즉유} 秋風의 僉氣候 平安하옵신 문안 아옵고져 하오며 僕은 그스이 드러가
從容{종용}히 말슴이나 하올디 身有微[]{미양} 하야 出入을 못 하옵기로 오래 못
뵈오니 섭〃 하여 하오며 요스이 風勢不順하옵기로 銀飛船이 至今不來하오니 죽키
悶望

/55 : a/

들 하시리잇가 起仲 韓主簿{부} 거셔도 數日前 東萊々지 無事得達하엿스오니 깃브오
며 數日間 入館하시면 僉公겨셔도 반겨하실가 하옵느이다 僕은 今日이나 드러가와
반가이 보옵고져 하오나 病이 체 낫지 못하오매 드러가지 못하옵고 덕느이다 公木
事도 僉公겨셔 대스로이 녀녀하셔 더 顧見하렷노라 하시니 感謝하오며 今日스이 公
木 手標를 出給하실 듯 하오니 必 僕之名下로 十餘束{속}이 되게 善爲周旋하옵쇼셔
두어날스이 [드]러가 보을 거시매 총망 잠상

【和訳】

すなわちこれ秋風が吹く天気の中、皆様ご平安の段、お伺い申し上げます。私はその
間、(倭館へ) 入館してゆるりとお話でもすべきところ、体に病があつて、出入がで
きませんでしたので、久しくお目にかかることができず、残念でございませぬ。この
間、風の勢いが不順で、銀の飛船が今に至るまで参りませぬので、さぞかしお困りの
ことでしょうか。起仲韓主簿も数日前、東萊まで無事に到着なさいましたので、喜ば
しく存じます。数日のうちに入館なされば、皆様方も喜ばれるかと存じます。私は今
日にでも入館して、嬉しくお目にかかりたく存じましたが、病がまだ治っておりませ
ぬので、入館することができず、お便り申し上げます。公木の事も皆様方が大にお
気遣いくださいませ、さらにご高配くださると仰せられますので、感謝申し上げま
す。今日中に公木の手形を出給してくださるようですが、必ず私の名義として十束余
りになるようによろしくご周旋くださいませ。数日のうちに入館してお目にかかりま
すので、ここまで。

【第51通】

스이 兪公 氣候 平安호오신 문안 아읍[고져] 호오[며] ■■

/55 : b/

■■ 말씀호읍고 ■■■되 심[난]호읍 ■■ 이■■■■ 기별호을 말씀이 업늑이다
오늘도 日氣 돛스오 ■ 나오기를 祝手{축슈} 호고 잇늑이다 이라 心亂호은 가운데 오
날 食前의 戶曹로서 關文이 오온디 鐵物繼用을 못 호게 호여시니 나라 일을 이리
호고 어이 호렷는다 호고 都中을 [罪을] 주려 호시고 關文이 쏘 왓스오니 이런
답〃코 민망호은 일이 어이 이시리잇가 開市는 卞同知과 議論을 호오니 手本을 착
실히 호오면 明日 開市을 할 듯 호다 호오니 任官너의 請호여 일즉 手本을 호게
호쇼셔 호을 말씀 만

/56 : a/

스오되 대강 덕습늑이다

【和訳】

その間、皆様方、ご平安の段、お伺い申し上げます。■■申上げまして■■ですが、
心乱の至りでございますので、お伝えすることばがございません。今日も天気が良い
ので、出ていらっしゃることをお祈りしております。このように心が乱れている中、
今日朝食前に戸曹から関文が参りましたけれども、鉄物を引き続き用いることをでき
なくなさいましたので、国の事をこのようにしてどうするつもりかとして、都中を罰し
ようとなさいまして、関文がまた参りましたので、このようにもどかしくて困ること
がどこにございましょうか。開市は卞同知と議論をいたしますと、手本をしっかりとす
れば、明日開市を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と申しますので、任官方に要請して、早く
手本をするようになさってください。申し上げるお話は多いのですが、あらましまで
記します。

【第52通】

銀卜便의 편지는 보옵지 못호오나 전츠로 듯즈오니 平安호오시다 호오나 千萬 깃브
오며 貯積 卜物便 스연 편지[호]읍고 若干 表情之物이 잇습더니 答狀을 보옵지 못
호오니 섭〃호여이다 今番 出銀은 大抵 不足호을 줄은 짐작호여습던 거시옵거니와
이대도록 寧성호을 줄은 몰라습더니 都數四萬餘兩이 되오니 不足호읍기[는] 勢所固
然호오니 無可奈何 | [로]소이다 이리 덕스온■■ ■[見]호오시고 所[約] ■■■念
호오셔 三[十]■■은 [僕]■■[유][生]

/56 : b/

■■ 겨오시니 感謝■■■■ [다] 못 덕스오며 ■處 [보]■■給은 계유 호엿습거×시
[○니]와 이번쳐로 苟[艱]호여 지내■ 적이 어이 이시리잇가 今番 出銀이 都數 不
足호읍[기]로 凡事에 切迫호은 일이 만스와이다 今番은 形勢 이러호와 苟難히 지내
엿습거×시[○니]와 冬行의란 蓼絲價 다 [무즈]오시고 所約之物도 依約出給호오시
면 買賣의 萬分 多幸호을가 호늑이다 今年 被執 日기는 호여 보내여 겨[오시]매 즈

ならば、千里の旧情に対するがごとく、懐かしくて嬉しい■■■■。今回皇曆使の売り込み■■■■■■■■推察して知っていますので、旧情をお忘れでないことも忝く存じ奉ります。昔の手端が衰えておられますので、称賛申し上げます。限りはございませんが、ここまで。

【第53通】

僉公 平安호읍신 문안 아읍고져 호오며 僕は 泐셔[도] 느려 가올 거슬 意外에 병을 드오와 遠行이 어렵스어매 쉬이 못 느려 가오니 設〃호오며 이제는 병이 꽤히 낫스 왓스오니 未久에 느려 가오면 대되 반가이 覓오려니와 今番은 병도 드읍고 卒연 被執 물건도 만히 못 호오니 ㄹ

/58 : a/

음의 無顔{안} 호오며 今番 皇曆 出銀과 公木 手標는 卒시 맞스오나 上年 白絲 갑슬 出給호읍실가 브리습더니 白絲 갑슬 거론틀 아니호여 겨읍시니 그 曲折도 모로읍고 ㄹ이업스와 호오며 冬行의는 우수히 出給호읍실 줄 아읍거니와 冬行의는 僉公겨읍셔도 아버의 일을 矚각호읍셔 各別 顧見호오시믈 밋스오니 대되 의는 호읍셔 우수히 돌보오시믈 千萬 브라느이다 스연이 무궁호오되 書辭{셔스}中 지리호오와 잠 덕 느이다

【和訳】

皆様方、ご平安の段、お伺い申し上げます。私は、すでに（倭館へ）下って行くべきところを、存じよらず病にかかりまして、遠くへ出かけるのが難しいため、すぐ下って行くことができませんでしたので、残念でございます。今は病がすっかりと治りましたので、遠からず下って行きましたならば、皆様嬉しくお目に掛かりましょうけれども、今回は病にもかかりましたし、自然と売り込みの品物も多くはございませんので、心中面目なく存じます。今回皇曆使の出銀と公木の手形は、委細受け取りましたけれども、去年の白糸の代価を出給してくださるだろうと願っておりましたのに、白糸の代価はお取り上げになっておられませんので、その訳も分からず、途方もなく存じ奉ります。冬至行には数多く出給してくださるものと存じますけれども、冬至行には、皆様方もお父上様のことをお考えになって、格別にご高配くださることをお願い申し上げますので、皆々ご議論なさいまして、数多くお世話くださいますようなにとぞお願い申し上げます。お話しすることは限りはございませんが、手紙では冗長でございますので、ここまでいたします。

【第54通】

그스이 平安호읍신 문안 아읍고져 호오며 ■■■■■■

/58 : b/

■[오]시니잇가 李■■■■ 眼患이 셔러진 ■■■■[호오니] 깃[거]호시며 무×몽[○ 궁]호오며 이제야 다른 약을 議論호은[죽] 셔러진 當쳐{당處}를 [볼]과 말로 드름

과 다르오니 보고 약을 하면 도홀 줄로 하시매 그 말씀이 잘 생각하신 일이오매 밧
비 보시게 來日 草梁까지 내려 가시게 권하였스오니 或 多事하신 일이 겨오셔도 흠
새 草梁까지 나오셔 뵈오시고 약을 의논하옵쇼셔 무궁하오나 잠상

【和訳】

その間、ご平安の段、お伺い申し上げます。■■■■■でございましょうか。李■■
■の眼患が治る兆しが見えたと言いましたところ、（医師が）お喜びなのめならず、
今ようやく他の薬を相談いたしましたところ、治った患部を見るのと話で聞いたのと
は異なるから、見てから薬を作れば良いとおっしゃいまして、そのお話がよくお考えに
なったこととございますので、（医師に）取り急ぎ診察なさるべく、明日草梁まで
下っていくようお勧めいたしましたので、あるいは多事なることがおありになるとし
ても、一時草梁まで出て来られまして、（患部を）お見せになって薬をご相談くださ
いませ。限りはございませんが、ここまで。

【第55通】

氣候 平安하옵신 문안 아옵고져 하오며 昨日은 出銀하시노라 슈고 만히 하시니 즉
키 괴로와 지내여시[리]잇

/59 : a/

가 僕は 이제 드려 가옵고져 하오나 몸도 성지 못하옵고 雨中이오라 적어 괴별하느
이다 어제도 슬았습거니와 그 험은 맛지 아니하오니 今番의 畢給하오심 專恃하느
이다 明日 朝前の 上東萊하려 하오니 今日内로 下人하여 出送하오쇼셔 邑内로서 韓主
簿 書簡이 왔습기로 胎封{되봉} 入送하느이다 그 下人이 回答을 맞다 가려 하고 시
방 여긔 잇스오니 即時 回答하옵쇼셔 총망 잠상

【和訳】

ご機嫌麗しゅうございましょうか、お伺い申し上げます。昨日は出銀なさって、ご苦
労が多くございましたので、さぞかしお疲れでございましょうか。

私はこれから（倭館へ）入館しようかと存じましたけれども、体も健康ではなく、雨
の中でございますので、お手紙を書いてお伝え申し上げます。昨日も申し上げましたけ
れども、かの計算は合っておりませんので、今回に皆済していただきますようお願い
申し上げます。明日の朝食前に東萊に上るつもりですので、今日中に下人をして出送
せしめ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東萊府中から韓主簿の手紙が届きましたので、同封し
てお送り申し上げます。その下人がお返事をお預かりして（東萊府中へ）戻ると申し
ており、ただ今ここにおりますので、直ちにお返事くださいませ。まずは。

【第56通】

[近]間 秋炎의 旅候 平安하신 문안 아옵고져 하오며 僕[은] 憂[厄]{우익}이 둡■■
■■之年에 [重禍]罪[罰]{죄[벌]}하옵고 계유 生

/59 : b/

■■■■호와 [同]氣之■■■■ 나오니 이런 [マ傭]스[은] 情事 어[되] 잇스오리잇가 數日을 더 調治{치}나 ㅎ여 出任ㅎ오면 드리가 반가이 보오려니와 겨즘씨도 傳八公入歸時 부치은 片紙는 어너씨 回報가 오올년지 괴이 싱각ㅎ는 일이 잇스와 所懷을 불셔 의논ㅎ엿습거니와 卞判事國老도 迷兒을 일을 시기고져 ㅎ여 各別 고견ㅎ려 ㅎ을 쏘 아니오라 서울 親旧들이 迷兒兄弟을 일을 시기려 ㅎ는 공논이 잇스오니 今番 出銀에 크게 돌보셔 표가 잇습게 ㅎ여 주소셔

【和訳】

最近秋の暑さに旅先にてご平安の段、お伺い申し上げます。私は憂厄が■■■■の年に、重い禍の罪と罰を被りまして、ようやく生きながらえましたが、友人の■■■■でございますので、このような途方もない事情はどこにありますでしょうか。数日さらに療養いたしまして、出仕いたしますれば、(倭館へ)入館いたしまして嬉しくお目にかかりましようけれども、この前も伝八様が対馬へお帰りになる時、お届けいたしました手紙はいつごろお返事が参りますでしょうか、訝しく思うことがございまして、考えておりますところをすでにご相談いたしましたけれども、卞判事国老も倅に仕事をさせようとして、格別に顧みようとするのみならず、ソウルの友達が倅の兄弟に仕事をさせようとする公論がございますので、今回出銀の時に大いにお世話くださいまして、験があ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ませ。

【第57通】

開市後 數日間 僉候 平安ㅎ오신 문안 아옵고져 ㅎ오며

/60 : a/

거번 開市の 약간 鐵物은 내여 왓스오되 戶曹로서 공스도 엄준ㅎ옵고 本府 使道겨옵셔 各別 分付ㅎ옵시니 이런 惶恐ㅎ은 일이 업스와 실로 급〃 ㅎ여이다 飛船을 急〃 入送ㅎ여 철물 수이 나오게 ㅎ시물 專恃〃 ㅎ는이다 官家로서 落城宴을 今十八日 定ㅎ엿습고 巡使道도 ㄴ려 오옵시고 各邑 守令들도 만히 ㄴ려 오옵기로 生色{스닉}고져 ㅎ여 官家로서 都中の 分付ㅎ옵시고 이 等物을 어더 드리라 分付ㅎ옵시매 各種을 덕어 괴별ㅎ오니 갑슨 드옵는 대로 [沒]數賃得{물수무득} ㅎ여 今十七日 [맞쳐] 장만

/60 : b/

ㅎ여 주옵시물 千萬 밋즈오니 泛然[히] 生覺지 마옵시고 브되 [生]光ㅎ여 주옵시물 다시곰 브라ㄴ이다 其中的 酒品이 數多ㅎ오니 다른 되 업습거든 館守宅{관슈택}의 變通ㅎ셔도 必 宣力覓得{떡득} ㅎ여 주옵쇼셔 이 말슴을 後開市の ㅎ여도 ㄴ지 아니 ㅎ오되 官家 大事오매 미리 아ㄴ시게 ㅎ는이다 잠상

【和訳】

開市の後、数日の間、皆様方ご平安でいらっしゃいますでしょうか、お伺い申し上げます。

この前、開市にて少しの鉄物は出給していただきましたが、戸曹よりの公儀にて厳し

くございますし、東萊府使が格別に仰せ付けられましたので、斯様な恐惶いたすことはございませんので、まことに難儀しております。飛船を急いで対馬へお送りくださいますして、鉄物を速やかに出来す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ますようお願い申し上げます。官家より落城宴を今月の十八日に定めましたが、巡察使様も下って来られますし、各邑の守令らもたくさん下ってまいりますので、見目になりますように、官家より商人中に仰せ付けられまして、これらの品物を求めて献上せよと言い付けられましたゆえ、各種のものを書き送りますので、費用は要る分だけいくらでも、全数買い求めますので、今月の十七日に合わせて調達してくださいますよう、なにとぞお願い申し上げます。疎かに思召されず、なにとぞ見目にな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ますよう重ね重ねお願い申し上げます。その中に酒品が数多くございますが、他の所にないようでしたら、館守のお宅にやりくりなさってでも、必ず力を尽くして求めて得てください。このお話を後開市のときに申し上げましても遅くはないのですが、官家の大事でございますので、あらかじめお知らせ申し上げます。まずは。

【第58通】

덕즈오신 서찰 보옵고 년호여 平安호오신 문안 아옵고 깃브와 호오며 오래 보옵지 못 호오니 섭〃 호오며 眼患은 덤〃 나애라 호여 겨옵시니 그런 깃브온 일이 업스오며 기별호옵신 약은 쏘 지어 보내오며 썩러지은 후 부칠

/61 : a/

약도 지어 보내오되 이 약은 춤의 기여 부치라 호오니 그리호야 부치오쇼셔 公除 {モノイミ}가 初六日夕지오니 八日 기시부터 호게 되엿스오며 이제는 수이 보옵게 호엿스오니 든〃 호여 호느이다 슈박은 각〃 만히 보내옵시니 감사 만〃 호여이다 무궁호오나 잠상

【和訳】

お便りくださいましたお紙を拝見いたし、お変わりなくご平安の段承り、珍重に存じ奉ります。久しくお目に掛かることができなくて、残念に存じ奉ります。眼患はだんだん治ってきているとのお言葉でございますので、そのような嬉しいことはございません。お便りくださいましたお薬は、また作ってお送りいたします。眼の患部が治った後に付ける薬も作ってお送りいたしますが、この薬は唾で溶いて付けろとのことでございますので、そのようにしてお付けください。公除（物忌）が初六日までですので、八日の開市から行うこととなります。もうすぐにお会いできるでしょうから、心強く存じ奉ります。スイカは各々たくさんお送りくださいますして、まことに忝く存じます。限りはございませんが、ここまで。

【第59通】

平安호오신 問安 아옵고져 호오며 어제는 좋용히 말슴 못 호오니 至今 섭〃 호여 호오며 이번 鐵物事로 서울서 [긔]기옵는 경상{景像}을 칭각호오니 민망 답〃 호오를

다 기별지 못 호오며 僕의 名下 物貨 [被]執호[온] 거시 잇스오니

/61 : b/

多少間 [싸]히지 아닐 줄은 아오나 [必]의 [저] 지내여 주[게 호]오쇼셔 고견호오
시물 千萬 밋줍나이다

【和訳】

ご平安の段、お伺い申し上げます。昨日はゆっくりとお話ができませんでしたので、今に至るまで残念に存じております。今回鉄物の事でソウルにおいて邪魔が入りましたようすを考えますと、難儀しもどかしいことをお伝えし尽くすことができません。私の名義で物貨の売込をいたしましたものがございますので、多少に関わらず抜かすことはないとは存じますけれども、ご留意くださいますようお願い申し上げます³¹⁾。ご高配のほど、なにとぞお願い申し上げます。

【第60通】

두어날스이 僉公 귀운 平安호오신 문안 아옵고져 호오며 俺은 役事 始作호옵는 일
이 잇습기에 今日 早晨에 東萊 올라 가오니 섭〃호여 호옵너 어제 藤右衛門公 보올
제 내 스정의 말씀을 호옵고져 호엿습더니 민망호 大事에 말씀을 호옵기에 나의 私
事는 [넛]고 못 호엿스오매 서간으로 기별호옵너 東萊에 留宿호 집을 사오니 改筑
{기축}호 役事도 만코 客中 需用雜費{슈용잡비}도 許{허}

/62 : a/

多호온디 苟且호 일이 만스오니 極히 민망호오니 綿子 伍十部만 주시면 주변호가
싯브오니³²⁾이 스연을 즈시 一代官과 엿즈와 주시게 決斷호셔 回答호옵소 나는 常時
에 館中物[件]을 아모것도 내연간 것 업스니 맞즘 家舍買得之事로 苟且호오와 이리
기별호옵너

【和訳】

二日くらいの間、皆様方、ご平安の段、お伺い申し上げます。私は工事を始めることがございますゆえ、今日早く夜明けに東萊に上って行きますので、残念に存じ奉りませぬ。昨日藤右衛門様にお目に掛かりました時、私の事情の話をいたそうと思いましたが、難儀なる大事のお話をいたしましたゆえ、私の私事は忘れてお話できませんでしたので、お手紙でお伝えいたします。東萊に居住いたす家を買いましたの

31) 「[必]의 [저] 지내여 주[게 호]오쇼셔」の部分、意味不詳。仮に「ご留意くださいますようお願い申し上げます」と訳しておく。後考を待つ。

32) この部分、「隣語大方」のもとになった文例である。「隣語大方」朝鮮刊本に次のようにあり。

「隣語大方」[朝鮮刊本:4:24b-25b]【第215条】

(日) 近比東萊に居住致家を求まして御座れば 修理を致処も多御座り 旅宿の雑用物入も多御座りまして 差支まする事が多御座りまするにより 綿五拾本計御渡下被ましたらば 變通の致様も御座りまするから 皆様御相談被下まして 御取持下被まする様に御頼申まする

(朝) 요스이 東萊 留宿호 집을 사옵더니 修補호 役事도 만코 客中의 需用雜費도 許多호오와 苟且호 일이 만스오니 綿子 五十本만 주시면 周便호가 시보오니 모다 議論호시고 施行호심을 브라옵너

で、改築の工事も多くございますし、旅先での雑用物入も多くございますので、差支えます事が多くございますので、極めて困っております。綿五十本ばかりお渡しくだされましたならば、やりくりできるかと存じますので、この内容を委細一代官様へ申し上げてくださいますよう、ご決断くださいますして、お返事ください。私は常々館中の品物を何も持ち出したことがございませぬけれども、おりしも家の買入れの事で窮乏いたしておりますので、このようにお便り申し上げます。

【第61通】

첨후 평안하옵신 문안 아옵고져 호오며 어제는 요〃 하옵기로 잠간 다녀 오〃 니
 섭〃 하여이다 一代官 尊公겨오셔 入歸호오시는디 아모란 것도 情表호을 거시 업스
 와 섭[〃]하옵기로 약간 것 보내오니 드려 주옵시고 滄波{창파}의 [往返]{[왕]반}
 /62 : b/

을 平安히 호옵시믈 바라오니 問安하여 주옵쇼셔 무궁호오나 총망호와 잠

【和訳】

皆様方、ご平安の段、お伺い申し上げます。昨日は取り込んでおりましたためすぐに帰って参りましたので、残念でございました。御一代官様が入帰なさいますのに、何も贈り物としてあげるものがございませぬで、寂しゅうございますので、些細なものをお送りいたしますので、差し上げてくださいます。滄波（青い波）の中、往復をご平安になさいますよう祈念いたしますので、よろしくお伝えくださいます。限りはございませんが、ここまで。

【第62通】

日氣 向寒호오나 兪候 平安호오신 ×무[○문]안 아옵고져 덕스오며 저적 스×언[○
 연] 편지호엿습더니 보오신지 答狀을 어더 보옵지 못 호오니 섭〃도 호옵거니와 買
 賣間 書札로 往復호와 相議호옵는 일도 잇습고 서르 밋즈와 變通호옵는 道理도 잇
 습는디 答書을 一切 아니 호오시니 凡事의 答〃호오믈 어이 다 덕스오리잇가 듯즈
 오니 一代官公이 급거히 入歸호시다 호오나 冬行貨 形勢는 어이 되옵
 /63 : a/

는지 前頭 買賣는 冬行 銀貨 形勢의 들스오니 어이들 變通호오신지 念慮 아모라타
 업는이다 凡事를 各別 顧見호오시기만 바라옵거니와 今 冬行 姪子の 赴燕은 代官너
 친히 가시는 길이나 다르지 아니 必 汲히 녀녀호오셔 北京도 生色호옵게 留念호오
 시고 買賣 連續호을 道[理]을 泛然히 矜각지 마르시고 宣力호오심 千萬 바라는이다
 鑄錢은 卽今 始役게 되엿스오니 鐵物은 쓰는 길히 낫스오니 多疇호옵거니와 卽今
 在館호은 生銅數는 ×인[○언]마나 되오며 前頭 니어나올 道理를 矜각호오[셔야]
 호

/63 : b/

을 거시니 급히 이 事緣을 島中の 通호시고 鐵物 形勢[를] 밧비 회답호오쇼셔 明年

生銅 一千稱이나 수이 나올시 梁同知 다투러 가오니 相議호오셔 變通호오쇼셔 在館호
 온 鐵物은 내오실 제 優數히 留念호오시려니와 아직 出給지 마오시고 弔別을 다시
 기드리오셔 出給호게 호오쇼셔 茂助의 喪事는 하 驚慘{경참}〃호오니 무슴 말슴 덕
 스오리잇가 그스이 아들이나 나하습던지 참혹호여이다 무궁호오나 총〃 잠

【和訳】

天氣が寒くなりますけれども、皆様方、ご平安の段お伺い申し上げ、一筆啓上申し上げます。この前、事情を書いてお手紙いたしました、お読みになりましたでしょうか、返事を頂戴いたしておりませんので、残念でございますけれども、売買の間にてお手紙でやりとりいたしまして、相談することもございまして、互いを信じて融通する道理もございまして、返事を一切なさいませんので、全ての事においてもどかしいことを、どうして書き尽くせましょうか。承りましたところ、一代官様が急遽対馬へお帰りになったと申しますけれども、冬至行の物貨の形勢はいかがなりましたでしょうか、これからの売買は冬至行の銀貨の形勢にかかっておりますので、どのようにやりくりなさいますでしょうか、心配が何とも申しようがございせん。全ての事を格別にご高配くださることをお願いするばかりでございますが、今回の冬至行の甥の北京行きは代官様が親しくお行きなると異なりませんので、なにとぞ深くお気遣いください。北京も見目になりますよう、お気遣いくださいませ、売買を続ける道理を疎かに思召されず、ご尽力くださいますようお願い申し上げます。鑄銭は今作業を始めるようになりましたので、鉄物は用立てる道ができましたので、幸いです。今倭館にある生銅の数はいくらになりますでしょうか、これから取り続く道理をお考えくださらねばならないかと存じますけれども、急いでこの事情を対馬へご通知くださり、鉄物の形勢を急いでご回答くださいませ。来年の生銅一千稱なりとも速やかに出来いたしますれば、梁同知が下って行きますので、相談なさって、やりくりしてください。館にある鉄物は出給なさる時、数多くお気遣いくださるでしょうが、まだ、出給なさらないで、お知らせをまたお待ちくださって、出給するようにして下さい。茂助の喪事はまことに驚き痛ましく存じましたけれども、何の言葉を記し得ましようか。その間、息子でも設けられましたでしょうか、痛ましく存じ奉りませぬ。限りはございませんが、ここまで。

【第63通】

전후 스연을 僉前 書辭中 호엿스오니 대강 僕의 전

/64 : a/

후 스정을 아읍실 거시오매 情談을 기록호오니 보쇼셔 出銀後 즉시 드리하시렷노라 호오니 스정의 섭섭 결연호오되 僕의 일을 호양 별통호여 前頭 保存호을 일을 盡心 宣力호시을 듯 시프오매 泰山마튼 은혜를 님스올가 전혀 밋즈오며 디은보은{知恩 報恩}이라 호읍는 일은 自古로 덧〃호은 일이오니 어이 은혜을 모로오며³³⁾ 僕도 木

33) この部分、「隣語大方」に対応するものである。「隣語大方」朝鮮刊本に次のようにあり。

石이 아니오니 同甲이 드러가신 후라도 心각하옵는 일이 만스오니 各別하은 일을 心각하오셔 [지]휘을 하[시]거나 僕[드]

/64 : b/

러 變通 獻策을 하라 하시는 일이 잇스오면 기록하여 臨行의 드리고져 하오니 이 스연을 보시고 回答하시를 고디하오며 元間 公道로 니르와도 年久이 由公하은 사름의 일은 기우러져 가는 사름을 救援{구완}하여 내시며 前두 欸매을 크게 納속하여 가옵는 일이 公事의 올습고 私事로 니르와 同甲이 匹척 타국 ×시[○사]름이 오나 二十年 同苦 친구오니 欸드러 <又 欸들> 어 구하여 주시면 子孫의 陰德長遠하와 前두 福祿이 丘{구}山 兀즈을 거시옵 匹척 卒×소[○손]의 難忘{난망}之恩의 되 올 거시오니 欸히 心각

/65 : a/

하오셔 欸양 顧厚하여 주옵시믈 前히 欸즈오니 善處하쇼셔 欸무가 卽今 이리 와 잇습기는 前두 欸매을 大作復旧하고져 心 心각이 잇스오니 다시 欸번 보오믈 欸하오니 出銀後 欸용히 欸담하게 하옵쇼셔 말습이 疊〃하오되 欸식 欸난하여 大欸 欸스오니 相面 欸談하올가 하느이다

【和訳】

前後の事情を皆様充ての手紙の中で書きましたので、あらまし私の前後の事情はご存知でございましょうから、ざっくばらんなお話を書き記しますので、御覧くださいませ。出銀後、すぐご帰国なさるとおっしゃいますので、私情において残念でお名残り惜しゅうございますけれども、私のことを良いようにお取り計らいくださいませ、これからもたちゆくようにご尽力くださっているそうですので、泰山のごとき恩を蒙りましょうか、なにとぞお願い申し上げます。知恩報恩ということは古くから変わらないことですので、どうして恩を知らないことがありましょうか。私も木石ではございませんので、ご貴殿が帰国なさった後でも考えておりますことが多くございますので、格別なることを思召されて指揮をなさったり、私にやりくりの献策をしるとおつ

「隣語大方」[朝鮮刊本:4:25b-26a]【第216条】

(日)承ますれば 出銀後御帰国なさる〃そふに御座るから 心中に最残多存知まする 今日御隙で御座らば御咄でも申ませふと存て 参ましたれ共其様に御取込で御座るにより 其内又御見送り相兼参らまして 御物語申ませふ

(朝)듣스온즉 出銀 後에 欸 還州하시리라 하오매 私情의 더욱 缺然하오와 欸날은 欸용하실 줄 아옵고 欸스오되 欸리 欸欸하시매 欸 스이 欸시 拜別 欸하여 欸러와 欸懷를 欸敍할가 하옵너

「隣語大方」[朝鮮刊本:4:26a-26b]【第217条】

(日)先比より折〃申まする事は 何卒宜御變通被成まして 先〃相保まする様に 御力を尽被下されまして 重御恩をほどこされましたら 恩を知て恩を報と申ことは 古より定た事で御座りまするにより 何しに御恩を忘ませふか

(朝)거번부터 欸縷히 하옵는 欸일은 欸모쵸로나 欸欸變通하오시고 欸頭支保하게 欸心 欸力하오시고 欸山 欸하 欸恩를 欸히하시면 欸知恩報恩이라 하옵는 欸일은 欸自古로 欸欸하은 欸일이오니 欸어 欸스을 欸고

しゃることがあれば、記録して臨行に入れようと存じますので、この内容をご覧になってお返事くださることを心待ちにいたしております。すべて公道から申しまして、年久しく公務にたずさわりました人のことは、落ちぶれていく人を救い出して、これからの売買を大いに引き続いていくようにすることが公事において尤もでございますし、私事から申しまして、ご貴殿とはお互いに他国の人間ではございますけれども、二十年同じく苦勞した友達ですので、お受け止めになってお救いくださいませ、子孫にも陰なる徳行が長遠でございまして、これからの福祿が山のごとくでございましょう。お互いの子孫にとりまして忘れ難き恩になりましょうから、深くお考えてください。特別に厚く顧てくださることを、なにとぞお願い申し上げますので、よしなにお取り計らいくださいませ。友がただいまここに参っておりますのは、これからの売買を大いに復旧しようという考えがあるためですので、もう一度顧みてくださいますようお願いいたします。出銀の後、ゆるりとざっくばらんにお話くださるようになしてください。話がたくさんございますけれども、心が乱れまして、あらましかけ書きますので、お目にかかってざっくばらんにお話しようかと存じます。

【第64通】

拜別之後에 日寒[漸]緊{점긴} ㅎ오니 僉公 旅候 平安ㅎ읍신 문안 아읍고져 ㅎ오며
僕은 서울 드러오온 후 즈연 多事ㅎ읍고 蔘도 収合ㅎ여 가려 ㅎ읍기에 여러 날 遷
延ㅎ읍다가 오늘이야 離發ㅎ여 ㄴ려

/65 : b/

가오되 實五十餘斤과 若干 物貨을 가지고 가읍드니 드러가올 日字을 헤아리오니 今
番 節行 出銀을 來初三日市에 내게 ㅎ읍쇼셔 ㄷ즈오니 卞僉知와 梁同知도 슴을 優
數히 ㅎ여 가느가 ㅅ브오니 ㅅ브와 아르시게 步行 보내ㄴ이다 무궁ㅎ오나 수이 ㅅ
올 거시오매 대강 덕ㄴ이다

【和訳】

お別れいたしました後、寒さが次第に厳しくなまってまいりましたが、皆様方、旅の中、ご平安でいらっしゃいますでしょうかお伺い申し上げます。私はソウルに帰って来ました後、自然と事が多くて、人参も取り集めて行こうと存じますので、何日も遅延いたしておりましたが、今日ようやく出発いたしまして（釜山へ）下って行きますが、実に五十斤余りと若干の物貨を持って行きますけれども、（倭館へ）入館する日付を計算してみましたところ、今回の節行の出銀は来る初三日の市に出給す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承りましたところ、卞僉知と梁同知も人参を数多くととのえて行くようですので、喜ばしく思召されますよう、飛脚をお送り申し上げます。限りがございませんが、すぐにお目にかかるかと存じますので、あらましのみ記します。

【第65通】

밤스이 平安ㅎ신 문안 아읍고져 ㅎ오며 卞僉知 人蔘이 今日 早〃 入來ㅎ다 ㅎ고 사

름이 왓스오매 卽今 東萊로 올라 가옵거니와 一時 밧긔 두옵기 極難호오니 來日 別市호을 手本 任官너게 日卽 귀별호시고 都中에도 편지호

/66 : a/

오시되 大事 相議호을 줄로 片紙 일즉 호쇼셔 卞僉知 片紙 즈시 보시고 二代官긔 다 호쇼셔 卞僉知도 公만 專恃호오니 믹스의 公이 극녁호시고 人蔘도 잘 보셔 극녁호시면 不久에 卞僉知 오〃면 僕의 다 호을 거시니 범〃히 구지 마옵쇼셔 僉中에도 편지호오니 모다 안즈시고 말슴 各別히 호여 주쇼셔 專恃〃〃 호옵너 來日 別市호오면 또 보을 거시오니 긔치옵

【和訳】

夜間、ご平安でいらっしゃいましたでしょうか、お伺い申し上げます。卞僉知の人蔘が今日早々に入来すると申しまして、人が参りましたので、ただ今東萊へ上って行くのですが、一時でも外に置いておくのは極めて難しゅうございますので、明日別市をする手本を任官方に早く連絡なさいまして、都中にも連絡なさるのですが、大事について相談する旨お便りを早くなさってください。卞僉知の手紙を委細ご覧になって、二代官に全てお話してください。卞僉知もご貴殿のみを頼りにしておりますので、あらゆることにご貴殿が力を尽されまして、人蔘もよくご覧になって、力を尽してくだされば、久しくない内に卞僉知が参りましたら、私に全て話しますので、疎かになさいますように。皆様方にもお便りいたしますので、皆お座りになって、お言葉を各別になさってください。専ら頼りにいたしております。明日別市いたしましたら、またお目にかかりますので、ここまで。

【第66通】

歩行便에 편지호여 一哉게로 傳호게 보내엿습더니 보온지 구후 消息을 모로오니 初寒의 僉客裡 平安

/66 : b/

호신 일 아옵고져 호오며 드르니 一代官겨셔는 든니라 드리 가시다 호옵더니 卽今은 든너 나오시온지 듯즈오매 섭〃호오나 요스이 나오신다 호매 X가[〇각]별 든〃호와 지내느이다 僕은 그 일로 지금 결단을 못 호고 지내더니 本府와 巡營 査覈{사획}이 즈셔호야 수이 無事히 決斷이 되게 호여시니 념너 마르쇼셔 느려 가기는 뇌히며 卽時 썩나려 호거니와 圖書差使慰差備{도셔척스위츠비}로 느려 가려 호거니와 或 밧분 일이 이실 듯 시브오니 文書 보와 下去코져 호느이다 이 蔘은 今年 蔘價들이 比上年호면 每斤에 銀이 近十兩式이나 더 가오되 今年 蔘數가 略少{낙쇼}

/67 : a/

호매 僉公너겨셔도 민망히 너기실 거시오 이녁도 大端히 言約{언약} 호은 일리오매 爲先 六十三斤을 急〃 下送호오니 잘 잡으시고 必 今番 出銀에란 아모리 銀이 不足호지라도 今年条 蔘係價를 必〃 一分도 未盡케 마오시고 이 秋蔘價도 일즉부터 언약호은 일이니 必〃 다뭇자 내게 호시고 曆行時 心付도 잇습거니와 아모리 호셔도

今年부터는 一稱代 心付을 밋고 이시니 어긋나지 말게 하시믈 千萬 밋좁고 지내나
이다 탐〃 ㅎ오나 근치오며 대쇼 事緣 또 豆히에 덕엇스오니 모다 즈시 보시고 브
딕〃 〃 범〃 히 마르쇼셔 或 出銀

/67 : b/

못 밋쳐 가올 자라도 이 片紙대로 하시고 브딕〃 〃 十分 極力ㅎ쇼셔 수이 보올 거
시매 잠

【和訳】

飛脚便でお便りいたしまして、鄭守鍼(一哉)より伝えるように送りましたけれども、
ご覧になりましたでしょうか、その後便りが分かりませんので、初寒に客地にて皆様
方ご平安の段、お伺い申し上げます。承りましたところ、一代官様におかれては(対
馬へ)一時ご帰国のため入帰なさったということでしたが、只今は行って戻ってこら
れましたでしょうか、承りまして心残りに存じておりましたけれども、この頃(倭館
へ)出来なさったと申しますにより、格別心強く存じ奉ります。私はかのことで今も
決断がなりませず過ごしておりますけれども、本府と巡營の事情の調べを確かにして
こそ、すんなりと無事に決断がなりましようから、心配なさらないでください。(倭
館へ)下って行くのは너히며³⁴⁾直ちに出發しようとは思うのですが、図書参判使の慰
差備として下って行くつもりなのですが、あるいは急な用事があるようですので、文
書を見てから、下って行こうと存じます。この人參は、今年人參の値段が去年に比べ
れば、斤ごとに銀が十兩ずつ近くも高くなりましたので、今年人參の数が少なくなり
ましたので、皆様方も困ると思われるでしょうし、当方もかたく約束したことでござ
いますので、まず六十三斤を取り急ぎ下送いたしますので、ご査収くださり、なにと
ぞ今回の出銀には、いくら銀が不足しているといっても、今年条の人參と糸の代価銀
を、なにとぞ一分も欠けることのないようになさり、この秋の人參の代価銀も、早く
から約束いたしましたことでございますので、必ず必ず全て合わせて出給してくださ
り、皇曆の使行の時の心付もでございますけれども、なんといたしましても今年からは
一称代心付をお願い申し上げますので、違わないようにしていただきますよう、なに
とぞお願い申し上げます。탐〃 ㅎ오나³⁵⁾ここまでにして、大小もろもろの事情をまた
紙に記しましたので、全て確かにお読みになって、なにとぞ疎かになさらないでくだ
さいませ。もしも、出銀に間に合わずに行くことになりましても、この手紙の通りにな
さって、くれぐれも十分ご尽力のほどお願い申し上げます。すぐにお目にかかります
ので、ここまで。

【第67通】

初寒의

僉尊 氣候 平安ㅎ읍신 문안 아읍고져 덕스오며 이리 덕스와 편지ㅎ읍기 無顔ㅎ읍기

34) 不詳。「大変で」の意か。後考を待つ。

35) 不詳。「話は尽きませんが」の意か。後考を待つ。

莫甚^호오되 故情을 矜^호각^호읍고 冤痛情懷을 僉中의 白活{빅팔} ^호오니 同鑑{감} ^호오
쇼셔 비록 各在{각지} 他國^호엿스오나 誠信買賣相許{성신미매성허} ^호여 ^호읍는 일
이 彼此{피츠} 緣分{연분}이 深重^호읍고 情義且厚{차후} ^호일 矜^호각^호읍쇼셔 鄙{비}
가 自乙未^호今{즈을미금} 十七年 被執^호은 거시 白

/68 : a/

絲 物貨不計^호읍고 人蔘이 二千斤 尾蔘 九百斤 已上{이상} 三千斤이오니 買賣 宣力
을 어디^호까지 ^호엿습는니잇가 이러^호듯 ^호을 제 落本이 어디^호까지 ^호엿스오며 誠信 買
賣 立功{납공} ^호은 사^호람이오니 不祥^호은 情을 詳{상}明^호신 僉公겨오셔 寬恕^호여 보
읍쇼셔 累年 落本을 ^호읍다가 時運이 不幸^호여 上年 冬行 銀貨도 絶阻^호오매 物主
도 散心{산심} ^호여 卽今 掣肘^호여 이러 ^호읍고 비록 未収 잇다 ^호은들 인^호여 아니
갑스을 道理 어이 잇스을가 矜^호브오니잇가 至於人蔘 갑스 아니 다^호르오니잇가 如此
敗中의 蔘 갑스 出給^호읍시면 未収도 갑

/68 : b/

즈오며 千事 萬端의 救急을 ^호읍고 回蕪을 ^호을가 大旱{대한} 雲霓{예} 又^호치 大望^호
읍더니 千萬 意外의 已爲出給銀貨을 還入을 ^호시다 ^호오니 古今의 업슨 일 아니
니잇가 凡世上 人事가 彼我國 잇습^호이다(니잇)가 聰敏{충민} ^호신 僉尊겨읍셔 明
察^호여 보읍쇼셔 還入一節로 四方의 弊弃{폐기}人이 되어 容身을 못 ^호여 죽게 되
엿스오니 到此死境{도츠스경}之人을 愛之憐之{이지년치}<^호셔> 萬一救活則 未収도
쉬이 ^호여 갑습고 人命이 또^호은 保存케 되어스오니 深思^호여 보읍쇼셔
一代官 尊公겨읍셔 寬量^호신 積大德으로 殘命을 救

/69 : a/

活^호읍시면 鄙의게 千幸 萬幸 再{지}生之恩德이읍고 諸人이 心情의 感祝^호여 買賣
有益^호읍고 勘定所 아읍신들 鄙의 買賣有功^호은 줄을 아읍시고 아니 不祥이 아읍시
리잇가 말슴을 편지에 다 못 ^호오니 梁同知가 아니 事勢人情을 듯즈와 보시고 僉
尊겨오셔 大義을 覘^호실가 大望^호는^호이다 총망 잠상

【和訳】

初寒に、皆様方、心身ご平安の段、お伺い申し上げます。このようにお手紙いたしま
すのは、恥ずかしきことこの上ございませんが、昔からの厚い情を思召されて、悔し
い気持を皆様方に陳情申し上げますので、ご省察くださいませ。たとえそれぞれ国は
異なりましても、誠信の売買として互いに許し合ってとりおこなうということとい
うのは、かれこれ深長なるわけがございまして、心と義理もまた厚くすることをお考え
くださいませ。私めが乙未³⁶⁾から今まで十七年間被執(売込)いたしましたのが、白
糸・物貨を問わず、人蔘が二千斤、尾参九百斤、以上三千斤でございまして、売買
に力を尽すことをいかほどいたしましたでしょうか、これほどいたします際には、損
失がいかほどございましたでしょうか、誠信の売買に功を立てた者でございまして
で、気の毒なる内情をご明察の皆様方におかれては、ご寛恕をお施しくございませ

36) 正徳5年(1715年)を指すと考えられる。

幾年も損をいたしてまいりまして、時運不幸にして、去年の冬至使の銀貨も絶えてしまいましたので、物主（資金の提供者）も心が離れてしまいましたので、只今妨げが多くてこのようではございますけれども、確かに未収があると申しまして、後で返さない道理がどこにございましょうか。人参につきまして、値段の変動がないわけがございません。このように損失を被りましたときに、人参の代価（人参代往古銀）を出給してくださいますれば、未収分も返しまして、千事万端すべての急を救いまして、生き返りましょうかと、大日照りに雨が降る兆しのよう、大いに望んでおりましたところ、千万存じよらず既に出給した銀貨を還入（回収）なさるといので、古今に無いことではございませんか。全ての世の中の人事が、かれこれお互いに国があることではございませんか。賢明なる皆様方におかれましてはご明察くださいませ。還入（回収）の一節により、四方に弊弃人（捨てられた人）になって、身を保つことができなくて、死ぬでしょうから、このように死に瀕した人を、哀れに思召されて、もしもお救いくださいましたらば、未収分もすぐに返しますし、人命がまた保たれましょうにより、深くお考えくださいませ。

一代官様が、寛大をお施しく下さいました重ね重ねの大徳により、残命をお救いくださいますれば、私めにとりましては千幸万幸の命を救ってくれた恩と徳であり、諸人が心情に感じ祝して、売買に有益でしょうし、勘定所がお知りになったとしても、私めが売買に功有ることはご存知でございますし、不憫に思召されないはずはございません。お話を手紙にすべて書き尽くせませんので、梁同知が心得ておりますので、事勢人情をお聞きくださいまして、皆様方が大義をお示しく下さいますよう、大望奉ります。まずはここまで。

【第68通】

僉尊候 平安ᄃᄂᄃᄃᄃ 問安 덕스오며 기시 날도 이 편 진정을 大槩 슬와습거니와 代官
中겨셔 今年 春夏間의 對馬島 黒角이 五千桶이 이시니 角契가 黒角 進上으로

/69 : b/

릭매 굿긴다 ᄃᄃᄃ 거시니 이 쎄을 일치 말고 被執을 녀ᄃᄃ 이 ᄃᄃ라 ᄃᄃ시매 일이 올
흐매 셔을 기별ᄃᄃ여 含錫 아오로 物貨 并ᄃᄃ여 萬兩將近히 드러습더니 設堂前{설영
전} 未収가 이실지라도 優數히 장만ᄃᄃ신 黒角을 음전이 내여 주실 듯 ᄃᄃ은 거슬
今年 여러 순 주신 黒角으로 니르와도 進上에 可合ᄃᄃ 黒角은 적습고 虫損{툇손}角
과 小角 小ᄃᄃ角이 만스오니 티부를 보습시면 아ᄃᄃ시려니와 이번 내온 黒角은 代官
中겨셔 품이 듯치 못ᄃᄃ 줄과 折價을 극진히 ᄃᄃ여 주마 ᄃᄃ여 계시거니와 黒角을 즈
시 보은 즉

/70 : a/

虫損角이 만습고 缺角도 만습고 大角이라 ᄃᄃ은 거시 大之次오 그 남은 거슨 中角이
오며 그 외ᄃᄃ 中角之次오니 이런 줄을 아ᄃᄃ시게 덕스오며 이 편이 부득불 올라 가
습거니와 明年 春등을 못 내여 가오니 셔을 가셔도 마이업스오니 이 스정을 代官中

뉴념호시면 角契가 보존호게 되엿스오니 善處호오심 卮라음 내〃 편안호쇼서

【和訳】

皆様方、ご平安の段、お伺い申し上げます。開市の日も、当方の実情をあらまし申上げましたが、御代官方が「今年春と夏の間に對馬の黒角が五千桶あるから、角契方（角の請負人）が黒角進上により売買に難儀していると言っていたので、この時を失わず売込を十分にせよ」とおっしゃいました故、事体ご尤もにございます故、ソウルに伝えまして、トタンと共に物貨を合わせて、一万兩近く入送いたしましたので、（開市の）設営前に未収があったとしても、数多く準備なされた黒角を大様に出してくださるべきところ、今年何回も下さった黒角から申しまして、進上に合う黒角は少のうございまして、虫損した角と小角と小々角が多うございますので、置簿（出納記録）をご覧になればお分かりになると存じますが、今回お出しになった黒角は、御代官方が「品質が良くないこと（を考慮するの）と、折価を丁重にしてやろう」とおっしゃっておられるのですけれども、黒角を確かに拝見いたしましたところ、虫損の角が多く、欠角も多く、大角と称するものが大の次であり、その残りのものは中角であり、その外は中角の次なので、このようなことをお知らせすべくお便りいたします。当方がやむを得ず（ソウルへ）上りますけれども、来年の春（の分）などを出していけませんので、ソウルに行っても困りますので、この事情を御代官方がお心にお留めくださいましたらば、角契方（角の請負人）が身を保ちましようにより、よしなにしてくださいますよう、お願い申し上げます。いつもご平安でいらっしやいますように。

【第69通】

그 스이 風日이 不順호온디 僉候 平安호오신 문안 아읍고져 호오며 거번 거시에 人 蔘 折價 文書을 내여 주오시매 올라 와서 보오니 하 落膽호오와 사름들이 保存호 /70 : b/

올 길이 업스와 싱각다가 못호여 文書와 스연 편지 호엿습더니 보×외[○와] 계읍 시려니와 僉公 生覺이 엿더호읍신지 이 일을 別樣 變通을 아니 호여 주읍시면 보존 호여 蔘매가 못 되올 거시니 十分 싱각호오서 諸人을 살나 내읍쇼서 求買 人蔘事로 歩行을 急送호여 二十五日 松都 드러 가오되 人蔘 形勢 어려운 일이 만스오되 求買 {구무} 호오신 거시라 掃除 萬事호읍고 各〃 들 求取호여 二十七日 松都로셔 發送호 오되 蔘數는 各별호 대로 오읍는가 [깃브]오되 서울 와서 納稅호기의 或

/71 : a/

遲滯호올가 넘너호오며 明日 開市 미쳐오오면 多疇호오려니와 或 遲滯호여 數日間 오읍게 되오면 來日 開市을 마음고 기다리게 호읍

【和訳】

その間、天氣が不順なところ、皆様ご平安の段、お伺い申し上げます。この前の開市に人蔘の折價文書を出していただきましたので、（東萊へ）上って参り拝見いたしま

したら、落胆の至りにて、人々が身を保つ道がございませんので、考えましたあげく、文書と事情をお便りいたしましたので、お読みになっておられるでしょうが、皆様方のお考えはいかがでございましょうか、このことをいつもと異って、やりくりを下さらないと、身を保ち売買することができませんので、十分お考えくださり、諸人をお救いください。貿易で求める人参の事で、飛脚を急送して、25日松都に入っていくのですが、人参の形勢が難しいことが多いのですが、貿易でお求めになったものですので、万事を差し置きまして、各々入手のうえ二十七日松都より発送いたしますけれども、人参の数はお便りした通りかとは存じますが、ソウルに来て納税するのに、あるいは遅滞するか、心配しておりますし、明日開市に間に合うように参りますれば幸いでございましょうけれども、もしかして遅滞して数日の内に参ることになりましたらば、明日開市をしなくて、待つようにいたしましょう。

韓牘集要 大尾

【資料編②】 韓語覚書

翻刻凡例：

1. 原資料には分かち書きが施されていないが、読解の便のため、現行正書法による分かち書きを施した。
2. 虫損等によって判読不能の部分は、「■」で示した。
3. 虫損等によって判読に疑いの存するものは、[]内に示した。また、判読の可能性が複数ある場合は、[/]のように示した。
4. 踊り字は「ㄱ」で示した。
5. 漢字の読み方などを当該単語の右側に付してあるものは、{ }内に示した。
6. 原資料のかな表記や漢字表記から推定される中期朝鮮語の形をハングルで示した。

/ 1 a/

- 001 天性 {テンセグ} 텃성¹⁾
鮮サムギン 세그프*미라
생긴 성품이라
和アタルセイホン也
- 002 ○終始 {チヨグシ} 종시
鮮ナシユグトロキラ 한 토퉈
내종도록이라 흥 뜯이라
和ヲルマテト云心也
- 003 終内 {チヨクナイ} 종늑
鮮チヨグ시 토퉈
종시 뜯이라
- 004 ○終日 {チヨクイル} 종일
朝ナ리 모쯔트로キラ 한 토퉈
날이 못도록이라 흥 뜯이라
和ヒヲヲルマテト云心也
- 005 終身 {チヨクシン} 종신
鮮모ム 모쯔트로キラ 한 토퉈
몸 못도록이라 흥 뜯이라
和ミヲヲルマテト云心也
- 006 ○將來 {チヤグナイ} 장러
鮮이프라 한 토퉈
이후라 흥 뜯이라
和코노노치ト云心也
- 007 當初 {타그소*} 당초
○소*이미라 한 토퉈
처음이라 흥 뜯이라
○하즈메ト云心也

1) 「ㄷ [yø]」가 [e] になる単母音化の例。南部地方であられる。

- 008 ○故爲 高위
○チムツ²⁾ ヌラ ハン トチラ
 짐짓이라 훈 뿐이라
- 009 貪慾 {タムヨク} 탐욕
○ヨクシムル 탐타 ハン トチ라
 욕심을 탐타 훈 뿐이라
- 010 ○彼此 {ヒ*ツサ*イ} 피츠이³⁾
○トヲツへ*ンニ라 ハン トチ라
 두 편이라 훈 뿐이라
○리야우하우트云心也
- 011 各各 {カク} 각각
○ソイコミ라 ハン トチ라
 제공이라 훈 뿐이라
○베치 ㄱ ㄷ 云心也
- 012 ○永永 {エエク} 영영
 치옥나이 토기라
 중늑 뿐이라
- 013 依據 {ウイコ} 의거
○쿨룰 우이치라 ハン 토치라
 그를 의지라 훈 뿐이라
○소레ヲ소마 [ㄱ] 다투云心也
- 014 ○依止 {우이치} 의지
○우이코 ㄱ ㄷ 토키라
 의거 뿐이라
- 015 衣前 {우이테*ン} 의전
○테*ン타이로란 마리라
 전대로란 말이라

2) 鼻音「ㄹ」の後であるため、濁音表記がなされている。

3) 漢字「彼此」は「피츠」に当たるものであるが、主格あるいは名詞を安定させる末尾の「이」が付いたものとみられる。

016 ○前例 {テ*ルレ} 전례
○テ*노이 레소란 마리라
전의 레스란 말이라

017 例事 예스
우그다גי 하논 마리라
응당 호는 말이라

018 ○右例 우례
노무이 레타이로 하논 마리라
눔의 레대로 호는 말이라

/ 1 b /

019 英敏 {엑민} 영민
鮮 니엑타 한 토퉈
영타 호 뜯이라
살코브타○스루코브타○사クタ⁴⁾
슬갑다 슬겁다

020 ○英邁 {엑마} 영매
鮮 에그민 토퉈
영민 뜯이라

021 伶俐 {네그니} 령리
○에그민 토퉈
영민 뜯이라

022 ○英悟 영오
○엑민 토퉈
영민 뜯이라

023 [倉]卒 {사*크소*랄} 창졸⁵⁾
○ムンド키란 토퉈
문득이란 뜯이라
○フトニワカノ心也

4) 不詳。

5) 宣賜內訓 1:17 [劉寬이 비록 倉卒에 이셔도:倉卒은 毘앗블시라] などの形で現れる。

- 024 ○卒然 {ソ*ルエン} 줄연
○ムンドク トギ라
문득 뜯이라
- 025 急遽 {ク[フ*]コ} 급거
○ムントギ라
문득이라
- 026 ○不意 {フ*ルウイ} 불의
○ムンドク トギ라
문득 뜯이라
- 027 不時 {フ*ルシ} 불시
○ムンドク 토키라
문득 뜯이라
- 028 ○忘靈 {マグネグ} 망녕
○ナヒ 마논 사라미 테*그신 람논 토텸라
나히 만흔 사름이 정신 업논 뜯이라
○トシイテホンシヤウナキヲ云也
- 029 忘發 {ماغ하*르} 망발
○フルシエ 마리나 이리나 쿨쯔한 고텸
불시에⁶⁾ 말이나 일어나 그릇흔 것이
○フジ니モノヲイハソコナイシソコナイ■心
- 030 ○非便 {히*쯔へ*ン} 비편
○맏타치야논 토텸라
맛당치않은 뜯이라
○쯔마라ヌト云心也
- 031 不當 {フ*타그} 부당
○히쯔へ*ン 토키라
비편 뜯이라
- 032 ○不便 {フ*르へ*ン} 불편
○헨안치 모쯔르타 한 토텸라

6) 單母音化した例[[ㄱ]→ㄴ]。

편안치 못홀타 ㅎ 뜬이라

033 不平 {フ*ルへ*그} 불평

○フ*ルへ*ン 토키라

불편 뜬이라

034 ○周便 {츠히*헨} 쥬편

○트로 츠히카이 한*헨 토키라

두로⁷⁾ 둥개 ㅎ*헨 뜬이라

○비야우투우요이야우니스*헨心也

035 順便 {시*헨*헨} 순편

○鮮 츠히*헨 토키라

쥬편 뜬이라

036 ○公便 {코*헨*헨} 공편

○코그드로이 헨*헨카이*헨*헨 한*헨 마리*헨

공도로이 편개*헨*헨 ㅎ 말*헨*헨

○로*헨*헨*헨*헨*헨心也

/ 2 a /

037 公平 {코*헨*헨*헨} 공평

鮮 코*헨*헨*헨 토키라

공편 뜬이라

038 ○濶手 {할*헨*헨} 활쥬

鮮 쏬*헨*헨*헨*헨*헨 쏬*헨*헨*헨*헨*헨 한*헨 토키라

손*헨*헨*헨*헨*헨*헨*헨*헨*헨*헨*헨 ㅎ 뜬이라

和 테비로이*헨*헨*헨*헨*헨心也

039 細手 {세*헨*헨} 세⁸⁾쥬

鮮 쏬*헨*헨*헨*헨*헨*헨*헨*헨*헨*헨*헨 한*헨 토키라

손*헨*헨*헨*헨*헨*헨*헨*헨*헨*헨*헨 ㅎ 뜬이라

和 테세바이*헨*헨*헨*헨*헨*헨*헨*헨*헨*헨*헨心也

7) 中世語に「두루」という単語があり、近世には「두로」という形であらわれる。

8) 単母音化した例。

- 040 ○公論 {コグノン} 공론
 ○ヲロミヤ クルン ゴスル カイツチャ シルノン トチラ
 옴⁹⁾며⁹⁾ 그른 것을 썩차 시루¹⁰⁾는 뜯이라
 ○リジヤヒシヤト云コトヲサトシワクル心也
- 041 公正 {コクジヤク} 공정
 ○コグノン トギ라
 공론 뜯이라
- 042 ○消息 쇼식
 ○クツテ*키¹¹⁾란 토チラ
 란 뜯이라
- 043 狼狽 {ナグバイ} 낭패
- 044 ○分明 {フ*ン메그} 분명
 ○ノンハ ハ*ルキン 토チラ
 논화 밝힌 뜯이라
 ○ワカチアキラムル心也
- 045 ○相左 {シヤグツ*아} 상좌
 ○ソロ ヲクンナ탄 마리
 서로 어긋나단¹²⁾ 말이
- 046 ○相違 {シヤグウイ} 상위
 시야クツ아 토기라
 상좌 뜯이라
- 047 ○迂濶 {ヲハル} 오활
 ○몰코 돌리카 라이ヲ브타 한 토チラ
 멀고 넓은이가 어이업다 혼 뜯이라
 ○トヲクヒロイコトカギリナイ心也

9) 陰母音(朝鮮語)가陽母音(日本語)に變る。

10) 시룬다: 争う(嶺南方言)。

11) 不詳。

12) 火砲式諺解16 [히여곰 서르 어긋나디 못히게 히고] の形で現れる。

- 048 ○荒唐 {ハグタグ} 황당
○シユシヤグハン トチラ
슈샹훤 뜯이라
- 049 丁寧 {テ*グネグ} 덩녕
○ウグダギラハン トチラ
응당이라 훤 뜯이라
○ヒツシヤウ心也キワムル心ツムル心
- 050 ○應當 {ウクタキ} 응당
○テグ넥 토키라
덩녕 뜯이라
○ホクボキ ○ハンドシ ○ビレン
[벽버기¹³] 반드시 필연
- 051 愁心 {スシム} 수심
○クンシミ ハノン 토키라
근심이 훤 뜯이라
○코кте*그
걱덩
- 052 ○嚴教 {ヲムキヨ} 엄교
○チヨグイシヤ 아라이 사롬케이 フ*ンフ*ハノン 토키라
덩의샤 아래 사롬게 분부훤 뜯이라
- 053 分付 {フ*ンフ*} 분부
○ウツ 사라미 하이נט[리]야 아ム 마리랏 니르논 고히라
웃 사롬이 하인들이야 아므 말이라도 니르논 것이라
- 054 ○指揮 {チファイ} 지휘
○イル 카라치탄 마리랏
일 마르치단 말이라
- / 2 b /
- 055 教授 {クイコル} 괴걸
鮮 츠브이크ワ¹⁴ 토키라

13) 同文類解下47[벽버기:一定]の形で現れる。

뜯이라

056 ○訓手 {フンシユ} 훈슈

鮮 ソヌロカラチタハントチラ
손으로 마르치다 흐 뜯이라

057 分別 {フ*ンベル} 분별

○네무니요한 트チラ
넘너흐 뜯이라

058 ○念慮 {네무니요} 넘너

鮮 フ*ンベル 토키라 ○코кте*그
분별 뜯이라 격덩

059 [周]旋 {■센} 쥬션

鮮 ヲリヨランイル〃 토에¹⁵⁾트로크 하논 트チラ
어려운 일을 되도록 흐는 뜯이라

060 ○施行 {시하גי} 시형

○노무이 지르논 일르〃 난나치 트/쯔/인논 이리라
늬의 니르는 일을 낫나치 듣는 일이라

061 生光 {사그쿠와그} 싱광

鮮 サロムル サロカイ ハノン コシラ
사람을 사르게 흐는 것이라
○ヲツコチヤハンコスルヲトツンコツトサ그쿠와키라
얻고져 흐 것을 얻어준 것도 싱광이라

和 ヒトヲタスクルヤウニスルモ生光モトメタカルモノヲモトメテヤルモ生光也

062 助辭 {즈소} 조소

鮮 マル〃 토프타 한 트チラ
말을 돕다 흐 뜯이라

和 コトハヲタスクル心也トリナス心也

14) 不詳。

15) 二重母音「니」의 우무라우트를示すものと見られる。

- 063 ○扶助 {フ*ツ*} 부조
 ○フ*チヨクハル モトイ ツノン コシラ
 브족홀 므딕 주논 것이라
- 064 扶持 {フ*チ} 부디
 ○켄도이타 한 토퉈
 건딤다 흘 뜬이라
 ○코타ユル心也모타ユル心也
- 065 ○侵虐 침학
 鮮 호*쯔사*이타 한 토퉈
 보채다 흘 뜬이라
 ○우쯔 사로미로시야 아라이 사로ムル 호*쯔사*이논 코시라
 웃 사름이로서¹⁶⁾ 아래 사름을 보채논 것이라
- 066 謀陷 {モハム} 모함
 ○아이미요한 사라ムル 마루〃 쯔자크하야 소*이イツ카이 한논 코시라
 익미흔 사름을 말을 조작ㅎ야 죄잇개 ㅎ논 것이라
- 067 ○毀謗 {ホイハ*グ} 훼방
 ○노ムル 코랴쯔ン마루〃 하야 호랴¹⁷⁾탄 마리라
 늬을 거죤말¹⁸⁾을 ㅎ야 헐¹⁹⁾단 말이라
 人ノコトヲウソ云テタラスコト
- 068 誹謗 {ヒ*ハ*グ} 비방
 ○사로ムル 호랴탄 마리라
 사름을 헐단 말이라
- 069 ○戲弄 {フイログ} 희롱
 소노로시야 사라ムル 호*쯔사*이논 고시라
 손으로서²⁰⁾ 사름을 보채논 것이라

16) 陰母音「ㄱ」が陽母音「ㄷ」に傾いたものと見られる。
 17) 釋譜詳節 9:15 [물읷 有情이 貪Ⴡ고 새옴블라 제 모뎀 기리고 ㄴ뎀 허러] などの形で現れる。
 18) 釋譜詳節 6:10 [거죤말 마름과] などの形で現れる。
 19) 「ㄷ」の前で終声「ㄴ」が落ちる。
 20) 陰母音「ㄱ」が陽母音「ㄷ」に傾いたものと見られる。

070 譏弄 {クイログ} 괴롱

○マルロシヤ サロムル ホ*ツサ*イノン コシラ
말로서²¹⁾ 사롬을 보채논 것이라

071 ○浮談 {フ*タム} 부담

○ドグダム シヤグトク
농담 상동

/3a/

072 虛言 {ホヲン} 허언

○コヲツンマリラ
거짓말이라

073 ○虛事 {ホソ} 허스

코ヲツク 코시라
거짓 것이라

074 依古 {ウイコ} 의고

セダイロラン トチラ
세딴로란 뜯이라

075 ○心亂 {シムナン} 심란

モヲミ ヲゾロブタ ハン トチラ
마슴이 어즈럽다 혼 뜯이라

076 磨勘 {マカム} 마감

○ヘエムル モツコ テ*ンジヤグハル モトイ ハン 마리라
험²²⁾을 몯고 던장홀 믯딕 혼 말이라
○サンヤウノシマイニヒキワタストキ云言也

077 ○背反 {ホ*イバン} 비반

○ヲニヤクハン トルル 헤*ント그하야 라쿤나논 곱시
언약혼 뜯을 변통하야 어긋나논 것이

21) 陰母音「ㄱ」が陽母音「ㄷ」に傾いたものと見られる。

22) 月印釋譜 7:45 [亡量애 헤물 그치들 몯하야] などの形で現れる。

- 078 倭音 {タチム} 다짐
 ○ソ*イイネ²³⁾ ソ*イメグル スアシヤ²⁴⁾ イル■■ン コシラ
 죄인의 죄명을 쓰어서(써서)일홈 [둔] 것이라
- 079 ○失信 {シルシン} 실신
 ビトン イル〃 ヲクンナノン コシラ
 믿은 일을 어긋나는 것이라
- 080 無信 {ムシン} 무신
 シヤグドク
 상동
- 081 ○無正 {ムテ*グ} 무정
 シヤグトグ
 상동
- 082 失期 {シルクイ} 실기
 ヲニヤクル イルタン マリラ
 언약을 잃단 말이라
- 083 ○失手 {シルシユ} 실슈
 アム イリラト クルツトエ²⁵⁾ノン コシラ
 아므 일이라도 그릇되는 것이라
- 084 [一]時 {■■シ} 일시
 ○ハム 타이
 흥 뻬
- 085 ○言約 {ヲニヤク} 언약
- 086 無狀 {ムサグ} 무상
- 087 ○偶然 {ウエン} 우연
 モツチヤラ ハン トチラ

23) 単母音化した例。

24) 陰母音「ㄱ」が陽母音「ㄷ」に傾いたものと見られる。カナ表記に語幹の「쓰」が残っている(쓰+어셔)。

25) 二重母音が単母音化する途中段階か(ㄱ → オ+エ)。

므처라 흔 뜯이라

088 擔當 {タムダグ} 담당

○ソンゾ 마쯔타 한 마리라

 손소 맛다 흔 말이라

○ワカテニウケヲウ也

089 ○蕩滌 {타그테*크} 탕턱

○シクタン 마리라

 씩단²⁶⁾ 말이라

○アラウ心也

26)씩다 : 現代韓國語の“씻다(洗う)”の方言(慶南, 河東, 梁山, 昌原, 昌寧, 固城, 宜寧)(出典: 增補韓國方言辭典1990)。